Everlasting Hope

written by DONG SUN LIM



QUMRAN
Publishing House

이 설교집은 한국 교계의 원로이시며 이민 교회의 산 증인이신 임동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의 관점에서 선포하신 것을 모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나 본질에 관하여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교의 소원에 초점을 둔 설교들입니다. 이 설교들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임 목사님의 목회의 근간이 바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의 관계가 깨어져 소외된 상태로 전락한 이 세상을 향해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끊임없이 계속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공평하고 완벽하게 지음을 받은 세상이 혼란과 부패와 부정으로 변질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시며 새로운 화목을 위해 몇 번이고 계속해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찾아오셨듯이,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신음하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 목사님의 사역에서나 이 설교집에서도 우리는 평범한 일상 생활에 삶의 의미와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 위해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신선한 만남을 가지실 것입니다.

미국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멀리서나마 바라다보는 임

This sermon collection of Pastor Lim, Dong Sun, senior in Korean churches and a living witness in Korean immigrant churches, is a collection of his preaching of God's Word proclaimed from the mission perspective. Rather than focusing on God's character or essence, these sermons focused on God's desire for missions. When we read his sermons, we can feel that the basic foundation of Pastor Lim's ministry is the biblical truth of 'the God who visits.' It contains the image of God who continues his labor to restore the relationship with the world that had fallen into the state of alienation, broken away from God in relationship.

Our God is the God who has made continual visits to the world dreaming the dreams of a new heaven and new earth for new reconciliation in spite of the fact that this world has been deteriorated in corruption and impurity, although originally created with beauty, justice and perfection! Just as God visited first the fallen Adam and Eve, He visited us through Jesus Christ while we were in agony under the burden of sin! By reading his sermons and through the pastor's ministry, we can meet this God who visits us continually to give us new hope and meaning of life in our daily lives. You will have a fresh and unexpected encounter.

As I consider Pastor Lim while I am teaching far away from him at a college in America, his ministry makes me

목사님의 목회는 이렇듯 선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이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만남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목사님의 한평생 사역이 보여주듯, 하나님은 그의 위로와 용기와 사랑이 필요한 그 어떤 이에게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얻은 기쁨과 환희를 나누기 위해 우리는 세상 각처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이 설교집을 통하여 보냄을 받았을 때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고 권고하십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과 함께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며, 우리를 보내셔서 사랑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초대하게 하십니다. 이런 선교의 하나님을 임 목사님은 이 설교집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008년 4월 1일

이 원 우 교수

칼빈대학교(미시건) 구약학 교수

realize that we are met by the God of missions, and now we are sent by that God for another encounter. The pastor's lifelong ministry shows that God sends us to someone who needs God's consolation, courage and love. We are sent to all the corners of this world in order to share the joy and delight that we received in meeting our God. When we are sent, Pastor Lim encourages us through his sermons with these words: 'Do not be afraid, Do not hesitate.' It is because the God who has been with Pastor Lim will be with us also.

The God of the Bible restores the broken relationship by visiting us first. He sends us to invite our brothers and sisters whom we cannot love or understand on our own. The sermon collection of Pastor Lim shows to us the God of missions.

April 1, 2008

Lee, Won Woo

Professor of Old Testament at Calvin College (Michigan)

머리말

교회 존립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입니다. 교회가 선교하지 않는다면 그 존립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인도 선교할 때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선교하지 않는 교회나 신자가 있다면 아직까지 성숙한 신앙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을 구원하는 방주입니다. 교회는 어두운 밤의 등대이며 환난 때 피난처입니다. 교회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의 방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들로 비유했고, 마지막 유언으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따라 교회는 선교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합니다. 선교의 중요성을 깨달은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자신들의 생명을 초개같이 버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함으로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 놓으므로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동역자요, 복음 전파의 긴박성을 깨달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와 선교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the existence of a church is missions.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without doing missions a church has no meaning for existence. When individual Christians are involved in missions, we can say that they are mature Christians. The churches or Christians that don't do mission work are difficult to be considered of mature faith.

The church is an ark that saves all peoples. The church is a lighthouse in the dark evening and a refuge. Only the church is an ark of salvation that saves the world. Jesus compared his disciples to fishers of men. His last words were "You will be my witnesses …… to the ends of the earth", for which purpose the church strives to do the work of missions and evangelism.

The church exists for the purpose of missions. The disciples who realized the importance of missions went out to the world, risking their lives as if a worthless thing, changing the history of the world through spreading the gospel to the ends of the earth. As a result they established the foundation of God's Kingdom. As coworkers of God responding to His call in this age, and as Jesus' disciples realizing the urgency for spreading the gospel, we must strive for evangelism and missions which are Jesus' Great Commission.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전도와 선교의 도전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설교집을 통해서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되고 전도와 선교의 새로운 능력을 받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설교집을 읽는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선교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집을 내도록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신 월드미션대학교 정봉모, 최근홍 이사님과 동양선교교회 정문섭 장로님, 추천의 글을 써주신 칼빈대학교 이원우 교수님과 정성껏 출판을 해 주신 쿰란출판사의 이형규 장로님과 모든 직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동양선교교회 온 성도님들과 나의 신앙과 신학의 결정체인 월드미션대학교의 교직원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8년 4월 1일

LA동양선교교회 원로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임 동 선

I have been challenged for evangelism and missions when I was listening to God's Word proclaimed on the pulpit. I think that through this sermon collection the readers would receive new power for evangelism and missions, new strength and energy in their difficult life situations by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t is my hope that all the Christians and the pastors who read this sermon collection would be blessed to own God's desire for missions as their own desire.

I express my sincere thanks to Jeong, Bongmo and Choi, Geunhong, Board of Trustee members of World Mission University, and Jeong, Moonseop, an elder at Oriental Mission Church, who made the publication of this sermon collection possible and gave me encouragement to Professor Lee, Won Woo at Calvin College who wrote the recommendation, and to Elder Lee, Hyungkyoo and all the staff at Qumran Publishing House for their great service to publish this book. In addition, to all the beloved members of the Oriental Mission Church, who are my joy and crown, and to the staff at World Mission University, the crystal of my faith and theology, I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April 1, 2008
Pastor of Los Angeles Oriental Mission Church,
President of World Mission University
Lim, Dong Sun

차 례

Contents

III. 교회와 부흥: 교회의 진정한 부흥

IV. 선교: 땅 끝에서 부르는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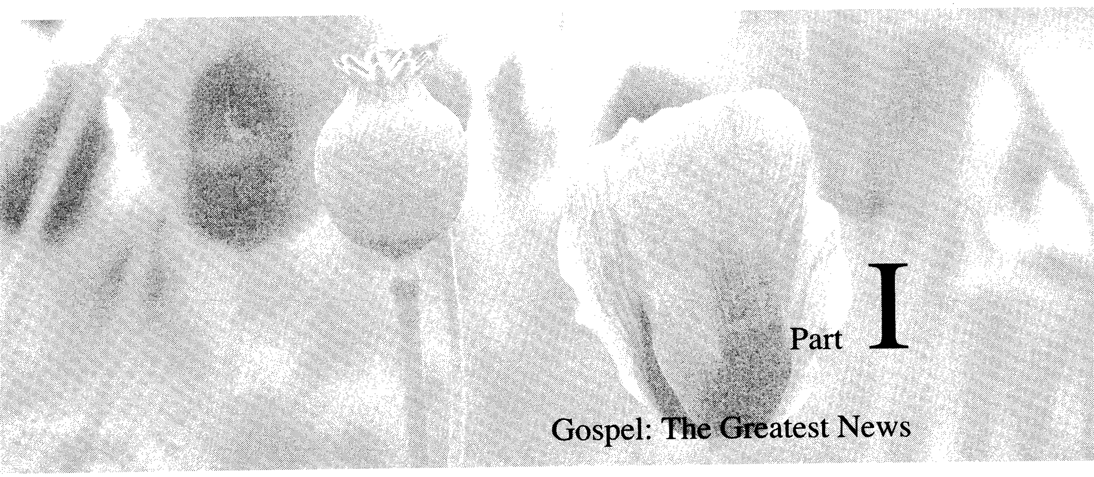
Part III Church and Revival: The True Revival of the Church

Part IV Mission: The Calling from the End of the Earth



Part I

복음 : 가장 기쁜 소식



Part I

Gospel: The Greatest News

가장 기쁜 소식



열왕기하 7장 1~10절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 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 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문둥이들이 진 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어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 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The Greatest News

2 Kings 7:1~10

Elisha said, "Hear the word of the LORD. This is what the LORD says: About this time tomorrow, a seah of flour will sell for a shekel and two seahs of barley for a shekel at the gate of Samaria." The officer on whose arm the king was leaning said to the man of God, "Look, even if the LORD should open the floodgates of the heavens, could this happen?" "You will see it with your own eyes," answered Elisha, "but you will not eat any of it!" Now there were four men with leprosy at the entrance of the city gate. They said to each other, "Why stay here until we die? If we say, 'We'll go into the city'—the famine is there, and we will die. And if we stay here, we will die. So let's go over to the camp of the Arameans and surrender. If they spare us, we live; if they kill us, then we die." At dusk they got up and went to the camp of the Arameans. When they reached the edge of the camp, not a man was there, for the Lord had caused the Arameans to hear the sound of chariots and horses and a great army, so that they said to one another, "Look, the king of Israel has hired the Hittite and Egyptian kings to attack us!" So they got up and fled in the dusk and abandoned their tents and their horses and donkeys. They left the camp as it was and ran for their lives. The men who had leprosy reached the edge of the camp and entered one of the tents. They ate and drank, and carried away silver, gold and clothes, and went off and hid them. They returned and entered another tent and took some things from it and hid them also. Then they said to each other, "We're not doing right. This is a day of good news and we are keeping it to ourselves. If we wait until daylight, punishment will overtake us. Let's go at once and report this to the royal palace." So they went and called out to the city gatekeepers and told them, "We went into the Aramean camp and not a man was there—not a sound of anyone—only tethered horses and donkeys, and the tents left just as they were."

주전 800년 전 이스라엘 나라의 사마리아 성이 강대국 아람 군대에게 포위당하여서 오랫동안 그 성 안으로 원군이나 양식의 수송이 두절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양식을 다 먹고 가축도 다 잡아먹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난 아이까지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옆집 아이를 잡아먹는 처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굶어 죽느냐 항복하느냐 하는 막다른 골목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 밖에 있던 네 문둥병자가 여기 앉아 있어도 굶어 죽고 성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것이니, 아람 군대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살려 주면 먹고 살고, 죽이면 죽으리라는 각오였습니다. 그런데 아람 진영으로 가 보니까 이상하게도 군대가 퇴각을 해서 그들이 두고 간 양식과 의복과 금은 보화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문둥병자 네 사람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나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지라.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떠나서 사마리아 왕궁에 와서 그 사실을 고했습니다. 임금과 백성들이 아람 진영으로 와 그들이 남기고 간 음식을 먹음으로 죽음 직전에 생명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신령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It was 800 B.C. when the city of Samaria in Israel was surrounded by the superior army of the Arameans, which caused all supply lines of supporting troops and food from outside to be cut off for a long time. The stored food ran out. People ate all the livestock. And the worst thing was that they even killed and ate their own children. Moving from house to house, people took turn killing their own children. It was an unspeakable tragic situation. People had no other options but either to die out of starvation or to surrender. People had no other options except dying from starvation or surrendering.

At that moment there were four men with leprosy who lived outside the city gate. They figured that since they were going to die out of starvation whether they went into the city or remained outside the city, they decided to go to the Aramean army. Their thought was that if the Arameans would allow them to live, then they would eat and live. But if they were killed, then they would die there. To their surprise, however, when they arrived in the camp of the army, they found nobody there except all the food, clothes, gold and silver that the army had left as they retreated earlier.

Thus, the four men with leprosy ate as much as they could. After they were full, they talked among themselves. "We're not doing right. This is a day of good news and we are keeping it to ourselves. If we wait until daylight, punishment will overtake us. Let's go at once and report this to the royal palace." So they left from the camp and returned to the palace of Samaria and reported all they had seen. The king and his people came to visit the camp and ate the food that the Arameans left, by which they were able to survive. Today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the grace of God based on this text with a message titled 'The Greatest News.'

첫째, 기쁜 소식의 내용입니다

아람 군인들은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남의 나라로 쳐들어가서 정복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승부는 이미 결정났기 때문에 개선장군으로 조국에 돌아갈 때 환영할 수많은 사람들과 훈장과 축하파티를 생각할 때에 그들은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일의 성사는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집을 짓는 자가 아무리 잘 지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헛것이고, 깨어 지키는 파수꾼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의 침략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의 양심이요, 국방이요, 요새라는 엘리사 선지자가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내일 황혼 때가 되면 너희가 양식을 먹으리라"는 엘리사의 선포를 들었을 때 장관 한 사람은 비웃으며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믿지 않는 그에게 "너는 음식을 보겠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에게 큰 병기 소리와 말 소리와 군대 소리를 내시자 그들은 모두 혼비백산하여 맨몸으로 국경을 넘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문둥병자들이 그 진영 가까이 가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음식을 잔뜩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기쁜 소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적군이 물러간 것이요, 또 하나는 먹을 양식이 그곳에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First, the Content of the Greatest News

The spirit of the Aramean army reached the sky. When they invaded a country, when they conquered the land, they became very proud. Because they thought the game was already over, they were excited as they imagined the homecoming parades and being saluted by millions of people, fancy medals of honor, and celebration parties all over the country. But the Bible teaches us, "In his heart a man plans his course, but the LORD determines his steps." The Bible teaches that unless the LORD builds the house, its builder's labor in vain. Unless the LORD watches over the city, the watchmen stand guard in vain. God was not pleased at the invasion of the Aramean army.

As you know, the prophet Elisha, known as the voice of Israel's conscience, the defense of Israel, and the fortress of Israel, used to live in Samaria. When he was praying, he received a revelation from God. "About this time tomorrow you will eat food." But one of the officers laughed at him and did not believe it. Elisha prophesized against him, "You will see it with your own eyes, but you will not eat any of it."

The LORD caused the Arameans to hear the sound of chariots and horses and a great army so that they fled out of the chaos all the way beyond the border, running for their lives. That is why when the four men with leprosy approached the camp they could not find anyone there. That's why they ate as much food as they wanted. And then they spread this good news to their people. There are two kinds of good news; first, there was the news that their enemy fled. Second there was the news that there was plenty of food.

항복이냐, 굶어 죽느냐 하는 막다른 골목에서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문둥병자 네 사람은 그 소식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놀라운 역사는 하늘에서 만들어 준 것이었습니다.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일으켜서 적군을 도망치게 한 것은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겸손하게 됩니다. 그때는 절대자를 찾게 됩니다. 고개를 위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장지가 없어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하면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앞을 보니 홍해 바다요 뒤를 보니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때 모세는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처해서 더 나아갈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땅의 어떤 세력에게 원조를 요청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도 인간이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불가능할 때에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쳐다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의로운 백성들의 요구를 외면치 않으시고 능력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죄 없는 죄인으로서 양손

To surrender or to die were their only options and that's when they heard this great news. But then who caused all this great news? The four men with leprosy simply delivered this news. The great news was all caused by God. We have to realize that it was God himself who caused the sound of chariots and horses and a great army so that the enemy would flee from the people of Israel.

We human beings become humble when we encounter a crisis situation where we can neither advance nor retreat. Then we look to the Absolute. Then we lift our eyes up. Then we search for God. Then God shows his mercy to us. When we look at chapter 14 in the book of Exodus the Israelites blamed Moses with complaints, saying, "Was it because there were no graves in Egypt that you brought us to the desert to die?" When the Red Sea lay ahead and the Egyptian army was chasing from behind, Moses did not rely on man but on God and said, "The LORD will fight for you. You need only to be still." That's how Moses prayed to God in heaven.

When we become helpless in an extreme crisis situation in which we face a dead end, it is useless to seek help from anyone in this world. It's because they are also limited human beings. Therefore, when facing an impossible situation we only have to look up to heaven. I believe that God does not refuse to answer the prayers of His righteous people who are repentant and instead He shows His hands of power and love.

In the book of Acts chapter 27, even though he was innocent, the Apostle Paul was chained both hands and foot. They found an Alexandrian ship and put him on board sailing for Rome through the Mediterranean Sea, when they all met a

양발이 쇠사슬에 묶여 저 로마를 향해서, 알렉산드리아 상선을 타고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다가 광풍을 만납니다. 광풍이 두 주간 동안 몰아치자 하늘은 구름으로 덮여 하늘의 달과 별들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낮에도 해가 보이지 않는 성난 파도에 배는 키질로 좁쌀 까부르듯 요동칩니다.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기진맥진해 옵니다. 그때 그 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학자도 있었습니다. 정치가도, 군인도, 실업가도, 뱃사공도 타고 있었습니다. 선장도 타고 있었습니다만 누구 하나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쇠사슬에 매어 있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배만 부서지고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무사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정신차리고 음식을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배는 난파되어서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들은 모두 무사히 육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전쟁, 혁명, 핵무기, 경제적 파탄으로 말미암아 다 어둔 구름 속에, 절망 가운데 있지만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나아갈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죄악의 사슬에 꽁꽁 묶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착하게 살지도 못하고, 원하는 선행도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람 군대를 쫓으시는 것처럼 죄를 쫓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신령한 양식을 풍성히 쌓으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둘째, 기쁜 소식을 전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great storm. The great storm hit their ship hard for two weeks, and the clouds covered the sky, and neither the moon nor the stars appeared. As grain is shaken in a sieve, the ship was shaken terribly. They had no food and they were tired to the point of death. There were so many people in the ship: including scholars, politicians, soldiers, businessmen, sailors and the captain of the ship. But there was no single person who spoke of hope in that situation. They lost the hope of being saved. At that moment, the Apostle Paul said, "Keep up your courage, men. I am a man of God. Not one of you will be lost. Only the ship will be destroyed." So he said to them that they should eat some food. In the end, even though the ship was broken to pieces, everyone reached the land safely.

Today the world is in despair because of wars, revolutions, atomic bombs, and economic crisis, but what's true is that when we look to God for help, who is in charge of history, He will show us the way to go.

When in the past we were bound by sin, which caused us not to approach God, not to live a good life, not to do good deeds, God, however, sent us Jesus Christ. Just like the scattering the Aramean army, he cast out our sins from us and instead He gave us freedom, abundant spiritual food stored for us, and gave it to us according to our own needs. How thankful we must be for God's grace.

Secondly, who were those who spread the good news?

Those who brought the good news were the four men with leprosy.

Nowadays when people get leprosy, they are sent to an

기쁜 소식을 전한 자들은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엔 문둥병에 걸리면 소록도같이 문둥병자들이 집단 생활하는 곳으로 보냅니다. 전염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 병원을 세웁니다. 거처할 처소도 마련해 줍니다. 그들의 자녀를 교육할 기관도 세웁니다. 국제 구제 기관에서 도와주고 또한 뜻있는 사람과 단체에서도 가끔 방문하고 도와줍니다. 그러나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 옛날 이스라엘 나라에서 문둥병자들은 집도 없었습니다. 병원도, 교회도 없었습니다. 국가예산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집에서도, 동네에서도 쫓겨나서 저 들판에서 사자와 늑대와 뱀과 같이, 짐승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문둥병자 네 사람은 부모 형제, 친구, 사회, 나라에서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배고픈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 앉아서 굶어 죽으나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서 맞아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니, 죽을 각오로 적의 진영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살려 주면 살고 먹을 것을 주면 먹겠다는 생각으로 아람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버림받은 몸들이지만 그들도 의식은 있었습니다. 인격의 존엄성과 국민의 자부심을 가진 그들이 적의 진영으로 들어갈 때 그들의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얼굴은 명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음은 기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먹어야 살기 때문에 서글픈 마음을 가지고 조심조심하면서 용기를 내서 적진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최전방 초소에 가도 아무도 없습니다. 감시병이 없습니다.

island called, "So Rok Do," in Korea where they have to live in a group of people with leprosy. It is to prevent spreading the disease. So a hospital was built on the island. Housing is provided for them and schools were built for the children. International aid organizations provide for them, and many people and organizations of good will visit them from time to time. But when we read Leviticus 13:46, men with leprosy in Israel did not have a home, nor hospital, nor church, nor social welfare. They were cast out, out of their own village, and had to live a wild life like lions, wolves, and snakes in the fields. They could not enter the temple either.

These four men with leprosy in our text were abandoned by their own parents, siblings, friends, society and country. But they can become hungry just like us. They were starving to death. That's why they figured that if they die at the hands of the Aramean soldiers or die out of starvation, it would be the same for them. But if the soldiers spare their lives when they go to the camp, then they would have a better chance to survive when they are given some food.

Even though they were abandoned by their families and society, they had this idea. Because they had this basic respect for human life and national identities, their walk toward the enemy's camp must not have been exciting. They must not have shown delight on their faces. They must not have been joyful in their hearts. But in order to survive, they had to approach the enemy's camp with careful steps and sad feelings. But to their surprise there was not a single soldier at the front watchtower. There was no one who watched them approach. The camps were still there, but no soldiers, generals, commanding officers, and captains were to be seen, and they had all retreated. They went into the tents there to

적진은 그대로 있는데 졸병이나 장군, 지휘관, 대장도 한 사람 없이 총퇴각했습니다. 그들이 큰 장막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는 먹을 것도 풍부하고 금은도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문둥병자들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먼저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먹고 나니 기운이 도는 것 같습니다. 정신이 번쩍 나는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 넷이서 한 말이 오늘 본문 말씀 9절입니다.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어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우리만 먹고 우리만 평안하고 우리만 기쁘고 만족하고 우리만 살면 되겠는가, 우리나라 백성들은 지금도 못 먹어서 죽고 또 죽기를 반복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가 날이 밝을 때에 우리가 발견되면 우리의 소행이 악하다고 말할 것이니 지금 가서 고하자는 것입니다.

밤에 사마리아 성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비록 몸은 문둥이입니다만 너무나 배가 고파서 아람 군대 진영에 죽을 각오를 하고 찾아갔는데 군인들은 아무도 없고 진영에 음식과 기물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먹었지만 지금 이 성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하러 왔으니 문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보초가 임금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그곳으로 달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신중론을 폈습니다.

임금과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은 성 안 사람이 아니었습다. 사회에서 가장 쓸모없다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그 백성과

see what's in them, just to find plenty food and gold and silver. The Bible says that they ate first to fill their stomachs. After eating they regained their strength. They came to their senses. After this they talked to each other, which is found in our text in verse 9.

"We're not doing right. This is a day of good news and we are keeping it to ourselves. If we wait until daylight, punishment will overtake us. Let's go at once and report this to the royal palace."

Is this right if only we eat; only we enjoy peace, only we are happy and satisfied; only we live? Knowing that our own people are dying out of starvation and they continue to die even at this moment, if we don't bring this good news to them, then we will be accused of wrong doing if we are found out by the next morning. Therefore we have to go and report to them now.

So they came back to their city and knocked on the gates of Samaria. "Who is this?" "We are Israelites. Even though we have leprosy, we had the courage to go to the Aramean camp risking our own lives just to find out that there were no soldiers at all there only food and armor. We ate first, but because we knew that there are many who are dying out of starvation in this city, we came to bring this news. Can you open the gates for us?" So the gatekeeper went to the king and reported this news to him. But the king didn't go down to the enemy's camp right away. Instead he carefully considered the situation.

The people who brought to him this good news were not from the city. But the very group of people who were abandoned and considered useless by the society brought this beautiful and joyful news in order to save the people and the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름답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정치 지도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교육가나 사상가나 모두 다 맥이 빠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발을 동동 구르며 속수무책이었는데, 버림받은 더럽고 흉측한 이 문둥이들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으니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에 비해 돈도, 학벌도, 사회적인 권력도 보잘것없지만, 오늘 이 절망에 빠진 인간들에게 기쁜 소식을 줄 사람들은 먼저 믿은, 보잘것없는 우리라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가졌습니다. 문둥병자들이 얼굴은 흉측하고 냄새 나는 인간이었지만 아름다운 소식, 값진 소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보잘것없지만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값진 소식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것은 문맹 퇴치, 인권 존중, 아동 보호, 노예 해방, 민주주의 사상 함양, 죄에서 구원하는 생명의 소식이니 우리는 이것을 가서 고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 했습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롬 10:14~15). 복음을 들고 이 집 저 집, 이 공장 저 공장, 이 거리 저 거리 찾아가는 발걸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옛날 토끼 한 마리가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길손들이

nation. All the people in despair including the political leaders, scientists, educators and philosophers became downcast. They were clueless as to how to start to escape from this dire situation, but they became even worse because this so called good news was brought to them by people with leprosy, the abandoned, the dirty and the ugly. Comparing Christians with non-Christians, we don't have as much money, education or social status as they have, but I have this godly pride that we are the ones who can bring the good news to the people in despair.

We do have this good news with us. Although they were ugly and smelly, the four men with leprosy were the ones who had beautiful and precious news. Although we are not great in nature, we do have the good news. This news is about literacy, human rights, child protection, emancipation, fostering democracy, and the life-giving news that saves us from sin. We have to go to them and report this news, and that is our responsibility.

Romans 10:13 says,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It continues, "How, then, can they call on the one they have not believed in? And how can they believe in the one of whom they have not heard? And how can they hear without someone preaching to them? And how can they preach unless they are sent? As it is written, '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ose who bring good news!' The feet of those who bring good news to this or that house, this or that company, this or that street.

Long ago a rabbit traveled to a deep mountain. Those who happened to pass by the path asked the rabbit, "Where are you going?" The rabbit answered, "I have heard that there are tigers, lions, bears and wolves living on the mountain, but

토끼에게 "어디 가오?" 라고 묻습니다. 토끼가 대답합니다. "듣자니 저 산 동네에는 호랑이도 살고, 사자도 살고, 곰도, 늑대도 산다는데 그들은 서로 물고 뜯고 잡아먹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착한 것을 교육시키러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 가면 사자, 호랑이 울음소리에 기가 질려 심장마비로 즉사할걸! 곰이 한번 치면 납작하게 되어 죽을걸, 굶주린 늑대가 잡아서 오드득 오드득 깨물어 먹을걸, 가지 마" 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토끼는 "그렇지만 가는 사람이 없으니 나라도 가야지" 하며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타락했기 때문에 호랑이처럼 포악하고, 사자처럼 아주 무시무시하고, 곰과 같이 미련하고, 또 늑대와 같이 약육강식합니다. 이런 호랑이 같고 사자 같고 곰 같고 늑대 같은 마음을 가진 인간들 속에 착한 마음을 심어 주시려고 토끼 같고 어린양 같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시다가 마침내 늑대에게 물리고 곰에게 찢겨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간다마는 너희들을 이제 세상에 보내는데 너희들을 내보내는 것이 어린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회는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행복, 더 많은 과학, 더 많은 인공위성을 필요로 할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도 영혼의 양식인 '복음' 이 더 필요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 땅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460년 페르시아 라레이오 임금이 군함 600척과 보병 10만 명과 기마병 1만 명을 거느리고 그리스의 국경

because they have tried to kill each other and eat each other, I am going there to teach them how to be nice and kind to each other." But they said, "If you go there, you will die from a heart attack because of the deadly cries of tigers and lions. If those bears pound on you, you will be knocked flat. Those hungry wolves would catch you and eat you piece by piece. So don't go there." But the rabbit said, "But since there is no one who goes there, I have to go." That's how the story goes. Because we human beings are also corrupted, we are as ferocious as tigers, we are as scary as lions, we are as stupid as bears, and we are as weak-to-the-wall as wolves. Isn't it true that Jesus came like a sheep or like a rabbit to this world, trying to teach good news to us although our nature was like that of tigers, lions, bears and wolves?

Dearly beloved! Jesus said, "I now return to the Father. Now go into the world. I am sending you out like lambs among wolves." Today our society might desire more materials, more freedom, more happiness, more science, more space shuttles, but I say that we need more 'gospel,' which is food for our souls. Amos 8:11 says, "when I will send a famine through the land? not a famine of food or a thirst for water, but a famine of hearing the words of the LORD."

2,460 years ago the king of Persia, Lareio with 600 war ships, 100,000 infantrymen, and 10,000 horsemen invaded Greece and attacked the city of Athens in Greece. Hearing this urgent news, the king of Greece ordered General Miltiades to fight against the enemy. General Miltiades recruited 10,000 young men with a burning passion of patriotism and they had a short training time, and then this Greek army went up to confront the enemy, the Persian army.

을 넘어 그리스 아덴 가까이 쳐들어갔습니다. 이 급박한 소식을 접한 그리스에서는 말티아데스 장군을 기용해서 적군을 퇴각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말티아데스 장군은 애국으로 피끓는 청년들 1만 명을 모집해 단기간 동안 훈련한 다음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치려고 나갔습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만난 곳은 마라톤 평야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싸웠습니다. 그리스의 1만 명 청년들은 그들의 등뒤에 있는 조국, 처자, 형제, 명예를 위해서, 정의와 자유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싸움은 치열해지고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피가 강같이 사방으로 흐르는데, 페르시아 군인들의 대부분은 죽고 나머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스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누가 가서 전할 사람이 없겠느냐고 말티아데스 장군이 물을 때에 한 청년이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청년은 페이디스라는 사병입니다. "제가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하고는 거기서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4만 2천 195미터를 뛰었습니다. 저도 100미터를 뛰어 보고 3천 미터도 뛰어봤습니다. 그러나 4만 2천 195미터를 뛰려면 얼마나 다리가 아프고 목이 타고 허리가 아프겠습니까? 마침내 이 청년은 불안에 떠는 그리스 시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고 열심히 뛰어서 성 안으로 들어가 외쳤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은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마라톤 경주는 이 청년을 기념하는 데서 태동한 스포츠입니다. 이 청년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빨리 조국에 전해주려고 그 먼길을 달려간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육신의 전장이 아닌 영혼의 전장에서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기 위

Where the Persian army and the Greek army met was called the field of Marathon. So they fought each other. The young men of Greece fought for their country, wives and children, brothers and honor, justice and freedom. The fighting became fierce, the dead corpses were piled up like a mountain, the flow of the blood became like a river and finally most of the Persian soldiers were dead and the remaining ones fled back to their country. The Greek army won the victory in the end.

When General Miltiades asked if there was anyone who volunteered to go and report this news, one young man stepped forward. The name of the young man was Philippides, a private in rank. He said, "I will go myself and bring this good news to our people." And he began to run from the field. The distance was 42,195 meters. I have run 100 meters and 3,000 meters as well. But if you have to run 42,195 meters, how much more pain would you have in your legs and stomach and how much thirstier would you be? But the young man's focus was to bring this good news to the people of Athens, who were full of anxious thoughts, and he went inside the city fortress, and he said, "Be joyful. The victory is ours." And then he collapsed and died. The marathon race has its origin in this event, remembering this young man. Just as this young man ran as fast as he could in order to bring the good news to his own people, we as Christians must be the runners of heaven in order to bring the good news of the 'gospel' not from the physical battlefield, but from the spiritual battlefield.

What was the response of the king who heard this good news from the four men with leprosy? The king carefully considered what they said. He thought it might be possible for the Arameans to use this strategy to ambush the Israelite

해 뛰어 나가는 하늘나라 선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둥병자들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은 임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임금은 신중히 이 사람들과 그 말을 검토했습니다. 아람 군인들이 무장하고 매복했다가 이스라엘이 들어갔을 때 전멸시키려는 작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당장에 적진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마병 둘과 군인 몇 사람을 정탐하라고 내보냈습니다. 임금이 그들의 말을 듣고 또한 그들의 불룩한 배를 봅니다. 문둥병자들을 보니 잘 먹고 기운이 넘쳤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인 복음을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려면 먼저 우리가 신령한 양식을 배불리 먹고 우리 눈동자, 얼굴, 모든 것들에 생기가 도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가 막스 뮐러의 《독일인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런 구절을 보았습니다. "부활절날 아침 십자가가 달려 있는 창문에서 내려오는 광선이 물결치며 약동하기 시작했다. 그 빛은 너무나 밝아서 바라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눈을 감았을 때 그 빛이 나의 영혼의 내부까지 스며들어와 내 속의 모든 것이 빛나고 향기로워지고 노래 부르며 울리는 것 같았다. 그때 내 속에서 또 하나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 같으며 내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꼈다."

예수 믿으면 내가 변하는 것을 압니다.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하다는 빌레몬서 말씀처럼, 예수를 믿으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 자신이 왜 이렇게 달라졌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내가 바보가 아닌가, 어떻게 험한 세상과 싸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가 승리합

army as they entered the camp. So the king did not go into the camp right away. But he ordered two horsemen and several soldiers to go and check out the situation. The king had them come back and they also gave same report and they were full. When he saw the four men with leprosy, they also were full of strength because they had all the food they wanted. In the same way, if we want to bring good news to non-Christians, we have to have this spiritual food first, and we have to show our health and vibrancy through our eyes, faces and everything about us. I believe that that's the way that non-Christians can come to church and believe in Jesus.

I read a book called 《*the love of Germans*》 written by a famous writer, Max Mueller, where it says, "on the Easter Sunday morning, the window on the cross, through which a bright beam of light danced like waves and twirled around. The light was too bright to see it directly. So when I closed my eyes, I felt as if the light penetrated deep into my soul so much that all the things in me started shining, full of fragrance, joyful with songs in me. I felt that in me there is another life that was just starting, and I felt that I was changing into a completely new person."

When you believe in Jesus, you know that you change. As you can find expressed in the book of Philemon, you were useless in the past, but now you have become useful. In the same way, when you believe in Jesus, you can feel that you have changed, even though others might not notice. You might think you are an unintelligent person and how can you possibly win against this dangerous world. But a meek person wins the victory.

A giving person wins. A person of faith wins. Love wins. I know that I became changed after I believed in Jesus,

니다. 주는 자가 승리합니다. 믿는 자가 승리합니다. 사랑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사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압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5장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세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우리가 살길이 있습니까? 안전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으면 살리라.'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은 다 삽니다.

이제 우리는 나가서 이 문둥병자들처럼 아름답고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야 합니다. 말씀으로 그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고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생명의 떡을 배불리 먹었다면 영적 양식에 굶주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네 명의 문둥병자와 같이 입을 열어 기쁜 소식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상급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lthough other people might not realize it. Therefore Amos 5:4 says, "This is what the LORD says to the house of Israel: Seek me and live." Now this world faces confusion. Where should we go to find a way of life? Where is the safe zone? 'If you seek me, you will find me.' Just as all the people who looked at the bronze snake lived, all the people who look to Jesus and believe in him will live.

Now we too have to go out to spread the good and beautiful news just as the four men with leprosy did. God provides for us the manna of eternal life. We have to bring non-believers to church. They will be changed by the word of God. The book of Daniel, chapter 12, verse 3 says,

"Those who are wise will shine like the brightness of the heavens, and those who lead many to righteousness, like the stars for ever and ever." Amen.

If it is true that we first ate the bread of life, then we must be willing to spread the good news to those who are hungry for spiritual food just as those four men with leprosy opened up their mouths and spread the good news and thereby saving many souls and consequently receiving many gifts from God. May the name of our Lord bless you all!



진정한 행복

시편 91편 14~1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게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하고 소란하고 불안감이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평안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해서 수입이 많고 사회적인 명예나 지위나 권력을 얻고 실컷 먹고 마시고 노래하면 행복이 있는 줄로 흔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동서양의 명사들 가운데는 행복의 정의를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킹슬레는 "행복의 비결은 지식에 있다"고 했고, 로마의 세네카는 "사람의 도리를 다할 때에 행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사회학자 스펜서는 "행복은 세상



The True Happiness

Psalms 91:14~16

"Because he loves me," says the LORD, "I will rescue him; I will protect him, for he acknowledges my name. He will call upon me, and I will answer him; I will be with him in trouble, I will deliver him and honor him. With long life will I satisfy him and show him my salvation."

The world that we live in today is getting more complicated, noisier, and more restless. That is why many people are seeking true peace. But where is true happiness? People believe that they can be happy if they gain much knowledge, work at a good company, earn a high income, enjoy social prestige or power, enjoy all kinds of entertainment, but Scripture is very clear that there is no happiness in any of them in any of these things.

There are some famous people who defined happiness in these ways: English poet Kingsley said, "The key to happiness is in knowledge." Seneca of Rome commented, "There is happiness when people act reasonably." English sociological theorist, Spencer remarked, "Happiness comes

의 욕망을 억제할 때 있다"고 했습니다. 속담 가운데에는 "행복은 노력하는 가운데 있다" 했고, 영국의 속담에 "행복은 자기 직업에 만족하는 데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모두 일리 있는 말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91편 14~16절, 이 짤막한 세 구절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 나를 건져 줄 자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 라는 것은 오늘 우리를 말하고, '나' 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에 건져 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행복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당시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며 이스라엘 산모가 애기를 낳을 때 여자면 그냥 두지만 남자를 낳으면 모조리 잡아 죽이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마침 모세의 어머니가 둘째 아들 모세를 낳았는데 차마 죽게 할 수 없어 숨겨 길렀는데, 점점 아이가 자라 울음소리가 커지면서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상자를 만들어 모세를 그 안에 넣고 나일 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의 심정이

when we control our desires. As the proverb says, Happiness is found while we are making effort." In an English proverb, Happiness is found when we are satisfied with our work. All of these sayings make sense on one hand, but on the other hand something is still missing because they don't nail it all the way. The text we read from the book of Psalms 91:14~16, although only three short verses, teaches us what the true happiness is for our life.

Where is true happiness?

First, I am happy when there is someone who can save me

When you look at the first half of v. 14, it says, "Because he loves me, I will rescue him." 'He' in this verse refers to us, and 'I' refers to God. In other words, because we love our God, God saves us.

When someone is nearly drowning, he would be happy when he is rescued by a lifesaver. When we read the book of Exodus, chapter 2, the King of Egypt, Pharaoh commanded that when an Israelite mother bears a girl, the girl may live. But when it was a boy, then the boy had to be killed. At that time, a mother bore a second son, who was Moses, but she couldn't kill her son. So she hid him and raised him in secret. But as the boy grew, the cry of the baby grew bigger as well. The mother could not hide him anymore, so she made a papyrus basket for him and placed the child in it and put the basket among the reeds along the bank of the Nile. How the mother's heart must have ached at the time!

But it was God who saved him by the hand of the daughter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통해서 이 모세를 건져 주셨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31~32절에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빠져 죽게 되었을 때에 주님이 그를 건져 주셔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테네시 멤피스에서 사흘 동안 집회를 하는 동안, 토요일 오후에 그 교회 목사님께서 미시시피 강 구경을 가자고 하셔서 갔습니다. 넓은 강에 물이 많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르락내리락하는 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850년에 비가 많이 와서 강이 범람했을 때에 많은 손님을 싣고 강을 건너던 여객선이 전복되어서 많은 사람이 빠져 허우적거릴 때 흑인 청년 하나가 용감하게 물속으로 들어가서 자그마치 60명의 생명을 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기념하는 공원을 만들어 그 청년의 이름을 붙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회가 깊었습니다. 이 청년은 60명이라는 이름도 모르고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위험을 무릅쓰고 구했습니다. 더구나 당시 흑인은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냉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종을 초월해서, 이해를 초월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 뛰어들어가 고귀한 생명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지난날 우리가 죄악의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갈 때 우리를 건지신 분이 그 청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갈 때에 건져 주는 사람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죄악의 홍수에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우리를 그 누구도 건질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 주

of Pharaoh. The name, Moses, means drawn out of water. Also in the book of Matthew 14:31~32, when Peter was about to fall into the water of Galilee, it was Jesus who pulled him out and saved his life.

I went to Memphis, Tennessee three years ago to lead worship services for three days. On Saturday afternoon, the pastor of the church invited me to go and do some sightseeing along Mississippi River. It was a big river with lots of water flowing down. I saw many boats and ships coming and going. But then the pastor told me this: In 1850 due to the heavy rain the river became over flooded. A ship with many passengers capsized and all of them were desperately trying to survive. At that moment a young black man dove into the river and saved as many as 60 people. As a result people in the city built and named a park in commemoration of the young black man. Hearing that story, I was deeply moved. Even though he didn't know anyone on the river, he risked his own life to save some of them. Beyond the skin color, beyond social harassment, beyond ethnic differences, he jumped into the scene of dire confusion and desperation in order to save some of their lives, he reminded me of Jesus Christ, the young man who saved our own lives when we were overrun by the flood of sins.

When someone is dying in water, he would be happy if he is saved by a lifesaver. When we were overrun by the flood of sin and aimlessly floating in the river, no one can save us, except Jesus who came to this world.

The Lord is alive even today and he will continue to save us with eternal love while we are overrun by the flood of sin.

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앞으로도, 어떠한 죄악의 홍수 가운데에서도 영원 불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행복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면,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자질과 인격과 권위를 나타냅니다. 아무개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어디 사람이고, 어느 학교 다녔고, 성격은 어떻고, 자질은 어떻고, 능력은 어느 만큼이고가 떠오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천하의 가장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한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곳, 어떤 사람 앞,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제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다니엘이 어린 소년의 몸으로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가 비록 포로의 몸이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은 내용이 나옵니다. 남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았으면서도 신앙과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의 많은 학문을 배웠으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이 감행한 세뇌 공작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

When we believe this truth, we experience happiness.

Secondly, I am happy when I know the name of God

When we read the second half of v. 14, it says, "I will protect him, for he acknowledges my name." The name of a person tells you his quality, personality and authority. When someone mentions someone else's name, if I know that person, then almost automatically I can think about where he is from, which school he went to, what his personality is like, what qualities he has, and what kind of abilities he possesses. The Name above all names and the greatest name of all is our LORD, God. When we know His name, he promises that he will protect us and lift us up. If you know His name, love Him and worship only Him in any place, in front of anyone, and in any circumstance, then I have no doubt that God will bless you.

When you read chapter 2 of the book of Daniel, we find that he was taken to Babylon as a captive, and he did not forget about God while living there as a slave. Even though he received many benefits from others later, he did not exchange it for his own faith. Even though he gained a lot of knowledge later, he did not give up on the knowledge of God and did not give into the brainwashing schemes of the leaders of the empire. Even though he earned a high position, his love for God did not change. Even though he was caught in a trap and thereby fell into the lion's den, he not only didn't forget about God, but also gave his full trust to God and loved Him only. When he lived in such a way, God protected his life, and gave him wisdom and long life as well. We desire to receive the

서 그의 생명도 지켜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장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 그러한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달러 제일주의, 골프 제일주의, 테니스 제일주의, 낚시 제일주의, 사냥 제일주의, 라스베이거스 제일주의, 먹고 마시는 것 제일주의, 비디오 제일주의 등이 가득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미국에 보내신 것은 미국의 청교도 정신이 흐려지고 점점 죄악에 빠져들어 가니 제2의 청교도들이 되어서 도덕과 영계를 다시 부흥시키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미국 사람을 따라가려는 모습을 볼 때 저의 마음은 너무도 답답합니다. 여러분은 다니엘과 같이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 신앙, 말씀, 영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서 약속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부를 때 대답해 줄 사람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큰소리로 불러 외쳐도 대답이 없고 메아리만 돌아온다면 너무나도 피곤하고, 너무나도 무의미하고, 너무나도 불행할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배고파 울든지, 어디가 아파서 울든지, 그냥 울든지 아무도 그 아이에게 가까이 가서 달래 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참으로 안된 아이입니다. 남편을

same blessings that Daniel received. I believe that we all would receive such blessings from God if we live with God as number one(#1) in all of our lives.

But when we look around us in our society, we find so many people who consider money #1, golf #1, tennis #1, fishing #1, hunting #1, Las Vegas #1, eating and drinking #1 or movies #1. But remember what the Lord said to us,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Matthew 6:33). I believe that the reason why God sent us as the second puritans to this America where the spirit of Puritanism has been dissipating, yet the depth of sin deepens, is that we can revive the morality and the spirituality of this nation. But since we try to be more and more like typical Americans while forgetting the mission from God, I feel suffocated. I encourage you to be like Daniel so that you live your life in such a way that church, faith, word, soul, and God are #1 in your life. Then you will receive those blessings that God promised.

Thirdly, I am happy when there is someone to answer when I call

In v. 15, we find, "He will call upon me, and I will answer him." If we cry out as loud as possible, but if we get only the echo back to us, it would be truly tiring, meaningless and a most unfortunate experience. For example, if a baby cries because he is hungry, or because she is sick, but then there is no one near the baby to comfort her or give her what she needs, then the baby is an unfortunate one. Suppose there was a widow, who lost her husband early in her life, and now is

일찍 여읜 청상과부가 세월이 흘러 이제는 백발을 날리며 너무 기진맥진하고 병까지 얻어 침대에 드러누웠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불러도 남편은 이미 갔으니까 대답을 안 하겠지만 아들도, 딸도, 사위도, 며느리도, 손자들도 대답이 없다면 그 할머니는 가련한 여인입니다. 아니 청년이라 해도 가슴이 답답해 소리쳐 부를 때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를 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두 가지 방면으로 대화를 하는 동물입니다. 동물은 한 가지로밖에 대화를 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인간이 대화하는 두 가지 방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과 인간이 나누는 수평적 대화와 하나님과 인간이 나누는 수직적 대화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대화를 하고, 이웃과 대화를 나누고, 사회에 나가서도 대화를 나누고, 교회에 와서도 대화를 나눕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재갈을 물려 놓은 듯 한 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말을 잘못할 때도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만 말을 안 할 때에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입을 주셨습니까? 대화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상종도 안 하는 세리 집에 찾아가서 음식을 잡수시며 대화를 나누시고, 창녀 집에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시고, 심지어 바리새인, 강도와도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대화하면 문제가 다 풀립니다. 부를 때에 대답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39절까지 읽겠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

very old herself with white hair and is lying sick on her bed. Since she has no husband anymore, he won't answer her call. But even if she calls her son, daughter, son-in-law, daughter-in-law or even grand children, yet there is no one who comes to aid her, then she is a poor old lady. Even if it is a young man who has no one to answer his call, he is not a happy person. We need to have someone who answers our call.

Human beings are animals who communicate. We have two ways of communication. Wild animals can communicate only one way. So what are the two ways of communication that human beings have? The first one is horizontal communication between human beings; the second one is vertical communication between human beings and God. This is the evidence that we are the lords of all creation.

We communicate with family, with neighbors, in society, and in churches. There we find happiness. But sometimes a person doesn't talk at all acting as if he is biting a bit in his mouth. People hurt others when they misuse words. But also people hurt others when they don't use words. Why did God give us a mouth? Isn't it to use for communication? Jesus went to a tax collector's house to dine with him and to talk with him, even though people at that time didn't even look at him face to face. Jesus went to a prostitute's home to talk. He even had conversations with the Pharisees and a robber. When we communicate, all problems are solved. We are happy when we have someone to answer our call.

I will read 1 Kings 18:36~39: "At the time of sacrifice, the prophet Elijah stepped forward and prayed: 'O LORD, God of Abraham, Isaac and Israel, let it be known today that you

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대결하고 있었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 850명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믿는 신은 참 신이 아닙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서서 "너희들은 물러서라" 하고는 이제 제단을 쌓고 각을 뜨고 기도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여,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할 때에 불이 떨어져서 모든 것을 태웠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기에, 올바른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이제 우리들은 부르짖을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단비를 내려 달라고, 미국과 조국의 영계를 부흥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넷째, 환난 때에 함께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are God in Israel and that I am your servant and have done all these things at your command. Answer me, O LORD, answer me, so these people will know that you, O LORD, are God, and that you are turning their hearts back again.' Then the fire of the LORD fell and burned up the sacrifice, the wood, the stones and the soil, and also licked up the water in the trench. When all the people saw this, they fell prostrate and cried, 'The LORD—he is God! The LORD—he is God!'"

In the nation of Israel, the servant of God, Elijah was standing against the 850 prophets of Baal. The 850 prophets who worshipped Baal called out, "Baal, Baal" from the morning to the evening, but there was no answer. The god that people made and believed in was not a true God. At that moment, Elijah stood up and said, "Get away from here." And then Elijah prepared the altar and prayed, "O LORD, God of Abraham, Isaac, let it be known to these people that you are God in Israel. O LORD, answer me." At that moment, the fire of the LORD fell and burned up the sacrifice.

Because we believe in the true living God, if we pray for the right things, then God will answer us.

Now we have things that we need to cry out in prayer. We have to pray for the Holy Spirit's filling of our hearts, for the sweet shower, for the revival of the spiritual worlds of America and Korea. If we pray earnestly, then I believe that God will answer our prayers.

Fourthly, I am happy when there is someone who is with me in times of trouble

15절에 보면,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환난 때에 나와 같이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행복합니다.

내가 유치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병원에서 수술하고 있을 때 찾아와 주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가 됩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함께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가 됩니다. 초상을 당했을 때 한국에서는 밤새 함께해 주지 않습니까?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병들어 누운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 끝 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겠다는 것은 우리의 환난을 돌아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완성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환난의 의미를 알고 잘 해결하는 방법을 안다면 오히려 환난 당하지 않은 것보다 좋은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바울 사도처럼 '이는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게 하려 함이라' 하고 깨달으면 복입니다. 환난을 당해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겸손해집니다.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다듬어집니다. 신앙의 연단을 가집니다. 영원을 바라봅니다. 환난을 믿음으로, 인내로, 순종으로 잘 감당하면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

When you read v. 15, it says, "I will be with him in trouble, I will deliver him and honor him." I am happy when there is someone who can be with me in times of trouble.

Imagine yourself in jail. Will you have someone to visit you? If you were hospitalized after a surgery, you would be comforted if you have someone to visit you at the hospital. When you are in trouble, if you have someone to be with you, you would be encouraged. In funeral services in Korea, people stay at the funeral home overnight. By doing so, many people who lost their loved ones are encouraged deeply. Is there anyone in this place who fell into a temptation? Is there anyone who lost a business? Is there anyone who is confined to a sickbed? Do not worry. Trust in the promise of our Lord: "I am with you to the very end of age."

When God says that He will be with us, it means that he will take care of all of our troubles. It means that He will comfort us. It means that God will complete His mission. In order to give us even more blessing God gives us His promises. In Psalm 50:15, it says, "and call upon me in the day of trouble; I will deliver you, and you will honor me."

If we understand the meaning of tribulation, and know how to handle it well, then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life would be better than not experiencing them. When we experience tribulation, if we can remember what Paul said, "it is not to trust in man, but trust in God alone", then it would be a blessing blessings to us. When we go through difficulties in life, we draw closer to God. We become humble. We can pray more. We get refined. We gain the character of faith. We get

함이 시험을 잘 감당했더니, 욥이 시험을 잘 감당했더니 배나 주셨습니다. 요셉이 시험을 잘 감당했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시험은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의미를 잘 해석하고 감당한다면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다섯째, 내게 만족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게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대의 불만 가운데 하나는 욕구불만입니다. 모든 사람이 욕망은 큰데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하니까 여기서 반항이 나오고, 도전이 나오고, 파업이 생기고, 난동을 부리고, 피까지 흘립니다. 인간의 욕심은 무한합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유한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다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영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행복을 구하려고 급급하지 말라. 그런 시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 사람 자체도 문제를 안고 있는 문제투성이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인간입니다. 상대적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절대적 만족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만족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건강해서 장수를 누리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가치관을 바로 알고 영혼을 알았다면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는데 더 이상의 어떠한 만족이 필

the desire for eternity. If you can overcome tribulation to step forward to faith, to patience, to obedience, then it will be a great blessing to you. When Abraham withstood a trial, when Job overcame a trial, God blessed them with a double portion. When Joseph endured his trial well, God appointed him as the second-in-command in Egypt. A trial is there for your growth. If you understand the meaning of a trial and endure it, then I believe that you will receive a great blessing.

Fifthly, I am happy when someone satisfies me

In v. 16, we read, "With long life will I satisfy him and show him my salvation." One of the problems of our society is frustration. Everyone has strong desires for many things, but these desires are not met. Because their desires are not met, people react through defiance, challenge, strikes, demonstrations, and even bloodshed. Human desire has no limit. But materials are limited. What can there be to satisfy all of our desires? It would be a big mistake if you think someone can give you total satisfaction. There is an English proverb: "Do not hasten to find a perfect happiness in this world. There has never been a moment like that." Even the greatest person in the world cannot satisfy us. It's because even that person has many problems of his own. He is also a limited human being. He may give us a relative happiness, but may never give us an absolute happiness.

As God pours out blessings on us, He will give us the blessings of 'long life.' He will give us 'the blessing of satisfaction.' That is right. If you live a long healthy life, that is a blessing to you. If you have a right value system and have a true understanding about your soul, then there will be

요하겠습니까?

톨스토이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지만 학문을 통해서가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성 프랜시스는 날마다 술 먹을 때는 만족을 못 얻었지만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때 만족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많은 여자들과의 관계에서는 만족을 못 얻었지만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만족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학식이나 돈이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를 건져 주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부르면 대답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환난 때에 함께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내게 만족을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채워 주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 행복을 소유했음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 행복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모르는 내 이웃을 주 앞으로 인도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blessings.

What more do you need when you know that Jesus died for you and saved you?

Tolstoy was a man of much learning, but he said that he experienced happiness through Christ, not through his knowledge. Saint Francis confessed that he was not satisfied when he was drinking every night, but he was when he was in the arms of Christ. Saint Augustine did not find satisfaction through many relationships with women, but he did find satisfaction through his relationship with Christ. Happiness does not come to us through knowledge, money or the opposite sex, but only when we fall in the arms of God.

True happiness is found when there is someone who saves us, when we know God's name, when someone can answer our call, when someone is with us in times of trouble, when someone can satisfy us. But that someone is no one other than God, Christ and the Holy Spirit. I believe that we already possess this happiness. There are many others around us who do not possess this happiness. I pray that both you and I would save souls, which are more precious than this whole world, and our neighbors, who do not know true happiness, by leading them to the Lord.



복음을 전하자

로마서 10장 9~15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이지만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1) 잃은 양을 찾는 것입니다



Let Us Spread the Gospel

Romans 10:9~15

That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Jesus is Lord,"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For it is with your heart that you believe and are justified, and it is with your mouth that you confess and are saved. As the Scripture says, "Anyone who trusts in him will never be put to shame." For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Jew and Gentile-the same Lord is Lord of all and richly blesses all who call on him, for,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How, then, can they call on the one they have not believed in? And how can they believe in the one of whom they have not heard? And how can they hear without someone preaching to them? And how can they preach unless they are sent? As it is written, "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ose who bring good news!"

We have to spread the gospel. It's not only because of Jesus' Great Commission, but we have other important reasons as well.

First, we have to spread the gospel for God

From God's perspective, there are three meanings to evangelism.

1) It's to find a lost sheep

누가복음 15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잃은 양 찾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목민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이 양을 칠 때 독사의 위험, 맹수의 위험, 강도의 위험과 같은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푸른 초장도 별로 많지 않고, 물도 많지 않기 때문에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산을 넘고 골을 지나 찾아 나서야 합니다. 양들은 눈이 아주 어두워서 길을 잘 못 찾기 때문에 끊임없이 목자가 양을 몰아야 합니다. 목자는 양을 치러 멀리 나갔다가 그 들판에서 양과 같이 밤을 새웁니다. 그런데 양은 잠을 자지만 목자는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언제 맹수가 와서 양을 물어 갈지, 언제 강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목자의 무기는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들려오는 늑대의 울음소리에 목자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양 하나를 잃어버리면 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 양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동체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생명을 걸고 양을 지켜야 합니다. 혹 양 한 마리가 없어지면 책임을 추궁받습니다.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면 그 가죽이나 뼈를 가지고 돌아와야 하는 것이 그 당시 목자의 사명이요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니 혹 양을 몰고 동네로 들어올 때 양을 세어 보고 한 마리라도 모자라면 그 양을 찾으러 다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은 그 목자를 위해 기도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 돌아오면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목자와 양을 환영합니다. 이것이 잃은 양을 찾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목자가 잃은 양을 다시 찾을 때 느끼는 기

When you read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chapter 15, verses 3~7, Jesus talks about a parable of a shepherd who finds a lost sheep. There were plenty of shepherds in Jesus' day. They had to face the dangers of poisonous snakes, wild animals, and robbers. They couldn't find many green pastures, or plenty of waters, so they had to cross mountains and valleys to feed the sheep. Because sheep can't find ways on their own due to their bad eyesight, shepherds have to guide their ways constantly. Shepherds take the sheep to a faraway place, and then they stay overnight there. Although sheep can sleep at night, the shepherds cannot. It's because you never know when wild animals will come and snatch a lamb, or when robbers will come to steal a sheep. The weapons that a shepherd has are his own staff and a slingshot. He can't sleep well as he hears cry of wolves from time to time.

If he loses a sheep, then he is responsible. It's because the ownership of the sheep is not private matter, but a communal matter. That's why he has to guard the sheep with his own life. If one sheep gets lost, then he would be accountable. If a sheep was eaten by wild animals, then his duty and responsibility in those days was to bring back at least the skin or bones of the sheep. That's why when he leads the sheep to come back to a village, he will have to count all of them, and if one sheep is missing, then he would have to go back to the fields to find it. Then all the village people would pray for the shepherd as they waited for his return. If he returns safely with the lost sheep, then the village people would welcome him by clapping their hands. This is the picture that you can imagine when we talk about the lost sheep.

뿜, 동네 사람들의 기쁨은 곧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은 잃은 양을 찾는 것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2) 잃은 보화를 찾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은 여인이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찾은 기쁨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농가는 좁습니다. 방바닥에 흙을 바릅니다. 갈대를 깝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을 잡니다.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인 이 은전 하나가 얼마나 귀중한 돈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배고픈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떡과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은전을 잃어버리면 찾아야 하는데, 그 당시 농가의 방에는 조그마한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낮에도 햇빛이 환하게 들지 않아 그 은전을 찾는 것은 풀더미 속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다 헤쳐야 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찾으면 더욱 그 기쁨이 큽니다.

유대 나라 풍속에 처녀들이 출가하기 전에 은 열 개를 모아 목걸이를 하고 머리에 장식으로 두르기도 했는데, 이것은 결혼 예물과 같아 더욱 중요했습니다. 열 개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게 되고, 그것을 찾으면 기쁨이

Jesus teaches that the joy of the shepherd in finding the lost sheep, the joy of the village people is also the joy of God. In Luke 15:7, it says, "I tell you that in the same way there will be more rejoicing in heaven over one sinner who repents than over ninety-nine righteous persons who do not need to repent." Sharing the gospel with one person is to find a lost sheep and also to please our God.

2) It's to find a lost treasure

In Luke 15:8~10, Jesus teaches us that to gain a soul through evangelism is like the joy of a woman who finds a lost coin.

In Palestine, the farm houses are quite small. They fill the floor with clay. And then cover the clay floor with reeds. They sleep on it. A silver coin in those days was a day's pay of a worker, so it was quite valuable in those desperate days. Jesus even had to give bread and fish to those who were following Jesus at every corner when they became hungry. It was a difficult period in history.

If someone lost a silver coin, they had to find it. In those days, farmhouses had only one small window. Since the window was too small to shed enough light in the house, finding a coin was like finding a needle among the bushes. In order to find it, they had to search everywhere. The joy of finding a coin after a long and hard search must have been even greater.

According to Jewish custom, women collected ten silver items and made a necklace out of them or decorated their hair with them before their wedding. They considered it as important as a wedding gift. If they lost one of the ten, then they desperately look for the one that was lost, and if they

충만한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은전 한 닢에 비하겠습니까?

3)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탕자가 세상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한 영혼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모습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줄 때 큰아들에게는 두 몫을 주고 작은아들에게는 한 몫을 주었습니다. 재산의 3분 2는 큰아들에게 주고, 3분의 1은 작은아들에게 주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이 작은아들은 집에 있는 것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간섭, 형의 간섭이 싫고, 자유가 없는 것 같고, 좀 더 넓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보려고 아버지께 나중에 자신에게 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였습니다. 선한 아버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면 머지않아 다 까먹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만 너그러운 아버지는 아들의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들은 멀리 갔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여자들과 춤추고 즐기다가 재물을 다 써 버렸습니다. 그러자 같이 지내던 친구들이 외면합니다. 사랑한다던 여자들도 그를 외면합니다. 객지 나가서 돈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인간 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 직업을 하나 잡았는데, 부잣집의 돼지를 돌보는 일입니다. 끼니 때가 되었건만 주인은 밥 먹으러 오라는 말도 안 하고 먹을 것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found it, then they would be overjoyed. If we bring a lost soul to God through evangelism, God would be as happy as well. How could we even compare a lost soul coming back to the Lord with finding a lost coin?

3) It's to find a lost soul

Jesus compared a prodigal son coming back to his father with a lost soul coming back to the Lord. In the book of Deuteronomy, when an Israelite father gave his inheritance to his sons, he gave two portions to his eldest son and one portion to his younger son. In other words, he gave two thirds of his inheritance to his eldest son, and one third to his younger son.

Somehow it must have been uncomfortable for the younger son to live in the house. He didn't want to be bothered by his father, and by his older brother. He didn't like the lack of freedom, rather he wanted to experience the big world. So he asked for the inheritance from his father to be given now rather than later. The good father did not refuse. He didn't even ask why. Although he knew that his son would waste all his money soon, the generous father gave his inheritance to the younger son.

The son went far away. He wasted all his money as he spent his days dancing with girls, eating and drinking with bad friends. After he spent all his money, his friends started turning their backs on him. Even the girls who said they loved him also turned around and went away. You can't do anything if you run out of money in a foreign land. You can't live like a human being. So he had to find a job to survive. He found one tending pigs of a rich man. Although it was time to eat, but the owner didn't even bother calling him to eat, nor

돼지 먹는 밥이라도 먹으려면 있고 싫으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돼지 쥐엄 열매를 먹어 보니 깔깔하고 시큼하고 떫고 맛도 없고, 영양분도 없고, 설사까지 났습니다. 이게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의 종국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이 아들이 고생이 극에 달할 때 반성을 합니다. 사람이 편안할 때는 반성이 별로 없습니다. 편안하고, 잘되고, 칭찬받을 그 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목동 때는 신앙이 좋았으나 임금이 되었을 때 타락했던 것입니다. 삼손도 무명일 적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더니 천하영웅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때 타락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가졌던 신앙과 지금 편안할 때의 신앙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의 신앙이 예전에 비해 형편없다면 성공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오히려 실패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므로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물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탕자가 고난의 극치 속에서 비로소 반성을 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구나. 돌아가자.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 나를 품꾼으로 써 달라고 간청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늘 아들이 돌아올 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가 저 언덕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데 걸음걸이는 다른 것 같지만 가까워질수록 자기 아들 같습니다.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돼지 냄새를 풍기며 수척한 아들이지만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합니다. 아들을 목욕시키고 그에게 새 옷을

bring him any food. The owner didn't care if he ate pig's food or left because he didn't like to. So he had no option but to eat pods, which tasted sour, coarse, bitter, and tasteless. They had no nutrition, and he even had diarrhea. This is the final scene of a person who left one's father. This is the end result of those who leave God.

This prodigal son reflects on his life every time he experiences hardships. When we are comfortable, we don't reflect on our life. But it is dangerous when we feel comfortable, when things are going well and when someone praises us. That's why although David was humble in his youth as a shepherd, when he became a king, he became corrupted. Samson trusted in the Lord when he was nobody, but when he became a hero of the world receiving praise from everyone, he became corrupted. I ask you to compare your faith in difficulties and your faith now in comfort. If your faith now is worse than before, don't consider your present time a success. It's rather a failure. You have to remember that we do not know the future. Since we do not know the future, how good is it to gain the world yet lose your life?

This prodigal son finally reflected on his life when he experienced the extreme trials. 'This is my fault. I have to go back. Now I can't tell my father that I am his son. Now I will ask him to hire me as his servant.' That's how he felt in his mind as he went back home. But ever since the son left home, the father was looking out on the path of his son's return regardless of rain, snow or wind. That day as usual the father was looking over the hill, and then he spotted a man who seemed to walk differently than his son, but as he walked closer to the father, the father began to believe that this was his own son. So the father ran to him. The father hugged and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기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는 가만히 앉아서 "나갈 땐 언제고 그 모양으로 어딜 오느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것만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형이 밭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풍악이 울리고 사람들이 북적거립니다. 종에게 물으니 동생이 돌아왔기에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큰아들은 불평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봉양했는데 나에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잡아 주지 않더니, 창기에게 가서 돈 없애고 집안 망신시킨 저놈이 오니까 송아지 잡아 주시나?' 하고 원망합니다. 그때에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죽었던 자가 살았고 잃었던 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뻐한다. 내 것은 네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여기 죽었던 자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는 것입니다. 잃은 보화를 찾는 것입니다.

둘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1) 죄를 사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kissed his son in spite of the pig smell and his pale and thin appearance. He had his son take a bath, put on new clothes, wear a ring, wear new shoes. He even butchered a cow for this big homecoming party. That's how the father felt about the return of his son. The father did not say, "When was it that you left? Now you return home in such terrible shape?" He was simply overjoyed that his son returned home. That is the love of God.

The eldest son was returning home after working all day in the field. He heard music and saw crowds at his home. He asked his servant what was going on. He was told that his younger brother came home and that's why there was this big party. So he began complaining. 'I have been slaving for you, father, and you never gave me even a young goat. But you kill a fattened calf for this younger brother who has squandered your property with prostitutes, and who brought our family a disgraceful shame.' Then the father answered, "it's because your brother was dead, but now has returned home alive. That's why I am happy. Everything I have is yours!"

That's right. Here 'the dead man' means the death of a soul due to our sins. But, since the dead soul was revived, we can rejoice. To evangelize is to revive a dead soul. It is to find the lost sheep. It is to find the lost coin.

Secondly, spreading the gospel is for other people

1) It is for the forgiveness of sin

Acts 2:38 says, "Peter replied, 'Repent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다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심에 가책을 받습니다. 칸트는 "하늘에는 반짝이는 별이 있고 인간의 마음에는 반짝이는 도덕률, 양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물고기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 고통당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요, 뛰는 사슴이 가시덤불 불 속에서 타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편해야 마음이 편하고, 음식도 잘 먹고 잠도 잘 잡니다. 양심이 불편하면 잠도 잘 못 자고 잘 못 먹고 마릅니다. 뇌성벽력이 나면 꼭 내 머리에 떨어질 것처럼 두렵습니다. 이게 인간의 양심입니다.

죄라는 것은 고착성이 있어서 붙어 다닙니다. 죄는 발육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라납니다. 죄는 방해성이 있어서 기도를 방해합니다. 축복을 방해합니다. 파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죄 값은 사망입니다.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보따리가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2) 육체의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혼도 살지만 육체도 삽니다. 한경직 목사님

Holy Spirit.'" Isaiah 1:18 teaches, "'Come now, let us reason together,' says the LORD. 'Though your sins are like scarlet, they shall be as white as snow; though they are red as crimson, they shall be like wool.'"

God is faithful and forgives and cleanses all of our sins. When people commit sins, their consciences are pricked. Immanuel Kant said, "There is a shining star in the sky; there is a shining morality, the conscience in human hearts." A certain theologian explained about these pricks of conscience this way: "It's worse than the pain that a fish feels when it jumps into hot water. It's worse than what a deer experiences when it is burned in the fire of thorny bushes." We human beings have consciences. We feel comfortable when there is nothing pricking our conscience. Then we have a good appetite, and sleep well also. But when something pricks our conscience, then we can't sleep well and we lose our appetite also. If there is thunder and lightning, then we become afraid as if lightning would strike my head. That's how our conscience works.

Sin has a nature of adherence, so it sticks to us. Sin has a nature of growth, so it grows. Sin has a nature of disturbance, so it disturbs our prayers, and our blessings. Sin has a nature of destruction, so the result of sin is death. Everyone experiences suffering because of these sins, but if we believe in Jesus only, then sin flees from us. God not only forgives us of our sins completely, but also he will never remember them. That's why the Bible teaches us that for those who are in Christ, the old has gone. Now we become new creatures.

2) It is for the salvation of our body

If you believe in Jesus, not only your soul will live, but

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폐가 나빠서 검사를 하니 폐 하나가 깊이 썩어서 하나를 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애리조나 덴버에 가서 요양을 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나이가 아직 젊습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며 학비를 대어 주었습니다. 3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분들께 진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오래 살게 하셨습니다. 저 역시 한국 나이로 71세인데, 제가 예수 안 믿었어도 이런 건강을 가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의 축복도 받는 줄 믿습니다.

3)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행복 중 건강한 것이 첫째 아닙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래 살기 원합니다.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기 위해 한국 땅까지 사신들을 보내고 이슬을 받아 먹으면서까지 발버둥쳤습니다. 사람은 오래 살기 원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인생들의 4대 본능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먹는 것, 자유로운 것, 사랑받고 사는 것, 오래 사는 것이 그것입니다. 먹으려면 땀을 흘려야 하고, 사랑받으려면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하고, 자유는 투쟁을 해야 얻고, 오래 살려면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고 오래 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your body as well. Rev. Han, Gyeongjik, when he was studying in the States had to be hospitalized due to problems with his lungs. When he was tested, they decided they had to discard one of his lungs. As he rested in Denver, Colorado, he spent time in prayer there. "God! I am still young. I have many people who pray for me and support me with my school tuition. Let me live three more years. I have to pay the debt that I have toward them." But then God miraculously healed his body. My Korean age is 71. I doubt that I would have such good health if I did not believe in Jesus. I believe that if you believe in Jesus, you will be blessed in your health as well.

3) It is for eternal life

Everyone wants to live a healthy life. Isn't a healthy life the number one thing needed for happiness in the entire world? What good is it if you are not healthy? People also want to live a long life. The emperor Jin of China long ago sent envoys all the way to Korea to find an herb of eternal youth, and he desperately tried to live a long life by drinking the dew from fields. People want to live a long life, but the only way to do it is to believe in Jesus. That's why John 3:16 says, "For God so loved the world and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They say that there are four fundamental things that human beings desire at all times. It's eating, having freedom, being loved and living a long life. You have to sweat in order to eat, love others to be loved, fight to enjoy freedom, and believe in Jesus to have eternal life. That's why there is a saying: "Do you want happiness? If you want happiness for one hour, go to a barbershop; happiness for one day, go and take a shower;

"행복을 원하느냐? 한 시간의 행복을 원하거든 이발소를 가고, 하루의 행복을 원하거든 목욕탕에 가고, 일주일의 행복을 원하거든 결혼을 하고, 한 달의 행복을 원하거든 새 차를 사고, 1년의 행복을 원하거든 새 집을 짓고, 일생의 행복을 원하거든 정직하게 살고, 영원의 행복을 원하거든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행복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참 행복합니다. 먹어도 행복, 굶어도 행복, 맞아도 행복, 감옥에 가도 행복, 사형장에 끌려가서 마지막 순교하면서도 찬송을 부릅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마지막 임종을 보면 압니다. 죽을 때 안 믿는 사람은 안 죽으려고 이를 갑니다. 잘 믿는 분들은 돌아가실 때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평안하게 잠자는 것같이 가시고, 시신도 깨끗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세가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초조와 고통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이는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있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은 그가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육신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전도하면 자신에게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1) 빚을 갚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 사도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happiness for one week, go and get married; happiness for one month, go and buy a new car; happiness for one year, go and build a new house; happiness for life, live an honest life; happiness for eternity, go and believe in Jesus."

I believe that if you believe in Jesus you will gain eternal life. If you believe in Jesus, you will be so happy. You will experience happiness when you eat, and even when you go hungry, even when you are beaten up, even when you go to jail, even when you are martyred at an execution ground, even there you would sing praise to our God. We can tell the difference between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especially when we observe the last moment of their death. Non-Christians, because they don't want to face the ultimate death, grind their teeth. Christians of good faith spend their last moment with a smile and a sense of peace as they praise God. Even their dying bodies are clean. Non-Christians do not have hope. No next life. No eternal life. That's why they are overwhelmed by the realities of anxiety, restlessness and pain. But for the Christians, because they are drawing nearer to God's Kingdom, they are full of joy and hope. That's a huge difference. So when we evangelize non-believers, it is to help solve the problem of sin for their souls. It is to save their bodies as well. It is to give them eternal life. What could be better that doing this?

Lastly, spreading the gospel brings three benefits to us

1) We pay our debt

Apostle Paul said in Romans 1:14, "I am obligated both to Greeks and non-Greeks, both to the wise and the foolish." He realized that he lives with a debt to all people. "I am indebted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지고 사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부모에게도 빚진 사람이요, 이웃에게도 빚진 사람이요, 사회에도 빚진 사람이요, 나라에도 빚진 사람이요, 하나님께도 빚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냉정하게 생각하면 우리 옷의 옷감 짠 사람에게도 빚진 자요, 식탁을 놓고 보면 어부들과 농부들과 노동자들에게 빚을 진 것입니다. 이 모든 태양, 공기, 오곡백과, 물 그리고 독생자를 거저 주신 하나님께도 우리는 빚을 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대신 죽으셨으니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바울은 이 빚을 복음을 전함으로 갚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고 말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를 보면 빚을 진 사람은 빚진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립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종 노릇 해야 합니다. 빚진 사람은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 못합니다.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도망갑니다. 자살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빚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함으로 갚아야 합니다.

2) 상급을 받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고

to my parents, to my neighbors, to society, to my nation, and to God also."

If we think realistically, then we are indebted to those who made our clothes and to the fisherman, farmers, and laborers who provided what's on the dinner table. We are indebted to our God who gave us the sun, air, crops, water, and his only begotten Son. We are also indebted to Jesus because he died on our behalf.

Paul said that he is paying for his debt by spreading the gospel. That's why he said in 1 Corinthians 9:16, "Yet when I preach the gospel, I cannot boast, for I am compelled to preach. Woe to me if I do not preach the gospel!" When we read the book of Leviticus, we find that those who are indebted to someone are sold to that person as slaves. In order to pay for the debt, they have to be slaves. These debtors don't have courage to socialize with other people. Sometimes they have to go to jail. Sometimes they flee. Sometimes they kill themselves. But for us, we have to pay for the debt by spreading the gospel.

2) We receive the heavenly reward

1 Thessalonians 2:19~20 says, "For what is our hope, our joy, or the crown in which we will glory in the presence of our Lord Jesus when he comes? Is it not you? Indeed, you are our glory and joy."

Apostle Paul speaks of the Christians in Thessalonica as his joy, hope, glory and crown. That's right. When we think about those who became Christians after we shared the gospel with them, how happy are we?

We know the parable of the Talents. There was a master who was going to a far away country, who gave 5 talents, 2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가리켜 자신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해서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멀리 가면서 각각 종들에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었더니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배를 남겨 가지고 "착하고 진실한 종아,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함께 들어와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종은 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을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한 달란트를 그냥 땅속에 파묻었다가 본전만 가져갔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주인은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왜 그걸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보태 가지고 오지 못했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있는 돈까지 빼앗고 성 밖으로 쫓아내 그 종은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와 기회를 주신 사실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몇 달란트나 남겼는지 주님이 오실 때 회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오늘까지 몇 명이나 전도했는지 헤아려 보십시오. 한 분도 전도하지 못했다면 각성하고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물어 보시는 것이 "너, 몇 사람이나 믿게 했느냐?" 라고 했습니다. 전도는 상급을 받는 일입니다.

talents and 1 talent to each of his servants. Those who received 5 talents and 2 talents worked very hard with that money. So when the master returned, these servants presented double earnings and heard a commendation from their master who said, "Good and faithful servant. You have been faithful with a few things. Come and share you master's happiness." The two servants indeed joined the master's happiness. But the servant who received one talent believed that the master is the kind of person who gathers where he has not scattered seed, so he hid his talent in the ground and brought that one talent back to the master. Upon hearing this report from that servant, the master said, "So you knew that I was that kind of a person? Then why didn't you deposit my money with the bankers and earn interest? You are a wicked and lazy servant." The master took the one talent from the servant, and threw him outside into the darkness, where he was weeping.

This passage teaches us that God gave us many talents and chances. When our Lord returns, he will settle accounts with us and ask us how many talents we earned after we believed in Jesus. My friends, try to count how many people you brought to Christ from when you became a Christian until today. If you have not brought anybody to Christ yet, then you have to rethink your life of faith and do your best to do that. Kierkegaard said that when we stand before God on the last day the first question he will ask will be "How many people did you bring to Christ?" To evangelize means to receive the heavenly reward.

3) We shine like stars

When we read Daniel 12:3, it says, "Those who lead many to righteousness will shine like the stars for ever and ever." I

3) 별과 같이 빛나는 일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스라엘의 에스더, 프랑스의 잔다르크, 한국의 유관순은 그 나라의 애국 여성으로 나라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베드로, 바울, 웨슬리, 리빙스턴,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무디, 빌리 그레이엄, 이승복 목사님이 기독교계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은 그들이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건진다는 것은 그렇게 귀중한 일입니다.

홍수가 나서 집이 다 물에 잠기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구원을 요청하는데 사람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지켜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물에 뛰어 들어가 사람은 건져오지 아니하고 돼지 하나를 건져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죽어 가는 영혼들이 죄악의 홍수에 떠내려가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웃을 자격이 있습니까? 영혼을 건지십시오. 기도하고 찾아가고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해서 그 영혼을 살리고, 육체를 살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한없는 기쁨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truly love this verse. Esther of Israel, Joan d'Arc of France, and Yu Gwansun of Korea will shine like stars forever until the end of the history of their countries as women patriots. Peter, Paul, Wesley, Livingstone, William Carey, Hudson Taylor, Moody, Billy Graham, Rev. Lee Seungbok will shine like true stars, all because they brought many to Christ. Saving one soul is such a precious labor for Christ.

I see sometimes that some people get up on their roofs asking for rescue from the flood while water covers most of their houses and they can't do anything but desperately ask for help. What if a brave man jumped into the water, but he returned not with people but with a pig? Friends, are you laughing at this joke even though we know that dying souls are drifting today along with the flood of sin in our society? You have to save souls. Pray for them, visit them, bring many people to Christ, save their souls, save their bodies, bring joy to God, and in return, may you be blessed by enjoying unspeakable joy from the Lord.

변화산상의 성회

누가복음 9장 28~36절

이 말씀을 하신 후 팔 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너무나도 큰 문제이기에 하나님을 찾아 의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그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희고 찬란하게 변화되는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

The Holy Assembly of the Transfiguration

Luke 9:28~36

About eight days after Jesus said this, he took Peter, John and James with him and went up onto a mountain to pray. As he was praying, the appearance of his face changed, and his clothes became as bright as a flash of lightning. Two men, Moses and Elijah, appeared in glorious splendor, talking with Jesus. They spoke about his departure, which he was about to bring to fulfillment at Jerusalem. Peter and his companions were very sleepy, but when they became fully awake, they saw his glory and the two men standing with him. As the men were leaving Jesus, Peter said to him, "Master, it is good for us to be here. Let us put up three shelters-one for you, one for Moses and one for Elijah." (He did not know what he was saying.) While he was speaking, a cloud appeared and enveloped them, and they were afraid as they entered the cloud. A voice came from the cloud, saying, "This is my Son, whom I have chosen; listen to him." When the voice had spoken, they found that Jesus was alone. The disciples kept this to themselves, and told no one at that time what they had seen.

Just before Jesus went to Jerusalem to die for our and your sins, Jesus took Peter, James, and John and went up to a mountain to pray. He had to talk to God as he faced this huge event.

At that moment, the appearance of his face changed, and his clothes became as bright as a flash of lightning. Two men, Moses and Elijah appeared, talking with Jesus about the cross but soon Moses and Elijah disappeared and Jesus remained

다가 모세와 엘리야는 간 곳 없고 예수님만 남게 되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은 변화산상의 큰 성회라고 봅니다. 뜻 깊은 성회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를 결정짓는 성회였습니다. 이 성회에 참석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큰 은혜를 받고 큰 인물이 되었고, 역사를 남깁니다.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여 '변화산상의 성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신령한 교훈을 피차에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변화산상의 성회는 기도하는 성회입니다

본문 28~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은 군중들에게 시달렸기 때문에 안식하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가신 것도 아닙니다. 광활한 풍경을 보면서 눈요기하러 가신 것도 아닙니다.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이시면서도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하나님을 찾아 나아갑니다. 지혜나 힘만 가지고는 이 큰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고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활은 기도로 일관된 생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셨고, 골방에서 기도하셨고, 빈 들판에서도, 산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새벽에 피곤해서 일어날 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새벽같이 일어

alone. At that moment there was a voice from God, saying, "This is my Son, whom I have chosen; listen to him." This is called the Great Assembly of the Transfiguration. This is a meaningful assembly. This was an assembly that determined the course of human history. Peter, James and John who attended this assembly received a huge benefit of God's grace and they became great men of God in church history.

Based on the text I am going to preach a sermon titled, 'The Holy Assembly of the Transfiguration' so that we can share with each other spiritual truth as we meditate on this text.

1.The Holy Assembly of the Transfiguration is an assembly of prayer

When you look at verses 28 and 29, it says, "Jesus took Peter, John and James and went up onto a mountain to pray." Jesus didn't go up the mountain to take a rest because he was tired of the crowd. It was not because he wanted to have some fresh air. It was not to see vast and beautiful scenery. Because he faced a huge issue, Jesus Christ, being both God and Man, wanted to find God. Wisdom or strength could not solve this problem, so he went up to the mountain to pray to God.

The life of Jesus Christ on earth was a life of prayer all the way through. Jesus prayed in the temple, in the upper room, in the field, and on the mountains. Jesus' disciples were too tired to get up and pray in the early morning, so they slept, but Jesus got up early in the morning, and he went to find a solitary place to pray. The Bible says that he also prayed all through the night. He fasted for 40 days in a hot desert

나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온 밤을 새워 가며 기도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아니하시고 음식도 들지 아니하시고 그 뜨거운 광야에서 금식기도하셨습니다. 이마에 피처럼 붉은 땀을 흘리시며 간곡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떠나실 때에도 기도하고 운명하셨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대화입니다. 신령한 양식을 얻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얻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하나님의 큰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기도를 많이 했다는 사실을 봅니다. 구약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하나인 모세는 시내 산에 가서 40일 동안 두 번씩이나 금식기도했기 때문에 큰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 다음가는 인물이자 제2의 기독교 창설자라고 일컫는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을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네 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큰일을 이룩한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깊고도 많은 기도를 드린 것을 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몸 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조국과 인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는 망하지 않습니다. 후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기도하는 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둘째, 변화산상의 성회는 변화를 본 성회입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without drinking water or eating any food. Jesus prayed so hard that his sweat was like drops of blood falling to the ground. Jesus breathed his last on the cross as he was praying.

Prayer is communication between God and human beings. It's the best way to be spiritually nourished. It's the best way to experience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Prayer is a key to solve difficult problems. We can see that the great men of God in the present and in the past have prayed a lot. One of the greatest men in the Old Testament, Moses, spent 40 days on Mount Sinai, fasting twice. That's why he could do great things for God. In the New Testament, the second most important person next to Jesus in terms of founders of Christianity was Paul, who spent 3 years in prayer in the desert of Arabia. The reformer, Martin Luther, prayed 4 hours every day in the morning. We can see that these great men of God knelt before God first and spent long and deep hours in prayer. We have to pray for ourselves, for our family, for our church, for our society, for our nation and for the people of the world. Praying individuals, families, societies, and nations do not perish. They do not retreat. Where you pray, there is God's answer. Where you pray, there is a revival.

2. The Holy Assembly of the Transfiguration is an assembly of change

When you read v. 29, it says, "the appearance of his face changed, and his clothes became as bright as a flash of lightning." When Jesus was praying earnestly, there was a change on the appearance of his face. The changed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얼굴에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예수님의 용모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이전, 하나님 나라에서 가지셨던 용모 그대로입니다. 장차 재림하실 때에 가지실 용모로 예수님이 변화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성회에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24절에 보면, 라마 나욧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큰 종 사무엘 선지자가 성회를 가졌을 때에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의 사위가 되고 나라를 구한 다윗을 시기해서 잡아 죽이려고 군인을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보냈지만 다윗을 잡으러 간 군인들이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성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칼과 창을 내려놓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에 사울 왕이 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갔지만 사울도 그 성회에 참석해서 감화를 받고 예언까지 하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그리고 3장과 4장을 계속 보면 120문도가 다락방에 모여 열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그 성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모두가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내적, 외적인 변화, 생활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1)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appearance of Jesus' face reflects the appearance of Jesus before he came to this earth, the same appearance that he had in God's Kingdom. The changed appearance of Jesus' face shows to us how he will be changed when he returns. The true assembly of God brought a change.

When we look at 1 Samuel 19:18~24, At Naioth in the area of Ramah God's great prophet, Samuel, held an assembly, and the people who attended the assembly received God's power and started prophesying in a powerful way. King Saul out of jealousy sent a group of men with the purpose of killing David, who became his son-in-law and who saved the nation. He sent them three times, but the soldiers received God's grace at the hearing of Samuel's preaching, so they ended up laying down their swords and spears instead of taking David's life. At last, King Saul couldn't stand his anger, so he himself went to kill David, but he too was changed and ended up prophesying there.

The Bible says in the book of Acts 2:1~4 and chapters 3 and 4 that there were 120 followers of Christ in the upper room. As they were praying and fasting for 10 days, all were transformed by receiving the Holy Spirit on the day of Pentecost. They showed inner, outer and lifestyle transformation. It's important that our inner person gets changed by water and the Holy Spirit. We have to have this inner transformation.

1) We need a change in our mind just as Jesus' face changed on the mountain

Proverbs 4:23 says,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for it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마음이 곱고 바르고 깨끗해야 합니다. 마음이 곧아야 합니다. 마음이 잘 생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얼굴은 환하고 잘생겼는데 마음이 굴뚝같이 시커멓고, 송곳같이 뾰족하고, 꼭 바늘구멍 같고, 삐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못 봤다고 말하기 전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만큼 깨끗한 마음인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못한 사람의 마음에는 마가복음 7장 21~22절을 보면 13가지의 죄, 갈라디아서 5장 19~21절에 보면 14가지의 죄, 로마서 1장 29~31절을 보면 21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변화되지 못한 마음에는 교만, 시기, 허영, 사치, 거짓, 악독, 불의, 작당, 반역, 우상, 술수, 살인, 강도 등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변화되지 못한 마음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샘볼릭이라는 미국의 시인은 “변화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동물원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동물원에 가면 각종 짐승들이 있습니다.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동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 같은 마음이 변해서 예수의 마음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2) 말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혀의 변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is the wellspring of life." We have to have a heart that is pure, straight and clean. Our heart should be straight. We have to have a heart that is well formed. God does not look at our outer appearance, but at our heart. What good is it if we look bright and beautiful, yet our heart is as black as a chimney, as sharp as a gimlet, as small as a needle's eye, and crooked? Our heart must be right.

Jesus said in Matthew 5:8,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will see God." Before we complain that we cannot see God, we have to reflect upon our own heart and see if it is as clean as it should be, deserving the view of God.

In the heart of an unconverted man there are 13 sins found in Mark 7:21~22, 14 sins found in Galatians 5:19~21 and 21 sins found in Romans 1:29~31. An unchanged heart is full of arrogance, envy, vanity, lavishness, falsehood, wickedness, dissensions, rebellion, idolatry, witchcraft, murder and robbery.

Jesus said that "unconverted hearts are like whitewashed tombs." A poet in the United States, Sam Bolic, said, "An unchanged person's heart is like a zoo." When you go to a zoo, there are many kinds of animals. The heart of an untransformed man contains the nature of an animal. But we have to experience the transformation of our animal-like heart into the heart of Jesus.

2) We need a change in our speech

It's about a change of our tongue. When we read the book of James 3:2, "If anyone is never at fault in what he says, he is a perfect man." Chapter 3:6 says, "The tongue is also a fire." We know from history that there was a great fire in Chicago caused by a single matchstick. Because our tongue is like a fire, it can cause a lot of damage. James 3:8 says, "no man can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고,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라고 했습니다. 시카고가 성냥개비 하나로 다 불탔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혀는 불과 같아서 많은 것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 가지 화가 있답니다. 하나는 색화, 둘째는 필화, 셋째는 설화입니다. 색화라는 것은 이성 간에 잘못하다가는 화를 맞는다는 말입니다. 필화라는 것은 붓대를 잘못 놀리다가는 자기도 남도 화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설화라는 것은 혀를 잘못 쓰면 남에게는 물론 자기에게도 화가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들은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 내 입술에 재갈을 물리시고, 숯불로 지져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입에 재갈을 물려 달라고 하고 파수꾼을 세워 달라고 했습니다.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도, 힘도 안 든다고 쉽게 말하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쏴 버린 화살은 돌이킬 수 없고, 놓친 기회는 다시 찾을 길이 없고, 이미 해버린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혀를 가지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화기를 붙잡으면 1~2시간씩 통화를 합니다. 그것도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다 남의 흉과 허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눈으로 보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귀를 두 개 주신 것은 한쪽 말만 듣지 말고 양쪽 말을 다 들으라는 뜻입니다. 또 성경에서 재판할 때

tame the tongue. It is a restless evil, full of deadly poison."

There are three calamities in life. The first one is 'Sexual calamity'; the second, 'Pen calamity'; the third, 'Tongue calamity.' Sexual calamity means you bring calamity upon yourself when you make a big mistake in your relationship with the opposite sex. Pen calamity means you bring calamity upon yourself and upon others as well when you misuse the power of writing through publication. Tongue calamity means you bring calamity upon yourself and upon others as well when you misuse your tongue. Therefore, our holy fathers like Isaiah said, "God, put your bit in my mouth, burn my mouth with the coals." He prayed that God would put a bit in his mouth and bring a watchman for him.

There are many good Christians who still abuse their tongue. They say that it doesn't cost money or energy to say things however they want, but no, they should be careful. There are three things you can't retrieve. You can't retrieve an arrow that already left your bow. You can't find the lost chance. You can't retrieve what you already said. People use their tongues all day long to speak about so many things. Some people talk on the phone over 1 or 2 hours at a time. They don't talk about the good things of another person, bur rather bad things about other people. The most unwise person in the world judges other people not based on what they saw, but on what they heard. The reason why God gave to us two ears is to listen to both sides, not to only one side. Even the Bible teaches that in the situation of judging someone, we have to have two or three witnesses, which teaches us that we should not listen to only one side. Therefore we have to have our tongue to be transformed as well. As they say, silence is

증인 두세 사람을 두라는 것은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혀의 변화도 받아야 합니다. 침묵은 웅변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3)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기독교는 시대적으로 신비주의 시대, 교권주의 시대, 이성주의 시대, 실존주의 시대를 거쳐 지금은 실증적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열매가 좋은 것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좋거든 너희가 그 생활의 열매를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기독교 역사상 제일 능력 있는 부흥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회에 모입니다. 그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결심하고 중생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가운데 큰아들인가가 예수를 안 믿는 것이었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여자들 좋아하고 마약도 하고…….
과거 빌리 그레이엄도 대학 때 방탕한 시절이 있었는데, 이 아들도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엄은 늘 가슴 아파하며 기도했는데 마침내 이 아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로 기도한 것처럼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better than speech.

3) We need a change in our life

Matthew 5:14 says,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Let your light shine before men, that they may see your good deeds and praise your Father in heaven."

Christianity has gone through many periods in history: for example, the period of mysticism, of ecclesiastical authority, of Reason, Existentialism, and now of Empiricism. It is demanded of us to show good fruit. If we say Christianity is a good religion, then they demand of us good fruits in life.

Rev. Billy Graham has been the greatest revivalist in Christian history. Many people gather at his service. So many people repent of their sins, make decisions and are born again when they come and hear the word of God preached through his mouth.

But then he too had one deep concern. His eldest son did not believe in Jesus. That son loved drinking, smoking, and girls and even did cocaine. In the past, Billy Graham himself also was wandering in his life when he was in college. In a similar way, his own son didn't believe in Jesus.

So he prayed for his son always with a heavy heart, and finally some change happened in his son's life. One day his son came and said that he would study theology and then become a missionary. Just as Billy Graham prayed the thanksgiving prayer with tears, we should also experience great change in our life.

셋째, 변화산상의 성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회입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시면서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원수들의 모략과 중상, 핍박 때문에 약해질 때도 있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아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신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끔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모세가 호렙 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매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 4절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니 그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때때로 들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이북 공산당 감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세

3. The Holy Assembly of the Transfiguration is an assembly of listening to God's voice

Luke 9:35 says, "A voice came from the cloud, saying, 'This is my Son, whom I have chosen; listen to him.'" That was the voice from God. Because Jesus Christ was both divine and human, he became weaker than before when he heard false accusations or received persecution or suffered a crafty scheme from his enemies. Every time like that, God talked to his son through his voice.

When you read both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God sometimes allowed the men of God to hear God's voice directly. In Exodus 3:4, when Moses was in the Horeb, God called him, "Moses! Moses!" Moses answered, "Here I am." Also when you read 1 Samuel 3:4, when the boy Samuel was at the temple, God called him, "Samuel! Samuel!" Samuel answered, "Here I am." If you read Isaiah 6:8, when Isaiah entered into the temple and prayed for the country, he heard a voice, "whom shall I send, and who will go for us?" In the book of Acts 9:4, Saul heard Jesus' voice on the road to Damascus. "Saul, Saul, why do you persecute me?"

In the book of Revelation 1:8 also, God said,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the Almighty." In the same way, God's people and the men of God heard God's voice in the past.

Excuse me for what I am going to say now, but let me tell you the truth that I too heard God's voice when I was imprisoned in the jail of the communists of North Korea. God spoke to me three things: "You will not die", "Rest assured", "You will be my servant." Although it's been long since I heard his voice, the voice is still clear in my ears.

마디 들었습니다. "죽지 아니한다", "안심하라", "너는 나의 일꾼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 오래지만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용기가 납니다. 충성심이 우러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승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재를 무릅쓰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넷째, 변화산상의 성회는 예수님만 남은 성회입니다

본문 36절에 보니까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고 했습니다. 율법의 대표자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선지자의 대표자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포함해 세 분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구름이 걷히더니 모세와 엘리야는 간 곳 없고 예수님만 남았다고 말씀합니다. 참된 성회는 마지막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머리에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열고 다른 교회 부흥회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끝마치고 나서는 율법만이, 모세만이 우리

Dearly beloved, when we hear God's voice, we experience joy. We become dedicated to Him. We experience peace. Our hearts get fired up. We gain assurance. We gain courage. We gain loyalty to God. When we hear God's voice, we will have a life of victory. In the book of Genesis, chapter 19, the people of Sodom and Gomorra did not obey even after they heard God's voice. That's why they were destroyed. The book of Jonah, chapter 3 teaches that the people of Nineveh received salvation because they heard God's voice and then repented of their sins, sitting down in the dust.

4. The Holy Assembly of the Transfiguration is an assembly where only Jesus remained

When I read v. 36 of our text, it says, "When the voice had spoken, they found that Jesus was alone." That was right. Moses as a representative of the Law appeared. Elijah as a representative of the prophets appeared. Since there were three including Jesus, Peter said, "Master, it is good for us to be here. Let us put up three shelters-one for you, one for Moses and one for Elijah." But then after a while, when the cloud was gone, Moses and Elijah were both gone, but Jesus alone remained. A true assembly is an assembly where Jesus alone remains in our hearts and memory.

We too offer some assemblies at our church for the purpose of revival, and we also attend other church's assemblies for revival. But then after the revival assemblies are over, there are sometimes when only the law, only Moses remains in our hearts. At some other assemblies, we only end up remembering the preacher as a teacher of virtue, or as a philosopher. Some other times, we end up remembering the preacher only

마음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흥회는 도덕가가 우리 마음에 남고, 철학자 누구누구가 남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신학자가, 어떤 때는 병 고치는 사람이 우리 마음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권사님이 우리 마음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불완전한 성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친구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요 15:15).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예수님만이 참된 안내자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구세주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모세나 도덕가, 철학자, 신학자, 병 고치는 자들이 남지 아니하고 온전한 친구이신, 안내자와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과 머리에 남아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왕이시면서도 가난하셨던 예수님. 영웅이시면서도 어린아이와 같으셨던 예수님. 예언자이시면서도 개혁자이셨던 예수님. 지배자이시면서도 종이셨던 예수님. 차세대 사람 예수, 말씀의 사람 예수, 행동의 사람 예수, 부활하신 예수, 재림의 예수만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마음속에, 가정과 사업체 속에 항상 모시길 소원합니다.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는 갈릴리 바다의 무명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화산에 가서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큰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성회, 변화받는 성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회, 예수님만 남는 성회가 되어 변화 받아 교회에 꼭 필요한 기둥들이 되시고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s a theologian or a healing worker. Some other times a godly woman remains in our hearts.

But then all these kinds of assemblies are imperfect ones. Jesus Christ alone should remain in our hearts after a holy assembly. Jesus alone is perfect. Jesus alone is our true friend(John 15:15). 1 Peter 2:25 teaches us that Jesus alone is our true Shepherd. Isaiah 53:5 shows to us that Jesus alone is our savior who took our own sins. Moses, teacher, philosopher, theologian or a healing worker should not remain in our hearts, but only Christ, who is our true Friend, Shepherd and Lord, should remain in our hearts and be remembered in our minds.

Who was Jesus Christ? Although he was the King, he lived as a poor man. Although he was a true Hero, he lived as a child. A true Prophet, but he lived as a Reformer. A Ruler, but as a servant. Jesus as a true leader for the future generation. Jesus as a Man of God's Word, Jesus as a Man of action, Jesus of resurrection. Jesus who will return on the last day. This Jesus should remain in our minds, in your memory, in your hearts, in your minds, in your family and work, always ever more.

John, Peter and James were fishermen in the Sea of Galilee. They were nobodies. But when they received an abundant portion of grace by going up the mountain of Transfiguration, that's when they became great men of God in the church in Jerusalem. In the name of our Lord, may you all become people of God who belong to an assembly of prayer, of transformation, where you can hear God's voice, where Jesus alone remains, where you become truly changed and thereby become essential pillars of the churches and live beautiful lives all the way until the end of your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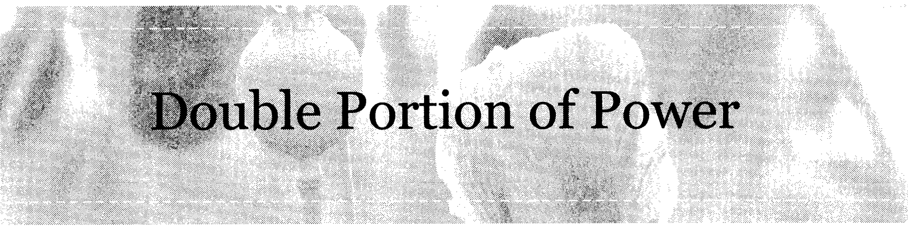


갑절의 은혜

열왕기하 2장 12~14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수레바퀴다. 도전과 응전에서 승리한 백성은 존속하고 패한 백성은 자연 소멸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죄와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 이기면 영생이고, 패하면 영원한 멸망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자유가 많아서 까딱 잘못하면 방종으로 흐르고 세속에 물들기 쉽습니다. 참 신앙은 핍박 속에서 지키고 성숙할 수 있지만 환경이 너무 좋을 때는 오히려 타락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기독교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목동생활을 하고 군인생활을 하며 쫓겨 다닐 때와 들판 광야에서 지낼 때는 신앙이



Double Portion of Power

2 Kings 2:12~14

Elisha saw this and cried out, "My father! My father! The chariots and horsemen of Israel!" And Elisha saw him no more. Then he took hold of his own clothes and tore them apart. He picked up the cloak that had fallen from Elijah and went back and stood on the bank of the Jordan. Then he took the cloak that had fallen from him and struck the water with it. "Where now is the LORD, the God of Elijah?" he asked. When he struck the water, it divided to the right and to the left, and he crossed over.

One of the most famous British historians in the world, Arnold Toynbee had said, "The history of humankind is a wheel of challenge and response. The kinds of people who have succeeded in responding to the challenges have continued to exist, but those who failed have ceased to exist." Our life of faith is like that. If you win in your fight against sin and Satan, then you receive eternal life. If you lose, then you get eternal destruction. Since we have so much freedom in today's world, it is easy for us to fall into the abuse of freedom or into this world, unless we are very careful. True faith thrives in times of persecution, but when all things go well, it falls. That's what the Bible teaches and what the

좋았지만, 임금이 되고 편안한 생활에 젖었을 때 크게 타락했습니다. 총칼이 목에 들어올 때에는 신앙을 지킬 수 있지만 너무나 많은 자유가 보장되고 물질이 풍요할 때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병들기 쉽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는 우리들이 갑절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도저히 이 악한 세대를 슬기롭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갑절의 은혜를 받아서 스승보다 더 큰 일을 했던 위대한 엘리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의 은혜를 받은 첫 번째 비결은 옛것을 벗어 잊어버린 것입니다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옛날에 좋아하고 아끼던 것, 사랑하던 것, 자기의 가치관과 습관을 다 찢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으려면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 없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라고 말했습니다. 군대 훈련소에 들어가면 민간복을 다 벗고 군복을 입게 됩니다. 절에 가면 옷을 바꿔 입습니다. 신부들도 옷을

history teaches us. David's faith was strong and vibrant when he was a mere shepherd living in the field, but when he became the king living comfortably in his palace, he fell.

When we are threatened by gun and sword, we can keep our faith. But when we are given so much freedom and blessed with abundant materials, then it's easy for our faith to be sick.

Unless we receive a double portion of God's power, we can never live a life of wisdom in this evil world. In our text today, Elisha is a disciple of Elijah. Elisha received a double portion of power compared to his master, Elijah, and therefore did twice as much as Elijah accomplished. We want to know how he received such power through the text today so that we too can be blessed.

1. Elisha's secret of getting a double portion of Elijah's power was to forget the past

The second part of v. 12 of our text says, "Then he took hold of his own clothes and tore them apart." It means repentance. It is to tear apart the things that you loved, valued, liked, your values and habits. It means repentance in Christianity. We have to have repentance if you want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Without repentance, if you read the Bible and pray, then you can't truly pray. Without repentance you can't receive much grace.

In the letter to the Ephesians 4:22, Apostle Paul says, "with regard to your former way of life, to put off your old self, which is being corrupted by its deceitful desires." When you go to boot camp, you have to take off your normal clothes, and dress in an army uniform. If you become a monk in Buddhism, you also have to change your clothes. If you

바꿔 입습니다.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라고 했습니다. 단거리 선수나 육상 선수, 마라톤 선수들은 구두도 벗습니다. 양복도 벗습니다. 넥타이도 벗습니다. 우리도 천국을 향해 뛰어갈 때 무거운 것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습니다. 어두움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합니다. 어두움에서 모든 죄가 나타납니다. 옛날에 내가 좋아하던 그 모든 것을 벗어 불 속에 던져 넣고 광명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은혜를 받는 첫째 비결인 줄 믿습니다. 집에 있는 화투, 윷, 포커를 버리고, 펜트하우스, 플레이보이 같은 잡지를 다 찢어 버리십시오. 그것을 가지고는 성령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둘째, 두 번째 비결은 위의 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아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13절을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구름 타고 승천한 후 엘리사는 스승을 사모하는 마음, 선생님의 가졌던 능력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지는 옷을 주워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 산꼭대기의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물질의 세계, 생명의 세계, 과학의 세

become a priest of the Catholic Church, you also have to change your clothes. It is about putting of your old self.

When you read Hebrews 12:1, it says, "Let us throw off everything that hinders and the sin that so easily entangles." Runners in short track, long track or marathons take off their daily shoes before they run. They put off their suits and neckties. We too have to take off our heavy burdens when we run toward heaven.

Romans 13:12 teaches, "let us put aside the deeds of darkness and put on the armor of light." Darkness symbolizes sin. All kinds of sins thrive in darkness. I firmly believe that the first secret to receiving the grace of putting on the bright clothes of Christ is throwing everything that I used to love into the fire. If you have oriental cards, Yut (Korean traditional board game), poker, penthouse, then tear them apart now. With those things in your house and in your minds, you can't expect the Holy Spirit to be present in your life!

2. The second secret was to look up to heaven

Elisha didn't look down, but looked up. V. 13 says, "He picked up the cloak that had fallen from Elijah". Because Elijah went up to heaven in a whirlwind, Elisha looked up to heaven out of his love for his master, out of his desire to receive a double portion of power. That's when he picked up the cloak that fell from Elijah and returned with it.

If we want to receive a great portion of grace and power, then we should not look down on earth, but look up to heaven. God is not the God of valleys, but of the top of the mountains. We should not look into the world of materials,

계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형이하학적 세계만 바라보지 말고 형이상학적 세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땅의 좋은 자동차만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늘 고개를 위로 향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울지 않는 아이에게 젖 주랴",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사모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 가노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면, "위엣 것을 생각하고 땅엣 것을 생각지 말라"고 했습니다. 밤에 잘 때 우리가 시편이든 잠언, 전도서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잠들면 좋은 꿈을 꿉니다. 그러나 무슨 극장 생각하고 춤 생각하고 세상의 좋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나면 꿈도 더러운 꿈을 꾸게 되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젊은 집사는 초인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이마가 터지고 피가 흐르는데도 얼굴에는 평화가 있고, 마음에는 여유가 있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초인적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믿는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예수에게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울이 회심하는 간접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동기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56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life or science, but the world of eternity.

We should not look only at the physical world, but also the meta-physical world. Don't just look at the luxurious cars on this earth, but God gives grace to those who turn their heads up to heaven, who desire God's grace. Korean proverbs say, "Will anyone give milk to a quiet baby?" and "There is no tree that cannot be cut down after the 10th swing of an ax." Those who desire God's grace will receive it. Philippians 3:14 says, "I press on toward the goal to win the prize for which God has called me heavenward in Christ Jesus."

Colossians 3:2 says, "Set your minds on things above, not on earthly things." Before you sleep, if you sleep by reading the book of Psalms or Proverbs, Ecclesiastes and spend some time thinking about the passage you read or focus on thoughts about Jesus, then you would have a sweet dream. But if you think about a movie, dance or unwholesome things of this world, then you will dream some bad things in your dreams. Isaiah 40:31 says, "Those who hope in the LORD will renew their strength."

Acts 7 illustrates the heroic death of Stephen, a young deacon. A young man called Saul realized that Stephen was an usual man because as he was dying he had peace on his face, space in his heart, and even prayed, "Father, forgive their sins," even though he was bleeding everywhere and his forehead was broken as he was stoned to death. Because of this experience, Saul became attracted to Jesus. It became an indirect motivation for him to be converted later. The direct reason why he converted was that he met Jesus on the road to Damascus.

Acts 7:55~56 says, "But Stephen, full of the Holy Spirit, looked up to heaven and saw the glory of God, and Jesus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고 하였습니다. 스데반이 초인적인 죽음을 맞을 수 있었던 원인은 그가 돌에 맞아서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때에 그 영안이 열려 우러러 하늘 보좌를 보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의 의를 위하여, 나의 영생을 위하여 부활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가 있을 곳을 예비하고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스데반이 하늘 보좌 옆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힘을 얻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도 하늘을 쳐다보며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많은 성도들 앞에서 신앙간증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독수리라면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독수리이다. 그러나 믿기 전 독수리와 믿고 나서 은혜 받은 독수리는 전혀 다른 독수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의 독수리는 맨날 자고 날아다니면서 땅만 보았습니다. 그저 송장 파먹을 것이 없는가, 개나 고양이 죽은 것이 없는가 찾아다니며 있으면 내려가서 고기만 파먹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은혜 받고 난 독수리는 가치와 생각이 전과 같은 독수리가 아닙니다. 거듭난 독수리, 은혜 받은 독수리는 저 높은 산, 깎아지른 낭떠러지에 있는 큰 소나무에 앉아서 이슬을 받아 먹으면서 멀리 날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독수리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십니다.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Look", he said, "I see heaven open and the Son of Man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very reason why he could face the heroic death was that his spiritual eyes were opened up when he was at his final moments, and could look up to heaven to see the throne of God and Jesus Christ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We can imagine what kinds of thoughts he must have had at that moment: 'Christ died for me, for my sins. He was raised for my righteousness, for my eternal life. He is waiting for me as he prepared for me to be with him as he sits at the right hand of God.' As we ponder the fact that Stephen received sustaining power when he looked up to heaven and saw Jesus Christ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we too should look up to heaven and desire God's grace. Then I believe we too can receive such grace.

After he received much grace, the famous preacher of England, Spurgeon said this in front of many people of God: "If I were an eagle before I was converted to Jesus, then I am still an eagle after I believed in Jesus. But the eagle before conversion is totally different than the eagle after the conversion as one who received grace." The earlier eagle looked down on earth every day as he flew in the sky. That eagle always looked for dead animals, dead dogs or dead cats, and if found, then the eagle flew down to earth to eat that flesh. But the eagle of now, the eagle who received grace is not the same eagle that used to have old values or an old mind. This is an eagle that is reborn, that received grace, sitting at the top of the mountain, sitting at the top of a big pine tree, drinking the dew of morning, and getting ready to fly far away. God offers much grace to those who look up to heaven and desire grace from God.

셋째, 세 번째 비결은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 기도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엘리사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받아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어디 계시나이까” 하면서 물을 치니까 요단 강이 갈라져 건너갔습니다. 모세가 홍해에 다다랐을 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 200만이 쫓아왔습니다. 그러자 “애굽에서 죽으면 우리를 묻을 장지가 없어서 이 바다에다가 장사지내려고 하는가” 하며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지팡이를 내리치니 바닷물이 갈라져 육지와 같은 길이 생긴 것처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에 에이브러햄 링컨이 골방에서 기도만 하니까 참모들이 물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엎드려 기도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자 그는 “남은 것은 기도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위급한 상황이 역전되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앞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전 국민을 향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기독교인들이 전심으로 기도해 주었고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3. The Third secret was his earnest prayer

V. 12 of our text says, "Elisha saw this and cried out, 'My father! My father!'" It means that Elisha prayed earnestly. "My father! My father!" He prayed earnestly to God. When he prayed earnestly, God blessed him with grace. Upon receiving grace and power, praying "Where is the LORD, God?" striking the water with the clothes of Elijah, the water was then divided to the right and to the left, and he crossed over the Jordan River. When Moses stood before the Red Sea, he faced the Red Sea in front. He was followed by the 2 million strong army of Egypt. At that time the people of Israel complained to him and said, "Was it because there were no graves in Egypt that you brought us to the desert to die?" At that moment, Moses prayed toward heaven and stretched his staff over the Sea. Then the Sea was divided and turned into dry land. In the same way, it is vitally important for God's people to kneel before the Lord and pray than to go and seek help from other people in times of trouble.

During the Civil War in the United States Abraham Lincoln was praying in his room, so his staff members asked him, "Mr. President, Why do you only pray in this most urgent situation?" But then he answered, "What's there that is left for us to do other than to pray?" Because he was a man of prayer, the urgent situation of the war was turned around and he was able to win the war at the end. Before the landing at Normandy beach during WWII, President Roosevelt asked all th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to pray. And the people responded indeed by wholehearted prayers. That's why the landing operation became successful.

Do you also have difficult problems and issues in your life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능력을 받기 원하면서 예배 참석에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금식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영화만 보면서 무얼 바라십니까? 눈물 흘릴 일이 없어서 비디오 보면서 눈물 흘립니까? 중국에 가서 앉아서 설교를 1시간 동안 했더니 또 해 달라, 또 해 달라 하면서 밤 12시가 되어도 집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유로운 세상에서 삽니다. 물론 자유는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중직자들은, 교회 직분자들은 공예배에 참석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저 주일낮에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다입니까? 직분자 아닌 사람들도 더러 새벽기도에 나오고 금요예배, 철야예배, 저녁예배에 나오는데 직분자들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약은 입에 들어가면 씁니다.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야곱이 얍복 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한나가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와 같이 옛것을 다 찢어 버리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앞으로 남은 세상 육신 마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이루시기를 기도드립니다.

today? If you want to receive power from God, then you can't ignore worship. If you don't fast, if you don't read the Scripture, what can you expect as you only watch movies? Do you shed tears when you watch a movie, as if there are no other occasions to cry for? When I went to China to preach there, I preached for one hour, but then they asked me to preach even more until midnight. They didn't go home until then. We are living in a country that provides so much freedom. Of course, freedom is an important and good thing. But shouldn't the officers of the church, the leaders of the church attend the official public worship services? Is attending the main worship service once on Sunday sufficient? Even lay people attend more often than not the early Morning Prayer service, Friday night service, all night prayer service, and other evening services. How much more should the office-bearers of the church? Medicine tastes bitter in your mouth. If your heart is broken at my words like this, please try to understand and accept what I say. When Jacob was wrestling with an angel by the Jabbok River and praying earnestly, when Hannah was praying earnestly in the temple, God answered their prayers. When King Hezekiah was praying with tears in the temple, when Daniel was praying, risking his own life, God answered their prayers.

Dearly beloved, just as Elisha tore off all the things of the past, I pray that all of us would desire God's grace wholeheartedly, look up to god in heaven, forgetting the world ahead of us, despising the worldly temptation of Satan so that all of us live a life that brings glory to God alone.

성령 충만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1~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독교는 무죄 시대, 양심 시대, 인류 통치 시대, 약속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천년왕국 시대의 일곱 시대로 나뉩니다. 그 중 지금은 은혜 시대 곧 성령 시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스가랴서 12장 10절에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cts 2:1~4

When the day of Pentecost came, they were all together in one place. Suddenly a sound like the blowing of a violent wind came from heaven and filled the whole house where they were sitting. They saw what seemed to be tongues of fire that separated and came to rest on each of them. All of them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in other tongues as the Spirit enabled them.

Christianity is divided into seven ages: the age of innocence, the age of conscience, the age of the human government, the age of promise, the age of law, the age of grace, the age of the millennium. Now is the age of grace, that is, the age of the Holy Spirit.

Romans 8:9 says, "If anyone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he does not belong to Christ." Therefore, we have to be filled with the Spirit.

1. Being filled with the Spirit is God's promise

Joel 2:28 says, "And afterward,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people." God promised that in the last days he will pour out his Spirit on all people. Again Zechariah 12:10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간구하는 심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고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짓말하거나 식언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단 하나 못하시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는 신약에서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간구하면 받을 줄 믿습니다.

둘째, 성령 충만은 성령의 속성입니다

성령은 하나지만 그 속성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신사가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하나지만 남편도 되고, 가장도 되고, 한국 사람도 되고, 미국 시민도 되고, 천국 시민도 되는 등 그 속성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성경에서는 성령의 속성을 일곱 가지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는 '비둘기 같은 성령', 요한복음 7장 38~39절에는 '물과 같은 성령', 사도행전 2장 2절에는 '바람과 같은 성령', 히브리서 1장 9절에는 '기름과 같은 성령',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인과 같은 성령', 욥기 33장 4절에는 '기운과 같은 성령', 사도행전 2장 3

says, "And I will pour out on the house of David and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a spirit of grace and supplication." God promised already in the Old Testament period that he will pour out a spirit of supplication on all people. And in the New Testament, Mark 1:8, John the Baptist says, "I baptize you with water, but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Once again Acts 1:5 says, "For John baptized with water, but in a few days you wi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God is the Almighty God of faithfulness. God does not tell a lie, nor make a mistake in speech. There is one thing that the all powerful God cannot do, that is to tell a lie. I truly believe that we will receive the grace of the fullness of the Spirit if we truly ask, since it is promised by God in the New Testament.

2. Being filled with the Spirit is the character of the Spirit

The Holy Spirit is one, but we can see many aspects of the Holy Spirit. Let's imagine that there is one gentleman here. This man is one person, but he can be a husband, a head of the household, a Korean, an American citizen, a citizen of heaven, showing many aspects of his identity. In the same way, the Spirit is one, but the Bible teaches that there are seven characters of the Spirit. Matthew 3:16 shows a 'Spirit like a dove,' John 7:38~39 shows, a 'Spirit like water,' Acts 2:2 shows, a 'Spirit like a wind,' Hebrews 1:9 shows, a 'Spirit like oil,' 2 Corinthians 1:22 shows, a 'Spirit like a seal,' Job 33: 4 shows, a 'Spirit like breath,' Acts 2:3 shows, a 'Spirit like fire.'

The one who received the Spirit like a dove becomes a meek

절에는 '불 같은 성령' 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성모 마리아 같은 사람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과 같은 성령은 죄를 말갛게 씻어 줍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과 같은 성령은 부드럽게 합니다. 인과 같은 성령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기운과 같은 성령은 소생하게 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그 뼈가 군대로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불의 성령은 어둠을 밝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불을 받으니까 흑암의 유럽이 환해졌습니다. 15세기 루터가 불을 받으니까 유럽이 광명을 되찾았습니다. 18세기 웨슬리가 불을 받으니까 암흑 사회였던 영국이 광명을 찾았습니다. 19세기 무디가 불을 받으니까 미국과 영국에 다시 불을 붙이고 빛을 발한 것처럼, 불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죄를 도말할 뿐 아니라, 능력을 발할 뿐 아니라, 어둔 사회를 비춥니다.

무디가 한번은 이발소에 갔다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디가 들어간 이발소에 들어갔더니 물 뿌린 것처럼 아주 조용하더랍니다. 이발소에 가면 대체로 말이 많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리 이발소가 조용하냐고 물으니 조금 전 무디 선생이 이발하고 가면서 감화를 주었다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오늘 왜 미국이 어두워져 갑니까? 왜 한국에 부정부패가 많습니까? 참 말하기 두렵고, 저까지 포함된 말 같지만 오늘 우리 신자들이 성령 충만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을 못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많다고 하지

person. Mary the mother of Jesus is a person who received the Spirit like a dove. The Spirit like this water cleanses us from our sins. The Spirit like wind means he has power. The Spirit like oil makes things smooth. The Spirit like a seal brings us the assurance of salvation. The Spirit like breath causes us to be born again. When God put breath in the bones in the valley of Ezekiel, those bones rose up like an army.

The Spirit of fire illuminates darkness. When the Apostle Paul received the Spirit like fire, dark Europe became bright. Martin Luther in the 15th century received this fire, and Europe became bright. John Wesley of 18th century received this fire, and then dark England became bright. Moody of 19th century received this fire, and America and England became bright. Just as these examples, anyone who received this fire will have his sins cleansed, show forth power, and illuminate a dark society.

Moody once had been to a barbershop. Another person went to the same barbershop after Moody left from there, and he felt that the shop was as quiet as quiet can be in its atmosphere. It was unusual because normally people are talkative in typical barbershops. So this person asked why this barbershop was so quiet. And they answered that the Rev. Moody told an inspiring story as he had his hair cut there.

Why is America getting darker these days? Why are there so many incidents of political corruption in South Korea? This is difficult to say, but I say with fear that it's all because God's people including myself are not filled with the Holy Spirit. It's because God's church is not filled with the Spirit. That's why, even though there are many churches, the light of the church is getting dimmer and dimmer. May each and every one of us, and the church receive the Holy Spirit that

만 점점 불이 꺼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셋째,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외 없이 성령을 받기 위해 공식화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아니고서는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고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열흘 동안 밤낮 금식하고 철야하며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호렙 산 굴 속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때 그 환경을, 그 당시 시대상을 잘 생각하고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지 며칠 안 되는 때에, 예루살렘이라는 그 원수 같은 도시 한복판에서 생명을 내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결사적으로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마지막 날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을 보면 '오직 기도' 입니다.

저는 신학교 졸업을 앞두고 1949년 여름방학이 되던 때에 '내가 이대로 가면 지옥 가는 자식 배나 부르게 하겠다.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겠다' 고 생각했습니다. 중생의 은혜는 받았습니다만 성령 충만을 받아야겠다 생각하고 방학하자마자 강원도 진부에서 걸어서 월정사와 상원사를 지나 북쪽 암자에 들어

God promised to us.

3. How do we receive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Whether it's today or past, man or woman, we have a standard way of receiving the Holy Spirit. Without these three methods there is no way to receive the Holy Spirit.

1) We have to pray

In Acts 1:14, we find, "they all joined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 along with the women and Mary the mother of Jesus, and with his brothers." They were united in one heart and spent ten days fasting and praying day and night. It's prayer. We have to pray like Elijah was praying for 40 days and received the Spirit in the den of Horeb. When we read the Bible, we have to read it with due consideration about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 social situation. It was within a few days and weeks since Jesus died on the cross in Jerusalem. These disciples were praying in the very same city, right in the middle of the deadly city, they were risking their own lives praying for 10 days. That's when they received the Spirit like fire on last day. It's only possible through 'prayer.'

It was 1949, the summer before I graduated from seminary. It came to my mind that if I went out to start ministry I would produce twice as many people who would end up in hell instead of heaven. No, I have to be changed now by being filled with the Spirit. I did receive the grace of being born again before, but I was determined to receive the fullness of the Spirit this time. So as soon as the vacation started, I started walking from Gangwon-do, Jinbu and passed through

가서 엿새 동안 간절히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한밤중에 저 혼자 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석유를 몇 통 가져다가 붓고 불을 붙인 것처럼 마음속에서 불이 돌고 돌았습니다. 눈을 떠도 감아도 여전히 불이었습니다. 옷도 살도 타지 않은 불이 얼마 동안 보이고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그때 성령을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오늘까지 전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의 전쟁입니다. 야곱이 얍복 강에서 기도할 때, 모세가 호렙 산에서 40일 기도할 때,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850대 1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기도할 때,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기도할 때 치열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2)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죄 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사야서 59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어서 구원치 못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악의 장

the Woljeongsa and Sangwonsa, and went up toward the north and found a small cottage where I stayed for six days reading the Bible with all my heart and singing songs and praying and repenting of my sins. In the middle of the night, I was alone in the room praying but all of a sudden I felt a strong fire in my heart as if someone ignited fire by pouring a few gallons of gasoline in my heart. I could see and feel the fire that could not burn my clothes or my body. Although I am poor, God gave me his Spirit, through whom I believe I have been able to evangelize with his power until today.

Prayer is like a war. When Jacob was praying at Jabbok River, when Moses was praying for 40 days at Horeb, when Elijah was praying at Carmel against 850 people by himself, when Jesus was praying for 40 days in the desert, when Paul was praying for 3 years, it was all fierce fighting. We have to have this kind of determination when we pray.

2) We have to repent of our sin wholeheartedly

Acts 2:38 says, "Peter replied, 'Repent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Repent, Receive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Then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Isaiah 59:1~2 says, "Surely the arm of the LORD is not too short to save, nor his ear too dull to hear. But your iniquities have separated you from your God; your sins have hidden his face from you, so that he will not hear." Because there is sin between us and God, we are not saved. This wall of sin has to collapse. Because there is sin between us and God, we do not receive grace.

Do you know the birthday of Korean Christian church? Do

벽이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므로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생일이 언제인 줄 압니까? 한국 기독교의 오순절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에 '새벽에도 말씀, 낮에도 말씀, 밤에도 말씀' 하다가 길선주 장로가 자기 죄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도 성령의 역사로 눈물을 흘리며 죄를 회개하면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까지 성령 충만을 받아 학교에서, 거리에서, 문에서 전도하였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한국 강토에 붙었습니다. 그것이 한국 기독교의 생일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에게, 철저히 회개하는 교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망했습니다.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에 비추어 내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 개인과 우리 교회가 약속한 성령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3)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고넬료가 자기 가족과 친척들을 모아 놓고 욥바에서 베드로를 데려다가 '아침에도 말씀, 저녁에도 말씀' 하며 가정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때에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은 것처럼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

you know when the Pentecost was for the Korean Christianity? It was 1907 when they had a revival worship service at Jangdaehyun church in Pyeongyang, they heard God's Word early in the morning, during the day and in the evening as well. The elder, Gil, Seonju, started repenting of his own sins with tears in front of many people, they too started crying and repenting of their sins and they all received the Holy Spirit. It wa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hat they repented of their sins. Thus even the children received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and went out to their schools, on the streets, and at the doors of houses to spread the gospel. The fire of the Holy Spirit on that day ignited Korea all over the land since then. The Holy Spirit continues to come down even today on each individual and each church, who repent of their sins wholeheartedly.

The army of Israel was destroyed because of one man's sin, Achan. The ship had to face a storm because of a single man, Jonah. I hope that anyone here would kneel before God and repent of their sins wholeheartedly or anything that you are concerned about in light of the Scripture, and thus receive the promised Spirit for each individual and each church.

3) We have to long for God's Word

Acts 10: 44 says, "While Peter was still speaking these words, the Holy Spirit came on all who heard the message." Cornelius gathered his own family and his relatives and invited Peter from Joppa to have an assembly at his home. They heard the fullness of God's Word in the morning, and in the evening, while they had a family worship time, the Spirit came down on them, in the same way the fullness of God's Word is also the fullness of the Spirit.

만입니다.

웨슬리는 목사 아들입니다. 그는 영국 옥스퍼드대학 신학과를 나온 후 미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못 받은 까닭에 실패하였습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에서 그는 모라비안들을 만나 신앙의 열정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들어가 1785년 5월 24일 모라비안 집회에 참석하던 중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암흑의 시기였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웨슬리는 성경을 가지고 성화운동을 일으켜서 영국을 건지고 감리교를 세워 세계의 영혼들을 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성령을 받는 줄 믿습니다.

무디는 초등학교 4년도 못 다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가난해서 구둣방에서 심부름하는 이 소년이 교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성경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라 주일학교 선생이 되었는데, 그가 맡은 반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다른 교회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는 주일학교 부흥사로 다니다가 장년 부흥사로 승격이 되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하여 19세기 미국을 새롭게 하고, 영국까지도 부흥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넷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Wesley was a Pastor's son. He graduated from the theological department of Oxford University. He went to America as a missionary. But since he did not receive the Spirit, he failed there. As he was returning to England, he met the Moravians on the ship and was motivated by them with regard to his faith. So he returned to England and on May 24, 1785, he attended an assembly of the Moravians, he experienced the fire in his heart and received the fullness of the Spirit. At that time in history England was in darkness. England was reduced to great misery. Wesley used the Scripture and awakened the nation with the Holiness movement and saved England and founded Methodism, which saved many souls in the world later. In the same way, we have to long for the Word of God, which is the way to receive the Spirit.

It is known that Moody didn't even finish four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Having been so poor, doing errands as a shoemaker, he started attending Sunday school at a church and he began to learn a lot about the Bible. And then he grew up to be a Sunday school teacher. After seeing a great revival happened to his own Sunday school class, he led a revival service at a different church's Sunday school. At first he traveled as a Sunday school revivalist, but later he was upgraded to lead revival services for adults. Wherever he preached in the 19th century, the Spirit moved; he renewed America and revived even England. When we look at this history, we can have a conviction that the fullness of God's Word means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4. What is the lifestyle of a person who has been filled with the Sprit?

1)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라고 했고, 사도행전 4장 34~35절에, "그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러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령 받은 신자들은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그전에는 물질 중심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현세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니까 물질 중심이 변하여 신앙 중심이 되고, 자기 중심이 변하여 타인 중심이 되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10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했습니다. 가치관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2)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인지 좋지 않은 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압니다. 우리

1) His value system changes

Acts 2:44~45 says, "All the believers were together and had everything in common. Selling their possessions and goods, they gave to anyone as he had need." Acts 4:34~35 says, "There were no needy persons among them. For from time to time those who owned lands or houses sold them, brought the money from the sales and put it at the apostles' feet, and it was distributed to anyone as he had need."

The value system of the people of God who received the Spirit in Jerusalem had been changed. In the past, they lived a material centered life. Self-centered life. This world-centered life. But when they received the Spirit, the material centered life changed to become a faith-centered life; the self-centered life turned to be another-centered life, thereby practicing love.

1 Timothy 6:7~10 says, "For we brought nothing into the world, and we can take nothing out of it. But if we have food and clothing, we will be content with that. People who want to get rich fall into temptation and a trap and into many foolish and harmful desires that plunge men into ruin and destruction. For the love of money is a root of all kinds of evil. Some people, eager for money, have wandered from the faith and pierced themselves with many griefs." Our value system has to be changed. Even though we say we believe, if our value system doesn't change, then we can't say that we are believers.

2) He bears the fruits of the Spirit

We can tell if a tree is a good tree or a bad one by looking at the fruit. We can also distinguish the people of God by looking at their fruit, whether they bare some carnal fruit or

신자들도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그 열매가 육의 열매인가 성령의 열매인가를 보면 이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홉 가지 열매는 다 못 맺더라도 몇 가지라도 그 열매가 있으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19~21절의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에 나온 육의 열매만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과 생활, 인격을 비추어 보십시오. 나 자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나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내 마음과 인격과 생활에 성령의 열매가 맺혔다면 좋은 일입니다. 육의 열매가 보이거든 성령 충만으로 육의 열매를 불태워 버리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3) 전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병자 한 사람도 못 고쳤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말씀을 담대히 전할 때에 3천 명이나 믿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6~8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

spiritual fruit, depends on whether they received the fullness of the Spirit.

Galatians 5:22~23 teaches us that those who had received the Spirit bear these kinds of fruit: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Even though you can't bear all 9 fruits of the Spirit, if you bear some of them, then you are the one who has received the Spirit. Some people bear only the carnal fruit of Galatians 5:19~21, that is, "The acts of the sinful nature are obvious: sexual immorality, impurity and debauchery; idolatry and witchcraft; hatred, discord, jealousy, fits of rage, selfish ambition, dissensions, factions and envy; drunkenness, orgies, and the like." Compare your mind and lifestyle and character against the Word of God. I know about myself better than anybody else. If you bear the fruits of the Spirit in your mind, character and lifestyle, then it is wonderful. But if you find carnal fruit, I pray that you burn that fruit with the fullness of the Spirit and then bear the fruit of the Spirit.

3) He experiences a power in evangelism

Acts 2:41 says, "Those who accepted his message were baptized, and about three thousand were added to their number that day." Before he received the Spirit, Peter never was able to evangelize to one man. Not even a single sick person. But when he received the Spirit on the day of Pentecost, he boldly preached, and 3,000 people became believers.

Acts 8:6~8 says, "When the crowds heard Philip and saw the miraculous signs he did, they all paid close attention to what he said. With shrieks, evil spirits came out of many, and

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앉은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고 하였습니다. 빌립 집사도 성령을 받은 다음에 사마리아에 가서 큰 부흥을 일으킨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영혼도 건졌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성령의 역사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얼굴빛도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집니다. 능력으로 죽어 가는 영혼을 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없어서 불이 붙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새 차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불이 붙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다시 한 번 사모하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 전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any paralytics and cripples were healed. So there was great joy in that city." The deacon, Philip, also was able to revive the city of Samaria after he received the Spirit. He saved the soul of the eunuch from Ethiopia. Therefore 2 Corinthians 6:2 says, "Now is the time of God's favor, now is the day of salvation."

We can experience a changed heart only when we receive the Spirit. Our face and our lifestyle get transformed. I believe that we can powerfully save souls who are dying. Even if you have a new car, if the engine doesn't start due to a lack of gasoline in it, it is useless. It has to be ignited. May the Lord bless you in his name as you long for the fullness of the Spirit, as you give your whole heart to prayer, repent and focus on hearing and reading the Word of God.



Part II
사명 : 기쁨의 원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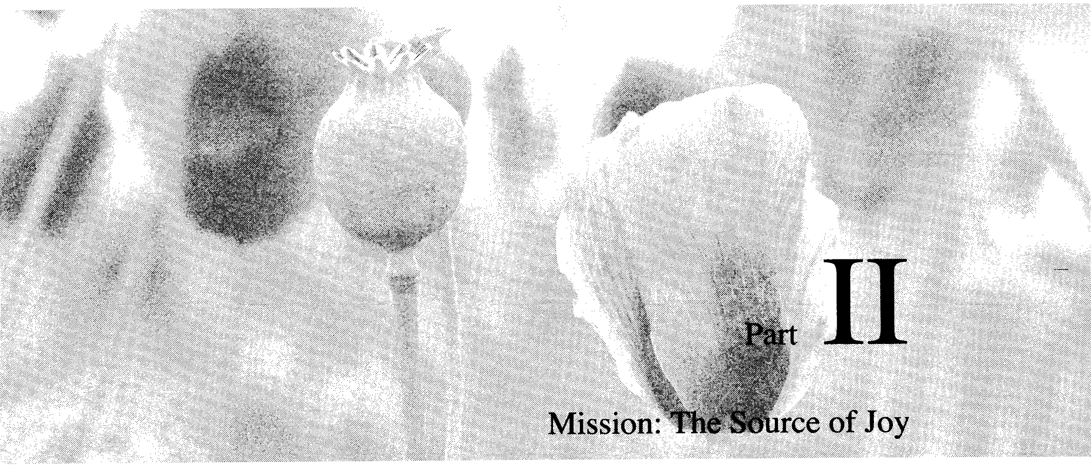
한 사람

충성된 일꾼

내 증인이 되라

사명의 재확인

영광스러운 직분



Part II

Mission: The Source of Joy

한 사람



누가복음 15장 1~7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해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대하여, 잃어버린 한 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하나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때의 기쁨이 한량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아들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아직 구원의 은총을 입지 아니한 불신자의 영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하나로 묶어서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신령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One Person

Luke 15:1~7

Now the tax collectors and "sinners" were all gathering around to hear him. But the Pharisee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muttered, "This man welcomes sinners and eats with them." Then Jesus told them this parable: "Suppose one of you has a hundred sheep and loses one of them. Does he not leave the ninety-nine in the open country and go after the lost sheep until he finds it? And when he finds it, he joyfully puts it on his shoulders and goes home. Then he calls his friends and neighbors together and says, 'Rejoice with me; I have found my lost sheep.' I tell you that in the same way there will be more rejoicing in heaven over one sinner who repents than over ninety-nine righteous persons who do not need to repent."

Luke 15 has a well known parable of Jesus. The parable tells a story about a lost sheep, about a lost coin, and a lost son. The common thread that connects all these three parables is that the owner who found something that was lost rejoices with great joy. The lost things in those parables refer to the lost souls who have not been saved. It explains about the unbelieving souls who stay far away from God and thereby did not receive the grace of salvation yet. So today I will combine these three parables into one parable, and I hope to share the spiritual grace with you through my sermon titled, 'One Person.'

첫째, 한 사람은 전체의 시작입니다

1은 모든 숫자의 기초가 되는 숫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한 사람은 인류 역사 최초로 만든 아담을 가리킵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다음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첫 인류 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한 사람에게서 또 한 사람이 나오고 나와서 이 지구상에는 많은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교회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민족도 한 사람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는 전체의 시작입니다.

둘째, 한 사람은 온 천하보다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였고,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은 이 천하 우주 만물보다 더 가치 있다는 뜻입니다.

존 F. 케네디는 미국 역사에서 가톨릭 신자로서는 처음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또한 젊을 때 대통령이 되어 가장 박력 있는 꿈을 가진 정치가였습니다. 비록 짧은 생을 마감하였지

First, one person is a starting point of a whole group

Number 1 is the basic number of all other numbers. Genesis 2:7 says, "the LORD God formed the man from the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The one person in this verse refers to the first man of human history, Adam. When the earth was void and formless and dark God created the universe and on the last day he created the first man who was made in the image of God. God made another human being out of Adam and it was the beginning of the human race and that's how many people started to fill the earth. A family starts with one person, a church starts with one person. A nation starts with one person as well. One is the beginning of all.

Secondly, one person is more precious than the whole world

Matthew 16:26 says, "What good will it be for a man if he gains the whole world, yet forfeits his soul? Or what can a man give in exchange for his soul?" Mark 8:36 says, "What good is it for a man to gain the whole world, yet forfeit his soul?" The value of one person's life is more precious than the whole universe.

John F. Kennedy was the first president of the USA as a Catholic Christian.

Since he became the president as a relatively young man, he became a politician with audacious dreams. Although he had a short political life, he is the one who upgraded the American politics into the world class level. He was the one

만 미국의 정치를 세계적으로 올려놓은 사람입니다. 소련과의 대결에서 실력을 가지고 소련을 굴복시킨 인물입니다. 또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후진 국가에 많은 젊은 사절단을 보낸 실천적이고 인도적인,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댈러스에서 피격당했을 때에 그를 살려 보려고 미국의 의료진들이 아무리 애써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생명은 단 하나이며, 단 한 번 소유하는 것으로,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생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피부 색깔이 어떠하든, 언어가 어떠하든, 종교가 어떠하든, 배웠든 못 배워든, 남자건 여자건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첫마디는 '세례 받았느냐, 직분 잘 지켰느냐, 주일 잘 지켰느냐, 성경 많이 읽었느냐, 십일조 냈느냐, 철야기도 금식기도 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세상에 살 때 믿지 않는 네 이웃의 영혼에 관심을 가졌느냐' 라는 것 하나를 물어 보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생명의 가치가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첫째, 그 하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고 말씀합니다. 둘째, 그 하나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고 말씀합니다. 셋째, 그 하

who dominated the Russians even though Russia had more power at that time. He was a very practical humanitarian and wonderful president who, with a frontier spirit, sent many young ambassadors to many underdeveloped countries. When he was assassinated in Dallas, the medical team tried their best to save his life, but they couldn't do it. Life is one, and we own it only once, and it's the most precious gift that we can never exchange with anything else. Therefore, we have to give deep interest in one person's life.

Regardless of skin colors, languages, religions, educations, and sexes, human life is more precious than anything in the universe. That's the teaching of Jesus. Kierkegaard said, "When we die in the future and stand before God, the first question from God won't be, 'are you baptized? Did you give your best for your calling? Did you observe Sunday? Did you read the Bible a lot? Did you tithe? Did you attend the Friday all night prayer meeting?' But rather God is going to ask a question like this: 'did you pay your attention to the lost souls in your neighborhood when you were living on earth.'"

Because one person's life is so important, we should learn first that one person should not be lost. Matthew 18:14 says, "In the same way your Father in heaven is not willing that any of these little ones should be lost." Secondly, we should not cause one person to sin. Matthew 18:6 says, "But if anyone causes one of these little ones who believe in me to sin, it would be better for him to have a large millstone hung around his neck and to be drowned in the depths of the sea.'

Thirdly, we have to accept that one person. Matthew 18:5 says, "And whoever welcomes a little child like this in my

나를 영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넷째, 그 하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고 했고,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한 사람은 이렇게 귀중하기 때문에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실족게 해서도 안 되고, 영접해야 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에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한 사람의 역할은 위대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결단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5장 15, 17, 19절은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15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였은즉……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17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

name welcomes me." Fourthly, the Bible teaches us that we have to love that person. Matthew 25:40 says, "The King will reply, 'I tell you the truth, whatever you did for one of the least of these brothers of mine, you did for me.'" And John 6:39 says, "And this is the will of him who sent me, that I shall lose none of all that he has given me, but raise them up at the last day."

Considering all the verses we looked at, we can learn that because one person is so precious and valuable, it is God's will that we should not lose them, should not disappoint them, but should accept them, love them, and save them. Therefore, we should have a deep interest in 'one person' and do our best to save one soul.

Thirdly, because one person's role is great, we should not ignore any people

Romans 5:15, 17, and 19 show how great an influence each individual can exert. "……For if the many died by the trespass of the one man, how much more did……the gift that came by the grace of the one man, Jesus Christ, overflow to the many!"(v. 15), "For if, by the trespass of the one man, death reigned through that one man,…… the gift of righteousness reign in life through the one man, Jesus Christ"(v. 17), "For just as through the disobedience of the one man the many were made sinners, so also through the obedience of the one man the many will be made righteous"(v. 19). It means that because of one man, death came to us. Because of one man we received life. Because of one man, the king of death ruled us, but because of one man,

이 죄인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19절). 즉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왔고 한 사람 때문에 삶이 왔고,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의 왕이 우리를 지배했고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의 왕이 우리를 지배하고,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으나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기업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위대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 수산 궁에 있던 에스더라고 하는 한 사람,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들이 왔다 간 지는 오래되었지만 그들의 업적은 유대 사람, 그 당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없어서 유대 사람들이 전멸을 당했다면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면 복음이 한국 땅에 오게 되었을까요?

1789년 프랑스의 한 사람 나폴레옹, 1919년 소련의 한 사람 레닌, 1919년 중국의 손문이라는 한 사람.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당시 그들 민족과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피를 흘린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1517년 독일 청년 한 사람 루터, 1738년 영국 청년 한 사람 웨슬리, 1865년 미국 청년 한 사람 무디. 이 사람들은 피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인간 개조를 시도했습니다. 인간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내적인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오늘까지도 이들이 인류 역사에 크게 공헌한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the king of life ruled us. Because of one man's disobedience, all became sinners, but because of one man's obedience, many received righteousness from God and became children of God and received eternal life and eternal inheritance. Knowing all this, we can't estimate how great a value each man can have. It has great potential of influence.

One man called Joseph, one woman called Esther in the citadel of Susan, one man called Peter, one man called the Apostle for the Gentiles, Paul······. It's been long since they lived here on earth, but their legacy doesn't simply benefit their own contemporaries but all the people today. If there were no Esther, the absence of whom would have resulted in the death of all the Israelites, then would it be possible for Christ to be born in this world? Without the Apostle Paul, would the gospel have come to Korea?

Napoleon, one man of France in 1789; Lenin, one man of Russia in 1919; Son Moon, one man of China in 1919. Each of them thought that they were doing the right thing for the future of their own country through revolutions, which caused the bloodshed of many people. But Martin Luther, one young man of Germany in 1517; Wesley, one young man of England in 1738; Moody, one young man of America in 1865. These men did not shed blood. Rather, they tried to transform human beings with the Bible and the gospel. It was a human revolution. It was an inner revolution. No one can deny that they made huge contributions to human history.

A Korean philosopher, patriot, and elder Cho, Mansik was born in Pyeongyang of North Korea. He studied Chinese literature when he was young. He started a business which

한국의 사상가요, 애국자인 조만식 장로님은 본래 평양 태생으로서 젊었을 때 한학을 공부하고 한때 사업에 손을 대어 사업에 성공해서 재력이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친구들하고 매일밤 기생집에 가서 술 먹고 방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학을 같이 공부하던 청년 하나가 조만식을 만나서, "자네, 이런 생활을 계속하다가는 자네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네. 예수 믿고 새사람 되고 기독교의 신문화를 받아서 자네같이 유능한 사람이 나라를 살려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조언함으로 그 말 한마디에 그가 크게 깨우쳤습니다. 마음에 결단을 내리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끊어 버리고 180도 돌이킨 다음에 마지막으로 친구들을 불러 놓고 실컷 잘 먹이면서 "너희들 실컷 먹어라. 오늘 이것이 마지막이다. 나는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 하면서 숭실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졸업 후에는 일본에 가서 대학을 다니고 다시 한국에 와서 많은 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그는 오산중학교 교장이 되었습니다. 함석헌 씨가 오산중학교를 나온 분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오산중학교를 나온 분입니다. 그 후에 조만식 장로님은 평양의 YMCA 총무가 되고, 해방 후에 조선민주당 당수가 되고 공산당과 정면으로 싸우다가 순교의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위대한 사상가요, 애국자요, 교육자요, 신앙가인 조만식 선생님이 한 청년의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변화되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크게 공헌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 그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made him rich. So he started spending every night with prostitutes, and got drunk and lived a life of debauchery with bad friends. One day, a friend with whom he studied Chinese literature met Cho, Mansik and told him, "If you continue on like this, you will ruin your life and your country as well. Why don't you believe in Jesus and become a new man by accepting the new lifestyle of Christianity, so that you, as a capable man, can contribute to our nation." At this word of encouragement he deeply repented from his sinful life. He was determined to believe in Jesus. He made up his mind to turn around 180 degree in his life. So he threw a party for all his friends of the past and fed them well and said, "Eat as much as you want today. This is the last for you today. I decided to believe in Jesus." And then he entered the Sungsil Middle School. Upon graduation, he moved to Japan to enter a university. Later he returned to Korea and trained many disciples. Later he became the principal of Osan Middle school. Mr. Ham, Seokheon graduated from the Osan Middle School. Rev. Han, Gyeong-jik also graduated from the same middle school. Later the elder Cho, Mansik became the director of the YMCA in Peongyang. He became the leader of Joseon Democratic party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 He became a martyr as he fought directly against the communist party. When we look at how one young man made a huge difference by evangelizing Cho, Mansik who became a great thinker, patriot, educator, and Christian, who contributed to our nation and to God's Kingdom, we realize once again how important it is to evangelize to one person, how one man's role can be so great.

넷째, 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는가가 문제입니다. 본문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세상에서도 아주 몹쓸 사람이라 혀를 차던 사람이 변해 착한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또 튼튼한 아이보다도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도저히 병줄을 끊지 못하던 아이가 아주 건강하게 될 때 그 기쁨은 더 큰 법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 약속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더딘 것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안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볼 때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하면 되느냐, 질적으로 부흥해야지"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모두 구원받아서 우리와 같이 영원한 안식, 영원한 행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Fourthly, we have to seek one person

But then the question is how to find them. V. 7 of our text teaches us, "I tell you that in the same way there will be more rejoicing in heaven over one sinner who repents than over ninety-nine righteous persons who do not need to repent." In our society, when a hopelessly evil person completely turns around to be a good person, people find it to be a joyful occasion. When a child who has been suffering all his life with either hereditary or acquired sickness finally becomes healthy, it is an even more joyful event than a healthy child continuing to be healthy.

2 Peter 3:9 says, "The Lord is not slow in keeping his promise, as some understand slowness. He is patient with you, not wanting anyone to perish, but everyone to come to repentance." 'His promise' in the verse refers to the second coming of our Lord. The reason why the coming of our Lord is slow is because there are many unsaved people whom God wants to repent and be saved. That's why Jesus has not come yet. When we understand the meaning of this teaching, we can't say, "Should the church grow in quantity only? No, the church should grow rather in quality." That's not right to speak that way. It's because there are many more people who are not saved yet, and those who have not been saved have also been created in the image of God and they deserve to become sons and daughters of God. Jesus died for them on the cross; nailed, shed blood and died. It is because of God's love that God wants all of them to receive salvation through whatever means, and thereby they would also enjoy eternal rest, eternal happiness, as we will.

다섯째, 어떤 방법으로 전도해서 그 한 사람을 구원시킬까요?

본문 3~7절을 볼 때, 한 마리의 양을 목자의 심정으로 구원해야 합니다. 목자는 양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목자는 다른 양을 두고 그 양을 찾으러 밤낮으로 헤매고, 며칠이라도 찾아다니다가 혹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을 보면 그 양의 털이라도 거두는 것이 목자의 책임입니다. 목자는 양의 발자국을 잘 찾아서 갈 수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는 언덕을 지나야 하고 산을 넘어야 하고 때로는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몇 날 며칠이고 찾아야만 하는 것이 목자의 일입니다. 어떤 때는 맹수와 만나 간혹 생명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양 100마리는 개인의 소유라기보다 동네 전체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공동으로 양을 키우는 것입니다. 양을 혼자 관리하지 못하고 셋이나 네 명이서 관리합니다. 그러다가 양을 잃어버리면 다른 두세 사람은 나머지 양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고 나머지 한 사람이 양을 찾으러 나갑니다. 동네 사람들은 양을 찾으러 나간 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이 사람이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 온 동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함께 기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을 때 하늘에서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합니다.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여인의 심정으로 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이 여자가 열 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드라크마라는 것은 헬라의 화폐단위입니다. 데나리온은

Fifthly, how can we save one person through evangelism?

Fifthly, what is the best way to save this one person? Looking at verses 3~7 of our text, we have to save one lost sheep with the heart of a shepherd. A shepherd must be responsible for his sheep. His responsibility is such that if he loses one sheep, then he leaves the rest in order to find the lost sheep day and night even for several days, and if he finds his sheep eaten by a wild animal, then he has to collect even the left over skin. A shepherd can find the footprints of his sheep. In order to find a lost sheep, he has to walk over the hills, climb over the mountains, and pass through valleys. His duty is to find his lost sheep even if it takes several days. At times a shepherd can lose his own life when he meets a wild animal on the way.

At the time of Jesus, when they talk about 100 sheep, they normally belonged to the whole village rather than to an individual. They took care of the sheep communally. It took not just one but three or four shepherds to take care of them. If they lose one sheep, then two or three shepherds take the rest to the village, and then one shepherd departs from them to find the lost sheep. If this shepherd comes back to his village by carrying the lost sheep on his shoulder, all the villagers celebrate with shouts of joy. In the same way, there are shouts of joy in heaven when we find a lost soul on earth.

We also have to find the lost soul with the heart of the woman who lost a coin. The Bible says that this woman lost one out of 10 drachmas. A denarius is a Roman coin, and a drachma is a Greek coin. This silver coin was a male

로마의 화폐단위이고, 드라크마는 헬라의 화폐단위인데, 이 은전은 그 당시에 장정 하루 노동의 대가입니다. 옛날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었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결혼할 때에 이 은전 열 개를 모아서 줄에 매달아 이마에 감았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결혼한 여자요, 가정주부라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 개 중 은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아홉 개는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 열 개 중에 하나가 약혼반지나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찾기 위해 빗자루로 구석구석 쓰는 정성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찾아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잃어버린 아비의 심정으로 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참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는 사랑, 이것이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기도. 기다림. 사랑.

유재신 교수님의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는 신앙간증서를 보다가 다음 구절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는 나이 아홉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학교에 보내 많이 배우게 한 것도 아니고 유산을 물려준 것도 없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한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나에게 예수를 믿게끔 신앙의 유산을 주셨기 때문이다."

오늘날 그가 이와 같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캐나다에서 공부해 학위를 받아서 캐나다에서 대학교수가 된 것, 목사가 된 것에 대해 아버지께 진정으로 감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worker's pay for a day's work. Long ago the average person in a poor country had to live off of each day's work. Women in those days decorated their head with a string piercing 10 silver coins for their wedding. If they wore it, it signified that she was a married woman and a housewife. Therefore if she loses one, then the rest of the nine become meaningless. Even one out of ten was as important as a wedding ring today. The Bible teaches that we have to find the lost with such passion and strong desire as a woman tries to find one lost silver coin by sweeping every corner of a house.

The next parable teaches that we have to search for one person with the heart of a father who lost his son. The father must have prayed for his son. With lots of patience, he must have prayed. The love that waits with patience for the return of the lost son. That is the heart of the father. Prayer. Waiting. Love.

I read a book called 《*Unconditional Love*》 by a professor Yu, Jaesin about his testimony of faith, and I was deeply moved by it. "I lost my father when I was 9. It was not that my father gave me ample experiences of learning by sending me to schools, not that he left me a lot of inheritance, but I love, respect and appreciate my father. The reason is that he left me the inheritance of faith in Jesus."

It was about how he was truly thankful to his father for the fact that he was able to study in Korea, in the United States, and earned his degree in Canada and became a professor in Canada, and finally became a pastor. You too should give thanks to your father.

The woman who found a lost silver coin invited her neighbors and shared her joy with them. When they found a lost sheep they shared joy. When his lost son came back, the

은전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사람도 이웃을 불러 그 기쁨을 함께했다고 합니다. 양을 다시 찾았을 때도 함께 기뻐했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도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며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때는 기쁜 것입니다. 자동차 열쇠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의 기쁨, 수표책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 큰데,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를 건질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천사가 기뻐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학위 받아서 기쁜 것, 돈 벌어서 기쁜 것, 새 차 사서 기쁜 것, 결혼해서 기쁜 것, 여행 가서 기쁜 것. 그 기쁨들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아닌 불완전한 기쁨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돌아올 때 그 기쁨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 값 있는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습니까? 잃은 양을 찾았습니까? 잃은 아들을 찾았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얻은 것도 많지만 잃어버린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 상실, 믿음 상실, 열심 상실, 새벽기도 상실, 가정예배 상실, 예의 상실, 기도 상실, 영혼에 대하여 잃어버린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직도 시간은 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이렇게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자의 심정, 주부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영혼들을 건져서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칭찬과 상급을 받아 신령한 이익을 남기는 신령한 장사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father shared his joy with his neighbors by killing a calf and throwing a party. There is joy. It brings joy when you find what you lost. The joy of finding a lost key for your car and the joy of finding a checkbook are great. How much more God and his angels would rejoice when one soul more precious than the universe is saved? The joys of this world are temporary, whether it is joy of earning a degree, earning a lot of money, buying a new car, getting married, traveling, and so on. I believe that when a lost soul comes back, that joy is God's eternal joy, and such a valuable and eternal joy.

Dearly beloved, did you find the lost drachma? Did you find a lost sheep? Did you find a lost son? It seems that we earn a lot, but also we lose a lot as we live our life. I believe that we experience the loss of self, loss of faith, loss of passion, loss of early morning prayer, loss of family worship, loss of manners, loss of prayer, and loss of souls. But we should not lose our heart yet. We still have some time left.

One soul's value is so precious. May you be blessed in the name of our Lord that you become a spiritual businessman by receiving the heavenly reward and by making spiritual profit and by being filled with the heavenly joy as you save one person's soul with the heart of a shepherd, the heart of a housewife, the heart of a father, and thereby help them receive eternal life.

충성된 일꾼

디모데전서 1장 12~14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오늘 말씀 12절에,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충성되이 봐서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충성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성공을 원합니다. 가정이 부요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부흥되기 원합니다. 나라도 부강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동해야 합니다.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고, 가정에 충성하고, 교회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고, 사회에서 최선으로 충성한다면 성공하고 부흥하고 부강하게 되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받고 변화받아서 생동했습니다. 움



The Faithful Servant

1 Timothy 1:12~14

I thank Christ Jesus our Lord, who has given me strength, that he considered me faithful, appointing me to his service. Even though I was once a blasphemer and a persecutor and a violent man, I was shown mercy because I acted in ignorance and unbelief. The grace of our Lord was poured out on me abundantly, along with the faith and love that are in Christ Jesus.

V. 12 of our text says, "I thank Christ Jesus……that he considered me faithful, appointing me to his service." It is that he considered me faithful and that's why he appointed me to his service. Based on this text,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God's grace with my sermon titled, 'A Devoted Servant.'

Everyone wants to be successful. Everyone wants to have a rich family. Every church wants to be revived. Every nation wants to be strong. Then how do we do it? The church must be thriving. It must be alive and moving. In other words, if I am devoted to my responsibilities, to my family, to my church, and to my society, then it is certain that I will succeed, revive, and regain strength.

The Jerusalem church received the Holy Spirit and then was

직였습니다. 바쁘게 주의 일에 충성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뒤집혔습니다.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부터 지구촌에 복음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각자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성공과 부흥의 비결입니다.

첫째,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충성입니까?

1) 사람이 안 볼 때도 충성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안 하다가도 주인이 나타나면 하는 척하고, 군대에서 상관이 나타나면 일하는 척하는데,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안 볼 때도 충성하는 것이 진짜 충성입니다.

한 농가의 주인이 읍에 나갈 일이 있어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 놓고 나갑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자들이 일을 안 합니다. 그저 담배도 피고, 장난하는데 오직 열일곱 먹은 소년 하나만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자 어른들이 "야, 오늘은 주인이 안 지켜봐. 멀리 갔다고. 그런다고 돈 더 줄 줄 아느냐?" 하면서 비아냥댑니다. 그래도 소년은 열심히 일합니다. 저녁 때가 되어 자동차가 농장으로 들어오니까 모두 열심히 일하는 척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오더니 다른 사람들에겐 10불씩 나누어 주더니 그 소년에게는 20불을 줬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을 데리고 가 창고 천장에 설치한 카메라로 녹화한 것을 보여 주려고 하니까 다 떠나고 그 소년만 남았습니다.

시편 139편 7~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다 끝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아서 우리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revived. They moved. They were devoted to doing the work of the Lord with a busy schedule. The whole city of Jerusalem was turned upside down. The revival began to occur at the church. From there the gospel message started to spread out to the whole world. Each person being devoted to their own responsibility was the secret of success and revival.

First, what should we do to be devoted?

1) True devotion is doing our best even when no one is looking

Some people pretend to be working when one's master shows up. In the Army when a superior shows up, the soldiers pretend to work. Those pretenses are not a sign of true devotion. When no one is looking, if you are doing your best, then it is a true sign of devotion.

An owner of a farm had something to do in town, so he asked his servants to do something and left. But the servants didn't do anything. They smoked, played around, but only one young man who was 17 years old worked hard. So the adults were laughing and said, "Hey, today there is no owner who watches us. He is gone far away. If you work hard, do you think you will get more money?" But the young man worked hard. By evening the owner came back home and the car he drove pulled into the yard. So everyone pretended to be working hard. But then the owner came in and gave each person $10, except the young boy who received $20. Other people started complaining. So the owner took them all out and tried to show what was videotaped by a camera installed on the ceiling of the farm building. No one wanted to see the video, except the young boy.

세십니다. 사람, 주인, 상관, 목사를 보지 말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2) 시간 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시장터에 가서 데려오는데, 한 사람은 9시에 데려오고, 한 사람은 12시에 데려오고, 한 사람은 오후 3시에 데려오고, 마지막 한 사람은 5시에 데려왔습니다. 일을 끝마치고 그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그들에게 주인이 약속한 품삯은 한 데나리온씩입니다. 그런데 정작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주니까 먼저 온 자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5시에 들어온 사람은 우리보다 적게 일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줍니까?" 그때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하고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소. 나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무슨 불평이 있고 무슨 상관이 있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주인은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늦게 들어간 사람도 식구가 있는데 이만큼은 받아가야 먹고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둘째, 5시에 들어온 사람은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농장 주인에게 뽑혀 가니까 감사해서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집 식구들을 생각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아침에 들어온 사람과 오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일한 만큼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시간 가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파칼손이라

When we read Psalm 139:7~10, it teaches us that there is no place where there is no God. God is at the end of the ocean. God's eyes are like a fire that can see inside of our hearts, and God can count the number of our hairs. If you work before God without pretending before man, owner, superior, or pastor, but work toward God always, it is a true sign of devotion.

2) True devotion does not pay attention to the passing of time

Matthew 20:1~6 is Jesus' parable about a landowner of a vineyard who went out to a market to hire workers. He brought in one worker at 9 o'clock in the morning, another person at 12 o'clock, another person at 3 o'clock, and the last person at 5 o'clock. After the work was over, he paid for their work of the day. What he promised to them was a denarius. In fact, he gave each person a denarius. But the ones who came in earlier started complaining. "Hey, listen. The one who came in at 5 o'clock worked less than we did, but why do you give the equal amount to him?" The landowner answered, "Didn't I agree to pay one denarius to you? I kept that promise. Why do you complain and why do you care?"

There are two meanings behind this story. First, the landowner is a gracious man. He knows that the one who came in late also has a family and they need at least this much pay in order to survive. Secondly, the one who came into the vineyard at 5 o'clock must have worked hard out of a thankful heart because he knew that he was selected at the last hour. He must have worked hard with gratitude thinking about his own family. He must have worked as much as those who came in in the morning or in the afternoon. He must

는 큰 인쇄소에서 일했습니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인쇄소입니다. 제가 거기서 6년 반을 일했는데, 아침 8시에 들어가면 점심시간 30분 빼고 오후 4시 반까지 일합니다. 그런데 4시쯤 되면, 백인이나 멕시칸이나 흑인이나 일본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집에 가려고 전부 화장실에 가서 씻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계를 흔듭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하면서요. 그런데 거기 동양 사람 하나는 아침 일찍 출근합니다. 그 다음에 퇴근 시간에도 자기 정리할 것을 다 하고 갑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랬더니 매니저와 수퍼바이저가 그걸 알고, 원래 임금을 1년에 10전 아니면 20전 올려 주는 것을 이 사람에겐 얼마 안 있다 50전 올려 주고, 1불 올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올려 주기를 4~5년간 하니까 30년 일했던 사람만큼 돈을 주고 잔업은 그냥 맡기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시간 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땅에서도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3) 돈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독일의 폭격으로 아직까지 영국 도로는 곳곳에 구멍이 많이 뚫려 있고 완전히 정리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일본 신사 하나가 택시를 타고 갑니다. 택시 운전수가 구멍 뚫린 데를 피해서 가는데, 3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 30분이 걸려 갔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가 돈을 좀 더 주었습니다. 그런데 택시 운전사가 웃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나는 당신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고 그에 따른 운임이 있는 겁니다. 다만 전쟁 후에 길이 험해서 늦은 것뿐이니,

have worked hard without paying attention to the passing of time.

When I moved to the States, I began to work.

I worked at a big printing company called 'Pacalson.' It was the third biggest printing company. I worked there for six and a half years. The workers started at 8 o'clock and took a 30 minute lunch break, and then worked until 4:30 in the afternoon. But by 4 o'clock, whether the worker is white, Mexican, black, or Japanese, everyone was getting ready to leave the company by washing at the restrooms. Some people shook their watches as if their watches stopped working. Time doesn't go as fast as they want. But there was one Asian man who came to work early in the morning. Before he left work, he finished all that was expected of him.

He worked hard too. Then the manager and the supervisor noticed him and gave him a raise of 50 cents and next $1 per hour, even though normally people got a raise of 10 or 20 cents per hour. After getting that much of raise for 4~5 years, his pay was as much as those who worked there for 30 years, and he also received full trust from the managers for all kinds of work. I believe that if we work hard without paying attention to the passing of time, God will be pleased and you will also receive blessings on earth.

3) True devotion does not consider money

Immediately after WWII, a Japanese man was riding a taxi in England on a road that was not fully restored, yet showed many holes due to the German bombing. The taxi driver took an hour and thirty minutes instead of the usual thirty minutes because he had to dodge those holes on the roads. So the Japanese gentleman gave some extra money to the driver. But

나는 정한 운임만 받으면 됩니다"라고 하여 일본 사람이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역시 대영제국이라는 말을 거기서 실감했다고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외국 손님들에게 택시 운전사들이 바가지 요금을 씌운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그 외국인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한국에 가라고 하겠습니까?

요셉은 열일곱 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노예로 팔려 갔습니다. 노예시장에서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 갔습니다. 그는 노예 신분이었고, 외국 사람이었고, 아직도 새파란 젊은이였습니다만 장군은 그에게 가정의 중직을 맡겼습니다. 장군의 집에는 이미 오랫동안 일한 종들이 많았으나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자기 아내만 건드리지 말고 다 네 맘대로 하라고 하면서 직무를 맡겼습니다. 요셉이 시간 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맡은 일에 충성함으로 신임을 얻고 큰 복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돈을 생각하고 일하면 안 됩니다. 사업할 때에 이윤보다는 봉사를 앞세울 때 성공합니다. 돈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기쁨을 주고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봉사를 해야 합니다. 돈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4) 말 없이 충성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난주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 하실 때에 제자 둘을 부르사 "너희가 저 앞 동네에 가서 나귀가 하나 매어 있을 테니 그 나귀를 끌고 오너라. 주인이 왜 그러느냐고 묻거든 주께서 쓰신다고 하라"고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가 보니 나귀

the driver refused to receive the tip. The gentleman asked why. The driver answered, "I brought you here and there is a set amount of fee depending on the distance. We are late because the road was in terrible condition due to the war. So all I have to receive is the set fee." So the Japanese bowed his head to the driver. He felt that 'Great Britain' was great.

I heard many times these days that the taxi drivers in Korea overcharge foreigners. Then do you think those foreigners, when they go back to their countries, would recommend visiting Korea to their friends?

Joseph was hated by his older brothers, when he was seventeen he was sold as a slave and brought to Egypt. At a slave market, he was sold as a slave to Potiphar, the general. His identity was a slave, foreigner, and a very young man. The general entrusted him with the household management, which was an important role. Even though there were many servants who worked at the general's house, somehow the general gave all to Joseph. He gave all the responsibilities of the home to Joseph and allowed him to do anything except touch his wife. Just as Joseph received great blessings and great trust because he worked very hard without paying attention to the passing of time, we also should work without paying attention to money. When you work, if you value service more than profit, then you will succeed. Before your desire for money, you have to provide joy and kindness. You have to serve. True devotion is done without paying attention to money.

4) True devotion is done without many words

As Jesus was about to enter into Jerusalem in the week of suffering, he called two of his disciples and said, "Go to the village ahead of you, and at once you will find a donkey tied

가 있어 줄을 풀어 끌고 가려고 하는데 나귀 주인이 왜 나귀를 풀어 가려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가 쓰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니까 그 주인이 말없이 나귀를 가져가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면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이 주인이 은밀히 봉사하는 것을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만큼 은밀한 봉사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주님께만 봉사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연보할 때 1불짜리는 주먹에 꼭 쥐고 헌금한답니다. 10불짜리 할 때는 공중에 한 번 흔들어서 한답니다. 아마 100불짜리 할 때는 더 흔들고 하겠지요. 설교를 잘하면 10불을 넣고 설교를 잘 못하면 10불을 넣고 9불을 거슬러 간다고 합니다.

모르게 해야 합니다. 은밀히, 말없이 충성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열심도 많고 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의 상징은 소입니다. 소는 일을 많이 하지만 배고파도, 때려도, 아무리 일을 많이 시켜도 불평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죽어 자기 살, 오장육부, 뼈, 가죽을 모두 다 주인에게 바칩니다. 이처럼 우리도 말없이 충성해야 합니다.

5)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종일관, 용두사미가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로마 폼페이라는 항구도시가 있었는데, 우상이 많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는지 거기 높은

there, with her colt by her. Untie them and bring them to me. If anyone says anything to you, tell him that the Lord needs them." When they went there they found a donkey and they were about to untie it. That's when the owner of the donkey asked why they were trying to untie the donkey. So the disciples said, "the Lord needs it." At their words, the owner let them take the donkey.

We can learn an important lesson from this story. The disciples of Jesus followed him for three days as they ate and slept together as if they were the shadow of Jesus. But they didn't notice how their master secretly served others. It was done quietly. It was a service to the Lord, only without letting others know at all.

I was told that a man gives $1 as an offering after he squeezes it. When he gives $10, he probably shakes it in air and then drops it in the plate. If he would give $100, then he probably would shake it much more in the air and then drop it in the plate. He would give $10 if the sermon was good, but if the sermon was not that great, then he drops the $10 and gets $9 back as change.

You should do everything in secret. You need to devote yourself without words, secretly. There are many people who work hard and talk a lot. But the symbol of devotion is a cow. Cows work a lot, but they don't complain even if they are hungry, they are beaten, or they work overtime, yet they offer all of their bodies including their meat, organs, bones, and skin to their owner. In the same way we have to devote all of our lives.

5) True devotion lasts all the way through the end

True devotion is to do our best from the beginning all the

산에서 화산이 터져서 용암이 흘러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망합니다. 그런데 군인 하나는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보초는 명령이 없으면 제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군대 보초의 수칙입니다. 이 사병은 용암이 발목에 차 올라와서 뜨겁지만 그냥 버티었습니다. 그 보초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군인들이 충성에 대해 가르칠 때 그 군인의 예를 들어서 교육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된 충성입니다.

개의 주인이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그 주인이 기르던 개가 그 무덤을 떠나지 않고 지켰다고 합니다. 나머지 가족이 개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그 개 주인의 무덤에 밥을 갖다주었다고 합니다. 그 개는 돌아오지 않고 무덤을 13년 동안 지키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개 무덤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충성이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치 않고 지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위해서 목이 잘리면서도 변치 않는 충성심을 가졌습니다. 스데반도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어 가면서도 주님에 대한 충성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하는 충성이 진짜 충성입니다.

2. 충성하면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1) 건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타락한 후에 인간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남자는 이마에 땀을

way to the end, consistently without slacking. There was a seaport called Pompei in Rome. They had many idols and it was also a sexually immoral city. Thus it must have been God's judgment on them that from the high mountain nearby a volcano erupted and hot lava overflowed on the city. Everyone started running away. But one soldier kept his position. A guarding soldier is not supposed to leave without an order.

That is the rule of the law in the army. This private kept standing even when the hot lava started crawling up his legs. He died standing there. Therefore, leaders in the armies in the world take the example of the solider of Pompei when they train their own soldiers about devotion. True devotion is to keep standing there no matter what, he was commanded to keep his position.

An owner of a dog died and was buried. But the dog did not leave the tomb. The rest of the family, after they waited a while, saw that the dog did not come home. So they brought food to the dog at the tomb. The dog did not return home but stayed by the tomb for 13 years, and then the dog died by the tomb. So they made a tomb for the dog next to the owner's.

True devotion means that they do not change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John the Baptist kept his faithfulness to the Lord even when he lost his neck. Stephen kept his faith in the Lord even when he was stoned to death. Devotion is true when it goes all the way to the end.

Secondly, what kind of blessings do we get if we are devoted?

1) We receive the blessing of health

흘리면서 살고,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하면 건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도시 사람과 농부 중에 누가 더 건강합니까? 일본의 백 세가 넘은 할아버지들을 보니까 예외 없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종교든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래 살고, 집안의 작은 일거리일지라도 일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일할 때에 건강하고, 건강해서 행복합니다.

2) 식욕의 축복이 있습니다

일을 잘하니까 밥맛이 좋고 소화가 잘되는 식욕의 축복을 받습니다. 전도서 9장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고 하였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밥맛이 좋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마당을 쓸든지, 눈을 쓸든지, 장작을 패든지, 일을 하고 나서는 밥맛이 꿀맛 같습니다. 식욕이 좋아집니다. 노동해서 얻은 음식은 더욱 맛있습니다. 땀 흘려 벌어서 먹는 음식은 더욱 맛있습니다. 밥맛이 없으신 분들은 열심히 일해 보십시오. 집 청소도 좀 하고, 마당도 쓸어 보십시오. 잘 잡수시게 되고 소화도 잘될 것입니다.

3) 단잠을 잡니다

전도서 5장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고 하였습니다. 일하면 단잠을 자게 됩니다. 서양 속담에 "편안한 것이

Human beings had to work after the fall. Men had to sweat on their brow and women had the pain of childbirth. The Bible teaches that if you hate working, then you should not eat. But if we work, then we get the blessing of health. Between city people and farmers, who are healthier? Considering the number of grandfathers who are older than 100 years olds, without exception, there is one common thing: They had religion of some kind, and they also continued to work even if the jobs are trivial works at home. When you work, you become healthy. When you become healthy, then you become happy.

2) We receive the blessing of appetite

Because you work well, you will also have a good appetite, which will help your digestion. Ecclesiastes 9:7 says, "Go, eat your food with gladness, and drink your wine with a joyful heart, for it is now that God favors what you do." The appetite must be good for those who work. When you work outside, sweeping the yard, or shoveling snow, chopping wood, and doing some work, then your food will be as delicious as honey. You will have a great appetite. Food will be more delicious after labor. Food will be more delicious after you work and sweat. If you don't have a good appetite, then try to work hard. Try to clean your house, sweep your yard. Then you will have a good appetite and good digestion too.

3) We would sleep well

Ecclesiastes 5:12 says, "The sleep of a laborer is sweet, whether he eats little or much, but the abundance of a rich man permits him no sleep." In the Western proverb, they say,

마귀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일해야 합니다.

4) 도덕적 축복을 받습니다

일하면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루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의 역사를 보면, 다윗이 목동 시절에는 죄 를 짓지 않았습니다. 율법도 많이 읽었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 생활을 했는데, 임금이 된 다음에 교만해졌습니다. 밤새도록 무슨 파티를 했던지 늦잠을 자고 느지막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성경을 읽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 저 레바논도 내 땅이지, 지중해도 내 땅이지, 광야도 내 땅이지, 유프라데 강 저것도 내 것이지" 하면서 둘러보다가 어느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데려다가 죄를 짓고 맙니다. 사람은 나태할 때 죄를 짓게 됩니다. 일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죽으려야 죽을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바쁘게 일하면 죄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편안하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5) 성공의 축복을 받습니다

잠언 10장 4~5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고 했습니다. 일하면 성공합니다.

파라과이에 갔을 때 원주민 마을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집들이 개장 같았습니다. 그런데 땅은 비옥합니다. 고구마를 심어

"The comfortable place is Satan's company." You should work.

4) We receive the blessing of a virtuous life

When you work, you get three kinds of blessings. First you are not bored. Secondly, you don't become poor. Thirdly, you don't commit crimes.

When we study the history of King David, during his period as a shepherd, he did not commit a crime. He read God's law a lot. He prayed overnight, fasted, and lived a spiritual life with God. But after he became a king, he became proud. He must have had many late night parties, and he went to bed late, and he woke up late too. There is nowhere in the Bible that says that when he woke up he read the Scripture or he prayed. But he went up to the roof of his palace and said, "Oh, that land of Lebanon is mine; the Mediterranean is mine also; the wilderness is mine too, and the Euphrates River is also mine." And then he saw a beautiful woman who was taking a shower. So he committed a sin by taking her to himself. When people become lazy, they sin. But if you work, you don't commit sins. If you work almost to death, then you would not be able to commit sins. We sin because we are so comfortable.

5) We receive the blessing of success

Proverbs 10:4~5 says, "Lazy hands make a man poor, but diligent hands bring wealth. He who gathers crops in summer is a wise son, but he who sleeps during harvest is a disgraceful son." If you work, then you will succeed.

When I went to Paraguay, I visited a primitive village. Homes were like dog cages. But the land was rich. If you

도 어떤 걸 심어도 잘 자랍니다. 저는 그 교회에 선교하러 온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땅에 무엇을 심어도 잘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고. 그러자 그 청년 왈, 원주민들은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네가 심어서 나 줘." 대부분의 후진국들은 일하지 않아서 가난한 것입니다. 잘사는 나라 사람들은 다 부지런합니다. 우리나라에 망국가가 있습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나라 망치는 노래입니다.

3.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축복이 있습니다

1) 더 많은 것을 맡겨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을 보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2) 자손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느헤미야 9장 7~8절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라고 하였습니다. 이러이러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충성했기 때문에 자손들에게까지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세계의 경제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3) 지도자가 됩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

raise sweat potatoes, you get big crops. Whatever you sow there grows very well. So I asked one young man who came to that church for mission, "You see, that this land is so rich that whatever you sow here, produces big crops. Why don't you work?" But the young man told me that this is how the village people answer: "why don't you sow seeds and then give the fruit to me." Most of the under developed countries are the ones that have people who do not work. All the developed nations are the ones where people work hard. Our nation has a song that would ruin our country: "Let's play, let's play. Let's play while young. When you get old, you can't play……." This is the song that would ruin our nation.

Thirdly, there is a blessing of faith to those who are especially devoted to doing the work of the God

1) God will entrust you with more responsibility

Matthew 25:23 says,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You have been faithful with a few things; I will put you in charge of many things." If you work hard, you will receive blessings.

2) Your children will receive blessings.

Nehemiah 9:7~8 says, "……and named him Abraham. You found his heart faithful to you……." God gave many other blessings to him. Because Abraham was faithful, God gave blessings to his children. Isn't it true that the children of Abraham even today rule the world economy?

3) You will be a leader

Numbers 12:7 says, "But this is not true of my servant

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산중학교는 한경직 목사님과 함석헌 씨가 졸업한 학교입니다. 도산 안창호가 그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이 오산중학교는 많은 애국자들을 길러 낸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어느 선생이 꼭 한 가지 해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군들, 축하하네. 그동안 수고했어. 나는 일찍이 아버지 어머니를 여의어서 고아가 되었네. 옛날엔 고아원이 없어서 부잣집에 들어가서 심부름을 하면서 먹고 자라났네. 그런데 내가 아침마다 주인의 요강을 잘 닦아 주었더니 그 주인이 나를 기특하게 보고 학교 공부를 시켜 주어서 오늘날 내가 오산중학교 선생이 될 수 있었다네. 내가 요강 잘 닦아서 선생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맡든지 충성을 다하게나."

젊은이들은 요강이란 것을 모를 텐데, 소변을 보는 항아리같이 생긴 물건입니다. 이 소년은 주인의 요강을 닦으면서 물로 닦아도 지린내가 나고, 뜨거운 물로 닦아도 지린내가 나자 계속 냄새를 맡아 보고 냄새가 안 날 때까지 빡빡 닦은 것입니다. 그 주인이 그걸 보고 그 소년을 공부시켜 주었고, 덕분에 그는 선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요강 닦을 일이 없지만 맡은 일에 충성하면 지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Moses; he is faithful in all my house." The reason why Moses became the leader of Israel and leader of the world was because he was faithful before the Lord. That's why God selected him to be a leader.

Osan Middle school is a school where the Rev. Han, Gyeongjik and Mr. Ham, Seokheon graduated. 'Do San' An, Changho used to teach at this school, and this Osan Middle school has produced many patriots for our nation. It has been told that one teacher used to tell this story to every single student who graduates from the middle school: "Students, Congratulations. You have done a great job until now. I became an orphan when I was young because I lost both my father and my mother. Long ago they didn't even have orphanages. So I had to work at a rich man's house to survive. That's how I grew up. But then I cleaned the owner's own private urine bowl, he favored me and sent me to schools. That's why I became a teacher at this Osan Middle school. Just as I became a teacher at this school simply because I cleaned the urine bowl, I encourage you to do your best in whatever responsibility you take as you enter into our society."

If you are still young, you wouldn't know what the urine bowl is about. It is a bowl that is used for the purpose of urinating at night. This young boy tried to clean the bowl with water, with hot water, but still it was smelly. So he scrubbed it very hard until the smell was completely gone. That's how the master noticed this boy and that's how he decided to send him to schools, and thanks to his help, he became a teacher. Nowadays you don't have to clean a urine bowl, but I believe that you will become a leader if you do your best in your responsibilities.

4) 생명의 면류관을 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대 올림픽 때 1등을 하면 월계관을 주었습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에게도 월계관을 씌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0일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져 아궁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충성하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십니다. 의로운 면류관, 금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신실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5)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서 음식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충성한 종들은 주님의 잔치에 같이 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세상에서 대통령과 함께하는 오찬 기도회에 갔다가 대통령과 악수 한 번 못하고 와도 자랑을 하는데, 주님의 잔치에 참석한 우리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충성했고, 모세가 충성했고, 바울이 충성했고, 예수님도 충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충성하면 나와 내 후손이 그렇게 물질적 축복, 육체적 축복, 정신적 축복을 누리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금세와 내세를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 이 땅에서 그리고 주님께 가서 면류관을 얻으며 축복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 You will receive the crown of life

The book of Revelation 2:10b says,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and I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When a runner got first in the ancient Olympic games, they received a laurel wreath.

The victorious general coming back home after winning battles also received a laurel wreath. But after only 20 days, these wreaths will be rotten and be thrown into a fire pit. But if you remain faithful to the Lord on this earth, when you go to the Lord, he will crown you with a crown of righteousness, a crown of gold, a crown of life. God's Word is not false. It is true. It says that God will give us the crown of life.

5) You will join the Lord's celebration to share meals

Matthew 25:21 says, "……come and share your master's happiness." The faithful servants sat at the table of the Lord and ate with him. In this world people brag about the fact that they had a prayer breakfast with a president of a country, even though they couldn't even shake hands with the president. If this impersonal event brings great joy, how much more joyful will we be if we participate in the Lord's celebration?

Abraham was faithful; Moses was faithful; Paul was faithful; Jesus was also faithful. Therefore, I believe that if you devote our lives to the Lord in our family, church, school, work, society, then you and your children will live with abundant grace with many material, physical, and spiritual blessings in this world and the next. May you be blessed in the name of our Lord so that both of you and I become faithful servants before the Lord on this earth so that we would receive the crown of life and receive blessings when we go to the L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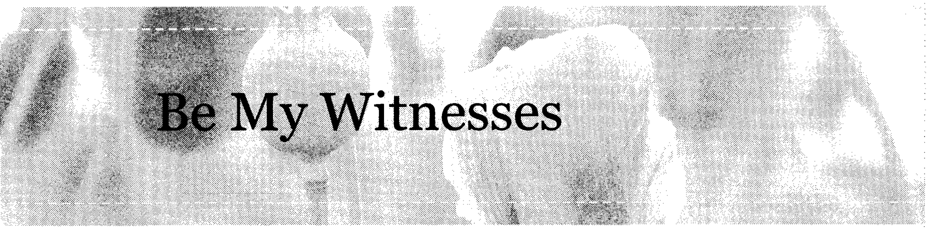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1~8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큰 기쁨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이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짐승 취급을 당하는 그들이 자유가 그립고 정치적 · 경제적 부흥이 그리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것을 볼 때 이분이야말로 초인적인 인간이시니 유대 나라에 다윗 시대와 같은 황금시대를



Be My Witnesses

Acts 1:1~8

In my former book, Theophilus, I wrote about all that Jesus began to do and to teach until the day he was taken up to heaven, after giving instructions through the Holy Spirit to the apostles he had chosen. After his suffering, he showed himself to these men and gave many convincing proofs that he was alive. He appeared to them over a period of forty days and spoke about the kingdom of God. On one occasion, while he was eating with them, he gave them this command: "Do not leave Jerusalem, but wait for the gift my Father promised, which you have heard me speak about. For John baptized with water, but in a few days you wi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So when they met together, they asked him, "Lord, are you at this time going to restore the kingdom to Israel?" He said to them: "It is not for you to know the times or dates the Father has set by his own authority.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When the disciples met Jesus who had risen from the dead, they became full of joy, hope and new courage. There the disciples asked Jesus, "Are you at this time going to restore the kingdom to Israel?" They asked this question because they lost their sovereignty to the Roman Empire and were treated like animals by the Roman soldiers. Therefore they were yearning for freedom and political and economical revival. When they saw Jesus raised from the dead, they believed that Jesus must be the Messiah, a super human who

회복시켜 줄 것이라 생각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동문서답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못 들으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잘못 들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문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해방도 좋고, 자유도 좋고, 평등도 좋고, 경제적인 부흥도 좋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근본적으로 먼저 해야 할 것은 성령을 받아 새 사람들이 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유대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침략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망했습니까? 그것보다도 그들의 조상들이 범죄했고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 값으로 망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적 · 경제적 문제보다도 인간의 혁명, 인간의 개혁, 인간의 자아 완성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파악하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지구상에는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정치가는 정치로, 경제인은 경제로, 과학자는 과학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에 근본 문제는 인간 문제입니다. 똑같은 칼이지만 의사의 손에 들렸을 때와 강도의 손에 들렸을 때 쓰이는 방법이 달라지고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처럼, 정치 문제도 누가 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정당이 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새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본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증인이 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could restore the golden ages like the age of King David of Israel.

But Jesus gave an incoherent reply to them and said,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It was not because Jesus did not hear nor misunderstood the question from the disciples. Jesus talked about the essence of the matter.

Independence, freedom, equality, economic revival are all good things, but Jesus pointed out that the first thing that the nation of Israel had to undertake was to receive the Holy Spirit so that they could become new people. Why was Judah destroyed? Was it because the Roman soldiers were very aggressive in invasion? It was not because of their political or economical reasons, but because of their ancestor's sin and their own sin that they were destroyed. That's why Jesus pointed out that the essence of the matter was about human revolution, human reformation, and human self-fulfillment.

Even in the world today there are many problems that we face on earth. The politicians try to solve problems politically; the economists economically; the scientists scientifically. But as far as we know, the fundamental issue is the human problem. Just as the consequence is either light or darkness depending on who holds the knife, whether a doctor or a thief, a political problem doesn't depend on who or which party handles the issue. It's a matter of how they become anew. The fundamental problem has to be solved.

Anchoring on the words of Jesus who said,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만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피아노는 연주를 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의자는 앉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전등불은 밝히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동차는 태우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은 국경을 넘어 이방나라의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사실을 본 사람이라야 증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을 친히 목도하지 아니한 사람은 증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8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데리고 들어가지 아니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셨고, 그때 요한은 예수님이 친히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몸이 변화되

earth."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God's grace through this sermon titled, 'Be My Witnesses.'

In all things there is a purpose. A piano is made to be played. A chair is made to be seated on. A lantern is made to shed light. Just as a car is made for transportation, the reason why God created us in his image and saved us from sin is to make us witnesses for Christ.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The reason why he called us was to make fishers of men. The reason why the apostle Paul was called was to save the souls of the Gentiles beyond the borders. If we want to become witnesses of Christ, there are several principles to learn.

First, only those who witnessed a real event deserve to be witnesses

Those who did not see the real event do not deserve to be witnesses. The apostle John said in 1 John 1:1, "That which was from the beginning, which we have heard, which we have seen with our eyes, which we have looked at and our hands have touched." We know that John was the youngest of all the disciples of Jesus and also the beloved disciple of Jesus. That is why Jesus took only Peter, James and John when he entered to the room of the dead daughter of the synagogue ruler Jarius. At that time John himself saw Jesus raising the dead daughter of the synagogue ruler.

He himself witnessed when Jesus was transformed on a mountain. When Jesus was nailed on the cross, all other disciples ran away and shut the doors, but John alone followed him all the way to the cross and saw the scene for himself.

실 때에 친히 그 사실을 목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문을 닫고 꽁꽁 빗장을 지르고 있었지만 요한 사도만은 십자가 밑까지 따라가 그 광경을 친히 보았습니다.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베푸는 것을 친히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고, 구름 타고 승천하시는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자기가 증인의 자격이 있다고 당당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제2의 창설자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증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을 돌로 때리는 데 가담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주여 뉘시오니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길을 가다가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돌이켰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친히 체험한 다음 핍박하러 가던 발을 180도 돌이켜 예수는 나의 구주요, 여러분의 구주라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을 썼습니다. 이 사실은 그가 간접 사도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도 않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고 구름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John heard many sermons of Jesus as he followed him for three years. He saw for himself how Jesus performed many miracles and wonders. He saw the risen Jesus, and the ascending Jesus as well. Therefore, he boldly claimed that he deserved to be a witness.

Paul, whom we call the second creator of Christianity, used to be a Pharisee originally. He was a legal scholar. He used to hate Christians. That's why he joined the mob who stoned Stephen to death. But he met Jesus on the road to Damascus and said, "Who are you, Lord?" Jesus answered, "I am Jesus, whom you are persecuting." He was on his way to kill the Christians, but he met Jesus who was brighter than the sun. There he turned around. After he experienced for himself that Jesus was indeed risen by conquering death, he turned around 180 degrees in his path to confess that Jesus is that Jesus was his Savior, and spread this gospel, planted churches and wrote more than half of the New Testament. In fact, he was an indirect apostle but since he saw the risen Jesus, he testified boldly and became a witness of Christ.

Today we are also the witnesses of Christ. "Since we never went around with Jesus, never saw the resurrection of Jesus or the ascension of Jesus, then how is it that we can become witnesses?"

Even though you might say that, we have many experiences with the Holy Spirit. We realized we are sinners through the inspiration of the Holy Spirit. We already repented of our sin by shedding tears. We already heard the voice of God that our sins are forgiven, that we are now righteous, that we have become children of God. Therefore we received peace, joy and

라고 말할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체험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부족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눈물로 회개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받았다는 음성과 의롭다는 음성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평화와 기쁨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삶의 가치와 방향을 찾았고, 바른 사상과 바른 내세관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자신이 죄인이 아닌 줄 알았을 것입니다. 내게 무슨 죄가 있는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면서 깨닫기를 '나는 죄인이로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죄를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마음에 한 줌의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인생관을 바로 깨달았고 가치관을 깨달았고 내세관을 깨달은 것이 우리의 체험이고 우리가 본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증인은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구약시대에는 재판할 때에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만 재판을 했습니다. 지금도 어느 나라든지 증인이 있어야만 정당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 탄

courage in our hearts. We found the true value of life and direction and gained right belief and true belief for eternal life. All of these are the evidences that we are witnesses.

Acts 3:15 says, "bu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We are witnesses of this." Before you believed in Jesus, you must have thought that you were not sinners. You must have thought that there is no sin in you. You must have believed that you are clean and innocent. But after you came to church, listened to God's word, read God's word, you must have realized, "I am a sinner" and you must have shed tears. You must have repented of your sins. And then you received forgiveness. You now have joy in your heart. You have happiness. Because we realized the right perspective and true belief on eternal life, which became our experiences and truth, we have become witnesses who can testify about our own experiences.

Secondly, witnesses must risk their lives

The term, witness, is a legal term. In the Old Testament in Israel, they had to have two or three people as witnesses in the court. Even now in every country you can have a fair trial only when there are witnesses.

But if the witnesses were proven later to have told lies, then they received the death penalty in Israel. Therefore, if the disciples of Jesus and other followers were testifying falsely, then they could have died.

John the Baptist told the truth, and that's why he was killed early. In the same way, there are many dangerous situations when we witness with truth. Therefore, the word, 'witness' is

로가 나면 그 사람은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신자들이 거짓으로 증거할 때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른말 하고 바로 전했기 때문에 일찍이 죽은 것처럼, 바로 증거할 때에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투르스' 이며, 이것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증인이란 다시 말해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신자들은 예수를 증거하다가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열두 제자 중 사도 요한만 빼고는 다 국내, 국외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맞아 죽거나, 톱으로 켜서 죽거나, 목이 잘려 죽거나 다 순교했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7~60절에 스데반도 예수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서기를 꺼려 합니다. 법정에서 증언하다가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그 사람이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 보복할까봐 두려워 증인으로 서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내 생명이 위태하다고 제대로 증언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초대 서머나교회 감독인 폴리갑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폴리갑은 예수를 증거하다가 잡혔습니다. 장작더미에 불을 질러서 폴리갑을 죽이기 전에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 주겠다"라고 하자 이 늙은 감독이 말하기를, "내 나이 86이오. 내 생애 86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이 늙은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이제 와서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리오?" 하고는 타는 장작

'Martus' in Greek, which means 'martyr.' Almost all of the apostles and members of the early church were martyred as they testified about Jesus. All the twelve disciples except the Apostle John were martyred in or outside of Israel. They died by being beaten up, by being sawn, or by hanging. To be witness means to risk one's life. Acts 7:57~60 shows that Stephen was stoned to death as he testified about Jesus.

Normal people are afraid of being a witness at a court. When they testify at a court, if they have eye contact with the defendant, they think that the defendant might take revenge against them after his jail sentence is over. That's why they don't want to be witnesses. But then what would happen to our society if we don't testify with truth simply because our life is at risk?

We heard a lot about the story of Polycarp, the first bishop of the Smyrna church. He was caught because he testified about Jesus. They said that immediately before they set a fire on the woods to burn him, "If you deny Jesus even now, we will let you live." But this old bishop answered, "I am 86 years old. Christ never denied me in my whole life of 86 years, and how can I deny Jesus even now as my life almost comes to an end?"

In the fire he prayed to the end for those who were persecuting him and shedding his blood as a martyr.

We can find in history that when Christians try to complete their mission, they can't help but to enter into a situation where they might be martyred. They say that the blood of the martyrs is fertilizer for the development of the church. Because so many people all over the world shed their blood, the church has prospered for the last 2,000 years of Christians

불 속에서 마지막까지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자 할 때에는 순교할 수밖에 없는 경지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순교의 피는 교회 발전의 거름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 2천 년 동안 세계 여러 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왕성하게 된 것이고 한국 기독교 역사가 100년밖에 안 되었지만 이렇게 성장한 것도 순교의 피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은 구한말 헌종 때, 순조 때, 대원군 때 천주교인들이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일제시대 때, 6 · 25 전쟁 때 기독교인들이 순교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부흥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은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 증인은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20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못 박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할 때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두 사도를 협박하면서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church history, and because of the blood of the martyrs, we have grown so much even though the Korean church history is as short as 100 years. In our Korean history, in the late Joseon dynasty, in the period of Hyeonjong, Sunjo, Daewongun, many Catholic Christians shed their blood. In the time of Japanese colonization and during the Korean War, many Christians shed their blood. Nobody can deny that these are the reasons why the Korean churches prospered later. Therefore, the witnesses must be willing to risk death.

Thirdly, the witnesses must tell the truth

Acts 4:19~20 says, "But Peter and John replied, 'Judge for yourselves whether it is right in God's sight to obey you rather than God. For we cannot help speaking about what we have seen and heard.'" When John and Peter preached before all the people in Jerusalem, they said "The Christ whom you crucified is the Son of God and he is risen again." But the religious leaders at that time threatened these two apostles and told them not to teach any more. At that moment Peter spoke boldly, "Judge for yourselves whether it is right in God's sight to obey you rather than God. For we cannot help speaking about what we have seen and heard." Also in Acts 22:15, it says, "You will be his witness to all men of what you have seen and heard." This is what the Apostle Paul said finally in Ephesus with boldness about all the things he saw himself on the road to Damascus. That's why he received many persecutions there. He could only save his own neck by running away from Ephesus.

Again Acts 26:25 says, "'I am not insane, most excellent

고 담대히 말하였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보면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나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받은 간증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말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라고 담대히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에서 피해 생명만 간신히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26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라고 합니다. 유대 총독 베스도에게 바울이 복음을 말할 때에 총독이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말하자 바울 사도가 자신은 미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요 횡설수설하는 것도 아니요 꾸며대는 것도 아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뿐 자신의 정신은 똑바르다고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증인이 되려면 사실을 말해야 하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전도할 때 다음 네 가지 사실을 꼭 전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둘째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했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말

Festus,' Paul replied. 'What I am saying is true and reasonable.'' When Paul was sharing the gospel, the governor of Judah, Festus, said, "Your great learning is driving you insane." The apostle Paul testified to him that he was not insane, that he was not talking about nonsense, that he was not exaggerating, but that he was simply telling what he saw and heard and his mind was straightforward.

If you want to be a witness, you have to tell the truth. We as Christians should tell these four things when we share the gospel.

First, that God is love. There is no one today who hates love. Everyone is hungry for love these days. God is love.

Secondly, that all have sinned. The Bible teaches that all have sinned. Romans 3:23 says,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and Romans 3:10 says,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Romans 6:23 says, "The wages of sin is death." Most people would say to you, "Where is a person without sin? I am a sinner before God as well." Some people might argue, "You are a sinner, but what kind of sin do I have?"

Thirdly, Jesus died to forgive our sins. Isaiah 53:5 says, "But he was pierc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the punishment that brought us peace was upon him, and by his wounds we are healed." Hebrews 7:27 teaches that Jesus solved the problem of our sin by offering his body once for all. 1 Peter 1:18~19 says, "For you know that it was not with perishable things such as silver or gold that you were redeemed but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By offering

합니다.

웬만한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죄인일지 몰라도 내가 무슨 죄가 있소?"라고 따질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이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했고, 히브리서 7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19절에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구속함 받은 것 아니요, 하나님의 어린양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다 내어 주시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넷째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건강이 귀하다고, 자녀들이 귀하다고, 아내와 남편이 귀하다고 말합니다. 명예가 귀하다고 합니다. 먹고사는 것이 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귀한 것 하나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가 무엇을 한 것이 있습니까? 주일을 지켰습니까? 성경을 압니까? 기도를 했습니까? 금식기도를 했습

his body for us all, Jesus solved all the problem of our sin.

Fourthly, we receive salvation only by faith. If you only believe, then you will live eternally. When they are asked what the most precious thing in this world is, people talk about health, children, or a wife or husband. They talk about prestige, livelihood. But the ultimate precious thing is to live eternally. John 1:12 says, "Yet to all who received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When you believe in Jesus, you receive eternal life.

Dearly beloved, what did the thief do on the cross?

Did he observe the Sundays? Did he have knowledge about the Bible? Did he pray? Did he fast and pray? Did he pray overnight? Did he tithe? But he said one sentence,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Because of his faith in Jesus as his Savior, God graciously saved that thief.

Grace is a gift. A gift is something you give for free. If we receive salvation as a payment, achievement or merit, then it is not grace. It is not a gift. It is not good news. It is not the gospel. Even if you in the past did not keep the Ten Commandments, but worshipped idols, falsely testified, did not obey your parents, stole things and killed several people, if you repent of your sins and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your Savior and believe in him, then God will forgive all of your sins, and then he will adopt you as his child immediately, and when you die, I believe that he will let you come into the kingdom of our father. Therefore, Ephesians 2:8~9 says, "For it is by

니까? 철야기도를 했습니까? 십일조를 드렸습니까? 그러나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그 한마디, 당신은 나의 구주이신 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강도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선물이란 거저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대가로, 행함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거짓 증거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도적질하고 사람을 몇이나 죽였다고 해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즉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영혼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금식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 방언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 입신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 기이한 것을 보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식의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율법학자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는 일생 동안 그 복음을 전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and th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not by works, so that no one can boast."

These days some say that you can be saved only through fasting, only through speaking in tongues, only through a divine encounter, only through seeing some wonders. They are the ones with legalistic faith. But the apostle Paul taught that with the law we cannot be saved. He was a scholar on laws. "What a wretched man I am. Who will rescue me from this body of death?"

But when he believed in Jesus, all his problems were solved. That's why he gave his whole life to share the gospel and died as a martyr at the end. Please accept and believe that if you humble yourself and confess that you believe in the blood of Jesus, then your name will be registered in heaven and even when your soul departs from here someday, even when the Lord comes back again, you will be saved.

The moment you believe Jesus Christ, three things occur. 'I forgive your sins; You are declared righteous; You are a child of God.' The Gospel message is about receiving eternal inheritance. Because we receive it so easily, it's good news to us. Also because we receive it so easily, people don't understand it well. God gives us grace for free just as we enjoy the sunlight for free, air for free, water for free, fish of the ocean for free, herbs of the mountains for free. Just one thing, we have to believe.

If you are saved, then now you have to share the gospel. It takes time to do evangelism. You need conversation, love,

하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오늘 누구든지 나는 부족하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하늘나라에 다 등록되고 언제 그 영혼이 떠난다 하더라도, 언제 주님 오신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세 가지 일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네 죄를 사했다, 너는 의롭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원한 기업을 얻는 것이 복음입니다. 쉽게 얻는 것,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너무 쉽게 얻으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데, 태양빛이 거저요, 공기가 거저요, 흘러가는 물이 거저요, 바다의 고기 떼가 거저요, 산의 나물들이 거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거져 주신 겁니다. 다만 하나, 믿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간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투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를 낳는 과정도 보니까 아홉 달 열 달 동안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등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양 100마리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양을 찾으러 다니다가 찾을 때 그 기쁨!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인 아흔아홉 사람보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열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개가 없어졌습니다. 등불을 켜서 구석구석 찾다가 찾을 때의 그 기쁨!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그 기쁨. 영혼 하나, 생명 하나 구원시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한다는

sacrifice, patience, and investment of time. Then you can do evangelism. You just have to invest. Dearly beloved, when I think about the process of childbearing, people invest a lot by spending nine to ten months going to hospitals for checkups, eating good food and so on. However, one soul is more precious than the universe.

When I look at Luke 15, one out of 100 sheep was lost. What a joy to find a lost sheep! The Bible teaches that there will be more rejoicing in heaven over one sinner who repents than over ninety-nine righteous persons who do not need to repent. A woman had ten drachmas, but she lost one. What a joy she had when she found it after searching all corners with a lamp! When the prodigal son came home, what a joy it was that the father experienced by killing a calf and throwing a party! We do evangelism simply because we desire to save one lost soul, not because we want to do a church building project or add more space. If you are a new believer, then you don't have to participate in the building project offering campaign. As a new believer, do not worry about it.

Now we are saved. We have been saved by faith and by grace. I can't enjoy this great joy of salvation, this great treasure by myself. There are so many fish in the Sea of Galilee. All around the sea there is forest, and flowers and birds are singing and butterflies are flying. It's because the sea sends water to the Jordan River and it continues to circulate. But the Dead Sea keeps receiving water without sending water anywhere. That's why when the sun is scorching, the water becomes distilled water and only the salty water is what's left. Everyone can float on it. Just like the Sea of Galilee, we Christians have to share the grace w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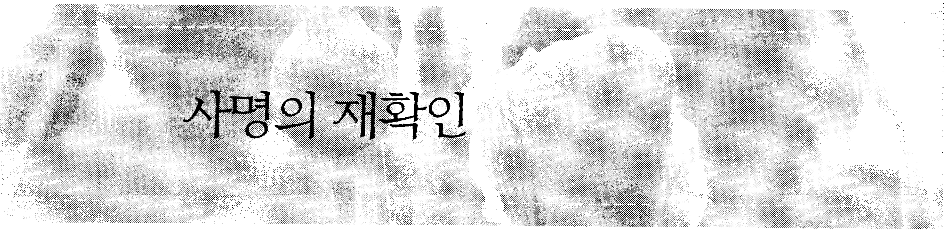
것이지, 교회 건축하고 증축하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믿으시는 분들은 건축헌금 안 해도 됩니다. 새로 믿는 사람들은 그것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 기쁨을, 이 큰 보화를 나 혼자만 가질 수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고기 떼가 우글우글합니다. 사방을 돌아가면서 숲이 우거지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나비가 날아다닙니다. 이 바다는 요단 강으로 물을 내보내면서 순환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하지 어디로 내보내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이 쨍쨍 내리쬐면 증류가 되어 남은 것은 소금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둥둥 뜰 정도입니다. 갈릴리 바다와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증인의 모습입니다. 사해처럼 고기가 한 마리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기만 하고 어느 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나누어 주지 않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은 그 무익한 종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것이 우리의 일생에 가장 귀하고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received. This is the lifestyle of a witness. If we are like the Dead Sea, having no fish in it at all, then it means that we are like the useless servants whom God judged as evil and lazy, because we kept receiving grace, but we didn't share it with others.

If we confess that believing in Jesus is the most precious and most important event in our life, how can we not share with others this joyful news, the salvation that we recei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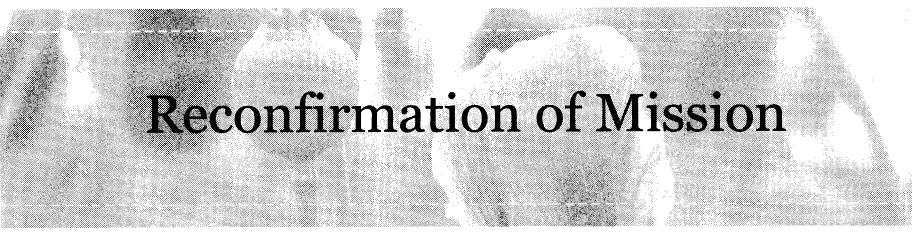


사명의 재확인

마태복음 9장 35~38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시대적이고도 역사적인 사명의식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유대 소년 요셉을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 가게 하신 것은 장차 그 민족을 흉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였고, 어린 유대 소녀 에스더가 파사 나라 왕후가 된 것은 하만의 손에서 그 동족을 구원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며 장차 그 민족 속에서 메시아를 탄생케 하고자 하는 큰 뜻이 있어서였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을 일찍이 유대 땅 바깥 길리기아 다소라는 국제도시에서 나게 하고 어려서부터 국제적 문화 속에서 교육받으며 자라게 하신 것은 세기의 전도자로 삼으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Reconfirmation of Mission

Matthew 9:35~38

Jesus went through all the towns and villages, teaching in their synagogues, preaching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and healing every disease and sickness. When he saw the crowds, he had compassion on them, because they were harassed and helpless, like sheep without a shepherd. Then he said to his disciples, "The harvest is plentiful but the workers are few. Ask the Lord of the harvest, therefore, to send out workers into his harvest field."

It is a meaningful thing to do to reflect upon the historic awareness of our mission. Long ago the reason God let the young man of Judah, Joseph, to be sold as a slave to Egypt was to save his people from famine, the reason why the Judean girl, Esther, became the queen of Persia was to save her people out of the hands of Haman and to reestablish Jerusalem in order to ultimately bring forth the Messiah out of the people of Israel. The reason why the great apostle Paul was born in the international city of Tarsus of Hiligia, and grew up educated with international culture from his childhood was for the purpose of making him an evangelist of the world. In the same way, I believe that God must have a clear purpose of calling me and you to this world.

Today's text is a summary of what Jesus accomplished in

오늘 본문은 예수님 생애의 사업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이라는 짧은 생을 사셨지만 마지막 3년 공생애 기간 동안은 굵고 의미 있게 사셨습니다. 그 업적을 다 기록하려면 그 책을 쌓아 둘 곳이 없다는 요한의 기록도 있습니다만, 그 여러 업적을 줄이면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 한 절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다시 말하면 선교하시고, 교육하시고, 봉사하신 것이 예수님 생애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동양선교교회도 이 말씀을 근거로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구호가 '교육하는 교회'입니다. 잘 교육하여서 선교사를 양성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회를 정화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금년은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의 의미와 사명의식을 다시 한 번 찾기 위해서 '사명의 재확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25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였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모

his life. Even though he came to this earth and lived a short 33 years, he spent his last 3 years of public ministry in a significant and meaningful way. John writes that if we want to record everything he did, there is no way to pile all the books that would record his accomplishment. If we summarize all he did in one sentence, then the content of Matthew 9:35 will show it all.

"Jesus went through all the towns and villages, teaching in their synagogues, preaching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and healing every disease and sickness." In other words all he did in his life was to spread the gospel, to educate and to serve. The Oriental Mission Church set goals based on this text.

Our church's catch phrase is 'a church that educates.' We desire to educate God's people to train them to be missionaries, to spread the gospel and to serve the poor in the most effective way this year.

I would like to share God's grace with you through my sermon titled, 'Reconfirmation of Mission' so that we can regain the meaning of life and awareness of mission.

First, we have received the calling for mission

"preaching the good news of the kingdom"(v. 25).

Mark 16:15 says,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od news to all creation."

Matthew 28:19 says,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Acts 1:8 says,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These words from Jesus are the Great Commission for us so that we

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였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받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불안, 공포, 초긴장 속에 있습니다. 군사적인 문제, 사상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영토 문제입니다. 의식주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궁극적인 문제는 영토 문제,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문제입니다. 인간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요, 윤리적인 문제는 교육의 문제요, 교육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요, 종교의 문제는 복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간 개혁, 인간 혁명을 이루어 새로운 창조물이 될 때 이 사회는 좀 더 안정적이고 희망이 있습니다. 이대로 인간이 타락해 가다가는 동물과 같이 피 흘려 세상이 피비린내 나는 산골짜기로 변할 수밖에 없고, 잿가루로 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선교의 목적을 간략하게 말하자면,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증인 되어 제자를 삼아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내 이웃, 내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우리만 잘살겠다는 편협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식구만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끝나면 국수, 냉면 삶아 먹고 교제를 나누는 것은 교회의 존립 이유가 아닙니다. 교회는 선교할 때 비로소 그 존립의 의미가 있습니다.

선교의 범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듯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온 인류 지구의 구

should spread the gospel in all periods in all the places whether we are given an opportunity or not.

The world today faces uncertainty, terror and extreme anxiety. More than military issues, ideological issues, moral issues, the fundamental issue is a territory issue, a livelihood issue. But the most fundamental issue is a human issue more than a territory or livelihood issues. A Human issue means an ethical issue; an ethical issue means the issue of education; an education issue means a religious issue; a religious issue means the issue of the gospel. When the gospel transforms and revolutionizes human beings, our society will be more stable and hopeful. We have to spread the gospel, otherwise the reality will be that the world will turn into mountains full of bloodshed and full of ashes, if we let human beings continue to be corrupted like now.

If I briefly explain the purpose of mission, it is to proclaim and teach the good news, to be witnesses and to save the lost by making them disciples. Mission is not about being narrow-minded as if we want to have a better life by sharing the gospel only with my neighbors and my countrymen. It's not about going to church on Sundays only with your own family members to worship, and then having meals afterwards, eating noodles or 'Naeng Myeon'(Koreans' favorite cold noodle during the summer seasons) while enjoying fellowship. That's not the purpose of the church's existence. When churches do mission, they fulfill the purpose of their existence as a church.

The scope of mission is, as it is shown in Acts 1:8, from Jerusalem to Judea, from Judea to Samaria, from Samaria to every corner of the world of all humankind. There may be

석구석으로 뻗어 나갑니다. 동양선교교회라면서 왜 독일에도 선교사를 보내고, 이탈리아에도 선교사를 보내고, 파라과이에도 병원을 짓고, 브라질에도 지교회를 만들어 놓느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갖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존 웨슬리가 일찍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설파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진 포부였습니다. 세계가 우리의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준 안식년 1년 동안 낚시나 다니고 독서나 하면서 보내는 것은 저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 1년의 안식년 동안 절반의 기간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나머지 절반은 동남아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태국, 홍콩, 대만을 들려서 선교 현장을 시찰하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좀 더 그곳에 선교할 수 있을지 타진하고 돌아와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선교 현장도 돌아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사는 곳마다 죄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사는 곳이면 어디에나 교회가 드리워져야 합니다.

선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개인 선교, 가정 선교, 대중 선교, 매스컴 선교, 문서 선교, 시청각 선교, 학원 선교, 국내 선교, 국외 선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교육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가르치시며"(35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복음만 전파하지 않으시고 윤리, 도덕, 참 사람이 무엇인가, 참 가치가 무엇인가,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셨습니다. 헬라 국가들은 오늘날에도 문화적

some people who might accuse or question our church's motive that why we sent church's motive to send missionaries to Germany, to Italy, to build a hospital in Paraguay, to make a branch church in Brazil, even though our church name is the Oriental Mission Church. John Wesley proclaimed early in his ministry, "The world is my parish." It was a great vision that he had as a man of God. The whole world can become our mission target.

I will never waste my sabbatical year given by our church by fishing or reading books. I will spend the half of the sabbatical year by worshipping at our church, and then spend the rest by visiting missionaries in the Southeast Asia, the Philippines, Indonesia, Bangladesh, Thailand, Hong Kong, Taiwan and their ministries, and then write a report to our church about how to do our mission work more effectively there. I am planning to visit our missionaries in Africa as well. Wherever people live, there is sin. Therefore everywhere people live, churches should be established there.

What is the method for mission work? I can divide them into a personal mission, family mission, public mission, mass media mission, literature mission, audio-visual mission, school mission, national mission and international mission.

Secondly, we have received a calling for education

"teaching……"(v. 35).

Jesus when he was on earth not only spread the gospel, but also taught about ethics, morality, what being truly human means, what true values are, and what the fundamental things are.

으로, 예술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도의 문화는 지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모두들 역사가 있는 나라들입니다. 전통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독일이나 일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에서 그래도 어깨를 펴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그들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교육이 중요합니다.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미국에 올 때에는 거지 행색에 거리에서 잠을 자고 깡통에 든 음식 부스러기를 먹었지만, 그들은 자녀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훗날 그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여러분이 잘 보고 있는 줄 압니다.

한국은 홍익인간, 영국은 신사다운 인간, 독일은 능력의 인간, 미국은 실용적 인간이라고 하지만, 교회교육의 목적은 예수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게끔, 예수의 인격, 예수의 사상, 예수의 생활,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끔 하는 것이 교회교육의 목적입니다. 나아가 예수님과 같이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하는 이해타산적인 사람이 아니라, 조건 없이 봉사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교회교육의 목적입니다.

교회교육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일반 학교에서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머리 좋은 사람, 장래성 있는 사람, 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교회는 태중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오늘 무덤에 발 하나 넣은 사람까지 가르칩니다. 돈이 없어도 좋습니다. 문벌이 없어도 좋습니다. 입학 원서도 필요 없고 신체검사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전인

The countries of Hellenism are still some of the most respected countries in terms of culture and art. Even now we can't ignore the culture of India. They are all countries with long histories. They have long traditions. The reason why the Germans, Japanese and Jews walk with pride in this world still today is because they have been well educated. That's why the world recognizes them. Education is important. We have to educate our children. When the Jews moved to the United States at first, they looked like street beggars, sleeping by the streets, eating the leftovers from cans, but they, with lots of interests in education, educated their children as best as they could. I am sure that you have seen clearly how their descendants have been changed.

Although Korea fosters an idea of 'Hong Ik Man', England a 'Gentlemen,' Germany a 'Man with Ability,' USA a 'Practical Man,' the purpose of a church is to make people a disciple of Jesus. The purpose of a church is to help people to follow and imitate Jesus, his characteristics, his thoughts, his life, and his footsteps. Furthermore, we are here to help you to serve your neighbors just as Jesus did. The purpose of a church is to make people who serve others unconditionally, not to create a calculating type of people who love others only when others love them.

Who are the object of our education? In general schools, they teach young children, young adults, the smart people, people with a future, those who pay money. But a church teaches from even an unborn child in a mother's womb to a person who is almost dead.

It's OK that you don't have money. It's OK that you don't have a degree or come from a famous family. We don't need

적인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교육의 대상은 광범위합니다.

다음은 교육의 방법입니다. 먼저, 좋은 교육자를 모셔야 합니다. 교역자에게는 돈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우수한 사람을 모셔다가 교회교육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교육 프로그램을 짜야 합니다. 내용이 충실해야 합니다. 또한 학술 교육 및 세미나를 계속해야 합니다. 시설 강화 및 도서관의 충실하고 효과적인 운영, 장학금 지급, 인재 양성, 제직 및 직장교육과 훈련, 전교인의 성경 읽기, 성경연구 운동, 교회 부속 학교의 시설 확장 등이 교육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미국 큰 교회들처럼, 가톨릭 교회들처럼 유치원에서부터 중 · 고등부, 대학까지 교회가 운영할 때 좋은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봉사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대접을 받으러, 호강을 누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당신의 몸까지 주셨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노동하시고, 3년 동안 입지 못하고, 잘 잡수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밤잠 못 자고, 집 한 칸 없이 그저 봉사하다가 몸까지 주고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그분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슈바이처를 왜 존경합니까?

an application or a physical test. Whoever comes to a church, they receive a holistic education. The target of education is wide open.

The next issue is the methodology of education. First, we have to have good educators. We should not be stingy when hiring educators. We have to develop church education by hiring the best qualified teachers. Then we have to develop a great church education program. The content should be good. Also we have to continue to offer academic education classes and seminars. I think that one of the ways to offer good education is to update the facility, to run the library faithfully and effectively, to offer scholarships, to train prospective leaders, to train the church staff and leaders for their work, to offer a Bible reading program for all members, to lead them with a Bible study movement, to expand the facility of a church-run school. Just like the mega churches in the States, and the Catholic churches that run from the kindergarten to middle school, high school and college, when we do it in the same way, we can offer a great education of faith.

Thirdly, we have received a calling for service

Mark 10:45 says, "For even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Jesus Christ did not come to this world to be served, to be treated well, to enjoy the life of a VIP, but to serve others. At the last moment, he gave up his own body. He was born in a stable. He labored. He wasn't well dressed for three years, didn't eat well, didn't drink well, couldn't sleep comfortably, didn't own a single house, yet served without

간디를 왜 존경합니까? 마틴 루터, 테레사 여사를 왜 존경합니까? 봉사를 많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에서 가정 문제, 노인 문제, 생계 문제를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누워 계신 분들을 찾아가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은사로 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사명을 지니고 활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조국의 난국을 극복하는 사명을 걸머지고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 일생 동안 희생 봉사한 사람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은 스물일곱 살에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그 흑암대륙을 샅샅이 뒤지면서 의료사업, 선교사업, 탐험사업을 마치고 그곳에서 늙어 병들어 죽었던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페스탈로치는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과 농촌 아이들을 위해 일생 동안 민주주의 교육에 헌신한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부잣집에 태어난 아리따운 여인이었지만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과 여인들을 위해서 일생 동안 결혼하지 아니하고 헌신하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녀의 헌신적 사랑으로 지금의 세계 적십자가 탄생하였습니다.

옛날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을 가리켜 고요한 아침의 나라, 동방예의지국, 은둔의 나라, 중국과 일본의 속국이라고 얕잡아 보았지만, 1945년도에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해방을 한 것입니다. 자유을 얻었습니다.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비록 6·25전쟁으로 인해 동족의 피비린내 나는 쓴잔을 마셨지만 1970

anything, and left his own body for us. That's why the whole world respects him. Why do people respect Schweitzer? Why do people respect Gandhi? Why do people respect Martin Luther and Mother Theresa? Don't people respect them because they served others with their whole lives?

Churches have to take care of family problems, senior citizen issues, livelihood problems. Also we have to visit and encourage those who are struggling with sickness. We have to help the poor. We have to carry out these tasks with our body, time, money and talents.

Moses was a man who worked with a mission to give freedom to Israel. Isaiah was a man who worked with a mission to help his nation overcome crisis. Paul was a man who lived a sacrificial life of service for the Gentile mission. Livingstone moved to Africa when he was 27 years old and became a man who searched the black continent and finished medical work, mission work and exploration work, and died old there with disease. Pestalozzi was a man of mission who dedicated his whole life for the poor and the children in farming communities and the orphans. Nightingale was a beautiful woman born from a rich family, but she lived and died without getting married but with dedication for the poor, for the sick, and for women. Because of her dedicated life the Red Cross that we know now came to exist.

In the past with contempt people called Korea the country of morning calm, the country of courteous people in Asia, a secluded country, a subject country to China and Japan. But it was all changed in 1945.

We were liberated. We received freedom. We became an independent country. Even though we drank the bitter cup full

년대에는 세계 속의 한국으로 등장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은 경제력이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군사력이 막강합니다. 기술자가 많습니다.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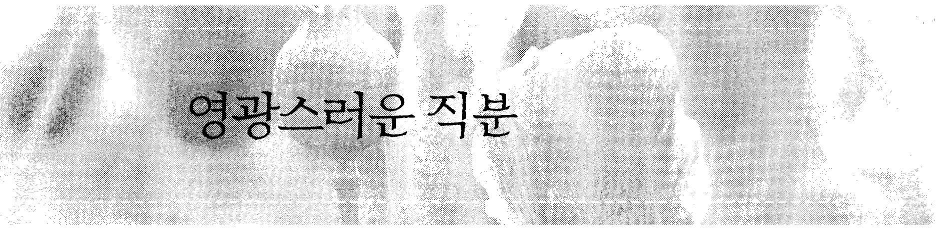
한인 교회 또한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중국 사람이 가는 곳에 요리집이 따라가고, 일본 사람이 가는 곳에 혼다 자동차가 따라가고, 한국 사람이 가는 곳에는 교회가 따라갑니다. 한인들이 사는 곳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또 선교사가 세계에 많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물심양면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며 서로 협력하여 국내와 국외를 향한 선교, 교육, 봉사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열심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of our brother's blood of the Korean War, we came forward to be a country of pride in 1970. South Korea today is an economic power. We have a high level of education. Our military is powerful. We have many skillful workers. Our engineers are working with sweat running down in beads in the Middle East and in Africa.

There is no place in the world where there is no Korean church. Where Chinese go, restaurants follow them. Where Japanese go, Honda automobiles follow them. Where Koreans go, churches follow them. Wherever Korean people live, there is a Korean church there. Also so many Korean missionaries are sent to all over the world.

Therefore, I bless you in the name of our Lord that you would reconfirm your mission for service, education, both inland and international mission, and carry out your task with enthusiasm by cooperating with each other, using the talents from God both positively and materially and spiritually from now on.



영광스러운 직분

로마서 11장 13~14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을 지극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7~8절로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의문의 직분'이란 율법을 통해 준 직분인데, 이것은 죽음에 이르는 직분입니다. '영의 직분'은 은혜의 직분, 삶의 직분을 말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직분도 영광이 있거든 은혜를 통해 삶에 이르는 직분이 더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각각 받은 이 직분을 성직이라고 말하는

Glorious Office

Romans 11:13~14

I am talking to you Gentiles. Inasmuch as I am the apostle to the Gentiles, I make much of my ministry in the hope that I may somehow arouse my own people to envy and save some of them.

Apostle Paul says that he makes much of his ministry. Today I would like to share God's grace with you through my sermon titled, 'Glorious Office.'

When you read 2 Corinthians 3:7~8, "Now if the ministry that brought death, which was engraved in letters on stone, came with glory, so that the Israelites could not look steadily at the face of Moses because of its glory, fading though it was, will not the ministry of the Spirit be even more glorious?" The expression, 'if the ministry……came with glory,' refers to the ministry of the law, which brought death. But 'the spiritual office' means a ministry of grace and of life. If the ministry that leads people to death is glorious, then how much more glorious will the ministry of grace that leads people to life be? Indeed we call it a holy office when we refer to the ministry that each of us received from God.

것입니다. 성경, 성회, 성도, 성직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이 직분이 왜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1)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 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직분을 받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1951년 5월 13일, 부산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대표로 기도해 주신 분이 남덕규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안수를 받은 것은 인간인 남덕규 목사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을 거쳐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이 성직은 돈을 내고서 받는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아서 받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명예가 있어 받는 것도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직입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직분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2)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으니 영광의 직분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

We say, the Holy Scripture, the Holy assembly, the Holy people of God……the Holy office.

First, why is our ministry glorious?

1) It is a glorious ministry because we received it from God the Father

Galatians 1:1 says, "Paul, an apostle—sent not from men nor by man, but by Jesus Christ and God the Father, who raised him from the dead." Even though he received his office from people, but he received his office directly from God.

I was ordained at the General Synod in Busan in May 13, 1951. While a number of pastors laid their hands on my head to pray for me, the Rev. Nam, Deokgyu, who already went home to be with God, prayed for me as a representative of all. But the process of how I was ordained was not through the hands of the human being, the Rev. Nam, Deokgyu, but from God through his hands. That is why it is precious. The holy office I have is not because of money, not because of high education, not because of social prestige, but by God. Indeed it is a holy office. I certainly believe that this is a holy office.

2) It is a glorious ministry because God entrusted us with our office, considering us faithful

1 Timothy 1:12 says, "I thank Christ Jesus our Lord, who has given me strength, that he considered me faithful, appointing me to his service."

There are many people in a church, but not everybody has received this office. In a church there are the seekers, the

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직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구도인도 있고, 학습인도 있고, 세례인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보아 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이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3) 보잘것없는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주셨으니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진 것 없는 우리인데, 이런 우리에게 성직을 주셨다는 것이 영광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 프랜시스를 가리켜 많은 사람들이 성자라고 부르지만 그는 자신을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문벌이 좋고 학벌이 좋고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해냈을 때 당연히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했다고 하지 누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로 인하여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주신 것이며, 또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여 주신 것이기에 이것을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learners, the baptized. Our office is glorious because God considered us to be faithful as we are entrusted with ministry.

3) It is a glorious ministry because God receives glory by choosing a worthless man

1 Corinthians 1:27~28 says, "But God chose the foolish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wise; God chose the weak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strong. He chose the lowly things of this world and the despised things—and the things that are not—to nullify the things that are."

Knowing ourselves, who are stupid, weak, lowly, treated with contempt, and poor, we can't help but to admit that it is glorious for God to give us this holy office. Many people consider Saint Francis to be great, but he considered himself a sinner. If you have a great family background, high education, and are a great man, if you accomplished great things, people would say that you accomplished it naturally because you are a great man, but they wouldn't say it was God's work, would they? But I believe that they will give God the glory if a humble man accomplished it.

In the same way, we consider our office glorious because it came from God, because God gave it to us considering us faithful even though we don't deserve it, and because God wants to receive glory from us though we are lowly.

Secondly, there are three things we must do to be ready when we do ministry

1) We have to seek ability

둘째, 직분을 이행할 때 구비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역대상 26장 8절에 보면, "이는 다 오벧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직무를 감당합니다. 비서는 비서의 능력이 있어야 그 자리에 잘 있을 수 있습니다. 조종사는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비행기를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직분자들도 직분을 이행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 같은 사람은 청지기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였고, 모세도 그 직분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스데반이나 빌립과 같은 집사들도 훌륭히 그 직분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이나 빌립은 크게 네 가지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는데, 믿음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성령을 받았고,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집사 직분을 맡은 이들은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칭찬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지적인 능력, 인격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위대한 지도자로서 직분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에도 여러 부서가 있는데 저마다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일을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음악을 아무에게나 맡겨서는 안 됩니다. 피아노 연주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연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직이 혹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서리집사일진대, 누구나 자기가 맡은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갖추어

1 Chronicles 26:8 says, "All these were descendants of Obed-Edom; they and their sons and their relatives were capable men with the strength to do the work." You can carry out your task only if you have the ability. A secretary can handle one's work well if equipped with the ability of a secretary. A pilot can fly an airplane if the pilot has the ability to fly. An office bearer at church has to have the ability to carry out his tasks at church capably.

In the Bible Joseph was a man who undertook the role of a servant quite capably. Moses handled his work capably as well. The deacons like Stephan and Philip also handled their ministry wonderfully. I see that both Stephan and Philip are equipped with four qualifications: They had faith, the Word of God, the Holy Spirit, and received praise and recognition from people. Any aspiring deacon should be equipped with these four qualifications. They have to have faith, the Word of God, the Holy Spirit and praise from people. Moses was equipped with intellectual ability, character, and spiritual ability. That was why he was able to carry out his task faithfully as a great leader.

In order to be equipped with ability, you have to work hard. In our church, there are many departments, and shouldn't we appoint leaders according to their own qualities and abilities? We can't assign anybody to a music ministry. We can't ask anybody to play the piano. They have to know how to play the piano. The holy office is to serve as a pastor, elder, Kweonsa, ordained deacon, or term deacon. Then everyone has to be equipped with an ability to handle their offices. Then all have to work hard.

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2) 근신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근신은 절제라고도 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최고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사람이 음식에 절제하든지, 부부생활에 절제하든지, 운동에 절제히든지, 물욕에 절제하든지, 색욕에 절제하든지, 절제라는 것은 매사에 아주 힘든 일입니다. 절제하는 근신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제3자 때문에 망한 것보다도 자기 자신 때문에 망한 경우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도 외부의 적이 쳐들어와서 망하는 것보다 내부가 썩어서 망하는 것처럼, 개인의 근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신의 육체와 더불어 싸운다는 바울의 그 깊은 뜻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교훈을 늘 생각하면서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마음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근신해야만 그 성직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3)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 보면,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말씀했습

2) We have to be watchful

2 Timothy 4:5 says, "But you, keep your head in all situations, endure hardship, do the work of an evangelist, discharge all the duties of your ministry." "Keeping your head in all situations" is also interpreted as self-control. The last fruit of the fruits of the Holy Spirit is self-control. It is very hard to have self-control in the areas of food, sexual relationship between a husband and a wife, exercise, desire for material things, or sexual desire. We need to be watchful as we control ourselves.

When you look at the history in the Bible, we can learn that there are more examples of destructions due to oneself than a third party. Just as a nation falls not because of an invasion of an enemy but because of inner corruption, it is important for an individual to be watchful. That's why Paul said in 1 Timothy 4:12, "Don't let anyone look down on you because you are young, but set an example for the believers in speech, in life, in love, in faith and in purity."

We need to understand the deep meaning of Paul who proclaimed that he fights against his own flesh every day. As we have to think about Jesus' teaching that if we want to follow him, then we have to deny ourselves and bear the cross, we have to be watchful in our words, conduct, mind and in all other areas of our lives, which will be the only way that we can handle our offices faithfully.

3) We have to love God passionately

Deuteronomy 11:1 says, "Love the LORD your God and keep his requirements, his decrees, his laws and his commands always."

When we love our God passionately, then we can handle

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 선생은 학교를 사랑하고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만 직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직분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일반적으로 알기 쉽게 말하면 관심을 가져 주는 것, 아껴 주는 것, 책임을 갖는 것,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거리에 자동차가 많지만 그 중 내 차에만 관심이 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 누구보다 내 식구에게 관심이 갈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아끼는 것입니다. 내 집, 내 식구를 아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면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직분을 잘 이행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농사를 열심히 지은 사람이 추수를 많이 하는 것을 자연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일을 얻고,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고생 덜하고 사람 대우 받으며 삽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하는 사람에겐 상급이 돌아갑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잘하는 사람에게 모른다 하시지 않습니다.

our office well. A school teacher can handle his teaching task well when he has a love for his disciples and for his school. A Sunday school teacher can handle his position well if he loves children and his church.

If we want to handle our office dutifully, then we have to love our God passionately and our office as well. If I explain what love is, then love is showing your interest, cherishing, being responsible, and sacrificing for others. That's love. You see many cars on the streets, but you are interested in only your car. You would show your interest in your own family member among many people. Because you have love for them, you would cherish those people you love. We too cherish our home and our family. Then we have to be responsible. We have to sacrifice for them. If we hold an office, then we should show interest in the church, in God and in souls.

Thirdly, there are heavenly rewards for those who undertake their ministry well

God surely pays back by giving a reward. That's God's justice and God's love. Non-Christians call it a natural phenomenon when they have a great harvest after they worked hard in the fields, but we call it a reward from God. When you study hard, then you will go to good schools, get a good job, get married to a good person, experience less hardship in life, and be treated well by others. That's right. Even in this world rewards are given to those who do well. How much more would it be true in the area of God's ministry! God would not say I don't care for those who do well.

1) 더 아름다운 직분을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는 더욱 아름다운 지위와 아름다운 직분을 주십니다. 교회에서도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이들에게 안수집사 직을 줍니다. 안수집사 가운데에도 일 잘하는 사람은 장로가 됩니다. 직분을 잘 이행하면 더 아름다운 직분과 직위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장덕수 선생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황해도 재령의 평화로운 농가에서 자라난 사람인데, 돈이 없어 일본 사람 집에서 열심히 일했더니 일본 사람이 이 사람을 중학교에 보내 주었습니다. 또 일본으로 보내 대학을 졸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제 시절에 동아일보사에 들어갔고, 독립운동가가 되고, 해방 후에 정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시골 가난한 집 소년이었지만 열심히 일했더니 그 주인이 기특하게 보고 키운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 더 아름다운 지위와 직분을 받게 됩니다.

2) 그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느헤미야 9장 8절에 보면,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와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주 앞에 충성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 자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시고

1) God will give you a more excellent standing

1 Timothy 3:13 says, "Those who have served well gain an excellent standing and great assurance in their faith in Christ Jesus." To those who served well as a deacon, God would give a more excellent standing and office. In church if someone served well as a deacon, then they become an ordained deacon. If that person served well as an ordained deacon, then he is ordained as an elder. When you serve well, it is only natural that you gain an excellent standing and office. If you belong to an older generation, then you would know Mr. Jang, Deuoksu. He was born and raised in the peaceful farm community of Jaeryeong in Hwang Hae province. Because he was poor he had to work at a Japanese home, and because he worked hard, the owner sent him to a middle school. And the owner sent him to Japan to attend a college. That's how he started working at the newspaper company Dong-A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and then became an independence fighter, and became a political leader after the Independence. Even though he was a mere country boy, because he worked hard, wasn't it true that the owner took special notice of him and raised him that way? Therefore, if you serve well, then you will gain an excellent standing and office.

2) Your children will be blessed

Nehemiah 9:8 says, "You found his heart faithful to you, and you made a covenant with him to give to his descendants the land of the Canaanites, Hittites, Amorites, Perizzites, Jebusites and Girgashites. You have kept your promise because you are righteous." Because Abraham was faithful to the Lord, God promised that he would give the land of the

약속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맡은 직책에 최선을 다하면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3)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운동 경기나 음악 대회나 마라톤에서 우승해서 금메달 타는 사람들이 그것을 우연히 타는 겁니까? 피눈물 나는 노력, 노력, 노력 끝에 정상에 올라가서 금메달 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면류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갖추고 근신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또 직분을 받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더 큰 직분을 받고 자손들이 복을 받으며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어서 충성된 종으로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anaanites to his descendants, and indeed he gave the land to his descendants later. If the parents do their best for their office, then their children will receive bless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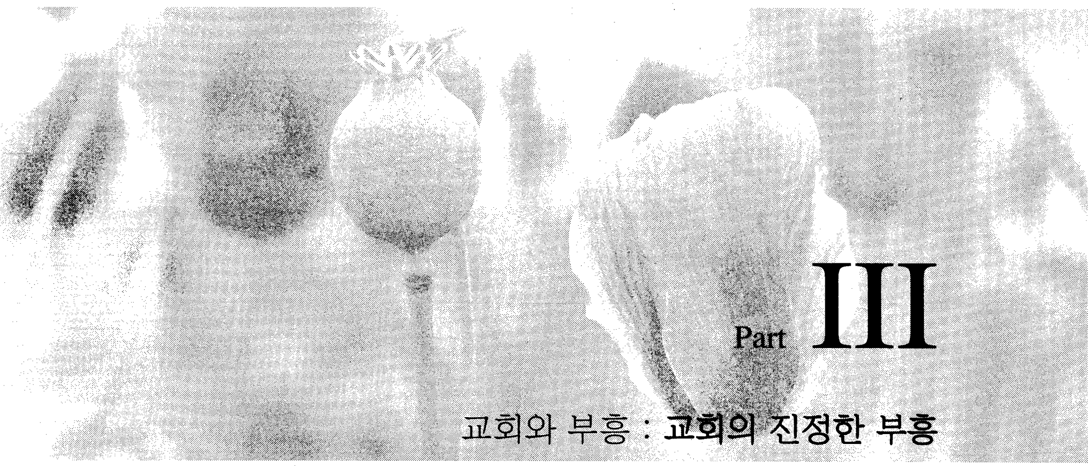
3) You will receive a crown of life

1 Corinthians 4:2 says, "Now it is required that those who have been given a trust must prove faithful."

Revelation 2:10b says,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and I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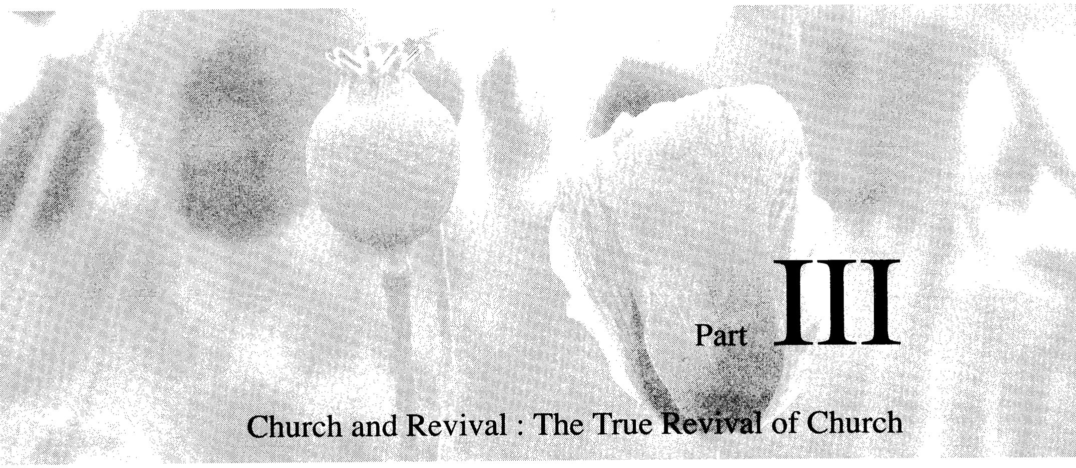
When people do sports competition or music competition or run a marathon, do they get the gold medal out of luck? They receive a gold medal by reaching the top through very hard training with tears of blood. It is the same thing. I believe that God will give the crown of life to those who prove faithful.

Therefore, the office we hold is from God, and in order to serve well we have to be equipped with ability, be watchful and love our God passionately. May all of you be blessed in the name of our Lord that as a faithful servants you would serve well and thereby gain an excellent standing and a greater office, and that your children will receive blessings, and believe in the eternal life of happiness, and upon entering heaven, receive an incorruptible crown of life.



Part III

교회와 부흥 : 교회의 진정한 부흥



Part III

Church and Revival : The True Revival of Church



교회의 존립 목적

마태복음 16장 13~20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교회는 왜 세워졌고,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이 발전할 수 있고, 사회 사람들에게 빈축을 받지 아니하고 존경의 대상이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다닌 사람들 가운데에도 교회의 존립 목적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많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이 땅 위에 존립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네 가지 목적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The Purpose of the Existence of Church

Matthew 16:13~20

When Jesus came to the region of Caesarea Philippi, he asked his disciples, "Who do people say the Son of Man is?" They replied, "Some say John the Baptist; others say Elijah; and still others, Jeremiah or one of the prophets." "But what about you?" he asked. "Who do you say I am?" Simon Peter answere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Jesus replied, "Blessed are you, Simon son of Jonah, for this was not revealed to you by man, but by my Father in heaven. And I tell you that you are Peter, and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I will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whatever you bind on earth will be bound in heaven, and whatever you loose on earth will be loosed in heaven." Then he warned his disciples not to tell anyone that he was the Christ.

The only way we can live a life of faith in the right way is if we understand why church was established and what kind of an institution it is. If we understand this we will not only see our life of faith grow, but we would not receive condemnation from people in society: rather, we would receive respect from them, and then would be able to guide unsaved people to salvation. But I cannot deny that there are many who have attended church for many years, yet don't understand the purpose of the existence of church.

So, why should church exist on this earth? There are many

첫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교회가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고,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윌리엄 펜은 "인간은 예배하는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말이 아주 뜻이 깊습니다. 짐승들도 언어가 있고 결혼을 하고 먹고 입고 집을 짓고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고 삽니다만, 인간이 다른 동물과 특별히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고등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인간도 다른 동물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생의 최대 목적이 무엇일까요? 시편 29편 2절과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최대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자나깨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급급하였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난 후부터는 자녀를 낳고 결혼을 시키고, 시간을 내고, 돈을 벌고, 잘산다는 것이 인간 생의 반복이지 근본적인 목적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물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삶의 최대 목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많은 신학자들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예배란 히브리 원어로 '사하'라는 말인데 이것은 영어로 'to bow' '절하다, 엎드려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예배당이라 말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purposes, but I will share with you only four of them today.

First, church exists in order to worship God

A common saying is that "a human being is a social animal." Or "A human being is a religious animal." William Penn said, "A human being is an animal that worships." The last one has a significant meaning for why church exists. Other animals also use language, marriage, food, clothes, homes, and prosper by begetting, but if there is a special difference between human beings and animals it is that they know God, praise him, give thanks to him, pray to him, bow down before him, and worship God as highly intelligent beings. Without these qualities, I am sorry to say this, but we are no better than any other animal.

What would be the ultimate purpose of a human being? When you read Psalm 29:2 and Philippians 1:11, it clearly teaches us that the greatest goal of a human being is to glorify and please God. When we did not know God in the past, we were busy pursuing the desires of our eyes, the desires of the flesh, and the pride of life, but having known God through Christ and the Holy Spirit, we understand that having children, getting married, completing daily tasks, earning an income, and living a good life are simply part of the human life cycle, not the ultimate purpose of life. The Bible clearly teaches us that to glorify and please God is the ultimate purpose of life and that's what many theologians agree upon as well.

In the Hebrew language worship is pronounced as 'Sa Ha,' which means in English 'to bow' 'to prostrate to worship.' The reason why we call this church a 'place of worship' is

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부지간에 정말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가장 좋고 값비싼 것을 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부모님께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것처럼, 이 예배는 우리 인간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는 말이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때묻은 양심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영혼에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강화시키고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닫힌 마음을 두드려 열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목적에 나의 의지를 결합시켜서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인격에 좀 더 접촉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대부분 개교파의 예배는 이사야서 6장 1~8절에 나타난 형식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교파에 따라서, 교회에 따라서 예배의 식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복잡한 가운데에서도 빠지지 않는 것을 네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찬양과 경배요, 둘째는 죄의 고백이요, 셋째는 신생과 교제요, 넷째는 결단과 헌신입니다. 이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좁게 두 가지로 말한다면, 하나는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운동이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운동입니다.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몸을 바치는 것으로, 우리 인간 편에서 움직이는 운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because this is the place where believers come before God to worship him.

In English we call this 'worship.' It means that you offer the most valuable thing to God. We, as husbands and wives, try to give the best and the most valuable gifts to each other, if we truly love each other. That's love. Just as we realize how much love from parents we have received and try to respond to that love by giving them the most valuable gifts, worship is in the same way referring to the most valuable gift that we offer to God. Through worship, we receive grace and through worship salvation is realized.

I doubt that there is salvation outside of the church. Worship is about revolutionizing our guilty consciences by the holiness of God. Worship provides nutrition to our souls by the truth of God. Worship strengthens and adds beauty to our imagination by the beauty of God, and opens up our closed hearts by the love of God. Worship helps us be dedicated by uniting our will with the purpose of God. Worship allows us to encounter the character of God by drawing near to him.

The worship styles in each denomination are based mostly on the style found in Isaiah 6:1~8. Depending on the denomination and depending on the church, the worship style is a little bit different, but there are four indispensable elements within the complexity of worship; first praise; secondly confession of faith; thirdly new birth and fellowship; fourthly determination and dedication. These things are realized through worship. If I summarized these elements into two parts, the first one is a movement of human beings toward God; and the second one is a movement of God toward human beings. A movement of human beings toward God means that we move toward God through praise,

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운동하시는 것은 특수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전도하고 그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는 역사를 가리킵니다. 중세교회는 예배의 형식과 의식에 중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편의 하나님을 향한 운동에 많이 치중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양자를 조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찬미하고, 새로이 기쁨을 얻고, 새로운 교통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에는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동예배, 공중예배, 집단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로버트 바클레이가 말하기를, "촛불은 한 개만 있는 것보다는 함께 여러 개가 있을 때 어둠을 몰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밝은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성령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의 침묵은 개인의 침묵보다 더 효과가 있고, 더 위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서해 바다는 조수의 차가 심합니다. 모래사장에서 사람들이 놀고 자리를 비우면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놀다 가고 나면 바닷물이 밀려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그러면 모래사장이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지저분한 것을 많이 묻혀서 교회에 왔지만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보혈이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씻어 내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

prayer, and offering our gifts and our bodies.

And the movement of God toward human beings means that we read the special revelation from God, and we are taught by it, understanding the Word through the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and then we spread God's Word through evangelization. The Medieval church focused on the forms and ceremonies of worship. In other Words, they emphasized the movement of human beings toward God. But the Protestant churches try to keep the balance between the two. Through worship, we realize new aspects of God, praise him, and experience new joy, new communion, and new fellowship.

We have to put more emphasis on communal worship, public worship services, and group worship services rather than individual worship services. Robert Barclay said, "Candle light, when we have many candles together rather than one single candle, casts out darkness and guides many people from darkness into the light." When we read Acts 1 and 2, it shows that when many people gathered together, there came the Holy Spirit. It is true as well in psychology. It's because the power of the silence of a group is more effective and powerful than the silence of an individual.

A certain person compared worship with a phenomenon of water coming in and out. In the western coast of our country the difference between the ebb and flow is great. After people spend time on the sandy beach, there is usually trash all over the area. After they are gone from the beach, the water flows in and goes out. Then the sandy beach becomes nice and clean. Even though we bring in to church dirty things as a result of mixing in with the world, through worship services and by the blood of Jesus through the wind of the Holy Spirit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종교의 참 생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본분이요, 최고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둘째, 교회는 전인 교육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상 교육은 학교에서 지식, 기술, 생산을 가르치는 교육, 돈 버는 교육, 출세하는 교육, 명예를 얻는 교육입니다. 그러나 교회교육은 정신교육, 사상교육, 가치관, 인격 교육, 사랑 · 봉사 · 희생적 사람을 만드는 교육, 보다 폭넓고 보다 고차원적이고 보다 온전한 인간을 만드는 교육입니다.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고 참 사람만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을 바로 만드는 것이 교회교육입니다.

교회교육의 목표와 목적을 크게 열 가지로 봅니다. 하나님과 개인과의 관계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가르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예수님과 닮은 성격을 계속적으로 가르쳐서 그 생활 방식이 옳게 되도록 지도합니다. 성경 진리가 현실적인 삶에 효과적인 안내자가 되도록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의 의미를 알고 교회와 사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공동예배와 개인적인 경건생활을 배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의 같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므로 우리 모든 인류는 같은 형제요 자매라는 박애정신을 알려 주고 생활 속에서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법을

our mind is cleaned up. This is worship.

The psalmist in Psalm 84:10 confessed, "Better is one day in your courts than a thousand elsewhere; I would rather be a doorkeeper in the house of my God than dwell in the tents of the wicked." Therefore, worship is the true life of religion. I believe that worship is our rightful duty before God, and the best conduct of all.

Secondly, church has a goal to educate the whole person

The education in this world trains people in knowledge, skills, production, how to make money, how to climb up the ladder of success, and how to gain honor. But church education is about mental education, thought system education, value system education, character education. It is education that fosters love, service, and sacrificial personality; education that gives a person more wholeness and depth. Just as they commonly say, not all persons are true persons, but only the true person is the true person, church education is to make a person true.

Generally, there are ten purposes of church education; It teache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individual. It helps people accept Jesus as the Savior by learning his life and truth. It guides people's lifestyle in the right way by repeatedly teaching about the character of Jesus. It teaches that the biblical truths become effective guides for practical life. It teaches what we as Christians should know about the meaning of church and what we should do at church and in society. It fosters public worship and private worship, and provides opportunities for fellowship with God. Because God

일러 줍니다.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생활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배양해 줍니다. 또한 각자의 개성과 특수성에 관심을 가지고 특수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삶의 목적과 꿈을 심어 주고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주어서 인생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말씀을 막대기와 저울로 삼는 것입니다. 성경은 푯대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듯 전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가리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새로운 출애굽"이라 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악마에게 사로잡혀 멸망으로 가는 자들을 불러내어 새로운 인간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을 재생하는 공장입니다.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통해서 유능한 사람이 되었고, 세리 마태가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몸 팔던 창녀가 교회를 통하여 숙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교회를 통하여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타락했던 어거스틴이 교회를 통하여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인 교육을 시켜서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셋째, 교회는 만민을 구원하는 방주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병정을 훈련시키는 특수 훈련소' 니 '그리스도의 신부를 꾸미는 미장원' 이니 '평안을 주는

is God the Father, and the Father of all people, it informs us of the mind of charity that all human races are brothers and sisters, and teaches us how to love each other and to show interest in each other's lives. It awakens in us the importance of family, and fosters positive and active attitudes in life. It helps us also to be interested in our own individual character and special talents, and helps us to use our special talents. It helps us to dream dreams and purposes of life, and provides us with comfort, hope and encouragement so that we would know clearly the direction of life.

We have to consider the Bible as a staff and a scale. It says that Scripture is the goal. It is the bloodline of the human race. It is the church that educates through the Bible the whole person. Therefore, some people call the church a "new exodus." The reason it is an exodus is that the church calls out those who walk down the path toward destruction caught by Satan in this evil world, and transform them into new human beings.

Church is a factory that remanufactures human beings. Peter, although he was not educated, became a capable man through Jesus, and Matthew the tax collector, although he was ostracized by people, became a writer of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A prostitute who used to sell her body became a lady. Saul who used to persecute the Christians became the great leader of the world through the church. Augustine who lived a life of corruption turned around to become a saint through the church. Therefore, it is the church that makes a person whole by educating them for the whole person.

Thirdly, church is an ark that saves all the people

평안방' 이니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어둔 밤의 등대다', '환난의 도피성이다', '구원의 방주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제게는 구원의 방주라는 말이 참 뜻있게 다가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우리 인간은 몸과 정신과 영혼이 합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몸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의 영입니다. 또 사람이 정신이 잘못되면 그건 정신이 상자가 됩니다. 사람의 영혼이 떠나면 9대 독자라 할지라도 장사지내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사람이요, 인격이요,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위해서는 물질이 있습니다. 정신을 위해서는 문학, 과학, 철학들이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예배가 있습니다. 육체가 병들었을 때에는 병원에 가야 합니다. 정신이 병들었을 때에는 문화기관에 찾아가야 합니다. 영혼이 병들면 병원도 안 됩니다. 문화 단체도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와야만 그 영혼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누구나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자범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머니를 털면 먼지가 나고, 목욕탕에서 씻고 나와도 또 때가 묻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두 손에 못 박히시고, 마음으로 더러운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창으로 찔리시고, 이 발을 가지고 안 갈 곳

Many people describe the church as 'a special training place to train the soldiers of Christ,' or 'a beauty shop beautifying the bride for Christ,' or 'a comfort room that provides comfort.' Or, others say that the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a lighthouse in the dark night,' 'a city of refuge in trouble,' or 'an ark of salvation.' To me 'an ark of salvation' touches my heart in a meaningful way.

When we study 1 Thessalonians 5:23, it teaches us that we consist of spirit, soul, and body. Without body we are left only with our soul. And if our spirit goes wrong, then we become a psychologically ill person. If you die, then even if you are the only son in your family for 9 generations, people will have to have a funeral service for you. Only if you have all these three elements, are you a person, a character and a valuable being. Therefore, there are material things for our body. There are literature, science and philosophy for our spirit. We have God, his Word and worship services for our soul. If our body is sick, then we have to go to a hospital. If your spirit is wrong, then you will have to go to cultural institutions. But if your soul is wrong, hospitals can't help you. A cultural center wouldn't help you either. You only have to come to church to be healed in your soul.

All the descendants of Adam are born in sin, and we are sinners who commit sins with our own wills. No matter how much you might claim that you are clean, you are dirty just as we find out that we have dust when we shake our pocket, or we become dirty again after we took a shower. We are corrupted sinners. Therefore, God sent his only begotten son who is sinless to this earth so that he can be hung on the cross on behalf of our own sins. He wore a crown of thorns because of our sins that we committed with our heads, and he was nailed

에 다녔기 때문에 당신 발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성령을 통하여 바르게 신앙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18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진리 위에,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해도 교회는 더 왕성해지고 있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를 흔들 자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교회는 부름 받은 사람들의 집단으로서, 첫째는 예배를 드리고 둘째는 교육하며 셋째는 전도하는 곳입니다. 영혼을 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들이라고 제자들을 비유하셨고, 마지막으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교회는 전도를 하는 곳입니다. 초대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영혼을 건지기 위해 전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전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도란 그 전도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형수로 하여금 무죄 석방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값비싼 영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을 구원

on his two palms because of the sins we committed with our hands, and he was pierced in his body because of our sins that our hearts have committed having bad thoughts, and he was nailed on his feet because of our own feet that have gone to where we were not supposed to go.

Therefore, anyone who believes in Jesus Christ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Peter rightly confessed through the Holy Spirit in Matthew 16:16,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At the moment Jesus answered in v. 18, "And I tell you that you are Peter, and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Jesus established this church. I am confident that because this church was established on the truth and the rock, the church will prosper no matter how others try to destroy it, and there will be no one who will shake it until the coming of the Lord.

The church is a group of people who are called out, to worship first, secondly to educate, and thirdly to evangelize. Church is a place to save souls. That's why Jesus compared his disciples as fishers of men, and he left his last Words as, "You will be my witnesses all over the world."

The church is a place to evangelize. We know through Paul, Lydia and Philip that the apostles in the early church evangelized everywhere they went in order to save souls.

What is evangelism? Acts 2:37 says, "When the people heard this, they were cut to the heart and said to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Brothers, what shall we do?'" Evangelism means to help the evangelized to receive forgiveness of sins. It is to help a criminal under sentence of death to be released without guilt. Romans 1:16 teaches us that it is to save souls

시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0절에 보면 그 병든 육체를 고쳐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어 멀리 떨어진 것을 다시 하나로 화합시켜 주고 화해시켜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길 잃은 양을 찾아 목자의 집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아버지 품에 다시 안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이 빛난다고 말씀했습니다.

넷째, 교회는 선한 봉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대접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내어 주기까지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일생을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33세까지밖에 살지 않으셨습니다. 학교도 다니지 않으셨고, 외국 유학도 가지 않았지만 얼마나 뜻있게, 값있게, 빛나게, 향기롭게 사셨는지 모릅니다. 3년의 공생애밖에 없던 예수님의 삶이 왜 이렇게 굵게 남는지 살펴보면, 자신보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며 일생을 마쳤기 때문임을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6~27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that are precious and more important than the whole world. Acts 3:1~10 shows us that it is to heal the body of the sick. Ephesians 2:17 teaches that it is to unite God with the human beings who wandered afar from God. It is to bring reconciliation. 1 Peter 2:25 shows that it is to guide the lost sheep back to the shepherd's home. Luke 15:11 teaches that the prodigal son falls in the arms of his father once again. John 3:16 tells us that it is to gain eternal life. That's why Daniel 12:3 reveals that those who lead many to righteousness will shine like the stars for ever and ever.

Fourthly, church is an institution of good service

Mark 10:45 says, "For even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Jesus said that he did not come to this world to be served, but to offer his body to serve, and he lived his whole life for others.

You don't know how meaningful, how valuable, how illuminating, and how fragrant his life was for 33 short years, even though he didn't go to school, he didn't study abroad. Considering how significant his three years of public life were, I find that he lived not for himself but for others as he served and lived until the end.

Luke 22:26~27 says, "But you are not to be like that. Instead, the greatest among you should be like the youngest, and the one who rules like the one who serves. For who is greater, the one who is at the table or the one who serves? Is it not the one who is at the table? But I am among you as one who serves."

What a precious Word of God it is! "I am among you as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사람'이라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기러 오셔서 일생 동안 섬기다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프린스턴 신학대학교 맥카이 박사는 기독교에는 두 가지 상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손으로는 십자가를 붙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수건을 드는 것이 기독교이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한 손으로는 십자가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땀을 닦아 주고 발을 씻겨 주는 것이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한 손에는 십자가, 한 손에는 골프채, 야구 방망이, 명품 핸드백을 드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도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 손에는 십자가, 다른 한 손에는 수건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봉사하는 인간이 되자는 말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회퍼는 "배고픈 자는 빵을, 집 없는 자는 집을, 소유 못한 자는 정의를, 고독한 자는 친구를 요구한다. 배고픈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자는 하나님과 이웃을 훼방하는 것이다. 배고픈 자가 신앙을 얻지 못한 것은 우리가 빵을 주지 않은 까닭이다. 빵을 제공하는 것은 그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웨슬리는 "고독한 종교는 있을 수 있으나 고독한 기독교는 있을 수 없다"고 했고, 인도의 간디는 "나는 기독교는 존경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는 존경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봉사합니까? 오늘의 교회에는 봉사가 있어야 합니다. 좀 더 문을 개방해야 합니다.

one who serves." Jesus came to this world to serve and he indeed spent his whole life as he served others.

John 13 shows the story of Jesus washing the feet of his disciples. Dr. Mackay at Princeton seminary said that there are two symbols in Christianity. "We hold the cross with one hand; we hold a cloth with the other." This is Christianity. We hold the cross with one hand, but with the other a cloth so that we can wipe the sweat of others, and wash the feet of others. That's Christianity. It does not mean that it is bad if you hold the cross with one hand, and then with the other a golf club, a baseball bat, a brand handbag. They are good things and necessary things as well. But I hope that you would hold the cross with one hand and then a cloth with the other. I am saying that we should be a people who serve others.

The famous theologian in Germany, Bonhoeffer, said, "The hungry requires bread; the homeless a home; the poor justice; the lonely a friend. Leaving the hungry as they are is to disturb God and our neighbors. The reason why the hungry are not saved is because we didn't give them food. To offer food to them is to lead them to the path of grace." Again Wesley said, "it's possible for solitary religion to exist, but it's impossible for solitary Christianity to exist." Gandhi of India said, "I don't respect Christianity, but I do respect Jesus."

How much do we serve by using our bodies, time, and money? There has to be service at churches today. We have to open up the door more. We have to have interest in the spiritual matter, but also in the physical matter too. As Jesus was teaching about God's Word to people, he gave bread to the hungry as well. Afterlife is important, but we can't ignore the real world that is right before our eyes. And also

영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육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배고픈 자들에게 떡도 떼어 주셨습니다. 내세도 중요하지만 당장 눈앞의 현실 세계도 관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대중은 개인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고, 개인은 대중을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늦을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누가 합니까? 내가 시작해야 합니다. 봉사만이 기독교의 대화요, 모범이요, 열매요, 향기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봉사를 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육체적으로 기쁘고 정신적으로도 기쁩니다. 원래 있던 물을 퍼내야 새 물을 받습니다. 칼은 써야 빛나지 안 쓰면 고철이 되어서 엿 한 가락도 바꿔 먹지 못합니다.

영국의 윌리엄 영거는 스물네 살의 약관의 나이에 대영제국의 총리대신이 되었습니다. 새파란 젊은 청년이 어떻게 대영제국의 총리가 되고 정당을 이끌지 모두들 의심스러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로급 정가 사람들에게 참 논리 있게 국정에 대해 연설할 때 국회 안이 물 뿌린 듯 조용해졌습니다. 영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빛나게 장식한 그는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총리대신이 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를 좇아 교회를 따라다녔는데 부모님은 내 손을 잡고 교회에 데리고 갈 때마다 말씀 요절을 외우라 하셨고,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올 적에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설교의 대지는 무엇인지, 소지는 무엇인지, 중심 골자를 한마디로 하면

individuals have to serve for a group, and the group has to serve the individuals.

There is someone who says that he will start serving tomorrow. But tomorrow might be too late. Why is that? It's because you never know what will happen to you overnight. You have to start now. Who does it? I have to start. Service for others is the only communication, example, fruit and fragrance of Christianity. Helping each other mutually when in need is true love. You might feel like you are losing when you serve others, but you will gain joy both physically and mentally. You have to pour the water out of the bucket before you receive new water. If you have knife, you have to use it. Otherwise, it is not worth buying a piece of rice jelly. It will become a junk soon, if you don't use it at all.

William P.H Younger of England became the prime minister of Great Britain when he was only 24 yeas old. Everyone doubted how he was going to lead his party and play the role of the prime minister of Great Britain. But when he made a speech before the senior politicians at the parliament, everyone became quiet to listen. He answered the people who asked how he became a prime minister who brought glory to the pages of the history of Great Britain as a young man by saying: "I attended my church following my father and mother, who asked me to memorize the Scripture verses every time we went to church, and asked me by the time we got home, what the sermon title was, what the theme was, what the detailed points were, what the central idea was, and what was emphasized that day. Thanks to those conversations, I was able to develop my thoughts and philosophy and logic."

In the same way, when you attend a church, you not only receive salvation for your soul, not only stay out of trouble,

무엇인지, 무엇을 강조한 말씀인지 늘 물어 보셨습니다. 그 대화 덕분에 내게 사상과 철학이 생기고 논리가 정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 다니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탈선만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교회에서 훈련받음으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인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인격을 함양하고, 선교를 통하여 고귀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봉사를 통하여 삶의 보람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곳에 보내신 것은 나 하나 편안히 먹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죽어 가는 영혼을 건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는 섭리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아 예배드리는 성도들, 교육받는 신자들, 전도하는 성도들,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but also you can become a true human being in our society. I believe that it is possible by receiving training at church.

Through worship at church, we have to glorify God, develop new character through an education for the whole person, save precious souls through evangelism, and gain the meaning of life through service. The reason why God allowed us to be born in this age, to be saved, and sent us here is not because each of us would live a comfortable life, but because it's God's sovereignty that he wants us to bring glory to him, to save dying souls, to expand God's Kingdom. May all of you be blessed in the name of our Lord as those who realize this truth once again and live as saints who worship, who are educated, who evangelize, and who offer services to others.



부흥하는 교회

사도행전 13장 1~3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였다고 그 부흥상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에 네 가지 균형이 잡혀야 올바르게 부흥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개인의 부흥, 둘째는 교회의 부흥, 셋째는 확장하는 부흥, 넷째는 제3세계 선교입니다. 이 네 가지를 골고루 갖춘 교회가 참되게 부흥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이 네 가지 면에서 고루 부흥한 가장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The Church that Thrives

Acts 13:1~3

In the church at Antioch there were prophets and teachers: Barnabas, Simeon called Niger, Lucius of Cyrene, Manaen (who had been brought up with Herod the tetrarch) and Saul.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and fasting, the Holy Spirit said, "Set apart for me Barnabas and Saul for the work to which I have called them." So after they had fasted and prayed, they placed their hands on them and sent them off.

Church has to thrive. The Bible depicts the image of growth in the early church by reporting that the believers increased daily. We can say that when a church grows it has to have four balanced elements: First, individual growth; secondly, the growth of the church; thirdly, the growth of expansion; fourthly, mission work in the Third World.

When all of these four elements of growth are there, then it is a church that truly thrives. The church in Antioch of our text today was an exemplary thriving church that had all these four elements. The Word, 'Christian,' originated from this church in Antioch.

첫째, 참된 부흥은 개인의 부흥을 말합니다

이것을 내적 부흥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부흥하려면 세 가지를 거쳐야 합니다.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개인의 내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 없이 부흥한 역사는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이 세 가지가 고루 이루어졌기에 부흥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1년간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부흥한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20~21절에 보면, 헬라 사람에게도 말하매 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내적 부흥을 이룬 것은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 기도, 전도를 실천하지 않고 은혜를 받겠다, 내적 부흥을 이루겠다고 한다면 노력 없이 성공하겠다는 사람과 같습니다. 모든 성공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이적들을 검토해 보아도 이적이 나타날 만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적이 일어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1)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보면 말씀을 가리켜 열서너 가지 비유로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칼과 같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빛과 같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씨와 같다', 에

First, true growth means individual growth

This is called inner revival. For an individual to experience revival, he has to go through three things: the Word, prayer and evangelism. You have to have all these three in order to experience inner revival. Without these three there has been no revival in history. There was revival at the church in Antioch because they had all three elements.

Barnabas and Paul stayed at the church in Antioch for one year and taught God's Word. Because there was God's Word, the church in Antioch grew. They had a passionate prayer life. V. 3 of our text says, "So after they had fasted and prayed." They had prayers in their life. Also, when you look at Acts 11:20~21, they talked to the Greeks, and it was reported that many of them began to believe and returned to the Lord. The reason why they experienced inner revival was because they practiced the disciplines of the Word, prayer and evangelism. It was not that they experienced growth accidentally. If you say that you want to experience God's grace or inner revival without the Word, prayer or evangelism, it is saying that someone is trying to succeed in life without doing anything for it. Success doesn't occur accidentally. You can succeed only when you pay for it. When we read stories about miracles in the Old and New Testaments, you can discover that there have been clearly sufficient reasons behind the miracles.

1) The Christians at the church in Antioch learned God's Word

In the Bible, there are more than a dozen metaphors regarding the Word. In Hebrews 4:12 the Bible is compared

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방망이와 같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불과 같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면 '거울과 같다', 시편 119편 72절에 보면 '금과 같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책과 같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양식과 같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젖과 같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생명과 같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꿀과 같다', 예레미야 5장 10절에 보면 '나무와 같다' 고 했습니다.

성경은 칼과 같아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배울 때 우리 속의 암적 요소를 도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빛과 같아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아들딸들이 탈선하지 아니하고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미국에서 올바르게 공부를 잘해서 선량한 시민, 국제적인 시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가정의 자녀들이 순간적인 실수로 말미암아 함정에 빠지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우리의 자녀를 가르치기가 힘이 듭니다. 가정에서도 협력해야 하고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특별히 교회에서 협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때 그들은 실족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쁜 친구를 사귀면 타락하게 마련입니다. 좋은 친구 되시는, 진실한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는 젊은이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꼭 성공합니다. '빛'인 말씀이 젊은이들의 앞길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은 '씨' 이기 때문에 그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방망이' 같기 때문에 우리의 돌처럼 완악하고 고집스런 마음을 때려 부수어 가루를 만듭니다. '거울' 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을

to a 'sword.' In Luke 8:11, it is described as a 'seed.' Jeremiah 23:29 depicts it as a 'hammer.' Luke 24:32 explains it as a 'fire.' James 1:23 says, 'It is like a mirror.' Psalm 119:72 reveals it as 'gold.' Joshua 1:8 compares it to a 'book.' Jeremiah 15:16 illustrates it as 'food.' 1 Peter 2:2 depicts it as 'milk.' John 6:63 expresses that it is like 'life.' Psalm 119:103 portrays it as 'honey.' Jeremiah 5:10 says, 'It is like a tree.'

The Bible is like a sword that can cut out our cancerous elements within us when we understand and study the Scripture. It is like a light that guides our path so that we would not stumble. If you are a parent who has children, what should you do to raise your sons and daughters so that they would not deviate from the right path, would not commit sins, and would study well in the United States to become good citizens and international citizens? I saw many cases in which children from many families fell into a trap by a momentary mistake. It is very hard to teach our children with our own power. They would not stumble if families, schools, society and churches all worked together by properly teaching them God's Word.

If they keep bad company, it is only natural for them to go astray. Because Jesus is a good and faithful friend, those young people who keep Jesus as their friend will never fail but surely succeed. It is because the Word, which is 'light', will guide the path of the young people.

Also God's Word is a 'seed.' When it falls in our heart it bears good fruit. It is also like a 'hammer.' It breaks, crushes and reduces our evil and obstinate rock-like heart to pieces. Because the Word is a 'mirror,' it shows within our hearts what is crooked and wrong. Because the Word is 'gold,' it

찾아서 보여 줍니다. '금' 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부요하게 합니다. '물' 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 냅니다. 만사형통하는 길로 인도해 줍니다.

'양식' 이기 때문에 먹으면 영혼이 배부르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젖' 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 구원에 이릅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나듯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 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새 생명이 약동하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됩니다. '꿀' 이기 때문에 먹으면 먹을수록 달고,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납니다. '나무' 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꽃을 타오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을 배웠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적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2)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모세는 40일씩 시내 산에 올라가 두 번씩이나 금식기도했기 때문에 큰 능력을 받아 광채가 나고 사람들이 감히 그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왕 앞에 가서 섰을 때 "신과 같다"는 말을 들었고, 출애굽기 17장에서 그가 손을 들면 전쟁에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 졌습니다. 이는 그가 지닌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물

enriches our hearts.

Because it is 'water,' it completely cleanses what is dirty within our hearts. It will make one's life prosperous in every way. Because it is 'food,' when we take it, our soul will be full and be filled with joy. Because it is 'milk,' our faith will grow up to reach salvation. Just as a child grows up by having milk, our soul and our character and our life reach the measure of Christ by growing up and taking God's Word. Also in that way we reach salvation. Because it is also 'life,' when we read the Bible, new life starts to move and we gain eternal life. Because it is 'honey,' the more you eat, the sweeter it tastes, and the more you read, the more you experience the new taste. Because it is a 'tree,' it allows our heart to have the fire of the Holy Spirit.

Therefore, this church in Antioch taught the Word, sought the Word with passion, learned the Word, and achieved inner revival because they had the Word.

2) The Christians at the church in Antioch prayed

It was not a usual prayer. They prayed with fasting. Praying with fasting means praying with such a passion to even risk your life. There are many people who died while fasting. Because Moses fasted twice by going up the mountain, Sinai, for 40 days, he received great power, and people could not dare to see his face because his face was shining. When he stood before Pharaoh, he heard that he was "like a god." In the book of Exodus chapter 17, when he raised his arms, his army won the battle, but when he let his arms down, then his army lost the battle. This shows the power of prayer he possessed.

Jesus Christ, even though being God, prayed and fasted for

도, 음식도 안 잡수시고 금수 속에서 생명을 내걸고 기도하셔서 능력을 더 얻어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 역시 산에 올라가서 생명을 내걸고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의 체험을 하였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아침마다 몇 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존 녹스의 사위 되는 웰스 목사는 하루에 8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에 고달프고 바빠 주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많지 못한 고로 우리 마음에 은혜가 마르고 여유가 없고 평화가, 기쁨이, 감사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려면 우리 모두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야 할 것입니다.

3)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행 11:20~21).

안디옥 교회 신자들은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전도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 새끼는 양이 낳습니다. 목자가 낳는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들이 나가서 전도해야 한다는 것을 안디옥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주인이 멀리 갔다 돌아와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과 계산할 때에 배나 남긴 사람들은 칭찬받았지만 땅에 파묻어서 녹슨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은 그 한 달란트마저 빼앗기고 쫓겨났습니다. 이를 갈고 슬피 울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생에 가장 중대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

40 days in the wilderness without having water or food, and was surrounded by wild animals. That's how he received even more power so that he was able to save the human race.

I also experienced grace while I was fasting and risking my own life by climbing up a mountain. It is known that Martin Luther prayed several hours in the morning. Pastor Wells, the son-in-law of John Knox, prayed 8 hours a day. When I heard that story, I felt ashamed of myself. Because you are living the life of an immigrant in which you don't have much time to kneel to pray due to your busy schedule and fatigue, it is only natural that you become dry with respect to grace, have no space in your heart, and lack peace, joy and thanksgiving. In order to have thanksgiving, joy and praise, you need to spend a long time in prayer.

3) The Christians at the church in Antioch evangelized with passion

"Some of them……began to speak to Greeks also,……and a great number of people believed and turned to the Lord"(Acts 11:20~21).

The Christians at Antioch evangelized many people. Pastors are not the only ones who do evangelism. Evangelists are not the only ones who do evangelism either. Sheep bear sheep. The shepherd doesn't bear sheep. The church in Antioch shows us that the congregations themselves have to go out and evangelize. Our Lord called us to be fishers of men. When a master came back from a distant country to settle accounts with the ones who received five, two, and one talent, those who made a double profit received praise, but the one who brought back the same old talent that was stored underground received punishment by being kicked out and

수를 믿게 된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대접이 무엇입니까? 음악회에 데리고 가는 것입니까? 배불리 점심을 대접하는 것입니까? 자동차 한 대 사 주는 것입니까? 장사 밑천을 주는 것입니까? 그것도 사랑일지 모르지만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고 말 것들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시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사랑이고 값진 대접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그 방법을 여섯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능성 있는 한 사람을 꼭 지목해 두어야 합니다. 정해 두어야 합니다. 매일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 3분 동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사랑과 봉사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과 서적 같은 것을 가끔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부족하면 목사나 장로나 전도사나 집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이 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년 정도 지나면서 교회를 한 번 데리고 나오는 것까지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물론 학습 세례까지 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만 교회에 한 번 데리고 나와 보십시오. 꼭 한 사람을 정해 놓고, 하루에 3분 이상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사랑과 친절과 봉사를 베푼다면 목석이 아닌 다음에야 한 번 교회에 나와 줄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게 됩니다. 오늘 마음으로 결심하고 이런 방법으로 전도하면 금년에

losing one talent. He had to weep, gnashing his teeth.

Dearly beloved,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in your life? Is it not believing in Jesus? If we had not believed in Jesus, would it be possible for you to be sitting here today? If we had not believed in Jesus, would it be possible for you to be blessed? What would be the biggest treat that we can offer to the friend that we love? Would it be taking him to a music concert? Treating him with a big lunch? Buying a car for him? Offering him seed money for his business for free? Those might be conducts of love, but they are not eternal love, nor complete love. Those things will pass away as time passes away. The most precious love and the best treat is to save one person, to help them meet Jesus Christ.

Therefore, I would like to suggest six ways to do evangelism.

First, you must choose one possible person. You definitely have to choose one person. Pray for that person for 3 minutes a day. And then you should offer true love and service. Then occasionally give some books like a Bible or a Christian book to that person. You can ask for help from a pastor, elder, evangelist or deacon if you need help. This way you can go together with your helper to that person. As you spend about a year doing this, the last step of your mission is to come to our church with that person. Of course, we have a higher goal, which would be to catechize them and baptize them, but at least try to come to church with that person once. Once again, choose one person, pray for that person for more than 3 minutes a day and offer love and service to that person for one year. Then unless that person is a piece of wood or a stone, then he or she will come with you to our church. When the Holy Spirit works in his heart at that time, then he will

는 꼭 한 사람을 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 참된 부흥은 교회 자체의 부흥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부흥입니다. 개인의 부흥이 이루어질 때 교회의 부흥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에는 세 가지의 요건이 따릅니다. 소그룹(small group), 은혜의 분배, 상부상조가 있을 때 교회는 꼭 부흥됩니다.

1) 소그룹으로 조직된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인이 많을수록 그 가운데 그늘이 지기 쉽고 구경꾼이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끼리끼리 연령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성에 따라서 분류하여 소그룹을 만드는 것입니다. 감리교는 속회를 잘 운영하기 때문에 부흥된다고 합니다. 또한 남침례교회는 주일학교를 자꾸 쪼개서 나누기 때문에 부흥된다고 합니다. 저 남쪽 텍사스 댈러스에 있는 교회는 교인이 너무 많으니까 교인들을 은행원이면 은행원끼리, 조종사면 조종사끼리, 의사면 의사끼리 묶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교회가 크지만 그늘에 앉은 사람도 없고 구경꾼도 없이 모두가 하나로 뭉쳐 운영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몇 해가 지나도 소속감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진해서 한 부서에 들어가 그 속에서 친교를 도모하고 서로 힘을 합해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때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을 알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그룹을 더 만들어야 합니다. 모세

believe. I believe that if you are determined today, and if you evangelize this way, then you will surely be able to save one person before the end of this year.

Secondly, true growth means the growth of the church itself

This is an external growth. When personal growth occurs, then it is followed by the growth of the church. There are three requirements for the revival of the church. When there are small groups, the sharing of grace, and mutual service, then the church must grow.

1) A church grows when it is organized with small groups

The bigger the church, the more shadows there are, which allows more bystanders. That is why we need to divide the members according to their age, work, and sex so that all members can participate in the church. They say that the Methodist church grows well because they manage their divisional prayer meetings well. Also the Southern Baptist church thrives because they keep dividing their Sunday school. A church in Dallas in Texas in the South had to handle a huge number of people as members, so they divided them into groups of bankers, pilots and doctors. As a result, even though the size was big, they all became one since there was no shadow and no bystanders.

There are some people at our church who do not have any sense of belonging although it's been a few years since they started attending our church. Please try to belong to a group, knowing that when you willingly belong to a group, seek fellowship in it, work together and serve with your talents,

도 200만 대중을 끌고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 와서는 도저히 혼자서 그들을 통솔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2)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자신만 기뻐하지 말고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간증해야 합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설교는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예수 믿고 나서 받은 은혜를 간증할 때, 믿기 전에는 이러했는데 믿고 나서는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간증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어느 부흥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간증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와서 30분 간증하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부흥회에 모인 사람들은 장로님의 간증에도 은혜를 받았지만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는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받은 은혜는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사람은 평신도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자기 혼자 기뻐하지 아니하고 안디옥에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었던 까닭에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함께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은혜를 분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3) 상부상조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상부상조했습니다. 선지와 목사가, 왕족과 평민이, 백인과 흑인이, 자유인과 노예가,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지식인과 배우지 못한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서로 보충하

then your faith will grow. Therefore, we have to create more small groups. Was it not the case for Moses as well when he led 2 million people out of Egypt? He could not handle them all by himself, so he appointed officials over tens, hundreds and thousands.

2) A church grows when members share grace

If we received grace, then we should not rejoice over it by ourselves, but share it with others. We have to testify to what we have received by grace. Laypeople, even though you can't preach theologically or biblically, your faith will grow when you share with others what you were like before conversion and what you became after conversion. At a certain revival service, an elder had flown and shared his faith for 30 minutes and then flew back. The audience at the service not only was touched by what he shared, but they also were more touched by the fact that he took an airplane to fly to them. You have to share grace with others because you have already received it.

The person in our text, Barnabas, was a layperson. Because the grace he received was so important to him, he not only rejoiced over it, but also shared it with every one at the church in Antioch. That's why they received the grace together. We have to know how to share grace.

3) A church grows when members help each other

In the church in Antioch they helped each other. A prophet with a pastor, a royal family member with a common citizen, a white man with a black man, a free man with a slave, a rich man with a poor man, an intellectual with an uneducated person, they all became one, and complemented and helped

고 서로 도와주었습니다. 그 당시는 자유인과 노예가 같이 앉아 있을 수 없었던 때입니다. 왕족과 평민이 같이 앉기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타파하여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서로를 도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45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고"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상부상조입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 주었다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4~3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러라"고 했습니다.

서로 도왔습니다. 주위에 굶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데리고 오십시오. 자동차가 세 대 있으면 한 대 팔면 되고, 아파트가 세 채면 한 채 팔면 됩니다. 왜 자꾸 땅에 미련을 두고 삽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그저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회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걸, 걸' 할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았다면 나누어 줄걸, 걸, 걸.' 피난 갈 때에는 '걸, 걸' 하더니 돌아와서는 '고, 고' 합니다. '집 한 채 사 놓고, 피아노 한 대 사 놓고. 사 놓고. 고, 고, 고, 고'.

상부상조할 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 후 힘이 모자랄 때 손을 벌려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each other. In those days, it was very unlikely for a free man to sit with a slave, for a royal family member with a common citizen. But in the church in Antioch, they broke down all barriers to become one, one family, and one brother and sister in Christ, and they helped each other.

Acts 2:44~45 shows that in the early church, "All the believers were together and had everything in common. Selling their possessions and goods, they gave to anyone as he had need." It is all about mutual service. It shows that those who had possessions shared what they had with those who did not have any. Acts 4:34~35 says, "There were no needy persons among them. For from time to time those who owned lands or houses sold them, brought the money from the sales and put it at the apostles' feet, and it was distributed to anyone as he had need."

They truly helped each other. If you know someone in your neighborhood who is hungry, please bring them here. If you have three cars, then sell one. If you have three houses, then you can sell one. Why do you continue to desire to have property? The Bible says that the Christians in the early church sold their houses and property and then shared it with those who were in need. There we find social justice.

You would say later "should have", "should have." Had I known this, I should have shared it, "should have", "should have……." If you become a refugee, then you would say, "should have, should have……." But when you return after life in a refugee came, then you say, "and", "and." "I have to buy a house and piano and,……and,……and……."

A church grew when they helped each other. God is the God of the living. God helps those who ask for their needs after they have done their best.

셋째, 참된 부흥은 교회가 확장 부흥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확장 부흥한다는 것은 팽창 부흥을 의미합니다. 미자립교회를 도와주는 것, 지교회를 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확장 부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9~30절을 보면 가난한 교회를 도와주었습니다. 미자립 교회를 도와주었습니다.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고 가난한 것과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먹을 것을 좀 덜 먹고 연보를 하여 사람을 시켜 그것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미자립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확장 부흥하는 첫째 요소입니다.

지교회 설립 또한 교회의 확장 부흥입니다. 교회가 부흥하여 이제는 교인을 다 수용할 수 없을 때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시켜서 소아시아에 여러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마게도냐와 유럽에도 여러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서 영혼을 건져야 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에게 일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라도 지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넷째, 참된 부흥은 제3세계에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르는 교회가 진정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저 자기 교회만 은혜 받고, 그저 자기 동족끼리만 돕는 것을 가지고는

Thirdly, true growth means a growth through expansion

It's about expansion. You can help an unorganized church or establish a branch church, which is growth through expansion. Acts 11:29~30 shows that the church helped a poor church. They helped an unorganized church. They helped a poor church. "The disciples,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decided to provide help for the brothers living in Judea. This they did, sending their gift to the elders by Barnabas and Saul."

Because the Jerusalem church was struggling with famine, poverty and difficult situations, the church in Antioch collected an offering by saving part of the money for their food, and they sent their gift by men. This is what it means to help an unorganized church. This is the first element for growth through an expansion of the church.

Establishing a branch church is also a growth through expansion as well. When the church in Antioch grew to the full and could not contain all the members, they sent Paul and Barnabas to establish several branch churches in Asia Minor. They established many branch churches in Macedonia and Europe also. We have to establish churches where they don't have churches in order to save souls. In order to provide jobs for the new pastors coming out of seminary, we have to establish churches also.

Fourthly, true growth means carrying out mission to the Third World

A church that follows this fourth element is a truly growing church. We cannot call ourselves a true church if we receive

참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3세계 선교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소아시아, 유럽과 같이 전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제3세계에 처음으로 선교하였습니다.

특히 제3세계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를 가리킵니다. 이제 백인 선교는 막이 내려 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한국 선교사 나일선 박사는 미국 선교사에 대한 세계 젊은이들의 반응을 미국 선교사의 글에서 인용하였습니다.

"많은 제3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초록색의 달러를 본다. 서양 제국주의와 인종차별주의를 본다. 기술과 기계장치를 본다. 억지로 너그러운 척하는 괴물을 본다. 그들 정부의 끄나풀을 본다. 승리를 건진 파쇼주의자들을 본다. 한 손에는 성경 들고 한 손에는 아편과 총과 대포를 든 사람들을 본다."

이제 백인 선교는 막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3세계에 복음을 들고 나갈 자가 누구입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도 아닙니다. 독일 사람,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도 아닙니다. 미국도 지났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은 땅은 좁습니다. 자본도 적습니다. 무기도 적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세계에 공헌할 것이 없지만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 한국 사람이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의 부흥 역사를 보러 옵니다. 새벽기도한다, 헌금을 많이 한다, 열심으로 전도한다, 철야기도와 금식기도 많이 한다며 놀라운 한국 교회의 부흥을 세계가 보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젊은이들이 해외 나가면 다 환영

grace only for ourselves, helping only our own countrymen. A mission to the Third World means sharing the gospel message with those whose language and culture are different than ours. The church in Antioch brought the gospel for the first time to the Third World because the language and the culture in Asian Minor and Europe were totally different than theirs.

The Third World refers to Asia, Africa and South America. Now the mission done by the whites is coming to an end. A famous Korean missionary, Na Ilseon, quoted an American missionary with regard to the response from the young people in the world to American missionaries.

"So many people in the Third World look at us as green dollars. They see with the glasses of western imperialism and racial discrimination, of skills and machinery. They see monsters who pretend unwillingly to be generous, spies of a government, Fascists who have won victories, men holding the Bible in one hand, opium, guns and cannon in the other hand."

Now the mission work done by the white people is coming to an end. Who are those now who will take the gospel to go to the Third World? It's not the Jews. It's not the Roman people. It's not the German or British or French people. North America is passing it's heyday. Then who will it be? It's our Korean people. Our nation inhabits only a small land. Our capital strength is weak. Our military power is not great. We don't have much to contribute to this world, but we have to realize that we Korean people have the mission to spread the gospel.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visit Korea to see how the Korean churches have grown. The world is coming to visit Korea to see the amazing history of growth in the Korean church. They see that we have early morning prayer services,

하고, 제3세계에서 짧은 선교활동이지만 성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미국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들만 이곳에 와서 안전하고 편안히 잘 먹고 살라는 뜻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 마지막 때 세계 복음화 사역을 하라고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물질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성, 은사, 물질을 합한다면 제3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개인의 부흥, 교회의 부흥, 교회 확장의 부흥, 제3세계 선교를 함으로써 기독교 역사에 남는 첫째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선교로 소문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헌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역사회와 인류에 공헌하고 고생한 의미를 찾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e give a lot of offerings, we evangelize passionately, we pray overnight and we fast. Thus, now when Korean young people go abroad for mission work, they are welcomed, and they succeed in spite of their short history of mission in the Third World. I believe that the reason why God sent us to the United States is not for us to have a comfortable life, eat well and have security, but for us to go their all over the world with American citizenship in these last days to participate in world evangelism.

Dearly beloved, you have to support this with prayer and with finance. I believe that if we combine the intellectual abilities, talents and finances from God for the purpose of Third World Missions, then the possibility of success will be much higher.

The church in Antioch became the number one church in church history by personal growth, the growth of the church, the growth through expansion of the church and mission work to the Third World. May you be blessed in the name of our Lord as you glorify God by dedicating yourself for the church with prayer and finance so that this church becomes the church that God is pleased with, being famous for mission work, and so that you contribute to the human race and find purpose in your life's work.



전진하는 교회

빌립보서 3장 12~16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미국에 있는 교회 33만 5천 개 중에 1,500명이 모이는 교회가 200개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 동양선교교회가 들어갑니다. 온 성도들이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마음을 품고 물심양면을 기울여 희생, 봉사한 결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여러 교우들 앞에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현재 이 시점으로 자족하고 제자리걸음할 것은 결단코 아니라고 봅니다. 생명이 있다면 위를 향하여 자라나고 뻗어 나가야 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므로 현재 이것에 자족할 것이 아니라 더 큰 목표를 가지고 계속 전진하고 부흥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감하

The Church that Makes Progress

Philippians 3:12~16

Not that I have already obtained all this, or have already been made perfect, but I press on to take hold of that for which Christ Jesus took hold of me. Brothers, I do not consider myself yet to have taken hold of it. But one thing I do: Forgetting what is behind and straining toward what is ahead, I press on toward the goal to win the prize for which God has called me heavenward in Christ Jesus. All of us who are mature should take such a view of things. And if on some point you think differently, that too God will make clear to you. Only let us live up to what we have already attained.

In America, there are about 200 churches that have over 1,500 members in the church out of 335,000 churches. Our Oriental Mission Church is one of them. I thank God for the members who have a noble purpose in Christ with oneness, and gave their hearts and generous gifts to serve and sacrificed for God. I want to express my thankfulness before God and in front all the members of this church. But our church can not be satisfied with what we have at this moment by standing still and not moving forward. If something has life, it will grow and expand; likewise Christianity is religion with life. Therefore, we should not be content with the current situation but must have a bigger goal, and move forward to bring

기 때문에 오늘 '전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 성도님들과 같이 12주년을 맞이하고 13주년을 바라보는, 아니 더 먼 앞을 내다보는 이 시점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진하는 교회가 되려면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의 '내가 이미 얻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했다'는 의미는 '나는 아직까지도 성숙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 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직도 도덕적으로 완전한 경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받았으나 생활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은 아직 완전치 못하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교회 설립 12주년을 마치고 13주년을 내다보는 우리들에게 가장 합당한, 가장 지당한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형편이 좋을 때는 누구나 잘 믿습니다. 편안할 때는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어려운 시련이 올 때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아직까지도 성숙한 신앙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루의 생활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무릎을 꿇고 하루의 생활을 검토해 볼 때 말이나 행실에서 도덕적으로 완전한 하루를 보냈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영혼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생활은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정신, 사상, 인격에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그

revival.

That is why today's sermon title is 'The Church that Makes Progresses' I would like to share with members of this church by celebrating its 12th year of church establishment and not only looking ahead for the 13th year but more years to come in the future, I want to share God's word with you.

First, the church that makes progress must move forward continually

As we look at verse 12, it says "Not that I have already obtained all this, or have already been made perfect, but I press on to take hold of that for which Christ Jesus took hold of me." Apostle Paul mentioned 'Not that I have already obtained all this, or have already been made perfect' he meant 'I am still not in a state of fully mature faith.' I have still not reached a state of perfect morality. Even though, I received salvation of soul but my salvation of life and body have not reached a state of perfection. This message is appropriate for our congregation who are looking forward to not only the 12th year but also the 13th and more years in the future years to come.

We all claim that we have faith when everything is going well. People have no problem when they are in a comfort zone. However, if we face trials, our faith will be shaken and we confess that we are weak and not in a state of mature faith. As we lie down on our bed, we look back at our daily activities, conversations, and moral behaviors, and we confess that we did not live a perfect day. Our soul received salvation but our daily lives have not reached to the fullest to Christ's spirit, aspect, and personality.

래서 상대적이나마 완전한 생활의 구원에 이르려고 매일매일 힘쓰는 것이 오늘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어떤 때는 목마르고, 어떤 때는 너무 덥고, 춥고, 병나고, 죽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구원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산 사람은 변화되고 죽은 자는 부활함으로 육신의 구원이 그때 가야 완성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지금도 푯대를 향하여 간다고 말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 완전한 도덕적 경지와 더불어 육체 생활에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쉬지 아니하고 부단히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좇아간다' 는 뜻은 사냥하는 사람이 토끼를 보고 좇아가는 태도와 심정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산에 가서 토끼를 잡으려 하는 사람은 토끼를 발견하면 다른 곳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토끼라는 하나의 대상에 눈동자를 집중하고 마음과 몸 전체로 그 대상을 좇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성숙한 신앙의 경지, 도덕적인 완전, 생활의 구원, 육체의 구원을 위해서 토끼를 좇는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좇아가고 전진하는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가리켜 미국 곳곳에서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화목한 교회, 모범적 교회라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 마음에 큰 책임을 느낍니다. 정말 그런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Therefore, relatively we strive to reach perfect daily lives of salvation in our everyday life. Even though we believe in Christ but still we will be hungry, thirsty, feel hot, cold, catch diseases and die. We have not received salvation of body yet. When Jesus Christ comes back, then the body will be changed, dead will be raised, thus perfect salvation of body will be achieved. As apostle Paul mentioned, 'Not that I have already obtained all this, or have already been made perfect, but I press on to take hold of that for which Christ Jesus took hold of me……I press on toward the goal'. Paul is making a ceaseless effort toward mature faith, perfect state of morality along with completeness of salvation of body.

The meaning of 'Press on' is attitude and mind of the hunter who is after his rabbit. The hunter who wants to catch the rabbit on the mountain will focus on nothing but the rabbit. The only single object that is in the mind of the hunter is the rabbit. He will give full attention with mind and body to catch the rabbit. Likewise, Apostle Paul is like a hunter who is after a rabbit, he is after and moving forward to reach a state of mature faith, perfect morality, salvation of daily life, and salvation of body.

Today, people call our church a growing church, revival in the church, peaceful church, model church in America. But, as I hear that complement, I feel very responsible and I really give sincere thought in that complement. We should not be proud after hearing that or be content with it. We confess as we stand at this moment, we continually move forward that "Not that I have already obtained all this, or have already been made perfect, but I press on to take hold of that……."

Thus, in the future, we have to strive to become a church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푯대를 향하여 앞의 것을 잡으려 좇아가는 심정으로 계속 더 활발히 전진해야 할 입장과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는 교회, 기도에 힘쓰는 교회, 서로서로 사랑하는 교회, 복음을 열심으로 전하는 교회, 봉사에 힘쓰는 교회,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까지 우리는 전진을 계속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국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 선교와 평화를 위해서 한 모퉁이를 담당하는 책임 있는 교회로 전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광야를 지났다고, 요단 강을 건넜다고, 여리고 성을 함락시켰다고 다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 성도들과 제직들의 값진 노력으로 이만큼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이 땅 위에 보내시고 교회를 풍성케 하신 큰 뜻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은 멀고 험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즉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고 말했고, 빌립보서 2장 6~7절에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했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자신이 만삭 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말했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가운데에서

that gathers more often, diligently learning God's word, praying earnestly, loving each other, spreading the gospel diligently, serving others with a humble heart, and moving forward until our church shines a bright light to the world.

In other words, for the fame of this country, for the glory of God, for peace and world mission, the church has to strive forward to take responsibility of being a cornerstone. People of Israel did not solve all their problems by leaving Egypt. Crossing the Nile River, desert, Jordan and taking down Jericho did not resolve all the problems. Their ultimate goal was to conquer the land of promise; Canaan.

To this day, our church has been blessed by God's grace and it is a fact that all the members gave their precious effort in order that the church could grow in various aspects. However, there are reasons why God has chosen us and sent us to this land, it is to repay abundance of church's growth, and we must realize that we have long ways to compensate blessings of the church's growth.

We also have to be humble. We know that humility comes before honor. Paul mentioned in Galatians 6:3 "If anyone thinks he is something when he is nothing, he deceives himself." Also in Philippians 2:6~7 Jesus "Who, being in very nature God,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something to be grasped, but made himself nothing, taking the very nature of a servant, being made in human likeness." In 1 Corinthians 15:8 Paul mentions "and last of all he appeared to me also, as to one abnormally born." According to 1 Timothy 1:15, Paul humbled himself by calling him the worst sinner of all.

By having a humble mind, he received more grace and

도 괴수라고 자기 겸손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십오야 밝은 둥근달보다도 못생긴 희미한 초승달이 더 귀여운 것은, 보름달은 이제 줄어듭니다만 초생달은 자꾸만 커져 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만하면 지적으로 되었다, 이만하면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족하다고 한다면 내려가는 사람이 됩니다. 위험한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저 "나는 아직 못 됐어, 만삭이 못 됐어" 하며 내가 제일 허물 많고 부족한 인간이라는 겸손을 가질 때 발전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평지를 갈 때 계속 페달을 밟지 아니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혹 밟지 않아도 얼마 동안 굴러 가지만 결국에는 얼마 안 가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계속 모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에 힘쓰지 않으면 발전은커녕 신앙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3~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좇아가노라"고 말합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지난날을 반성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마음에서 지워 버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믿기 전의 특권을 잊어버리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 나의 찬란한 업적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became very well known in the Christian community. As you know, more people like the cute crescent; young moon then the full moon because young moon grows bigger everyday but the full moon does not. In the same way, if we said that, "I am satisfied with my knowledge" or "I am content with my morality and faith," and from then on, you will go downwards and you will face a very dangerous situation. If you accept that you are still not there yet, abnormally born, and think that "I am the worst and have the most faults of all," then, God will bless you and your path will be smooth. When you ride a bicycle, you can not go forward unless you step on the pedals on flat ground. Sometimes the bicycle will go forward for a while without pedaling but, soon you will fall. Our faith will backslide and can not grow if we do not meet, pray, read the Bible, share the gospel, serve others, and help needy people.

Secondly, the Church that makes progress forgets what is behind

In verses 13~14 "Brothers, I do not consider myself yet to have taken hold of it. But one thing I do: Forgetting what is behind and straining toward what is ahead……." What is the meaning of 'Forgetting what is behind'? This does not mean not to reflect on past moments. It does not mean to erase wonderful memories. It means we should forget our privileges that we enjoyed before accepting Jesus. It means we should not brag about our great achievements before accepting christ. It also means we forget and disassociate with worldly things before accepting Jesus Christ. In other words, do not stand where you are currently; forget what is behind, and only running toward what is ahead.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좋아하던 세상의 좋지 못한 습관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끊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위해 달음박질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찬란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한 번도 그것들을 자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 베냐민 지파 왕족의 자손입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젊은 나이에 율법학자가 되어 바리새인들 교회에서 정통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대학원을 나온 사람,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졌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찬란한 문벌과 학벌, 업적,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 그는 그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렸습니다. 그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좇아가노라, 달음박질하노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자꾸 애굽을 돌아보았습니다. 해방도 좋고 자유도, 조국도, 새 나라, 새 역사도 좋지만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며 자꾸 애굽을 돌아보았습니다. 비록 종살이는 했지만 애굽에서 배불리 먹던 것을 생각하고 저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고 요원하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며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앞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에 귀감으로 삼아야 합니다. 목표를 바라보아야 합

Apostle Paul had splendid accomplishments but after he met Jesus, he never boasts about what he did in the past. Paul was a descendant of Abraham, and he is from the tribe of Benjamin the king's descendant. He also received circumcision on the 8th day, learned law at a young age, and became a scholar; Pharisee at a young age to teach in a traditional Pharisee school and had traditional faith. In today's terms, he graduated from a prestigious university and had Roman citizenship. In worldly aspect, he had a splendid scholar background with glorious achievements and great ability. However, after he accepts Christ, he considers all of them as rubbish. He clearly states that, he is "straining toward what is ahead, I press on toward the goal to win the prize."

We have to forget about what is in the past. In Luke 9:62 "Jesus replied, 'No one who puts his hand to the plow and looks back is fit for service in the kingdom of God.'" Those who came out from Egypt looked back and complained about life in the desert. It is a wonderful thing to have freedom from slavery, new world, new country, and new history but they still complained about life in the desert and looked back Egypt. Even though, they were slaves, they remembered their stomach was filled with food and they also could not see the promise land; Canaan therefore, people of Israel looked back and complained. But we must remember, all those who complained in the desert died except Joshua and Caleb, who went in the promise land; Canaan. We have to gaze after the goal. We must run by looking after finish line.

A short distance runner does not look sideways or backwards. Likewise, as the runner runs with all his strength to cut the tape at the finish line, we, believers have to neither

니다. 결승 테이프를 바라보고 뛰어야 합니다. 단거리 선수들은 옆도 안 봅니다. 당연히 뒤도 안 봅니다. 결승 테이프를 끊기 위해 온 힘을 쏟아 달리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 할 때 옆도 바라보지 말고, 뒤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을 주장하사 완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기분을 가지고, 새로운 정열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셋째, 앞에 있는 푯대를 정해야 합니다

뛰는 사람이 푯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잘 뛰어도 결승선 테이프를 끊어야지 반대 방향으로 뛰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본문 13~14절에 보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좇아간다고 했습니다. 푯대. 목표. 이 푯대가 있어야 합니다. 유명한 크리스소스톰이라는 교부는 "달리는 자는 관중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푯대를 향하여 뛰라"고 말했습니다.

선교, 교육, 봉사. 이는 우리 교회의 3대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냥 정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기간 동안에 하신 사역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하는 것뿐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look sideways nor backward.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We have to fix our eyes on more beautiful and eternal heavenly things, not things that are on earth but things from above.

I pray that from today, we can start with a fresh mind, passion, and a new mind as we fix our eyes on heavenly things.

Thirdly, we must set the goal before us

Runners can not run without a mark post. It is useless, if the best runner runs in the opposite direction, not toward the finish line. According to verse 13~14, "straining toward what is ahead; I press on toward the goal……." 'The goal.' 'The mark post.' This is what we need. A well known rector named Chrysostom once said, "Runner must not look at what the crowds are doing, but run after the mark post."

Mission, Education, Service. These are our church's 3 main projects. These are not just made up for the sake of fun, but those are what Jesus did while he was ministering for 3 years. We are just imitating what Jesus did. In Matthew 9:35, "Jesus went through all the towns and villages, teaching in their synagogues, preaching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and healing every disease and sickness."

'Teaching in their synagogues' means education. 'Preaching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means mission. 'Healing every disease and sickness' means service. These Education, Mission, and Service are what Jesus did and we are just following His step. That is our goal.

We have to run toward the goal. We are looking at the 13th year or maybe 20th, 30th year and we have to expand mission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고 했습니다.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는 교육입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는 선교입니다. 백성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는 봉사입니다. 선교, 교육, 봉사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달음질해야 합니다. 이제 13주년을 바라보고, 아니 20주년, 30주년을 바라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를 확장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교사들을 확보해서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가정을 지도할 교육의 책임이 있습니다. 더 많은 봉사를 해야 합니다. 새 성전을 마련해야 합니다. 넓은 교육관이 필요합니다. 중등부 인원이 너무 많아서 공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노인 아파트, 수양관을 짓고 선교대학원을 세워 인재도 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2세들을 가르쳐서 앞으로 2세 목회를 충실히 이어나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목표을 일단 정했으면 쉽게 그것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나무를 한번 심으면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서 기다리고 가꾸어야지 성급하게 자주 옮기면 뿌리가 말라 죽습니다. 우리가 한번 목표를 세웠으면 쉽사리 바꾸지 말고 슈바이처가 말한 것처럼 한 우물을 파야 합니다.

우리가 전진하려면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 단거리 육상선수를 해봤습니다. 1,000미터를 200미터씩 다섯 번 뛰었습니다. 중국에서 뛰었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더 잘 뛰기에 다리가 아프고 목이 마르지만 죽어라고 뛰었더니 4등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진하려면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과

work until Jesus returns. We have to educate people. We need to use the top curriculum and very well trained teachers to teach young students and lead them and have responsibility to lead different homes. We also have to serve others more. We need to prepare for new buildings. We need education buildings. I heard that junior students' classes are getting crowded. It is necessary to build a senior apartment, retreat facility, Mission College in order to raise great leaders. We also need to teach the second generation to lead the second generation congregation.

Once the plan is already made, it is not good to alter the goals. If a tree has been planted, it is wise to give water and fertilizer without moving it too many times; otherwise the roots will dry-up quickly and die. Once we set the goal then we need to stick to the plan like Albert Schweitzer once said that a person has to dig one well.

If we want to move forward, we must give our best effort. I once did short distance running. I ran 200 meters five times, in total 1,000 meters. I did that when I was in China. I ran as hard as I could because even older people ran faster than me, so even though my legs were hurting and I was very thirsty, I ran very hard and I came in as 4th place. If we want to move forward, we must give our best effort.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successful person and a failed person? It is not a difference in ability, or IQ.

The person who puts forward his very best effort will bring success and the least effort will bring failure. Even if a genius has a special talent, if that person does not put forward his best effort, that person can not be successful.

Abraham Lincoln is a man of endeavor. He only went to the second grade in elementary school but he worked hard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능력의 차이도 아니고 IQ의 차이도 아닙니다. 노력한 사람은 성공하고, 노력을 꾸준히 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재주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만 믿고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밖에 다니지 못했지만 노력하여 변호사가 되고 주 의원이 되고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노예시장에 가서 어린아이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보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몇 번의 실패 후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세계적인 인도적 정치가, 조지 워싱턴보다도 더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은 목표를 향한 부단한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나는 계속 준비하고 있겠다. 그러하면 언젠가 나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칠은 준비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를 나왔지만 정치, 경제, 법률 등을 공부했더니 2차 대전 때 연립 내각 총리대신이 되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주역의 한 사람이 되었고, 세계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준비하고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예한 자가 되리라" 고 말씀하였습니다.

넷째, 마지막 하늘에서 상급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4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and became a lawyer, senator, and 16th president of United States. He had a dream of becoming the president after he went to a slavery market and saw people selling kids as slaves. He failed many times before he became president. However, he received more respect than George Washington because of his humane political efforts and constant endeavor toward his goal.

Winston Churchill in England once said, "I will continually be prepared, then someday an opportunity will come to me." Churchill always prepared and studied. He was a graduate from the Navel Academy but, he studied politics, economy, law and many more subjects so that during World War II, he became the Prime Minister and led the War to victory. He became a world hero. He said to prepare and strive.

In Hebrew 3:14 "We have come to share in Christ if we hold firmly till the end the confidence we had at first."

Fourthly, the church that receives heavenly prize at the end

The second part of verse 14 said, "I press on toward the goal to win the prize for which God has called me heavenward in Christ Jesus." Apostle Paul ran toward the heavenly prize, not earthly prize.

I am not great with sports but I love to watch one. It is fun to watch tennis games. World tennis champions are practicing 5~6 hours a day. Pianist who wants to become top player has to practice at least 5~6 hours a day. Being a top player does not come by accident. Listen people, we are trying very hard to gain a good reputation, win a trophy, and receive a gold

땅의 상보다 하늘의 상을 위해서 달음박질한 사람입니다.

저는 운동은 잘 못하지만 구경은 꽤 좋아합니다. 테니스 경기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세계 챔피언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적어도 5~6시간 연습한다고 합니다. 피아노 연주도 세계 정상이 되려면 적어도 하루에 5~6시간은 쳐야 한다고 합니다. 우연히 정상에 오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우승 트로피를 타고, 금메달 하나를 따는 데도 이렇게 노력합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 금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쓸 터인데 왜 그것을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습니까? 땅의 상급은 장차 세상 떠날 때 하나도 못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다섯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야, 첫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버가모 교회야, 배금주의로 굴러 떨어졌구나! 두아디라 교회야, 향락주의가 되었구나! 사데 교회야, 세속주의로 물들었구나! 라오디게아 교회야, 무사주의로구나!" 하면서 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야, 믿음에 부요하구나! 빌라델비아 교회야, 너희가 진리를 사수했구나!" 하시면서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양선교교회를 원근각처에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계에서도 우리 교회를 칭찬하는 것을 신문이나 잡지에서 읽었습니다. 남미, 유럽, 일본에서도, 뉴욕 타임즈, LA 타임즈에서도 우리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중앙일보, 한국일보, 크리스천 헤럴드, 복음신문 등에서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기사를 많이 써 주었습니다.

medal in this world, but how come we are not trying our best to receive glorious a crown, golden crown, and crown of life? We can not take our earthly prizes when we leave this world.

There are seven churches in minor Asia. Five churches out of seven receive rebuke from Jesus. "The Church in Ephesus, You have forsaken your first love! Church in Pergamum, You have fallen into a money worshiper! Church in Thyatira, You have become an epicurean! Church in Sardis, You are tainted with secularism! Church in Laodicea, You are in easy going attitude!" They all received rebuke. But "the church in Smyrna, You are rich in faith! Church in Philadelphia, You have kept the faith!" Jesus gave them praise and the prize.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our Oriental Mission Church receives complements from different places. I have read from the news paper and magazine that the church denomination in Korea complements our church. People from South America, Europe, Japan, New York Times, and L.A. Times have written reports about our church. Also from Central Times, Korean Times, Christian Heralds, Good News Times have written many stories about our church.

I really thank God for this and I pray that our church members and this church will receive praise from God when we stand before him.

As a matter of fact, This Oriental Mission Church is not just in Los Angeles, not even just in United States, but it is in among churches of this world.

On the contrary to the praise from other churches, press, and other countries, our content of church is very weak. The activities are very limited. We are looking ahead for the 13th,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칭찬하시는 성도들, 칭찬받는 동양선교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동양선교교회가 LA 안에만 있는 교회가 아니고, 미주 안에만 있는 교회가 아니고, 세계 교회 안에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와 언론과 민족들이 칭찬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 교회는 내용이 빈약합니다. 활동이 빈약합니다. 이제 우리가 13주년, 20주년, 50주년을 내다보고 전진하는 이 마당에 더욱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더욱 물샐틈없이 굳건하게 단결하고 물심양면 노력하여 조국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전진하는 교회,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교회,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교회,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th, 30th year, and moving forward with a great plan in unity with hearts and gifts to accomplish a glorious nation, glory to God, moving forward for the World mission, a church that is forgetting what lies behind, a church that is striving toward the goal, a church that is receiving praise before God, and lastly bless all the members of this church who would receive praise from our God in the name of the Lord.



바람직한 교회상

히브리서 13장 1~3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지금 이 땅에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많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극장이나 술집이 많은 것보다는 좋지 않냐고 답변합니다. 뜻있는 신자나 불신자까지도 교회는 많지만 교회다운 교회가 얼마나 있느냐 하고 염려스럽게 말합니다.

교회에는 눈에 보이는 교회(visible church)와 눈에 안 보이는 교회(invisible church)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교회는 건물, 예배당을 말하고, 눈에 안 보이는 교회는 마음속의 신령한 교회, 즉 우리 자체를 교회로 보는 것입니다.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오늘의 바람직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The Desirable Images of the Church

Hebrews 13:1~3

Keep on loving each other as brothers. Do not forget to entertain strangers, for by so doing some people have entertained angels without knowing it. Remember those in prison as if you were their fellow prisoners, and those who are mistreated as if you yourselves were suffering.

There are many churches in this land. Some say that there are too many churches. But I answer that it is better that there are more churches than there are more bars and pubs. Even some good Christians and also non-Christians are concerned that there are only a few churches that are true churches.

There are two kinds of churches: visible church and invisible church. Visible church refers to the buildings and church structures that we can see. But the invisible church refers to the spiritual church inside of our hearts that we cannot see. Combining these two, I would like to suggest to you three things about the desirable images of church today.

첫째,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선교학상으로 교회를 두 가지로 말해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 합니다. 모이는 교회는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를 말하고, 흩어지는 교회는 선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흩어지는 교회'를 원문에서는 '디아스포라'(diaspora)라고 말합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앗시리아와 바벨론 먼 나라에 가서 살 때부터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마에도 가서 살고, 애굽에도 가서 살고, 헬라에도 가서 사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본국을 떠나서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흩어진 교회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비록 남의 나라에서 살지만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정에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에 교제를 나누며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갑니다.

여기서 '흩어진다'는 뜻으로 쓰인 디아스포라는 성경 곳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에스더서 3장 8절에 보면 '흩어져 살고 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살아남은 이스라엘', 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여러 곳에 흩어진 나그네', 시편 119편 54절에 보면 '나그네 된 집에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다' 라고 사용되었습니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정든 조국을 등지고 외지로 나가서 산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전쟁 때문입니다. 전쟁을 피해서 외국으로 나가거나 포로로 끌려간

First, the desirable church is a church that scatters out

From the missiological point of view, church is 'a church that gathers and scatters.' The church that gathers is a church that gathers people for the purpose of worship. The church that scatters is a church that sends people out for the purpose of mission. The original language for the church that scatters is 'Diaspora.'

The word, 'Diaspora,' came from the situation when the people of Israel were living as exiles in Assyria and Babylon far away from their own homes. Thus it became to refer to those who live far away from their own homes, living in Rome, Egypt, Greece. In other words, it refers to those who living in a different culture than their own culture. In other words, it refers to those who have been scattered as Christians. Although they were living in different countries, they kept their faith, worshipping together in their homes, churches, and they shared their fellowship with each other.

We find this word, 'Diaspora,' meaning 'those who are scattered,' used several times in the Bible. Esther 3:8 says, "certain people dispersed and scattered." Isaiah 49:6 says, "those of Israel I have kept." 1 Peter 1:1 says, "strangers in the world, scattered throughout." Psalm 119:54 says, "In the house of my pilgrimage."(KJV) Hebrews 11:13 says, "they were aliens and strangers on earth."

The reason the Israelites left their homes and lived in foreign countries was mainly two reasons. First reason was because of wars. In order to avoid a war they left for a foreign country or they lost a war and captured and taken to a foreign country as captives. Second reason was that of religion. All of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가난하다 보니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로 갔다가 그냥 그곳에 주저앉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에 이민 온 우리들도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신 다음에는 둘씩 둘씩 짝을 지어 흩어서 내보냈습니다. 관광하라고 흩어 내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가서 돈 벌고 잘 먹고 잘살라고 내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선교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영혼들을 건지라고 내보내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의 종들에게 안수해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선교를 위해서 내보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칼빈주의 이후 17세기 초부터 영국 사람들은 미국의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독일 사람들은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프랑스 사람들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스페인 사람들은 남미의 선교를 위해서 흩어져 나갔습니다.

교회는 선교할 때 비로소 그 존립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선교를 하지 아니한다면 구멍가게입니다. 그 교회는 오히려 땅만 소비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세계에 선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교회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피플처치(People Church)입니다. 여기는 400명의 전임 선교사를 내보내고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가 보니까 건물은 가든 그로브에 있는 수정교회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초라할지라도 세계에 400명의 전임 선교사 가족을 내보내니 참으로 훌륭한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교회는 특별한 부흥강사를 데려다가 부흥회를 하지 아니하고 해마다 창립기념일에

these people belong to a group of Diaspora, as some left for other countries to have a better life because they were so poor in their home country. This description fits well with us as we immigrated to the States.

Jesus sent out his disciples two by two after he called them and taught them. It was not for the purpose of travel. It was not for the purpose of making money, enjoying rich life. It was for the purpose of mission, spreading the gospel and saving souls.

When we read Acts 13, they laid their hands on the church leaders at Antioch church and sent them to Asia Minor and Europe for mission. In our Protestant, after the days of John Calvin in the 17th century, British people sent missionaries to American to evangelize the American Indians. The Germans sent theirs to Asia. The French sent theirs to Africa. The Spanish sent theirs to South America.

When churches do mission work, they show their true meaning and true value. If not, then they are like small stores. Those churches are simply wasting the use of a property. As far as I know, the church that does the most of the mission work in the world is the People Church in Toronto in Canada. They sent out 400 full time missionaries from them. I visited that church and it was not as beautiful or fancy as the Crystal Cathedral in the Garden Grove in Los Angeles. Even though they have a shoddy building, but it is a great church because they send out 400 full time missionaries all over the world. That church does not invite a special guest for their annual special revival service. Rather, they invite some of their own 400 missionaries and listen to their testimonies. I think this is a

400명 선교사 중 몇 명을 모셔다가 간증을 듣는 것으로 대신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주는 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는 사랑으로 선행을 많이 행하여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선행은 자기 희생적이고 자발적인데다 간절하고 종교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와준다고 할 때 이러한 도움과 사랑이 순수하다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세상에서 환난이 많았습니다. 시련이 많았고,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도 힘에 넘치도록 연보해서 도왔다는 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자발적이었다는 것은 누구의 부탁을 받아 한 것이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간절한 호소도 없었습니다. 억압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간절했습니다. 애원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보를 해서 거리가 멀고 민족이 다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도와주는 아름다운 선행을 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먼저 자기 몸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들의 몸과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바울에게 연보를 줌으로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연보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몸을 바친 다음 무르익고 성숙한 신앙으로 조건 없이 깨끗이 준 물질이라는 말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주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

great method as well.

Secondly, the desirable church is a church that gives

2 Corinthians 8:1~5 shows that the Macedonian churches receive praise because they practiced many services of good conduct in love. Their wonderful deeds were of self-sacrificial, voluntary, earnest and godly. When we help others, if we do it in these ways, then people would consider our deeds and love pure.

They were willing to sacrifice themselves. When they believed in Jesus, they received many sufferings in the world. May trials and poverty they experienced. In spite of their hardships, they gave offering beyond their ability, and this is self-sacrifice. It was voluntary deed, because no one asked them to do it. No one urged them to do it. No one forced them to do it. But they were earnest. They had in themselves earnest desire to help. In spite of their hardship they collected offerings and helped the people of Israel in Jerusalem, who was a different people and far away from them. They were godly. This meant that they offered their body first and then they followed God's will. In other words, their offering was the most pure and spotless because they offered their body and heart to God first and then gave their offering to Paul. Their offering was that of without condition, with mature and full grown faith after they offered their body first.

The Macedonian churches were churches that gave. Jesus too gave everything when he came to this earth. He gave his tears. He gave his time. He gave his talents. He gave his

서서 전부 주셨습니다. 눈물도 주셨습니다. 시간도 주셨습니다. 은사도 주셨습니다. 피도 주셨습니다. 몸 전체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셋째,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 보면, "자기도 함께 갇힌 것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난받는 사람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고난에 동참하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고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고난받는 사람들의 고통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동료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 사람을 빼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쓴다"라고 말했고, 오리겐이라는 학자는 "나는 젊었을 때에 거룩한 신자들이 투옥되고 형 선고를 받을 때까지 그들의 곁에 있었고 그들이 처형을 당할 때 위험을 무릅쓰고 처형장까지 따라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친구가 옥중에 갇혔을 때 그 사람을 빼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팔기까지 했다는 기록도 있고,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에 국가 전체에 전염병이 돌 때 기독교인들이 밥을 굶어 가며 헌금하여 전염병을 치료하는 비용을 보탰다는 역사적 기록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오늘 상황신학 가운데에서 세 가지 선

blood. He gave his whole body. Acts 20:35 says,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Thirdly, the desirable church is a church that participates in suffering

Hebrews 13:3 says, "Remember those in prison as if you were their fellow prisoners, and those who are mistreated as if you yourselves were suffering." This means that we have to participate in suffering, having the same hearts of those who had suffered. Romans 12:15 says, "Mourn with those who mourn."

The Christians in the early church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difficulties of those who were suffering. That was their characteristic. Aristotle said, "The Christians try all means and ways in order to release their friends if they are imprisoned." A scholar by the name of Origen said, "When I was young, I was with the holy Christians when they were sentenced and put into jail, and I risked dangers to follow them all the way to an execution ground where they were executed." There is a record that a certain Christian sold his body in order to release his friend from jail. Another ancient record shows that in the days of poor medical technology, when an infectious disease hit an entire nation Christians fasted and saved money to send money for medical treatment.

Considering all of these, there are three missiological methods discussed in the contextual theology: The method of reconciliation, the method of conflict, and the method of participation. The method of reconciliation is an example that Martin Luther used for mission through reconciliation between the white and the black. The method of conflict was

교방법을 말합니다. 화해의 방법, 투쟁의 방법, 고난 동참의 방법이 그것입니다. 화해의 방법은 마틴 루터 킹이 흑백 간의 화합을 통해서 선교를 해 나가자고 한 것입니다. 투쟁의 방법은 미국의 해방신학자 콘과 남미의 해방신학자들이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억압을 투쟁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독일의 몰트만이 고난받는 자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울고 함으로써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자고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거룩한 나라에서 죄 많고 먼지 많고 눈물 많고 죽음 많은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전쟁 많고 가장 가난한 곳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고난을 철두철미하게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이십니다. 병든 자의 친구이십니다. 외로운 자의 친구이십니다. 죄인의 친구, 고난받는 사람의 친구이십니다. 훌륭한 신자는 누구입니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까? 많이 아는 사람입니까? 참으로 고난받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와 더불어 고난에 동참하고 참사랑을 나누는 자입니다.

흩어져 말씀을 증거하고, 나가서 봉사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함께 고통을 나누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used in the South and North America by the liberation theologians who claimed that to solve problems they hade to fight against the political oppression and economical oppression. The method of active participation was done by the German theologian Moltmann while eating, drinking, and crying together with those who are suffering, so that they can lead them to Christ.

Why did Jesus Christ come from the holy place in heaven to this earth full of sins, dust, tears and death? It was to participate in the suffering. Why was he born in a country that was severely poverty stricken and wars breaking out most frequently in the world? It was for him to taste the human suffering in its entirety. Jesus is a friend of the poor. He is a friend of the sick. He is a friend of the lonely. He is a friend of a sinner and those who are suffering. Who is a great Christian? Is he the one who has high position? One who has the most knowledge? No, it's the one who genuinely sympathizes with the poor and participates in the suffering along with the poor and share true love with them.

May you be blessed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we all would go out to share the Word, to serve and to participate in the suffering of those who are under hardships so that we can become true church and Christ-like Christians.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장 15~24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으매 불가불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으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이미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어 다 준비되었으니 오라고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못 온다고 하자 주인이 노엽게 생각하여 종들에게 이르기를, 시내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고, 빈자리가 있다고 하니 빨리 나가서 누구든지 데려다가 빈자리를 채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Fill My House

Luke 14:15~24

When one of those at the table with him heard this, he said to Jesus, "Blessed is the man who will eat at the feast in the kingdom of God." Jesus replied: "A certain man was preparing a great banquet and invited many guests. At the time of the banquet he sent his servant to tell those who had been invited, 'Come, for everything is now ready.' "But they all alike began to make excuses. The first said, 'I have just bought a field, and I must go and see it. Please excuse me.' "Another said, 'I have just bought five yoke of oxen, and I'm on my way to try them out. Please excuse me.' "Still another said, 'I just got married, so I can't come.' "The servant came back and reported this to his master. Then the owner of the house became angry and ordered his servant, 'Go out quickly into the streets and alleys of the town and bring in the poor, the crippled, the blind and the lame.' "'Sir,' the servant said, 'what you ordered has been done, but there is still room.' "Then the master told his servant, 'Go out to the roads and country lanes and make them come in, so that my house will be full. I tell you, not one of those men who were invited will get a taste of my banquet.'"

A certain man prepared a great banquet and sent out his servants to tell those who had been invited. But all of them answered that they could not attend. The master became angry at this and told his servants to go downtown to bring in other people. When there was still room at the banquet, he told them to fill the room with anybody.

This is the story of our text today. Based on the text today I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 그대로 '내 집을 채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집은 큰 잔칫집입니다. 기독교는 잔칫집과 같은 종교라고 말합니다. 석가가 인생의 생로병사를 보고 나서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궁을 나와 6년 동안 나무 밑에서 깊이 도를 닦아 불교를 창설했습니다. 따라서 불교는 어떤 의미에서 금욕주의, 은둔주의라고 할 수 있고, 슬픈 종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특히 신약을 보면 우리 기독교는 잔칫집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올 때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생활이 잔치하는 생활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천국생활은 잔치하는 생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도 한 주인이 잔칫상을 차려 놓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첫째, 왕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1) 왕이 베푼 잔치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는 '어떤 사람이 잔치를 차렸다'고 말했습니다만 마태복음 22장 2절에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과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은 같은 내용이나 기자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달리 표현된 것입니다. 이 두 잔

would like to share God's grace with you through my sermon titled, 'Fill My House.'

This house was a big house. They say that Christianity is a religion like a big banquet hall. We can say that the religion of Buddhism in a certain sense is a sad religion seeking seclusion and asceticism because Buddha created the Buddhism after he meditated for 6 years under a tree. He had left his place having realized the vanity of life, having seen birth, old age, sickness and death in life. But if you read the Bible, especially the New Testament, we can see that Christianity is like a banquet hall. Luke 15 tells that when the prodigal son returned there was a party. Matthew 9 describes that life with Jesus is like a life of party celebrating. Matthew 25 portrays a party scene when Jesus returns again. Revelation 19 records that the life in heaven is a banquet life. In our text today again a master offered a great banquet and invited people.

First, a King spreads a banquet

1) It is a banquet that the King gives

Luke 14:16 says, "A certain man was preparing a great banquet." Matthew 22:2 says,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king who prepared a wedding banquet for his son." Luke 14 and Matthew 22 are identical stories, but different authors described the same story a little bit differently. Nonetheless, these two banquets are what a king gave. We know that a banquet a normal person spread is important. But then how much more would it be if it is given by a king?

치는 모두 임금이 베풀어 놓은 잔치입니다. 보통 사람이 베푼 잔치도 귀한데 임금이 베푼 영광스럽고도 성대한 잔치라는 것입니다.

2) 왕자의 혼인 잔치입니다

보통 잔치가 아니고 혼인 잔치입니다. 세상에 잔치가 많습니다. 백일 잔치, 돌 잔치, 입학 · 졸업 축하 잔치, 취직 축하 잔치, 개업 잔치, 설 · 보름 · 추석 등 명절 잔치, 취임 잔치, 회갑 잔치 등 여러 잔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제일 중요한 잔치는 결혼 잔치입니다.

결혼 잔치는 성대합니다. 축하객이 많이 오고, 예물도 가져오고, 결혼 예물도 나누고, 큰 축연을 베푸는 것을 보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잔치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자기의 아들을 위해 베푼 잔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의 잔치를 베풀어 놓고 우리 모든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려는 성스러운 잔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국의 황태자 찰스의 결혼식을 TV로 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영국의 인사들과 외국의 많은 수상들과 대표들이 참석하여 축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결혼 잔치의 성대함에 다시 한 번 감탄했습니다. 일국 왕자의 잔치도 그렇게 성대한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잔치는 얼마나 성스럽고도 영광스러운 잔치일까요!

3)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

2) It is a banquet for the wedding of the prince

This is not a usual banquet, but a wedding banquet. There are many kinds of banquets in this world, 100 day anniversary party; one year birthday party; school admission party; graduation party; employment party; business opening party; New Year party; the 15th of January party; seasonal celebrations like Chuseok; inauguration party; 60th birthday party and so on. But as far as I know, the most important celebration is the wedding banquet.

A wedding banquet is huge. It is the most important party in your life, having many guests, wedding gifts and a time for opening the gifts and a big festival. Now the banquet of our text is the feast that a king gave for his son. In other words, God gave a holy banquet for his own son inviting all the sinners for salvation.

Many of you must have watched on TV the wedding ceremony of Prince Charles of England. I admired the grandiose ceremony having many guests from England and many prime ministers and special guests of honor from all over the world celebrating the wedding. If a banquet of a single country could be this grandiose, how much more holy and glorious would a banquet of Jesus Christ be!

3) It is a banquet that is completely ready

Luke 14:17 says, "At the time of the banquet he sent his servant to tell those who had been invited, 'Come, for everything is now ready.'"

It means that all kinds of food that the guests would eat are

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없는 것 없이 손님들이 먹을 음식이 모두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면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풍성한 잔치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가난하다고 하는 집도 이사 가려고 보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또 결혼식 때면 먹을 것이 풍부한 것처럼, 결혼잔치에 가면 보통 때 먹지 못한 음식을 대접받게 됩니다. 약식이니 빈대떡이니 수정과니 감주니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5장 1~3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 잔칫집은 영혼을 살리는 잔칫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음식을 먹으면 육체 하나만 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화평, 인내, 온유, 충성, 친절……생명의 떡, 생명수, 성령의 새 술과 같은 영의 양식을 줍니다. 이것을 먹는 사람마다 육체가 강건해집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인격이 함양됩니다. 영력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세상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육체에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지장이 없습니다. 더욱 사모하게 되고, 더욱 맛이 나고, 더욱 힘이 나는 것이 이 말씀, 신령한 양식입니다.

ready. Matthew 22:4 says, "'My oxen and fattened cattle have been butchered, and everything is ready. Come to the wedding banquet.'" It is a great banquet that has everything ready for everyone. No matter how poor some people may be, when you go to see how they move, they have a lot of stuff. And also the food at wedding party is always abundant, so you will be able to try some dishes at a wedding party that you haven' t tried before. flavored glutinous rice, mung-bean pancake, Sujeonggwa, Gamju and others are offered for you.

It is like the description found in Isaiah 55:1~3, "Come, all you who are thirsty, come to the waters; and you who have no money, come, buy and eat! Come, buy wine and milk without money and without cost. Why spend money on what is not bread, and your labor on what does not satisfy? Listen, listen to me, and eat what is good, and your soul will delight in the richest of fare. Give ear and come to me; hear me, that your soul may live. I will make an everlasting covenant with you, my faithful love promised to David." This banquet is one that saves souls. When we eat the food of this world, our body will live. But the church offers spiritual food, that is faith, hope, love, peace, patience, meekness, faithfulness, kindness……bread of life, water of life, new wine of the Holy Spirit. Anyone who takes these will be healthy, wise and godly, spiritual and receive salvation. If you eat too much of the food of this world, then you will have difficulty in digestion and it may be bad for your health. But it doesn't matter at all if you take as much as you want of the Word of God. It is spiritual food that gives you more strength, tastes better and is more desirous.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위해, 그리고 죄인을 위해 베푸신 큰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율법을 들으려면 율법이 있습니다. 역사를 들으려면 역사가 있습니다. 정치를 들으려면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도덕에 대한, 철학에 대한, 시에 대한, 찬양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양식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목회생활한 지 어언 40년 가까이 된다고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전부 설교하지 못했습니다. 부분적인 양식만 여러분과 나누었지 이 성경 66권 중 아직도 들춰보지 못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영생의 말씀이 무궁무진합니다.

둘째, 왕은 초청한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본문 17~18절에 보면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으매 불가불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잔치에 못 갑니다. 또 한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은 결혼했기 때문에 못 갑니다. 서로 의논이나 한 것처럼 사양하면서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를 볼 때, 밭을 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때문에 못 간다는 말입니다. 소 때문에 못 간다는 것은 동산 때문에 못 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는 다 "물질 때문에 내가 못 갑니다. 재산 때문에 못 갑니다. 돈 때문에 못 갑니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못 간다는 말은 육신

The church is a place where God prepared a grandiose banquet for Jesus and for sinners. If you desire to listen to the law, then the church provides a place for this. If you want to know more about history, it is given. Politics? It's provided. Economics? It informs. Morality? Philosophy? Poem? Hymn? It's all given for you. All kinds of spiritual food are available for you.

It's been 40 years since I began my ministry, but I have not preached on the entire Bible yet. I've shared part of the spiritual food with you until now, but there are endless treasures of life and God's truth that we haven't found yet.

Secondly, the King received rejection from those who were invited

V. 17~18 says, "At the time of the banquet he sent his servant to tell those who had been invited, 'Come, for everything is now ready.' "But they all alike began to make excuses. The first said, 'I have just bought a field, and I must go and see it. Please excuse me.'" Someone bought a field, so he can't go to the banquet. Someone else bought oxen, so he can't go. Someone else got married, so he can't go either. It was as if all these three previously made their decision together. None of them accepted the invitation.

Considering the reasons of rejection, the first one was because he bought a field. In other words, he couldn't go because of his property. To say that he couldn't go due to oxen is to say that he can't go because of personal property. In other words, these two excuses are to say, "I can't go

의 정욕, 즉 쾌락 때문에 못 간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못한 사람들의 대표라고 봅니다.

물론 밭도 중요합니다. 소도 중요합니다. 장가들었으니까 물론 아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임금이 다른 사람도 많은데 특별히 생각해서 자기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사람까지 보냈는데 거절하는 이유가 궁색합니다. 잔치에 갔다 와도 밭은 괜찮을 것입니다. 소 역시 잔치에 갔다 와도 괜찮을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을 더 먼저 해야 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어떤 것이 더 값진 일인지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물질 문제 때문에 교회 다니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세례까지 받고도, 직분까지 받고도 주일날 장사해야 돈 번다고 교회 다니기를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주일날 나오지 않고 장사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좋다고 하지만 돈으로도 못 사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참사랑은 돈 가지고 못 사고,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은 돈 가지고 못 삽니다. 우리네 삶이 재물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집, 좋은 집이 있지만 거기에 누가 사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 좋은 집에 누가 살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떠한 인물이며,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because of my stuff, my wealth, or my money."

To say that he couldn't go because he got married is to say that he can't go because he has to enjoy the desires of the flesh. That is pleasure. These three are the representatives of those who did not have the right priority for their lives.

Of course, a field is important. Oxen are important. A wife is important as well. However, these are miserable excuses to give to a king who has shown them great favor by sending invitation cards and his own servants to invite them. Even if the first man attended the banquet, the field would have been fine. The oxen too would have been all right. A wife too. These people are those who did not have the right priority for their lives. They represent those who did not set a right priority, knowing what is more valuable, what is more important, what should be done first.

When we go out and do evangelism, we find many people are reluctant to come to church due to financial matters. Even after they were baptized and ordained to positions, there are those who have given up attending a church because they have to make money on Sundays. They open their business on Sundays even if it is against their own Christian conscience. It's wrong. They don't have a right priority.

Dearly beloved! Isn't it true that money can't solve all of our problems? Money is good, as they say, but there are two things money can't buy. True love and a ticket to enter heaven can't be bought with money. The Bible teaches that our life does not depend on the abundance of wealth. It is true. You can have a great big house, but who will live there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롯의 처를 생각하라" 고 합니다. 소돔 성이 불탈 때에 롯은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저 앞만 보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며 숨가쁘게 도망가는데, 롯의 처는 두고 온 재물이 불에 타는 것이 아까워 뒤돌아보다가 그만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아무리 물질주의 사회에 산다 해도 물질이 우선이 아님을 롯의 처를 보면서 기억하고 유물론자가 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술 먹고 담배 피고 무당 푸닥거리했으나 모든 방탕한 생활은 지난날에 족하니, 모르고 그랬으니,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그랬으니, 이제 남은 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군인들을 보면, 신병훈련소에서는 교회 잘 참석하다가도 자대 배치받고 군대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관학교도 보면 초창기에는 교회 잘 나오다가도 소령 되고 중령 되고 대령 되면 술집엔 가도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이민 와서는 교회 잘 다니다가도 긍휼히 여기시는 축복으로 돈 좀 벌고 집을 사고 자리를 잡으면 낚시터로 갑니다. 라스베이거스로 갑니다. 골프장으로 갑니다. 사냥하러 총 가지고 산으로 갑니다. 물론 그런 곳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먹고살 만하다고 이제 내가 교회 안 나가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안 들어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물론 그래도 살기는 삽

is the more important question. Who will live in that great big house? What kind of a person he is and what kind of values he has are more important questions.

Luke 17:32 says, "Remember Lot's wife." When the town of Sodom was on fire, Lot was so thankful for God's grace, so he ran as fast as he could. However, Lot's wife, thinking about her wealth being on fire, turned around to look back, but she became a pillar of salt. Therefore, doesn't the Bible teach us that we should not be materialistic even though we live in a materialistic society?

1 Peter 4:2 says, "As a result, he does not live the rest of his earthly life for evil human desires, but rather for the will of God." You might have been drinking, smoking, falling into shamanism in the past. But you did because you were ignorant, without knowledge, and fell into the Satan's scheme, but now you have to live the rest of your life according to God's will. For the soldiers too, they attend worship services quite well when they receive initial training, but once they are stationed to their own military unit, then they start not coming to church any more. There are many who are like that. In the military academy too, there are many who start coming to church at the beginning of their life there, but once they become promoted to a major, to a lieutenant colonel, and to a colonel, they might go to pubs, but not to church anymore. It's the same phenomenon in the United States. When people immigrate to the States, they start attending the church quite well at the beginning. But once they receive blessings and earn money, buy a house, and settle down, then they go fishing, go to Las Vegas, go golfing, go to the mountains or go hunting in the mountains. I am not saying that you should

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에는 그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 잔치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어디선가 어떤 모양으로든 떠날 것입니다. 그때 초청을 거절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물질 문제 때문에, 육신의 쾌락과 향락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왕은 노하여 초청받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고 말합니다. 시내에 있는 사람이란 조금 배운 사람들과 여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목에 있는 사람이란 조금 배움에 떨어진 사람들이고,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교회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오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 부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들이 모두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다른 단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끼리끼리 모입니다. 부자는 부자끼리 모입니다. 학자는 학자끼리 모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만민을 위한 교회입니다. 대통령도 한 자리, 노동자도 한 자리, 대학총장도 한 자리, 학생도 한 자리입니다. 교회만은 평등의 장소입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은 높은 데 계시

not do or go there at all, but the first thing you have to do is to worship God on Sundays. Are you saying that once you are blessed, and settle down with wealth, then you can live without going to church? Is it that you can live a life without listening to God's Word? Of course, it's possible that you may continue to live.

But when you read the end in our text it says that those who rejected the invitation could not come into the banquet. All of us will depart from this world someday. We will depart from this world from somewhere and in some shape. At that time, if you rejected God's invitation, you cannot enter heaven. The Bible through our text points out those stupid people who distanced themselves from God due to their pleasures and enjoyment in life.

Thirdly, the King became angry and ordered to invite other people who were not invited before

V. 21 says, "The servant came back and reported this to his master. Then the owner of the house became angry and ordered his servant, 'Go out quickly into the streets and alleys of the town and bring in the poor, the crippled, the blind and the lame.'" People in the streets of the town refer to those who are educated a bit and those who are well off. People in the alleys of the town mean those who are not educated well and those who have economic difficulty. The church is inviting all of these people. The poor, the rich, the educated and the uneducated……. The church is a place that all of these are gathered. Other organizations are not like this. Each follows its own kind. The rich get together with the rich, the

네요?" 제가 여러분 얼굴 보려고 높은 데 있는 것이지 높아지려고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어떤 때는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에 앉아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은 했던 말을 또 해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회중들의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각각이고, 남녀구별도 있어 어떻게 말씀으로 더 잘 먹여야 할지 설교 전에 고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목사의 마음은 사모도 모르고 목사 자신밖에 모릅니다. 똑같은 예화를 두 번만 들으면 교인들이 그 수를 더해 가지고 '흥, 열두 번 듣는다'고 합니다.

초청한 사람들이 오기를 거부하자 왕은 노하여 다른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 고독한 사람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모든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가난한 자의 편입니다. 눌린 자의 편입니다. 못 배운 자의 편입니다.

또한 23절에 보면 "길과 산울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주인은 명령합니다. 왜 그럽니까? 22절에 보니 시내와 골목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왔는데도 아직도 빈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길과 산울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 2부 예배에도 아직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것마저 채워야 합니다. 이것을 누가 채웁니까? 목사들이 채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목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을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고, 모든 맹수와 강도에게서 지키고 먹이고 기르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양의 새끼를 낳는 것은 양이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

scholars with the scholars. But the church is for all kinds of people. A president of a nation can have one seat, a laborer one seat, the president of a university one seat, a student one seat. The church alone is a place of equality.

Someone said to me, "Pastor, then why do you stand on a higher podium?" I stand up here simply because I want to see you all, not because I want to be more authoritative than you are. I sometimes would like to sit where you sit. A school teacher can talk about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but in a church like this, because there are differences in terms of age, characteristics, sexes, we pastors prepare our sermons painstakingly, which we alone, not even our wives, understand. If I use the same illustration once or twice, then some members exaggerate and say, 'We hear the same illustration over a dozen times.'

When the invited guests rejected the invitation, the king became angry and sent out his servants to invite other people, the poor, the sick, the suffering and the lonely. Our church sends our invitation cards to all kinds of people. Dearly beloved! The church is on the side of the poor, the oppressed, and the uneducated.

Also v. 23 says, "Then the master told his servant, 'Go out to the roads and country lanes and make them come in, so that my house will be full.'" Why? In v. 22, even after they brought people from the town and alleys, there was still some more room left.

Please repeat after me. "Go out to the roads and country lanes and make them come in, so that my house will be full." There is still some more room left in this second service

하면, 사람을 데려오는 것은 성도 여러분이 할 일인 것입니다. 이 빈자리를 성도 여러분이 채워야 합니다.

길과 산울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시외를 말합니다. 도시에서 좀 떨어진 농촌 산울가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방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 곳에 있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까지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넷째, 종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주인이 가라 할 때 갔습니다(17, 21, 23절). 가고 또 가서 사람을 데려와 잔칫집을 채웠습니다. 그러면 이 종은 누구를 말합니까?

1) 종은 신자를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7~1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종은 우리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종은 하나님의 종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악한 종, 게으른 종, 술의 종, 돈의 종, 사망의 종, 무익한 종, 멸망의 종,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today. We have to fill these empty spots. Who will do it? Don't think that pastors will do it. Pastors are the shepherds. The shepherd's role is to lead the sheep to green pastures, to quiet waters of a stream, to protect the sheep from the wild animals and robbers, to feed and raise them. But to bear a sheep is done by the sheep. In other words, the responsibility to bring people in is yours. You as God's people have to fill the empty seats here.

What does it mean when it says the roads and country lanes? It refers to the area beyond the city limits. It refers to those country lanes around farming communities distant from the cities. It refers to the Gentiles. It means that we have to fill God's house by taking people from everywhere, including the Gentiles.

Fourthly, the servants obeyed the order of the King

When they were told to go, they went (V. 17, 21, 23). They went out again and again and brought in people to fill the banquet table with them. Then who are these servants?

1) The servants refer to the Christians

Romans 6:17~18 says, "But thanks be to God that, though you used to be slaves to sin, you wholeheartedly obeyed the form of teaching to which you were entrusted. You have been set free from sin and have become slaves to righteousness." In the past we used to be the servants of sin, but now we became the servants of God because Jesus Christ paid the debt and bought us. In other words, the servants refer to us, the believers.

로 말미암아 죄에서, 마귀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성실한 종, 의의 종, 빛의 종, 순종의 종, 유익한 종,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결단코 마귀와 타협하거나 마귀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입니다. 시험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 자기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이라면 싸워야 합니다. 사람의 시험이라면 도망가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시험이라면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육으로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둡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좇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이 육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다가 깨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의 말은 깊은 신앙의 체험과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노릇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2) The servants refer to the servants of God

In the past we used to be servants of wickedness, laziness, alcohol, money, death, uselessness, destruction and Satan. We were dragged everywhere as we were deceived. But now by the grace of our merciful God, we are free from Satan.

Therefore, now we have become the servants of God, filled with faithfulness, righteousness, light, obedience, usefulness, and the Lord.

We are the servants of God. We should never compromise with Satan or listen to him. It's because we are God's servants. We have to fight to the point of shedding blood. There are four kinds of trials. The first one comes from God; the second one from Satan; the third one from people; the last one from oneself. If it comes from Satan, you have to fight. If it is from people, then run away. If it comes from yourself, then you have to beat yourself to obey God. If it comes from God, then obey.

Now we are God's servants. You reap the corruption if you sow with the flesh. You reap eternal life if you sow with the Holy Spirit. Jesus told us to deny ourselves and bear the cross daily to follow the Lord. Paul said, "I beat my body daily to obey." That's right. Unless we beat down our flesh daily and hourly to obey, then we cannot live our life according to God's will, but we will fall into temptation. That's why we have to beat our body to obey and get up and pray as Jesus said; we have to pray unceasingly. The words of Apostle Paul oozed out of his deep experiences of faith. That's how we can play the role of God's servant in the right way.

3) 종은 많은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잔칫집을 채웠습니다.

장사할 때 손님이 많이 와야 기쁩니다. 잔칫집에도 손님이 많아야 기쁩니다. 음식은 많이 차려 놨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많이 섭섭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차고 넘칠 때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종들이 많은 사람에게 가서 잔칫집을 채웠듯이 이 교회를 채워야 할 임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4) 종은 사람들을 강권하여 채워야 합니다

본문 23절에 보니까,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강권하라는 말은 폭력으로 하지 말고 설득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또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간절히 호소하라는 말입니다.

어느 사람이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눈물로 호소하였을 때 그가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겠습니다.

5) 종은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6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주인의 심부름을 하다가 능욕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하루의 충성, 맡은 일에 충성, 적은 일에 충성, 시간을 들여 충성, 양적으로 충성, 질적으로 충

3) The servants have to go to many people

The servants went to many people to invite them to the banquet. That's how they filled the banquet hall.

When you do business, you are happy when you have many customers. A host would be happy when he has many guests at his party. If you have prepared a lot of food, but not many people come to eat it, then you feel sad. The church is the same. God would be is happier when the church overflows with his people. God is pleased with one soul who is more precious than the universe.

Just as the servants went out to many people to fill the house, the responsibility falls on us to fill this church with people.

4) The servants have to compel people to fill the house

V. 23 says, "Make them come in, so that my house will be full." The expression, 'make them come in,' means that we have to use persuasion but not force. Also it means that we have to have the heart of Jesus as we passionately persuade them. Just as the story of a certain man stopped a man passing by him on a street and begged him with his tears until that man became a believer, we have to have such a passionate heart.

5) The servants were devoted to the point of death

Matthew 22:6 says, "The rest seized his servants, mistreated them and killed them." They were killed while they were doing what they were told to do by their master. 'True devotion is a devotion done daily, devotion to the task, a devotion to small matters, a devotion by taking time, a devotion in quantity, a devotion in quality, a devotion regardless of people's watch,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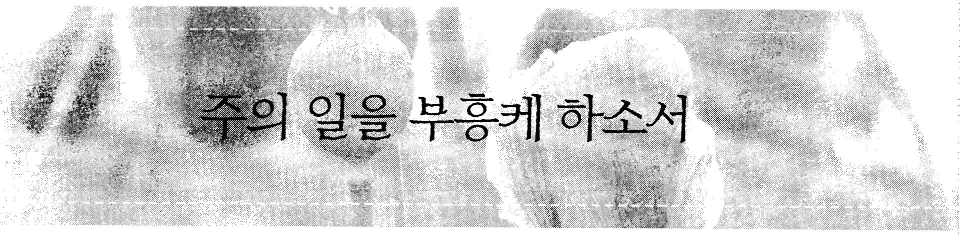
성,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충성, 시간 가는 것 보지 않고 충성, 삯을 생각하지 않고 충성, 말없이 충성,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충성, 끝까지 충성, 죽기까지 충성' , 이것이 진짜 충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종들은 한 사람도 불평 불만이 없었습니다.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는 그저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해야 합니다. 가라니까 갔습니다. 또 가라니까 또 갔습니다. 그래서 잔칫집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아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한 잔치가 아니겠습니까?

devotion regardless of the length of time, a devotion regardless of payment, a devotion without words, a devotion not compromising with injustice, a devotion to the end, a devotion until death.' This is true devotion.

Revelation 2:10 says,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and I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None of the servants complained. The servants are slaves. Slaves do not have freedom. Slaves have to obey the commands of the master unconditionally. If he ordered to die, then he should pretend to die at least. Since they were told to go out, they went out. When they were told to go out again, they went out again. That's how they filled the banquet. That's how they pleased the master and the son. That's how we can please God and Jesus. Isn't the worship service we participate in a holy banquet?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



하박국 2장 1~3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 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주전 626년경 유대 나라 여호야김 왕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 사회는 죄가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 앞에서 채찍을 맞았음에도 죄가 거듭될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 엎드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합 3:2)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장차 이 나라에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Revive the Work of the LORD

Habakkuk 2:1~3

I will stand at my watch and station myself on the ramparts; I will look to see what he will say to me, and what answer I am to give to this complaint. Then the LORD replied: "Write down the revelation and make it plain on tablets so that a herald may run with it. For the revelation awaits an appointed time; it speaks of the end and will not prove false. Though it linger, wait for it; it will certainly come and will not delay."

The context of our text today is the King of Judah, Jehoiakim. The nation was full of sins. They continued to sin in spite of God's judgments for several times. The prophet, Habakkuk, became afraid of God's punishment and prayed earnestly, "LORD, I have heard of your fame; I stand in awe of your deeds, O LORD. Renew them in our day, in our time make them known; in wrath remember mercy"(Hab 3:2). God answered his prayer and revealed that in the future blessings will come to the nation and God's glory will be revealed.

Today I would like to share God's grace with you through my sermon titled, 'Revive the Work of the LORD.'

First of all let me describe the image of sinful life in those

먼저 그 당시의 죄악상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당시 사회의 죄악들이 하박국 1장과 2장에 똑똑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악, 패역, 강포, 변론, 분쟁, 율법의 해이, 공의의 추락, 악인이 의인을 멸시하는 것, 교만, 궤휼, 피 흘림, 부정 축재, 술, 음탕, 우상, 그 밖에도 다른 죄악이 많았습니다. 죄악이 사회에 만연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기 눈앞의 이익과 안일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도, 친척도, 친구도 무시하였습니다.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울렸고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 의로운 사람을 멸시하고 때리고 죽였습니다. 암흑과 같은 사회였습니다. 화평하기보다 다투기를 좋아했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죄인들이 득세하고, 양심과 의로움을 지키는 사람들은 멸시당하고 잡혀 죽는 사회였습니다.

여호야김 왕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랬습니다. 이북은 지금 이러한 사회입니다. 당원만이 절대적인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양심적이고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사람은 가두고 잡아 죽입니다. 예전에 중국도 그랬고, 소련도 그랬습니다. 오늘 이 땅 위에는 간사한 사람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피 흘림을 좋아합니다. 부정 축재를 공공연하게 합니다.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술과 음탕! 술집 가서 바가지 쓴다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더 뒤집어 써야 합니다. 지금 그런 데 가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한쪽에서는 열심히 사는 사람, 남편 죽은 사람, 고학생들……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술집에 가서 술만 먹지 않습니다. 음탕한 일을 벌입니다. 또 음탕한 죄만 짓고 마는

days. Habakkuk chapter 1 and 2 describes clearly the kinds of sins they committed in their society. Wickedness, rebellion, violence, disputation, conflict, laxity of the law keeping, fall of justice, the wicked despising on the righteous, pride, trick, bloodshed, accumulation of wealth by an illicit means, drinking, lasciviousness, idol worship, and many other kinds of sins filled the society. People in those days ignored God, their relatives and their friends in order to gain profits, comfort and satisfaction in front of them. Their hearts were filled with self-interests. People in power caused the uneducated, the weak and the poor to cry. People in power despised, beat and killed the honest and the righteous. It was a society in darkness. They loved to fight rather than to reconcile. It was a society that experienced a laxity of God's law, fall of justice, the wicked gaining power, but the honest and the righteous were despised and killed.

Those things were happening not only in the days of Jehoiakim, but also in the days of Japan. North Korea experiences the same thing right now. The communist party members only receive special privileges. The honest and those who criticize communism get caught and killed. It was the same in China and in Russia in the past. The wicked are having a heyday in this world today. They love to shed blood. They gain power through illegal means publicly. They are not even ashamed.

Drinking and lewdness! Some complain that they are ripped off at the pubs. That's all right. They should be ripped off even more. Should they spend their money that way in such places today? Don't we have so many poor people on one side of our society, those who work very hard, a wife who lost her husband, students without their parents? People don't simply

것이 아니라 선물을 얻어 가지고 옵니다. 매독! 그 자자손손에 매독의 피가 흐르면 장애인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있으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 우상은 새겨 만든 것, 나무와 돌로 깎아 만든 것, 금과 은을 입혀 만든 것들입니다. 그것들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어릴 적 저의 고향에도 절이 있어서 어른들을 따라가서 부처 앞에서 빌었습니다. "부처님. 저도 어른 되어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일곱 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제가 한 짓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아내, 남편, 돈, 자동차를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이런 현실을 하박국이 내다보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부흥시켜 주마! 하박국은 놀랍고 기쁜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흥할 수 있습니까?

부흥하려면 공식을 밟아야 합니다. 군대에 가려면 훈련소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불침번을 서야 합니다. 보초도 서야 합니다. 규정도 잘 시켜야 합니다. 식사 당번도 해야 하고,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나이가 적고 많음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군에

go to pubs to drink only. They are involved in immoral behaviors. Not only do they immoral behavior, but also they come back with a disease: syphilis. When they get infected with syphilis in their blood, they have many handicapped children as a result. Do not misunderstand that there are times when God allows us to experience sickness for his glory. Idol! Idols are something that people make by carving: carving wood and stone, decorating them with gold and silver. There is no life in it.

When I was young, there was a Buddhist temple. I used to follow adults in my family to the temple and I knelt and worshipped the idol. "Buddha, please bless me to succeed when I become an adult. Make me rich." I said it when I was seven years old. God forgave me later for the things that I did when I was young.

But if you love anything more than God, then it is your idol. If you love your wife, husband, money, and car more than God, it is your idol. The prophet Habakkuk realized this situation and became afraid of God's judgment if they continued on this path, so he prayed, "O LORD. Renew them in our day, in our time make them known; in wrath remember mercy." In response God answered his prayer. "I will renew it!" Habakkuk said that he heard a great and joyful word of the LORD.

First, how can we experience revival?

To receive revival, we have to take steps. In order to join an army, you must go through a training period. You have to keep a night watch. You have to post a sentry. You have to follow

서 먹은 밥그릇 수로 따집니다. 마찬가지로 부흥을 이루려면 다음 세 가지 공식 과정을 꼭 치러야 은혜를 받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1)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을 보니까 하박국은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파수꾼은 망대에 서서 졸면 안 됩니다. 떠날 수도 없습니다. 긴장해야 합니다. 깨어 있고 살펴야 합니다. 외롭습니다. 날이 밝아 오길 기다립니다. 아침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파수꾼의 마음으로 하박국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법관이었지만 과부가 간절히 여러 번 간청할 때에 그의 청을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속히 갚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는 간절히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도 울어야 젖을 줍니다.

하박국 3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박국은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보면,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내려오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120문도가 원

the rules. You have to take turns for meals and go through a hard training as well. In the Army, they don't go by your age, but by the number of meals you had in the service. In the same way, if you want to experience revival from the Lord, you have to have these three official steps. Then you will receive God's grace and experience revival.

1) You have to pray earnestly

I am not talking about simple and common prayer. No, it is an earnest prayer. Habakkuk 2:1 shows that the prophet Habakkuk prayed earnestly. "I will stand at my watch and station myself on the ramparts; I will look to see what he will say to me, and what answer I am to give to this complaint."

A watchman should not sleep at a watchtower. He may not leave from there either. He should be alert. He has to stay awake and be watchful. He must be lonely. He waits for the dawn of morning. Habakkuk prayed with the same kind of heart of the watchman who waits eagerly for the dawn of morning. Just as the judge who ignored God but had to answer a widow when she begged him to listen to her plea for so many time, we have to pray earnestly trusting in the Lord who promises to us that he will answer speedily the prayer of those who pray day and night. A crying baby gets milk.

Habakkuk 3:1 says, "A prayer of Habakkuk the prophet." Habakkuk prayed. Exodus 34:30 says, "When Aaron and all the Israelites saw Moses, his face was radiant, and they were afraid to come near him." People could not look straight on Moses' face because his face was so radiant after receiving God's grace while he fasted and prayed for 40 days on the mount of Sinai. 120 believers fasted for 10 days in the middle of Jerusalem where many enemies were present, they

수들이 있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열흘 동안 금식하며 항상 기도할 때에 놀라운 성령이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19세기 미국을 뒤집어 놓고 영국을 부흥시킨 무디는 한밤중에 잔디밭에 나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무디가 기도하고 일어난 자리는 두더지가 파 놓은 것처럼 땅이 움푹 들어갔다고 합니다.

2) 말씀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성냥개비라고 한다면 말씀은 나무입니다. 말씀이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느헤미야 8장 8~9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니 그 말씀을 듣고 온 회중이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큰 부흥이 일어나서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구약의 선지자 이야기를 해주실 때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가정 집회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듣고 식구 전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성령을 받습니다.

3)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도매금으로 회개하면 안 됩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회개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할 때에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여……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received the Holy Spirit in their upper room when they were praying unceasingly. It is said that Moody who turned upside down the England of the 19th century and also America, used to go out in the middle of night to pray on his lawn. It is said that the spot where he prayed became a hole as if a mole dug a hole there.

2) You need God's Word

If prayer is compared to a matchstick, then God's Word is compared to a tree. Nehemiah 8:8~9 shows that when Ezra read God's Word, all the people were weeping after listening to the Word. After listening to God's Word, a great revival occurred and it became a sea of tears. The two disciples on the road to Emmaus heard from Jesus about the prophecy of the Old Testament, and their hearts were burning inside, and they went up to Jerusalem and prayed and received even more grace. When Peter was leading the family worship at Cornelius' home, teaching God's Word, all the family members received the Holy Spirit. There must be God's Word before you receive the Holy Spirit.

3) You have to repent of your sins

You have to have a complete repentance. It is not a prayer of repentance in the whole sale. It is not a prayer done as if playing tricks cautiously. Isaiah 57:15 says, "to revive the spirit of the lowly and to revive the heart of the contrite." When we repent, God pours out His Spirit into our heart. Acts 2:38 says, "Repent……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When Abraham set up an altar, he had to cut a cow, a goal and a lamb because they were too big. But the pigeon was

아브라함이 제사드릴 때에 암소, 염소, 양은 크니까 쪼갰습니다. 비둘기는 작아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에게 독수리가 자꾸 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한 사람에게는 마귀가 오지 않습니다. 회개치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끝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조그만 죄 하나라도 있으면 성령께서 떠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앞에서 전부 회개하고 깨끗하고 옳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십니다.

둘째, 부흥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박국 3장 3~4절에 보니 부흥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은혜를 받고 내려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스데반이 은혜를 받을 때 그 얼굴에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2) 교만한 자를 누르게 됩니다

하박국 3장 5절에,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오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만한 애굽 사람을 질병으로 치신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 같은 우박으로 그들을 때리셨습니다.

3) 가나안을 점령합니다

하박국 3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too small, he kept it as it was without cutting. But then an eagle kept coming to the pigeon. What does it mean? Satan doesn't come to a person who repented already. Satan, however, keeps attacking those who have not repent. If we have the smallest sin in our heart, then the Holy Spirit departs from us. When we repent of all of our sins before the God of light, and keep a good heart, God will continue to fill us with His presence.

Secondly, what is the result of revival?

1) It reveals the glory of God

Habakkuk 3:3~4 shows that when God revived them, God's glory was revealed. When Moses came down after receiving grace, God's glory was revealed as well. When Stephen received grace, his face shone with glory.

2) It presses down those who are arrogant

Habakkuk 3:5 says, "Plague went before him; pestilence followed his steps." This refers to God's judgment on the proud Egyptians with diseases. God punished them with hail like a fire.

3) It conquers the land of Canaan

Habakkuk 3:6 says, "He stood, and shook the earth; he looked, and made the nations tremble. The ancient mountains crumbled and the age-old hills collapsed. His ways are eternal."

When it says, 'the earth was shaken and the mountains crumbled' means that they will conquer the land of Canaan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열국이 전율하고, 산이 무너진다는 것은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 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가나안을 점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애굽은 죄악된 생활을 말합니다. 광야라는 것은 중생입니다. 가나안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4) 앞길에 있는 장애를 제거하십니다

하박국 3장 8절 말씀을 보니, "하수를 분히 여기심이니이까 강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이까"라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장애도 다 짓밟고 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으려는 데 장애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5)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박국 3장 11절에 보니까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전쟁에 이겨야 하는데 밤이 오면 큰일납니다' 했더니 해와 달이 멈추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해도, 달도 멈추게 하실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합니다.

6) 모든 것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after the Red Sea was divided, the Jordan River was divided, and Jericho collapsed. When we receive the Holy Spirit, we can conquer the land of Canaan. Egypt refers to our sinful life. The wilderness refers to regeneration. Living in the land of Canaan refers t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4) It clears up the obstacles in the path

Habakkuk 3:8 says, "Were you angry with the rivers, O LORD? Was your wrath against the streams? Did you rage against the sea……." It means that God will trample all the obstacles in the path. There are many obstacles when you first try to believe in Jesus. But once you receive grace and the Holy Spirit, there is no one who can stop you.

5) It shows the power of the Lord

Habakkuk 3:11 says, "Sun and moon stood still in the heavens." It refers to the situation when Joshua prayed to God, "God, it would be disastrous if we continue on through the night in order to win the war." God answered his prayer by stopping the sun and the moon. The Bible teaches us that if God wants to do, he can stop even the sun and the moon. There is nothing that God cannot do. God can do it. Only that it has to follow God's will.

6) It brings victory in all areas(V. 12~13)

It says in V. 12~13, "You trampled the nations……You struck the head of the house of the evil"(NRSV). It means that God would get rid of all the kings, the generals, bows, spears and horses. This means that when we are revived, we can win victory against our body, the Devil and the cults.

하박국 3장 12~13절에 열국을 밟으시고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 당시 왕, 장군들, 활과 창과 말굽을 다 제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흥을 받으면 우리의 육신, 마귀, 이단을 모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 하나님을 찬양케 하십니다

하박국 3장 18~19절에 우리가 부흥을 받으면 하나님을 찬양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18절). 제가 어릴 적 교회에 가면 어른들이 박수 치면서 찬송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개하고 은혜 받고 나자 찬송 부를 때 박수를 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그 옛날 여호야김 왕 때의 사회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더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부흥입니다. 도덕적 부흥입니다. 이것이 꼭 있어야 합니다.

시대의 막다른 골목에서 영적인 부흥, 도덕적인 부흥이 있어야 인류가 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에게 갑절이나 부으시겠다는 약속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제 기도합시다.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며 배웁시다. 그리고 마음속의 모든 죄악들을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깨끗이 해서 갑절의 성령을 받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부흥이 이어져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7) It causes us to praise God

Habakkuk 3:18~19 teaches us that when we are revived, we will praise God. "I will rejoice in the LORD, I will be joyful in God my Savior"(V. 18). When I was young and attended worship services, I could not understand that adults were clapping their hands while singing. But when I repented of my sins and received God's grace, I too began clapping my hands when sing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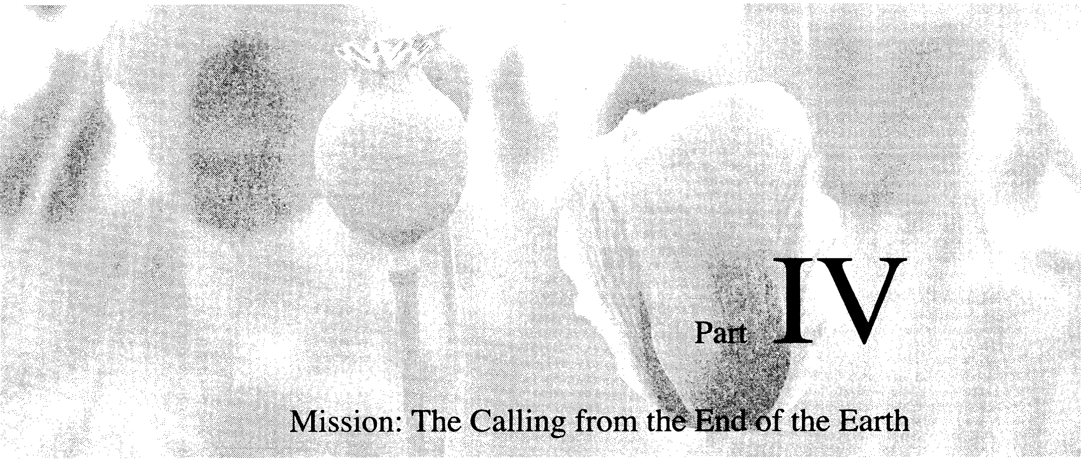
The society that we live today is not that different from that of the King Johoiakim. No, it's worse. It's even scary. The essential thing for all people today is spiritual revival. Moral revival. We have to have this.

Let's pray so that we can receive the promised Holy Spirit that God will pour upon the men servants and women servants in the last days, without which the human race cannot survive without the spiritual and moral revivals. Let us study and learn God's Word diligently. Let us fast and pray to cleanse all of our sins in our hearts by receiving the double portion of the Holy Spirit so that we can carry out God's mission and experience the revival in our family, church and society, and thereby glorifying God all together.



Part IV

선교 : 땅 끝에서 부르는 소리



Part IV

Mission: The Calling from the End of the Earth

선교는 지상 명령

마가복음 16장 14~20절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일찍이 그레머시는 "교회는 선교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교회를 선교하는 기관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려면 교회가 선교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론을 요약해서 말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담하기 위해 그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며, 그 사회에서 그리스도 주권의 의미를 나타내도록 보내심을 받은 선교하는 공동체' 임을 잘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Mission is God's Great Commission

Mark 16:14~20

Later Jesus appeared to the Eleven as they were eating; he rebuked them for their lack of faith and their stubborn refusal to believe those who had seen him after he had risen. He said to them,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od news to all creation. Whoever believes and is baptized will be saved, but whoever does not believe will be condemned. And these signs will accompany those who believe: In my name they will drive out demons; they will speak in new tongues; they will pick up snakes with their hands; and when they drink deadly poison, it will not hurt them at all; they will place their hands on sick people, and they will get well." After the Lord Jesus had spoken to them, he was taken up into heaven and he sat at the right hand of God. Then the disciples went out and preached everywhere, and the Lord worked with them and confirmed his word by the signs that accompanied it.

Long ago Gramercy said, "Church is mission." We have to understand that the church today is an organization that does mission work. In order to spread the gospel, the church has to be transformed into an organization for mission work. If I summarize the doctrine of the church, then, 'The church is a community of mission sent out to reveal the sovereignty of Christ in its society, and to share with the society what God does in his world.'

첫째,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또 요나를 죄 많은 니느웨 성에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라는 말은 사실상 13세기에 프랜시스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을 내보낼 때에 사용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수도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수도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좇기보다 가톨릭 교회의 교리 선전, 교회의 정책, 교세 확장에만 몰두하고 자신들이 보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후 19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세계 교회 확장에 머물지 않고 선교의 개념을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910년 영국의 에딘버러 대회, 1921년 IMC 국제선교회, 1948년 WC 세계교회협의회 탄생, 1961년 인도 뉴델리에서 세계 선교와 세계 교회는 하나의 사명을 가진다는 통일점을 찾았고, 결론적으로 교회는 곧 선교라는 세계 운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1958년 비세돔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선교를 좁은 개념의 개인 구원과 개인 전도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급변하는 지금 이 세계에서 우리는 전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 모든 세계 선교활동의 유일한 근원이시며, 선교의 주체는 선교 기

First, it is God's Mission

In the Old Testament God sent Moses to Egypt to pass God's Word to them. Also Jonah was sent to the sinful city of Nineveh to relay God's message to them. We can see it as the first mission work of God in the Old Testament.

But the word, 'mission' meant 'the sent out one,' originated from the term used at Franciscan monasteries when they sent out monks. But as time went on, the monks lost the meaning of being sent out by God. They forgot their identity and sought to advertize the Catholic Church's doctrine, and church policy. They sought the expansion of the power of the church rather than God's will. In the 19th century the Protestants did not plateau in terms of the expansion of church in the world, but they began to reinterpret the meaning of mission. There was an ecumenical conference in Edinburgh in England in 1910, the IMC International Mission conference in 1921,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in 1948, and the World Mission Conference in New Deli of India in 1961. These all worked together to find a common focus of one mission, and they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church is equal to a world movement for mission.

If so, then what is the meaning of the mission of God in detail? In 1958 a person by the name of G. F. Vicedom published a book titled 《*The Mission of God*》. In his book he said, "Mission should not be defined in a narrow sense of individual salvation and individual evangelization. We have to spread the gospel all over in this fast changing world. The

관이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시다"라고 못 박아 말했습니다.

또 호켄다이크라는 교수는 《흩어지는 교회》라는 책에서 "선교는 교회의 선교가 아니다. 선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시다. 선교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주관해 나가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단순히 교회 확장, 예산 자랑, 숫자 증가, 풍요한 교회에 머무는 것을 철저히 배격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으나 다만 하나, 이 교회들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의 뜻을 분명히 아는 가운데 세워지고 운영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가 하는 물음인 것입니다.

교회란 눈으로 보이는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 신자들이 다 주님의 신령한 교회요 성전인데, 우리 개개인들이 교회에 나올 때 선교를 우선으로 하고 선교를 위해서 나왔는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저 기도해서 일이 잘되고 재난이 안 오고 병 고침을 받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구현하기 위해 교회에 나왔다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바른 자세입니다.

둘째, 이사야의 선교 비전입니다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라고 말한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triune God Himself is the source of all the mission work of the world. The subject of mission is not a mission organization nor church, but God."

Also a professor, J.C. Hoekendijk wrote in his book, 《*The Scattering Church*》, "Mission is not the mission of the church. It's because mission belongs to God. God is the God of mission. Mission is occurring through the work of God. God rules all over the world, and rules through history and events in the world." In summary, God's mission totally rejects a simple expansion of a church, a boasting of the size of a church budget, an increase of church members, or remaining as a rich church.

The number of churches has been increasing. We don't have to look at it negatively only, but it is necessary to question them to see if they clearly understand God's will for mission equipped with an awareness of history. In other words, it's a question of if God wants those churches or not.

When we talk about church, we don't simply talk about visible church buildings. Each believer is the Lord's spiritual church and temple, and when we come to church, we have to think deeply whether we came to church with a mission priority or not. We should not focus on getting healed from sickness or avoiding misfortune or the desire for all things to work out well for us. The right attitude of a Christian is to come to church to seek God's will here on earth.

Secondly, it is Isaiah the prophet's vision for mission

If we call the prophet Jeremiah 'the prophet of tears,' then

'희망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서 49장 5~6절에 나오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그 불우한 환경 속에서 신음하는 그들에게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는 세계 선교의 비전이 담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고칠 점도 있습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사상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참 감람나무라는 독선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 사람들은 다 서자요 이방인 개와 같다고 생각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너희 백성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만민을 구원하겠다는 선교의 비전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we can call the prophet Isaiah 'the prophet of hope.' He was a prophet who proclaimed to the people of Israel who were slaves of Babylon the vision for world mission through the words of Isaiah 49:5~6. He prophesized, that God would do mission work in the world through them who were crying out in a difficult situation 700 years before the coming of Jesus.

"And now the LORD says—he who formed me in the womb to be his servant to bring Jacob back to him and gather Israel to himself, for I am honored in the eyes of the LORD and my God has been my strength—he says: 'It is too small a thing for you to be my servant to restore the tribes of Jacob and bring back those of Israel I have kept. I will also make you a light for the Gentiles, that you may bring my salvation to the ends of the earth.'"

The Word has a vision for world mission in this text, 'I will also make you a light for the Gentiles, that you may bring my salvation to the ends of the earth.' The Jewish people have strength but also have some things to change also. They have this strong exclusive conviction that only they are the chosen people of God, the descendants of Abraham, and a true olive tree. To the people of Israel who thought that all other people are like children born of a concubine and like dogs like Gentiles, God gave this vision for mission through Isaiah that in the future God would bring the gospel to the ends of the earth to save all peoples through his people.

Isaiah 49:7 says, "This is what the LORD says—the Redeemer and Holy One of Israel—to him who was despised and abhorred by the nation, to the servant of rulers: 'Kings

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고국에 돌아가면 세 가지 일을 해야 하는데, 곧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며, 세계 선교에 힘을 다하라는 세 가지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선교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16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고통, 멸망을 향해 가는 우리 인간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 교육과 훈련을 시켜 복음을 전파하도록 지상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는 말씀에서 잘 드러납니다.

스나이더라는 사람이 미국과 전 세계의 유명한 전도자, 신학자, 선교사, 저술가, 교단장, 학자들에게 앞으로 50년 후에 올 변화가 무엇이겠는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 자료 속에 공통되는 것이 대략 열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지역적 사고방식에서 세계적 교회로 변화된다.' '산발적인 성장에서 폭넓은 부흥으로 변화된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 기독교 국가로 변화된다.' '제도적 종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학으로 변화된

will see you and rise up, princes will see and bow down, because of the LORD, who is faithful, the Holy One of Israel, who has chosen you.'"

When they returned to their homeland, they had to do three things: to rebuild the temple, to restore Israel, and to work hard on the world mission. These were their three missions.

Thirdly, it is Jesus' commandment for mission

Mark 16:15~16 says, "He said to them,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od news to all creation. Whoever believes and is baptized will be saved, but whoever does not believe will be condemned.'" Jesus gave a great commission to his disciples to spread the gospel by educating them, and by calling them in order to save human beings who were heading toward sin, suffering and destruction.

John 3:16 says, "God so loved the world." God still loves those who do not believe yet. It is revealed clearly in 2 Peter 3:9 which says, "The Lord is not slow in keeping his promise, as some understand slowness. He is patient with you, not wanting anyone to perish, but everyone to come to repentance."

A man by the name of Snider asked famous evangelists, theologians, missionaries, writers, heads of denominations, and scholars a question about what kind of change would come in 50 years. There were 10 common things from their answers. 'The church will be changed from local to world church.' 'A sporadic growth will be changed into widespread growth.' 'The communist China will become a Christian

다.'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가 사역자로 구성된 교회로 변한다.' '남성 주도 사역에서 남녀 협력체로 변한다.' '세속화에서 종교적 상대주의로 변한다.' '핵가족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한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주의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치 활동 시대로 변한다.' '안전하다고 생각한 지구가 위협을 받는 지구로 변한다.' 이 가운데 주목해야 할 사실은 앞으로 교회가 지역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교파를 초월한 세계적 교회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자신들의 생명을 초개같이 버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서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 놓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기초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얻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부름을 받은, 역사의식을 가진, 시대적 긴박성을 깨달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딸이요, 동역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릴 때나 설교 들을 때나 교육을 받을 때나 봉사할 때나 대화할 때나 교회, 사회 나아가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선교 사업을 몸으로, 기도로, 물질로 감당해서 주 앞에 서는 날에 칭찬과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ountry.' 'Institutional religion will become a theology of God's Kingdom.' 'The church composed mainly by clergymen and laypeople will become the church composed of ministers.' 'Man-led ministries will be changed to man and woman cooperated ministry.' 'Secularism will be changed to religious relativism.' 'The Nuclear family style will be changed to multi-style families.' 'The separatism between nation and church will be changed to a period of Christian political participation.' 'The earth we believed safe will be changed to a dangerous earth.' In the future churches will move beyond denominations to become a global church.

The disciples who received Jesus' great commission went out to the world, risking their lives without fear, and established the foundation for the building of God's Kingdom and changed the world history by spreading the gospel to the ends of the earth. The church exists for mission. The reason God called us is to make us fishers of men. Jesus said, "Just as God sent me, I also send you."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us, we will receive power and will be Christ's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We have to spread the gospel by going all over the world. This is Jesus' great commission. May all of you be blessed in the name of our Lord by receiving rewards and the crown of life when you stand before the Lord by dedicating your life with prayer and finance for God's great commission that is missions. Whatever you do, whether you listen to sermons, or you are educated, or you serve, or you converse with others, may you, having historical discernment, realize that you are the sons and daughters of God, called out for this age as disciples of Jesus who realize the urgency of this age.

선교사의 바른 자세

사도행전 1장 6~8절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독일과 러시아의 선교지를 둘러보면서 과연 선교사의 바른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1994년 현재 한국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 있는 수가 2,50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선교사의 자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규 신학교를 나오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나간 이들이 있는가 하면, 정규 신학교를 나오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고 그저 적당하게 공부해서 선교사로 나간 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선교사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Proper Attitudes of Missionaries

Acts 1:6~8

So when they met together, they asked him, "Lord, are you at this time going to restore the kingdom to Israel?" He said to them: "It is not for you to know the times or dates the Father has set by his own authority.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I meditated upon what the proper attitudes of missionaries should be when I went on a tour of the mission stations in Germany and Russia. As of 1994 there are more than 2,500 Korean missionaries that are sent abroad. But there have been issues of the quality of these missionaries. There are those who graduated from the officially recognized seminary and went through missions training. There are others, however, who did not graduate from seminaries nor went through any missions training, but they went into the mission field without being trained well as missionaries.

Thus,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today what kind of qualities the desirable missionaries should have.

첫째,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 있을 때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르시길, 사울에게 가서 기도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그 사람은 기독교인을 죽였고 많이 핍박한 사람인데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은 이방 사람에게 전도할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방 사람들을 위해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 사람이지만 길리기아 다소라는, 그 당시 세계 3대 도시의 하나인 로마의 식민지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학문을 깊고 넓게 배웠습니다. 유대 율법도 배웠고, 헬라 철학도 배웠고, 로마의 정치 법률도 배웠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헬라어를 잘하지 못한 베드로를 본국 사도라고 부르면, 바울은 외국 사도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처럼 선교사는 소명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오늘날 직업적으로 선교지에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로는 선교지에 갔다가 미국으로 가려고 마음먹고 선교지를 중간 거처쯤으로 삼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교사들이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나는 정말 이곳에 뼈를 묻으렵니다" 하는 각오로 선교지에 가 있습니다. 이런 선교사들이 진정한 선교사들입니다.

First, they have to have a sense of calling

Acts 9:15 says, "But the Lord said to Ananias, "Go! This man is my chosen instrument to carry my name before the Gentiles and their kings and before the people of Israel." A man by the name of Saul was going up to Damascus. He met Jesus on the road and became blind. Jesus told Ananias to go to Saul to pray for him so that he could open his eyes. Ananias asked how he could go to help a man who had killed Christians and persecuted many people. Jesus answered him, "This man is my chosen instrument."

The apostle Paul certainly was a man who received a calling for the Gentiles. Although he was a Jew, he received a good education since he grew up at Tarsus of Cilicia, the third largest city in the world as a roman colony. He learned about Jewish law, Greek philosophy and the Roman political laws. But he became an apostle for the Gentiles. If we may call Peter, who couldn't speak the Greek language well, an apostle for the nation, then we can call Paul an international apostle.

We have to have a strong sense of calling just like Paul. I am sorry to say this, but there are some missionaries who go abroad these days as if they got a job there. In extreme cases, some ultimately went to mission places in order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using the mission work as a means to an end. But the majority of the missionaries realized the calling from the Lord and went to foreign countries with an attitude of "I will bury my bones in this place." These are the true missionaries.

둘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대가가 있거나 조건이 있거나 행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내 구주', 그러니 기쁜 소식이요 선물입니다. 조건을 붙여 주는 것은 뇌물이지 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불교와 같이 고행을 한다든지, 유교와 같이 효를 행해야 하고, 도교와 같이 도를 닦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상의 강도가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할 때에 그 즉시 구원받은 것 같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하여 구원받은 것을 과거시제로 표현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선교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

Secondly, they have to have an assurance of salvation

John 5:24 says, "I tell you the truth, whoever hears my word and believes him who sent me has eternal life and will not be condemned; he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You have to have a strong sense of assurance of salvation.

In order to receive salvation, all you have to do is believe. There is no payment for it, or condition, or conducts of merit. 'Jesus is my Lord.' That's why it is good news and a gift. If we add a condition to a gift, then it becomes bribery, not a gift. That is why the gospel is good news. It is not about practicing asceticism as in Buddhism, not about being devoted to your parents as in Confucianism, not about practicing art as in Taoism. When one thief on the cross cried out, "Lord, remember me······" he received salvation right away. We must have such a strong assurance ourselves.

But then there are some who do not have this assurance of salvation. When listening to some pastors' sermons, you may feel like you received salvation, but to other pastors' sermons you feel you are not sure of your salvation······. But the Bible says, "If you listen to me and believe in the one who sent me, you received salvation." Note that the tense of the verb is past. You can win victory in mission work when you have this assurance of salvation.

Thirdly, they have to believe the sovereignty of the Lord

Everything is under the sovereign rule of our God.

The fact that I am saved is under his sovereignty. The fact that I became a missionary and a pastor is under his sovereignty. Knowing that all is under his sovereignty gives

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내가 선교사 된 것도, 내가 목사 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알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과거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현재를 돕고 또한 미래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 아래 나의 것을 내세우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고생도 되고 위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즉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릴 자가 없다는 주권을 인정하면 마음에 늘 평안을 갖게 됩니다.

넷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신학교에서 신학 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또한 생존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선교현장에서 짐승이 달려들 때 어떻게 피하느냐, 선교현장에 가서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났을 때 어떻게 헤엄을 치느냐, 또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그 대용으로 어떤 나무 껍질을 먹으면 되는가, 어떻게 고기를 잡느냐 하는 등의 생존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선교를 위해서는 신학 훈련, 영적 훈련, 생존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라고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선교사들은 현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저

us comfort. We have to accept that God plans everything, rules everything about our life, in the faith that the God who helped me in the past helps us now and in the future. We have to have an absolute belief in Christ's sovereignty without boasting about our own abilities. When we go abroad for missions, we face hardship and danger. But if we believe God's sovereignty, that unless God allows, there is no one who can touch even the hair on my head, then we would have a comfort in our heart.

Fourthly, they have to go through training

Along with needing seminary training to be a pastor, missionaries must also have survival training. They need this survival training to prepare for various situations: such as how to survive when a wild animal attacks you, or how to swim in a flood after pouring rain, or what kind of tree skins they can eat to replace regular food in times of lack of food, or how to catch a fish, and so on. They need theological, spiritual, and survival training to be prepared missionaries.

Fifthly, they have to be exemplary

Just as Apostle Paul said, "I became an example in all areas for you," the missionaries have to be examples for the local people.

"That missionary is truly a servant of God. He is honest, conscientious, and a servant of God who truly loves us." This kind of confession should be found among the local people. They have to be clean in their relationships with the opposite sex, they must be humble with respect to fame, they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다. 정직하고 양심적이고 우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성에 대해서 깨끗해야 하고, 명예심에 대해서 깨끗해야 하고, 물질에 대해서 깨끗해야 하고, 생활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지교회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또는 어느 단체에서 보냈다는 색깔이 분명해야 합니다. 소속감이 분명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으로 1차 선교여행지였던 아시아에 다시 가서 그곳을 돌보려는데 성령께서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막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밤에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유럽의 최초 교회가 됩니다. 그 복음이 로마로, 독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 선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학을 했고 영

must be honest and giving with respect to money, and they have to be examples with respect to overall life.

Sixthly, they have to have approval from a local sending church

They have to have a clear identity of color as to whom they belong to in terms of church or organization. They have to have a strong sense of belonging. It is very clear that Paul and Barnabas were sent by the Antioch church.

Lastly, they have to be led by the Holy Spirit

Acts 16:6 says, "Paul and his companions traveled throughout the region of Phrygia and Galatia, having been kept by the Holy Spirit from preaching the word in the province of Asia." For his second mission trip, Paul intended to visit Asia again, which was a place where he visited during his first mission trip, but the Holy Spirit stopped him. He had a vision at night, seeing a Macedonian man asking him to come and help. So he went to Europe, to Philippi, and met Lydia and established a church there. This church became the first church in Europe. The gospel reached Rome, Germany, England, the United States, and then Korea. Knowing this fact, we have to follow the leading of the Holy Spirit.

Acts 1:8 says,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Even if we studied theology, speak English well, and are talented, if we don't receive the Holy Spirit, we are nobody. The reason that Peter, after following Jesus for three years, witnessing many miracles, confessing

어를 잘하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기적을 보고 바른 신앙고백을 했고 맹세까지 했는데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며 신앙에 실패한 것은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교회에 유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직분을 받아도 성령을 못 받으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천국문을 막습니다. 성경을 읽고, 회개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을 받아야 교회에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선교사만 선교사입니까? 국경을 나가야만 선교사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미국에도 여러 민족과 족속들이 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부름 받은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소속감이 분명해야 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매사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지교회에 대한 인식도 가져서 색깔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거듭 말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교회의 문을 막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교회의 가시 노릇을 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his faith, and pledging allegiance to Jesus, denied Jesus three times, was that he did not receive the Holy Spirit. Everyone must receive the Holy Spirit. I believe that when the Holy Spirit is on us, we as a church will be blessed. No matter what kind of position you have in a church, if you don't have the Spirit in you, then you become a problem in the church. The person who did not receive the Spirit blocks the path to heaven. You can contribute to the church when you read the Bible, repent, pray a lot, and receive the Holy Spirit.

People of God, are the professional missionaries the only true missionaries? Do they necessarily have to go abroad to become a missionary? How many people are non-Christians living around us in the Unites States? I believe that all of us are missionaries called to belong to this generation. We have to have a strong sense of calling. We have to have an assurance of salvation. We have to have a strong sense of belonging. We have to have training. We have to be examples in all matters. We should not lose our identity as we belong to a local church. More than anything else, we have to receive the Holy Spirit.

Let me say this once again. Without receiving the Holy Spirit, you block the door to the church. Without the Holy Spirit in your heart, you become a thorn that causes many to leave the church. May the Lord bless you so that you can become a servant of the Lord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선교하자

마태복음 28장 19~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 존립의 의미는 선교에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는다면 교회 존립의 의미와 가치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직하게 생각하시는 교회는 네 가지 부흥이 필수라 하겠습니다. 즉 개인 부흥, 교회 부흥, 지교회 설립, 제3세계 선교, 이 네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선교할 때 비로소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신자가 있다면 아직까지 성숙한 신앙에 도달한 신자라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선교하자'는 제목 아래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Let's Do the Work of Missions

Matthew 28:19~20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The purpose of the church's existence is to do missions. If a church does not do the work of missions, then it is within bounds to say that the church has lost the meaning of its existence.

The kind of the church that God desires has to have four kinds of revival: personal revival, church revival, the establishment of a local church, and mission work in the Third World. You have to have these four. When you do the work of missions, then you can say that you have a mature faith. If you are a believer who does not do mission work yet, you have not reached the level of maturity.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a few things today with this title, 'Let's do the work of missions.'

첫째, 성경은 선교를 무엇이라 합니까?

왜 선교를 해야 할까요? 성경에 쓰인 선교의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구약에 기초한 선교

구약은 선교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전체에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호렙 산 밑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내가 보니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 바로 왕의 폭정 아래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본다. 너 모세는 가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일찍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끄집어내라는 선교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외치면서 만약 너희 니느웨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 나라 임금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고 재를 무릅쓰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구약에서도 벌써 하나님께서 이방 사

First, what does the Bible say about missions?

Why should we do missions? We will look at the scriptural basis regarding missions.

1) Missions based on the Old Testament

What does the Old Testament say about missions? Of course, the references to missions are scattered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but I'll look at only two verses. Exodus 3:10 says, "So now, go. I am sending you to Pharaoh to bring my people the Israelites out of Egypt." This is what the LORD said to Moses when he was with his flock at Horeb. Moses received the command of the LORD saying, "I have seen that my people the Israelites have been groaning under the tyranny of Pharaoh in Egypt. I send you, Moses, to them so that you may lead them out to the land of milk and honey." Moses received the mission command from God to lead his people out of Egypt.

Also when you read Jonah 1:2, it says, "Go to the great city of Nineveh and preach against it, because its wickedness has come up before me." This is what God said to Jonah, the prophet of Judah. Thus Jonah went to Nineveh and proclaimed that if Nineveh repented of her sins, then God will be merciful to them. If not, they would be destroyed. In response, everyone from the king to all people fasted and threw ashes upon themselves and repented of their sins, and for this response God saved them. By looking at this event, we can see that God showed his interests and love and sent his prophets to the Gentiles for missions. God saved 120,000 people.

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전도자를 보내사 선교하여 니느웨 영혼 12만 명을 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 사복음서에 기초한 선교

사복음서에 있는 선교하라는 말씀들이 선교의 기초를 이룹니다. 마태복음 28장 19~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했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48절에는,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선교의 기초가 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 사도행전에 기초한 선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선교에 대하여 쓴 것입니다. 8장부터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선교를 기록한 것입니다. 13장부터 28장은 소아시아와 온 유럽 선교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은 선교

2) Missions based on the Four Gospels

The commands to 'evangelize' found in the four Gospels become the foundation for missions. Matthew 28:19~20 says,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Mark 16:15 says, "He said to them,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od news to all creation."

Luke 24:47~48 says, "And repentance and forgiveness of sins will be preached in his name to all nations, beginning at Jerusalem. You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In John 20:21 Jesus said to his disciples,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In these ways the four gospels, Matthew, Mark, Luke and John record the words that become the foundation for missions.

3) Missions based on the book of Acts

Acts 1:8 says,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Acts Chapters 1 through 7 records the mission work in Jerusalem. Chapters 8 through 12 describe mission work in Judea and Samaria. Chapters 13 through 28 portray mission work in Asia Minor and all over the Europe. The Book of Acts records the history of missions.

4) Missions based on the work of the Apostle Paul

We realize that we too have to do mission work when we look at the Apostle Paul. Acts 14:28 says, "And they stayed there a long time with the disciples." It means that the Apostle

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4) 바울 사역에 기초한 선교

바울 사도를 보면 우리도 선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8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오래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다는 말씀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2~13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유럽 첫 땅인 마게도냐 빌립보에 가서 성문 밖 강가에서 여자들을 모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루디아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아 유럽에 빌립보 교회를 처음으로 세웁니다. 그 복음이 돌고 돌아 한국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1, 2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네가 잡혀서 로마에 간다 하더라도 죄를 지어서 재판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가는 것이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모든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Paul stayed at the church in Antioch for a long time and proclaimed God's Word there." Also Acts 16:12~13 says, "From there we traveled to Philippi, a Roman colony and the leading city of that district of Macedonia. And we stayed there several days. On the Sabbath we went outside the city gate to the river, where we expected to find a place of prayer. We sat down and began to speak to the women who had gathered there." The Apostle Paul went to Philippi in Macedonia, the first stop in his European mission trip. He gathered a group of women and began to proclaim God's Word. Lydia believed in Jesus and repented of her sins and was baptized and established the first church in Europe. That gospel came all the way around the globe, all the way to Korea.

And also Acts 22:21 says, "Then the Lord said to me, 'Go; I will send you far away to the Gentiles.'" God revealed his will to Paul when he attended the Jerusalem assembly after he came back from his 1st and 2nd mission tours. God told Paul to go because even if he went to Rome to be judged, it's not because he was guilty, but because he went there for missions. Having heard from God, all of his fear was gone. That was why he went to Rome with a joyful and passionate heart.

Acts 28:23 says, "They arranged to meet Paul on a certain day, and came in even larger numbers to the place where he was staying. From morning till evening he explained and declared to them the kingdom of God and tried to convince them about Jesus from the Law of Moses and from the Prophets."

While Paul was staying in Rome for 2 years, many people came to visit him, and he was able to spread the gospel there. As we have seen, the foundation for mission work is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고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2년 동안 있을 때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선교의 기초는 구약에도 있고, 사복음서에도 있으며, 사도행전과 바울의 선교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둘째, 선교를 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의 말씀은 보편적인 말씀이었고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왜 선교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를 찾게 해 줍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서,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얘기합니다.

탕자는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의 사료인 쥐엄열매를 먹으면서 고생하다가 아버지 집 생각이 나서 두 손 들고 아버지 집을 향해 돌아왔습니다. 남루한 모습이었지만 아버지는 황급히 뛰어가 탕자의 입을 맞추고 껴안고 집안에 데려다가 누더기를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으로 입히고 신을 신기고 반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동네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들판에 나갔다 돌아온 큰아들이 그 광경을 보고 아버지

found in the Old Testament and in the New Testament and also in the four Gospels and in the book of Acts and in the mission history of Paul. Therefore, we have to do the work of missions.

Secondly, what are the specific reasons we should do the work of missions?

So far, we have covered the general reasons for mission. But now we will look at more specific reasons for mission.

1) It is to find the lost children of God

Luke 15:32 says, "But we had to celebrate and be glad, because this brother of yours was dead and is alive again; he was lost and is found." This is what the father told his eldest son.

The prodigal son wasted all of his inheritance and suffered by eating the pods for pigs, but he came to his senses and thought about his father and came back to him. He looked miserable, but his father ran to him and hugged him and kissed him. He brought him in to his home and had him to take a shower, clothed him with new clothes. He gave him new shoes, a ring, killed fattened calf and invited the people of his town for a feast.

At that time his eldest son came back after he had been working in a field and saw what was happening and began complaining. "'Look! All these years I've been slaving for you and never disobeyed your orders. Yet you never gave me even a young goat so I could celebrate with my friends. But when this son of yours who has squandered your property with prostitutes comes home, you kill the fattened calf for

께 불평을 했습니다. "내가 집에 있을 때에 나를 위해 염소새끼 한 마리도 잡아 잔치를 열어 주지 아니하더니 저 방탕한 놈이 나가서 집안 망신 시키고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고 잔치해 주십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찾았으므로 내가 기뻐하노라."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입니다. 그 영혼 하나가 돌아올 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 사람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아흔아홉 마리의 양보다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2) 자신을 위해서는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속담에도 "중매 세 번만 잘하면 천당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좋은 일 세 번 하면 천당 간다고 말하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진 사람이라면 더 확실히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3) 다른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합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무던히 애씁니다. 오래 살려고 제일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환갑, 진갑 넘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환갑, 진갑 넘은 사람들은 띠도 잘 외우고, 건강에 좋다고 하면 몰려가고, 열심히 운동하고

him!'"

The father answered this way. "'But we had to celebrate and be glad, because this brother of yours was dead and is alive again; he was lost and is found.'"

Every body is a sinner before God. God rejoices more over one lost soul coming back than over ninety-nine souls who do not need to repent. God is more joyful over one lost sheep being found than ninety-nine sheep in the fence. The meaning of saving one soul is bringing the lost child of God back to God's arms. Therefore, we must evangelize.

2) It is to receive salvation for yourself

Romans 10:10 says, "For it is with your heart that you believe and are justified, and it is with your mouth that you confess and are saved." Even in the secular proverbs there is a saying, "If you do a good job as a match maker three times, you will go to heaven." Considering that you are said to go to heaven if you do a good job three times in this world, how much more would it be true if you saved a soul who is more precious than the whole world?

3) It is to help others to receive eternal life

It is to help others to live an eternal life. All people work very hard to live a long life. Those who try their best to live a long life are those who are older than 60 or 70 years old. Young people don't think about it very much. Those who are older than 60 or 70, they memorize the sign of the Zodiac that they were born under, and they run to health seminars. If they are seeking good health, they exercise well and make a big deal about it. But if we save a soul, that soul will live an eternal life.

야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공자도, 석가도, 소크라테스도, 당신도, 저도 이 육체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생명과 영혼이 값있는 것입니다. 공자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몸이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상, 정신, 영혼, 인격, 생활이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4) 나라를 복되게 합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파스칼은 이 세상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고민 속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나라의 여호와로 믿는 국민은 복된 국민입니다.

5) 인류를 위해서는 화평을 가져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나자 미국의 한 저명한 인사가 "미국이 일본에 신실한 선교사 1,000명만 보냈더라면 태평양 전쟁이 없었을

Confucius, Buddha, Socrates, you and I have departed or will depart from our bodies. There is no value in the human body. What's valuable is the life, soul that is in it. Confucius is still alive. It's not that his body is alive, but that his thoughts, spirit, soul, character, life are still alive. Helping others to believe in Jesus means to help them to live an eternal life, and that's why we must evangelize.

4) It is to bless a nation

Psalm 144:15 says, "Blessed are the people of whom this is true; blessed are the people whose God is the LORD." Pascal said, "There are three kinds of people in this world: People who say that there is no God those who seek God and those who have found God." Those who say there is no God are stupid. Those who seek God are in agony. But those who have found God are blessed. A nation that believes God is Jehovah is a blessed nation.

5) It is to bring peace for human beings

Acts 10:36 says, "You know the message God sent to the people of Israel, telling the good news of peace through Jesus Christ, who is Lord of all."

After the Pacific War, a famous American said, "If the United States had sent 1,000 faithful missionaries to Japan, there would have been no Pacific War." Mr. Kim Gu, after the Independence from Japan, came back to Seoul said, "Build a church before building ten police stations."

If they followed what he said, then there would not have been such a terrible incident as there was. Before President Eisenhower passed away, he warned, "Unless there is a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김구 선생은 해방이 되자 서울에 돌아와 "경찰서 열 개 짓기 전에 예배당 하나 지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했더라면 오늘날 저러한 고문이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죽기 전에 "오늘 이 세계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스스로 멸망할 것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이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려면 무기를 더 만들어야 합니까? 학교만 자꾸 지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을 개조하는 인간혁명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세계 평화에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 2:5).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 사랑, 봉사, 희생의 마음을 갖는 다면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고, 어떻게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딸들을 찾게 하는 것이고, 자신이 구원받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는 것이고, 나라는 잘살게 하는 것이고, 세계에는 평화를 가져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셋째, 선교는 어떻게 합니까?

1) 기도로 선교합니다

창세기 18장 22~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소돔 성이 죄가 많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성에 의인

spiritual revival in this world, the world will collapse on its own." In this crisis, should we make more weapons in order to bring peace to this world? Should we make more schools? No. We can draw nearer to world peace only when we have the transformation of human hearts by spreading the gospel.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Php 2:5). If people possess Jesus Christ's meekness, humility, love, service and sacrifice, then how would they raise wars and kill innocent people?

Therefore, to do mission work is to find the lost sons and daughters, to receive salvation for you, to help others to receive salvation, to bless a nation, and to bring peace to the world. Therefore we have to spread the gospel.

Thirdly, how do you do the work of mission?

1) It is through our prayer

Abraham prayed to God in Genesis 18:22~23, "It is right for the God of righteousness to bring judgment upon Sodom due to their great sins. But will you sweep the wicked away and not spare the place for the sake of the fifty righteous people in it?"

But God answered him that he wouldn't destroy Sodom if there were fifty righteous people in it as Abraham had said. But there were not 45, nor 30, nor 10, nor 5 righteous people in it. There was none.

Jeremiah said, "Go to the streets to find people who practice justice and truth. If there is one, then I will forgive them." They were destroyed because there was not a single righteous person. For the same reason, Sodom must have been destroyed. We can see that we can evangelize by prayer when

50사람이 있다면 악인들로 인해 같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대로 의인 50이 있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45명, 30명, 10명, 5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희는 거리에 나가서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찾아보아라.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것처럼 소돔 성에도 의인이 없었나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리실 때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사 그의 조카 롯과 롯의 두 딸을 구원하신 것을 보면 기도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고 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금식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여러 선교지의 선교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정성껏 보내 주시는 선교헌금도 감사하지만 교회에서 저희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실 때 힘이 백 배나 더 납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로 선교할 수 있습니다.

2) 은사를 바쳐 선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고 하였습니다.

we look at how God saved Abraham's cousin, Lot, and his two daughters, because God remembered Abraham's earnest prayer when he rained down burning sulfur on the cities.

Acts 13:3 says, "So after they had fasted and prayed, they placed their hands on them and sent them off."

Look at this. We need to fast. We need earnest prayers. They sent out their missionaries after they prayed. I met many missionaries in many different mission fields. Do you know what they said to me? "Pastor, we appreciate the mission offering that your church sends to us, but we are strengthened 100 times when you pray for us, mentioning our names in your prayers." We can do mission work by prayer.

2) It is by using our gifts

1 Corinthians 12:28 says, "And in the church God has appointed first of all apostles, second prophets, third teachers, then workers of miracles, also those having gifts of healing, those able to help others, those with gifts of administration, and those speaking in different kinds of tongues."

All gifts are given for the purpose of mission. They are given to us for God's glory. They are given to us to build God's Kingdom.

If God gave all the gifts to only one person, that person would be proud of himself. That's why God gave different talents to different people. Each part of our body is different from the other, but all are connected into one body. All have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The gift that God gave to us is not provided to use for ourselves but to build God's Kingdom.

모든 은사는 선교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은사를 다 주시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 각각입니다. 몸의 지체는 다 각각이나 한곳에 붙어 있습니다. 모두 서로 연락을 해야 하고, 협력을 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는 나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3) 자신을 헌신함으로 선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20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실 때 어부들은 그대로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는 결단을 했습니다. 바로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값있는 길입니다.

4) 물질을 드려 선교합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고 했습니다. 저희들의 있는 재물로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이 자기 쓸 것도 안 쓰고 최대한 절약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뒷받침했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16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

3) It is by our devotion

Matthew 4:19~20 says, "'Come, follow me,' Jesus said,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At once they left their nets and followed him." When Jesus told the fishers who were fishing in the Sea of Galilee, "Come, follow me." They decided to follow him by leaving their nets. We need that determination. We need to make a choice. They followed Jesus. Following the Lord is a rugged path. But that path is a valuable one.

4) It is by offering our wealth

Luke 8:3 says, "Joanna the wife of Cuza, the manager of Herod's household; Susanna; and many others. These women were helping to support them out of their own means." They served them with their means. These women saved by not spending on the things that they wanted to, and they tried their best in order to support the ministry of Jesus.

Philippians 4:15~16 says, "Moreover, as you Philippians know, in the early days of your acquaintance with the gospel, when I set out from Macedonia, not one church shared with me in the matter of giving and receiving, except you only; for even when I was in Thessalonica, you sent me aid again and again when I was in ne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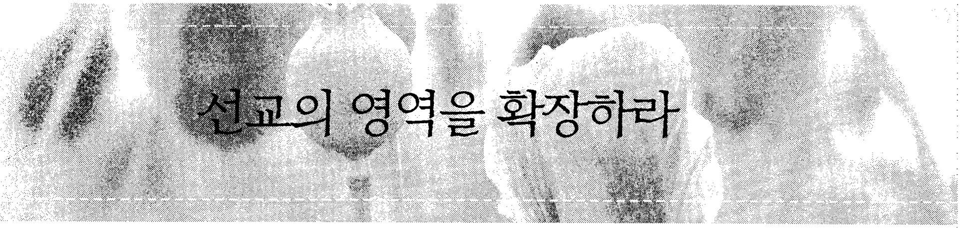
When the Apostle Paul was on his mission tour, the church in Philippi supported him many times financially and economically. When he was imprisoned in Rome, they probably sent clothes through Epaphroditus. They must have sent some food along with it. Maybe money too. Paul was thankful for them. You can do mission work by your financial means.

We all need to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is

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예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 다닐 때 빌립보 교회는 여러 번 그를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후원했습니다. 로마 옥중에 갇혔을 때에도 에바브로디도라는 젊은 청년을 통하여 아마 의복을 보냈을 것입니다. 먹을 음식도 챙겨서 보냈을 것입니다. 돈도 보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감사했습니다. 물질로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30억이라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선교사를 직접 간접으로 보내어 그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는 비용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말고 다 같이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어린 소년의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작은 정성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주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mission work without calculating the cost by sending missionaries to save the 3 billion lost souls. I hope that by doing so you would hear God say when you stand before him, "Good and faithful servant." Just as there were miracles such as when Jesus used the two fish and five loaves of bread from the young boy in the wilderness, I believe that if Jesus' hands bless our little effort, miracles will occur in every corner of this global village.



선교의 영역을 확장하라

사도행전 11장 19~27절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본문에 나타난 수리아 안디옥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첫째가 로마이고, 둘째가 알렉산드리아이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은 지중해에서 동쪽으로 24km 떨어진 오론테스 강 하구에 소재한 도시로서, 로마의 보화와 헬라의 탐미주의와 동양의 사치가 산출되고 집중된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여왕이라고도 불리고, 화려의 극치인 도시라고 찬양을 받기도 했습니다. 안디옥은 유대 사람, 헬라 사람, 아프리카 사람,



Expand the Mission Field

Acts 11:19~27

Now those who had been scattered by the persecution in connection with Stephen traveled as far as Phoenicia, Cyprus and Antioch, telling the message only to Jews. Some of them, however, men from Cyprus and Cyrene, went to Antioch and began to speak to Greeks also, telling them the good news about the Lord Jesus. The Lord's hand was with them, and a great number of people believed and turned to the Lord. News of this reached the ears of the church at Jerusalem, and they sent Barnabas to Antioch. When he arrived and saw the evidence of the grace of God, he was glad and encouraged them all to remain true to the Lord with all their hearts. He was a good man, full of the Holy Spirit and faith, and a great number of people were brought to the Lord. Then Barnabas went to Tarsus to look for Saul, and when he found him, he brought him to Antioch. So for a whole year Barnabas and Saul met with the church and taught great numbers of people. The disciples were called Christians first at Antioch. During this time some prophets came down from Jerusalem to Antioch.

The city of Antioch in Syria in our text was the third largest city in the world in those days. The biggest city was Rome, the second one was Alexandria, and the third one was Antioch. Antioch was situated 24km east of the Mediterranean Sea, sitting at the bottom of the Orontes River. It was a glorious city that produced the treasures of the Roman Empire, the Greek Estheticism, and the luxury of the East. It was also called the queen of the East and received praise as the Extreme of Extravagance. Antioch was an international city where there were Jews, Greeks, Africans, and Romans.

로마 사람이 함께 사는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또한 마차 경기로 유명했고, 도박과 술과 춤과 매음과 강도와 살인과 우상 숭배 등 죄악이 극치에 달한 부끄러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악의 도시에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이방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는 최초라는 말이 네 가지가 붙습니다. 이방 교회로 최초의 교회요, 국제적인 교회로 최초의 교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들은 최초의 교회요, 선교사를 파송한 최초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의 영역을 확장하자'라는 제목 아래 선교의 의미, 선교 확장의 내용, 선교 확장의 방법에 대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선교란 무엇입니까?

'선교'는 간단히 말해 복음, 곧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증인 되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가 예수를 믿고 새사람이 되어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에 선한 봉사로 이바지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도 귀합니다. 학벌도 귀합니다. 재산도 귀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떠날 때는 다 휴지조각같이 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육체요, 학벌이요, 재산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입니다. 영혼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Also it was famous for the chariot races. It was an extremely immoral city as well, filled with gambling, alcohol, prostitution, robbery, murder, idol worship, and all kinds of sins.

In this sinful city, the first Gentile church was established in Christian history. That's why there are four firsts in the Antioch church. It was the first Gentile church, first international church, first church that began to use the word 'Christian,' and the first church that sent missionaries.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God's grace with the title of 'Expand the Mission Field,' in which we will consider the meaning of mission work and the content of the expansion of missions.

First, what are missions?

'Missions' is, in short, to spread and teach good news, to become a witness of the gospel, and to make Christ's disciples of all nations. In other words, it is to share the gospel with non-Christians, so that they may believe in Jesus, become new people, live integral, honest, and pure lives, and love their neighbors, contributing to society through service, and the glorification of God.

What is the most valuable thing to human beings? Our body is important. An educational degree is important. Wealth is important too. But when we depart from this earth, we cannot help but throw them away as trash, including our bodies, degrees, and wealth. Therefore, according to what Jesus said, the most important thing in our life is our spirit. We cannot exchange our spirit with anything in the universe.

To the rich fool who was trying to build a bigger barn Jesus said, "You fool! This very night your life is demanded

가치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재물이 많아 곳간을 늘려 짓겠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밤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가면 그 많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의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서 조의를 표하러 갔습니다. 사모님의 영정 사진이 화분 가운데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임 목사님, 영혼이 떠나니 50년 동안 같이 살던 존재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내일 땅속에 파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붙어 있을 때 가치 있는 것이지 영혼이 떠나면 십대 독자라 해도 보낼 수밖에 없고, 사랑하던 아내나 남편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를 낳아서 기르고 가르치느라 고생하셨던 부모님도 무덤에 안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영혼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고, 또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선교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불신자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딸답게, 만물의 영장답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에 그 영혼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류는 경제 문제, 핵 문제, 환경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 문제는 피부로 느끼는 큰 문제입니다. 오늘의 경제 공황은 온 세계적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기업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of you. And the things you have prepared, whose will they be?" A few days ago, I visited a funeral home because a senior pastor that I know well lost his wife. I saw his wife's picture in the midst of the flowers. He said this to me, "Pastor Lim, when her soul departed from her, there is nothing left with me although we lived together for 50 years. I have to bury her tomorrow under the ground." We have a value when our soul is within us, but when your soul departs from your body, there is nothing you can do even if the lost one is your only son in the last 10 generations of your family, even if it's your wife or husband or if it's your own parent who bore you, raised you and taught you all your life. That's human life.

Our soul is first. Therefore, Jesus said,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Also he said, "Go and spread the gospel to all the people in the world.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Missions is to go to the ends of the earth to become witnesses of Christ so that non-Christians might believe in Jesus and that they would live their lives worthy of the Lord and of God's creation, and that when they die, their soul would receive eternal life.

Today human beings face economic problems, the nuclear bomb issue, and environmental issues and we are struggling with these issues. We especially struggle with the issue of jobs. The economic panic we deal with today is what the whole world is struggling with, which caused so many people to become jobless and contributed to the closing of many companies.

The scientific material civilization that we human beings

인류가 자랑하던 과학 물질 문명은 인간을 대량학살이라는 위협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념적인 투쟁으로 세계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진정한 문제의 핵심은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핵무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붉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사람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과학 문제, 이념 문제는 국제 문제입니다. 국제 문제는 인간 문제입니다. 인간 문제는 교육 문제입니다. 교육 문제는 윤리 문제입니다. 윤리 문제는 종교 문제입니다. 종교 문제는 복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리고 모든 국경과 민족의 장벽을 허문다면 우리 인류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궁극적으로 세계 평화의 지름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귀한 과제입니다.

둘째, 선교 확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선교 확장을 네 가지 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간적 확장, 민족적 확장, 수량적 확장, 심층적 확장이 그것입니다.

1) 공간적 확장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행 11:19).

have been proud of has created a potential crisis of mass murder in the human race. Due to the conflicts between different ideologies in the world, there are many wars killing many people. But the essence of the real problem is not the economy. It's not nuclear weapons. It's not the ideology of communism. The real problem is a human problem. It's all about a human problem.

Economic issues, science issues, and ideological issues are all international issues. International issues are human issues. Human issues are educational issues. Educational issues are ethical issues. Ethical issues are religious issues. Religious issues are the issues of the gospel. If we all become one by the gospel and become new creatures and love our neighbors as ourselves, and break down all the barriers and borders between nations and peoples, then we still have hope for humankind. Therefore, doing missions can be a shortcut to realizing peace in the world.

Secondly, what is the content of the expansion of missions?

I would like to cover four areas regarding the expansion of missions today: Spatial expansion; Ethnic expansion; Quantitative expansion; Qualitative expansion.

1) Spatial Expansion

"Now those who had been scattered by the persecution in connection with Stephen traveled as far as Phoenicia, Cyprus and Antioch, telling the message only to Jews"(Acts 11:19).

By receiving the Holy Spirit on the day of Pentecost in the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므로 기독교가 처음으로 탄생했고 교회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의 첫 교회이며 모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120문도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땅에서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시작됨으로 유대 땅에서는 살 수가 없게 되어 동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흩어진 신자들이 베니게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구브로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국경 밖의 안디옥에 와서도 복음을 전함으로 신자가 생기고 안디옥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공간적인 확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국경을 넘어 외국 나라 안디옥 땅에 교회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확장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은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웃 사람에게 전도하고, 우리 집이 예수를 믿었으면 저 집에게도 전도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선교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교회의 과제이고, 이것이 공간적인 확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926 South Irolo 조그만 집 거실에서 장년 열다섯, 학생 열다섯, 이렇게 서른 명이 모여 동양선교교회가 탄생한 후에 오늘 아시아로 그 공간이 뻗어 갔습니다. 남미 남단에도 뻗어 갔습니다. 유럽으로도 뻗어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공간적인 확장을 했지만 아직도 철의 장막,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동 땅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

upper room, Christianity first started, and church came into being. The Jerusalem church became the first Christian church and the mother church of all. But the disciples and the 120 followers, having received the Holy Spirit, spread the gospel only in the area around Jerusalem. However, persecution began in Jerusalem, which scattered them out to the east, west, south and north, because they couldn't stay in Judea. Scripture tells us that they went to Phoenicia, Cyprus, and Antioch which was beyond the borderline in order to spread the gospel, which made it possible for new Christian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hurch in Antioch.

This all refers to the spatial expansion. In other words, when the Bible tells us that they were able to establish a church in Antioch, which was far beyond the border of Israel, beyond Jerusalem, it indicates the spatial expansion. In the same way, it is the fulfilling the church's task and following God's will when we expand the domain of the gospel. It was God's will and the Christian's task when I became a believer, and now I should evangelize my neighbor. If your home became a Christian home, then you should evangelize to your neighbor's home; from this village to the next village; from the city to the countryside, from my country to another country. These are the ways of spatial expansion.

11 years ago we had our first Oriental Mission Church's seed group meeting at a small apartment in the living room at 926 South Irolo. That's how we were born, and that's who we were able to reach out to: Asians. We reached the south of South America. We reached Europe. We made some progress in terms of spatial expansion, but we have not reached Africa,

으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이 오대양 육대주, 인간이 사는 곳 어디서나 복음을 전해서 선교의 공간적인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째 과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 민족적 확장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행 11:20).

과거에는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 흩어진 사람들이 구브로와 구레네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 사람에게 전도하여 헬라 사람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족, 문화, 종교를 초월한 민족적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20절에 '너희들은 온 천하에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제자를 삼으라' 고 하신 그 말씀대로 유대 사람에게 국한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국경을 넘어 이방인에게도, 헬라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은 민족적으로 선교가 확장된 것을 보여 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한인 교회이지만 일본 사람에게도 선교하고 중국 사람에게도 선교하고 독일 사람에게도 선교하고 이탈리아 사람에게도 선교합니다. 브라질 사람에게도 선교합니다. 인도 사람에게도 선교합니다. 태국 사람에게도 선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민족에게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나가야 할 것이고, 문서나 라디오로, 또한 그 나라 현지 선교사

South East Asia and the Middle East. Our future goal is to reach the Five Oceans and the Six Continents, so that we can expand the domain of the gospel by spreading the gospel everywhere and anytime. We have to remember that this is our first command.

2) Ethnic Expansion

"Some of them, however, men from Cyprus and Cyrene, went to Antioch and began to speak to Greeks also, telling them the good news about the Lord Jesus"(Acts 11:20).

In the past they spread the gospel only to the Jews. But now, having been scattered away from Jerusalem due to persecution, they spread the gospel to people in Cyprus and Cyrene, but also to Greeks in Antioch, and they became children of God believing in Jesus. We can consider this an Ethnic expansion beyond their ethnic group, culture, and religion.

Just as Jesus taught in Matthew 28:16~20 that you should go out to the world to spread the gospel to everyone so that you can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they went beyond the border to spread the gospel to the Gentiles including Greeks, not just to the Jews. This shows that they expanded the domain of the gospel beyond the ethnic boundary.

Our church here is a Korean church, but we do evangelism to the Japanese, Chinese, Germans, Italians, Brazilians, Indians, and Thai. We will send more young people to more ethnic groups in the future. They will do the work of missions through literature, radio broadcasting, or by training the local leaders to be missionaries, so expanding the domain of

를 임명함으로 모든 민족에게 선교를 확장해 나갈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3) 수량적 확장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행 11:24).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어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할 때에 믿는 무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수량적인 확장입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불러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열두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건지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둘이 120이 되고, 120이 5천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10억이라는 숫자를 기독교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마는 불교 국가입니다. 철저한 불교 국가입니다. 일찍이 초대 선교사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버마에 들어가서 선교했습니다만 한 사람만이 예수를 믿어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헌신적으로 선교사업을 펼쳐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는 7천 명이 세례를 받아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수량적으로도 선교를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 동양선교교회가 11년 전에는 교인 수가 30명밖에 안 되었지만 오늘날 3천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것 가지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곧 5천 명 교회가 되어야 하고 1만 명의 신자가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수가 많으면 그 안에 인재

missions beyond ethnic boundaries. That is our task.

3) Quantitative Expansion

"He was a good man, full of the Holy Spirit and faith, and a great number of people were brought to the Lord"(Acts 11:24).

The Jerusalem church sent Barnabas to the church in Antioch. Barnabas taught God's Word and spread the gospel there, and the new converts increased. This is quantitative expansion.

Jesus was not satisfied calling and training the Twelve. His will was to bring in more people through the Twelve. That's why the Twelve became 120, and 120 became 5,000. Today there are 1 billion Christians.

Dearly beloved, as you know, Burma's religion is Buddhism. It's a Buddhist country through and through. Long ago a missionary by the name of Judson went to Burma to evangelize, but only one person believed in Jesus and was baptized. But he was not disappointed. He continued to dedicate his life for missions work there. By the time he died, there were 7,000 Christians who were baptized by him. We have to expand the domain of missions by increasing in number as well.

Our Oriental Mission Church used to have only 30 members 11 years ago. But now we have 3,000 members. But don't be satisfied with this number either. We have to aim at a 5,000 and a 10,000 member church. When we have a big number, naturally we will also have many great talents among them. With bigger numbers, we can withstand difficulties that

도 많은 법입니다. 수가 많으면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수가 많으면 좋은 일이 있을 때 협력하여 무엇이나 달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직도 재림하지 않으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 식구 가운데, 이웃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불에 들어가 영원히 신음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수량적 확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4) 심층적 확장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행 11:26).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디옥에서 처음 생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딸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딘지 모르게 안 믿는 사람과는 다르구나."

심층적 확장이라는 말은 질적인 확장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공간적 확장, 민족적 확장, 수량적 확장을 한다 해도 쓸모 있는 사람을 만들지 못한다면, 내용 충실한 사람을 만들지 못한다면 오합지졸밖에 더 되겠습니까? 밀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가 그 밀가루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복음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거듭나고 새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다 데려다 놓아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

come our way. With big numbers, when we want to do good things, we would have a higher probability to reach our goal.

On top of that, 2 Peter 3:9 teaches us that the Lord does not want anyone to perish, but wants all to come to repentance, and that's why his second coming hasn't occurred. If the Lord comes again today, you and I will be saved, but there are many people among our families, neighbors, and friends who have not been saved, who will be moaning in the fire of hell. Because God is love, he wants to give opportunities to everyone. In other words, it is God's will for us to increase in number.

4) In-depth Expansion

"……The disciples were called Christians first at Antioch" (Acts 11:26).

The word, 'Christian' was first used in Antioch. They must have been saying, "Christians are the sons and daughters of God. They are different from the rest of us in some special ways."

In-depth expansion means qualitative expansion. Even if we accomplish spatial, ethnic and quantitative expansions, if we don't produce useful people, if we don't make faithful people, then everyone will become undisciplined. Just as yeast in the flour transforms the flour, gospel in the heart of human beings can truly change them from the inside out through repentance, rebirth and becoming new creations. Then wherever they go, people in the world will consider them true people of God and true Christians. This is qualitative and in-depth expansion.

이라고 불신자들이 불러 주는 신자가 되는 것이 심층적, 질적인 확장입니다.

셋째, 어떤 방법으로 선교가 확장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공간적인 확장과 민족적인 확장과 수량적인 확장과 심층적인 확장을 이룩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론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가져도 그 방법을 모르면 소기의 뜻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공부하려면 물론 소질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지만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방법을 모르면 고생하고도 점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 선교가 확장되는 데 네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 환난을 통해서 선교가 확장됩니다

세상적인 지식과는 정반대되는 말입니다. 세상 일은 모든 것이 편안해야 잘되는데 우리 기독교의 선교 사업은 환난과 핍박, 역경을 통해서만 확장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행 11:19).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없었다면 안디옥 교회가 생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니, 죽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해야 하는데

Thirdly, in what ways does the domain of missions expand?

The methodology is important in order to expand spatially, ethnically,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Even if you are equipped with great purpose, if you do not know how to achieve it, it won't work.

When we study in the United States, of course, you will need talents and efforts, but you have to know the methodology as well. If you don't know how to study, then you won't get good grades, even after you worked very hard on it. You have to know the methodology.

The Bible teaches four ways.

1) Missions expand through hardships

This principle is exactly the opposite of the worldly wisdom. The things in this world expand when things go well, but the mission work in Christianity expands through hardships, persecutions and difficulties.

"Now those who had been scattered by the persecution in connection with Stephen traveled as far as Phoenicia, Cyprus and Antioch, telling the message only to Jews"(Acts 11:19).

Had it not been for the persecution in Jerusalem, the church in Antioch would not have been established. As the Christians were caught and killed in Jerusalem, I think the Christians must have decided to go to other places to spread the gospel instead of being killed in Jerusalem. That's how the church in Antioch was founded. The church in Antioch was founded through persecution.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환난을 통해서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가 100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양적으로 성장한 것은 다른 나라보다 환난과 핍박과 역경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순조 때, 헌종 때, 대원군 때 핍박을 했습니다. 일본이 36년간 핍박을 했습니다. 6 · 25 전쟁까지 겪게 되니 모든 사람의 마음에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됩니다.

1900년 초기, 2차 대전이 끝나자 미국에 불경기가 와서 모든 것이 배급제가 되고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자가 늘어날 때 장사가 제일 잘된 곳은 두 군데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학교입니다. 실업자가 늘어나도 아이들은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제이니 계속해서 학교를 보냅니다. 그 당시 선생들은 불경기라는 것을 모르고 잘 지냈다고 합니다. 또 한 곳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골프 치고 사냥하고 낚시하고 술 마시고 했겠지만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밖에 기댈 곳이 없어 교회로 몰려든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역경을 통해서 선교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2) 평신도를 통해서 선교가 확장됩니다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행 11:20).

그랬더니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

Dearly beloved, it's only been 100 years since Christian mission work began in Korea. The reason we grew so fast in number is because we had more persecutions, hardships and difficulties than other countries. In the time of Daewongun, King Heonjong, and King Sunjo, they persecuted the Christians. Japan did the same for 36 years. When the Korean War broke out, people began to believe that it was only God that they could put their trust in. This is human instinct. Churches grow through hardships.

In the early 1900's, after WWI, America experienced economic depression. Many companies went bankrupt. The unemployment rate increased. Everyone was put on ration. Only two places thrived. One was school, because even though the unemployed increased, they had to teach children. They had a compulsory education system, so they had to send their children to school. In those days teachers at schools didn't have to experience economic depression. When people enjoy comfortable lives, they go out golfing, hunting, fishing, and drinking. But when they became hungry, they had no one else to turn to, but God, so they came to church. As you can see, missions expand through hardships, persecutions and difficulties.

2) Missions expand through laypeople

"Some of them, however, men from Cyprus and Cyrene, went to Antioch and began to speak to Greeks also, telling them the good news about the Lord Jesus"(Acts 11:20).

Greeks also believed in Jesus. It doesn't say that Apostle Paul evangelized them. It doesn't say that John, the disciple of Jesus, evangelized to them. No, the laypeople whose

이 전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전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름 없는 평신도들이, 신학교도 가 보지 못한 무명 평신도들이 전도해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선교 확장에 있어 평신도들의 힘이 지극히 크다는 것이 2천여 년 동안 로마 시대, 중세기, 종교개혁 시대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각 대륙의 교회, 미합중국 교회가 이만큼 자라난 것은 그때그때 평신도들이 물심양면으로 헌신적인 봉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기독교가 2천 년을 지나오며 이와 같은 금자탑을 이룩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고 고국에 돌아감으로 기독교가 뿌리를 내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또한 빌립이라고 하는 평신도가 전도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또 신학교 문턱에도 안 가 본 자주장사 여자 평신도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세워 유럽으로 복음을 수출했습니다. 로마 교회 역시 베드로도 바울도 아닌,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를 믿고 돌아갔거나 또는 그리로 이민 갔거나 노예로 잡혀간 사람들이 세운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유럽에 가 보니까 독일에 한인 교회가 50여 개가 있는데 대개 간호사들이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유학생들이 세운 것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 보니 음악을 배우러 온 학생들이 로마 한인교회를 세웠습니다. 밀라노에 가 보니 한국에서 온 상사 주재원 평신도들이 밀라노 한인교회를 세웠습니다.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가 보니 미 공군과 결혼한 한국 여자 분이 한인교회를 세워 놓았습니다. 정규 신학교를 나온 목사님들도

names are not reported, who had never been to seminary, evangelized Greeks and that's how the church in Antioch was established.

The power of the laypeople has been proven through the two thousand year history that runs through the Roman Empire, the Medieval Age, and the Reformation Age. Because they served the Lord with all they had, that's why the church in the United States and also in other continents has grown this much. That's how Christianity was able to accomplish a monumental work.

In Acts 8, there is a story about the Eunuch, who was in charge of the treasure of Ethiopia, receiving the gospel. When he went back to his country, Christianity began to take root in that country. It was made possible because a layperson, Philip, shared the gospel with him. The first church in Europe was also established by Lydia, a dealer in purple cloth, who had never been to seminary. The church in Rome also was not established by Peter or Paul, but the slaves or immigrants who had moved there or who were brought to Rome after having believed in Jesus in Jerusalem.

I visited Europe recently. I found out that the 50 Korean churches in Germany were mainly established by Korean nurses and Korean students studying there. When I went to Rome, I found out that the Korean music students studying there established Korean churches there. In Milan, Korean business resident workers established the Milan Korean church. In Madrid of Spain, a Korean lady who was married to an American air force pilot established a Korean church there. The pastors who graduated from seminary also

교회를 세우지만, 장로님들도 교회를 세우지만, 무명 평신도들이 교회 설립과 확장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광야의 5천 명이 배불리 먹은 기적도 이름 모르는 소년의 떡 다섯 개와 고기 두 마리를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평신도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선교가 확장됩니다.

3) 물심 후원을 통해서 선교가 확장됩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고 했습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전도 여비를 주어 세계 선교를 처음으로 내보낸 물심양면의 구호를 말합니다.

금식했다는 것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은 마음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필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금식하고 배후에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재작년에 한국에 가서 두 달 동안, 일본에 가서 보름 동안 날마다 서너 번씩 설교하고 왔는데도 목 한 번 쉬지 않았습니다. 아픈 데도 없었습니다. 돌아와서도 대학생 집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간표까지 짜 놓고 밤낮으로 저를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선교가 확장되려면 배후에서 금식하고 피눈물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기도의 복병이 많아야 합니다. 또한 물질적으로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와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자기 돈으로 선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미국 교회의 가난한

establish churches too. Also elders establish churches. But we can see very clearly that the anonymous laypeople have been contributing so much to the establishment and growth of churches in the past and in the present. The miracle that more than five thousand people in the wilderness were fed abundantly through five loaves of bread and two fish that an anonymous boy brought.

A church grows and expands through the laypeople.

3) Missions expand through financial support

Acts 13:3 says, "So after they had fasted and prayed, they placed their hands on them and sent them off." This verse shows that the members at the church in Antioch fasted, prayed, and laid their hands on them, and they sent Paul and Barnabas with financial support for the first time for the world mission.

The act of fasting shows that their hearts were with them. That they prayed means they poured out their hearts for them. The first thing we need for missions is our heart. It's an amazing thing when we fast and pray for our missionaries. Dearly beloved, two years ago, I visited Korea and stayed there for two months, and visited Japan and stayed there for 15 days. In the meantime I was preaching 3~4 times every day. But my throat never got husky. I was never sick either. Upon returning from the trip, I led the assembly for university students group. I told them that it was not what I did; it was because they prayed for me day and night according to the schedule.

In order for the domain of missions to expand, we have to have a lot of soldiers of prayer who fast and pray earnestly.

사람의 돈도 들어 있습니다. 나이 많고 혼자 된 사람들이 푼푼이 모아 한 달에 1불을 냅니다. 어떤 분은 10불을 냅니다. 어떤 분은 더 내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모아 세계 선교하는 미국입니다. 유럽의 교회는 점점 쇠퇴해 가지만 미국은 아직까지도 세계에 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은 희망이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해가 되기보다 갈릴리 바다처럼 순환할 수 있는 나라, 교회, 개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심양면의 후원을 통해서 선교의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아직 선교헌금에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동참해 보십시오. 그저 한 달에 5불만 해보십시오. 5불이 없다면 그저 하루만 굶어 보세요. 내가 하루 안 먹고 선교사들을 대접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다섯 식구가 한 달에 30불이면 너끈히 생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5불, 10불, 30불이 선교사의 가정을 한 달 동안 먹이고 선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4) 주의 손을 통해서 선교가 확장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행 11:21).

아무리 우리가 환난을 극복하고 평신도들이 노력을 하고 물심양면으로 노력한다 하더라도 주의 손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We also need helping hands for financial support. Do all the international missionaries working in Korea serve using their own money? No, it has been done by the help of American Christians, some of whom might be poor. Some old single ladies offer $1 out of their savings every month. Some give $10. Some others give more. American missionaries can serve because of all of those supporters. Although European churches have declined, American churches still help other countries, they still have hope.

We should let things circulate through us to be like the Sea of Galilee, not like the Dead Sea, in individual, church and national levels. Mission expansion is possible through the support from both financial and spiritual aspects.

If you have not given for the mission purpose yet, please participate this time. Try to give $5 a month. If you don't have $5 with you, then try to skip a meal a day. Think of it this way, that by skipping a meal you are treating a missionary. Think about it. $30 is more than enough for a family of five in India. Isn't it precious to know that by sending $5, $10, or $30 to missionaries, you are feeding the whole missionary family for the entire month?

4) Missions expand through the hands of the Lord

"The Lord's hand was with them, and a great number of people believed and turned to the Lord"(Acts 11:21).

No matter how much we overcome persecutions and hardships, and no matter how hard laypeople work to support missions, if the Lord's hands are not upon us, we can't do anything. God has to allow everything.

Psalm 127:1 says, "Unless the LORD builds the house, its builder's labor in vain. Unless the LORD watches over the

또한 시편 109편 27절에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저희로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동양선교교회가 11년 만에 이만큼 성장한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디 와서 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내가 미국에 와서 잘 먹고 잘살다 죽었다 하면 짐승과 다를 게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기울어 가는 인류 문명을 일으키는 일은 우리 한국 배달민족, 선택받은 믿는 성도들, 우리 동양선교교회 성도들에게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환난을 극복하고 이용하고, 평신도들이 자각하고, 물심양면으로 협력하고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여 공간적인, 민족적인, 수량적인, 심층적인 부흥을 일으켜 인류 역사에 기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한민족과 성도들과 동양선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city, the watchmen stand guard in vain."

Psalm 109: 27 says, "Let them know that it is your hand, that you, O LORD, have done it." I believe that our Oriental Mission church has grown this much in only 11 years entirely by God's grace. God works in his own ways.

Dearly beloved, it's not really a matter whether you live here or there. The issue is how you live your life. If you came to the United States and lived here well off and died here comfortably,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your life and an animal's life? How you lived your life is what counts. I believe that it's up to the Koreans, the chosen Christians, and our Oriental Mission church's members to raise up the dying civilization by spreading the gospel all over the world.

May the Lord bless you as you overcome hardships, as laypeople are enlightened and support missions both spiritually and financially, seeking the Lord's hands, so that we can revive and contribute to the world's history through spatial, ethnic and in-depth expansions. This way we can glorify God as Korean Christians and members of the Oriental Mission Church.



검은 대륙은 부른다

'검은 대륙은 부른다'라는 제목으로 금년도 마지막 제3차 선교여행 보고를 여러 성도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를 떠나기 전에 아프리카를 다녀온 우리 교회 조왕화 형제와 몇 분들이 사전에 예비 지식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외화 사정과 치안 상태가 좋지 못하니 가급적 현금을 가져가지 말고 여행자수표나 비자카드를 쓰라고 했습니다. 공항 출입세관 관리들의 횡포가 심하니 미리 5불짜리, 10불짜리를 여러 장 준비해야 출입의 도모가 편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풍토병이 심하니까 황열병(yellow fever) 주사를 반드시 맞고 가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주사를 맞지 않으면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또 LA영사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사전에 아프리카에 전화하고 가라는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도착하는 대로 그 나라 대사관에 통보하는 것이 신변에 이상이 있을 시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호텔은 비싸지만 가급적 좋은 호텔에 들어가야 음식이라든지 모기라든지 도둑맞는 일이 덜하니까 좋은 호텔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The Calling of the Black Continent

I would like to give you my third mission trip report this year. Before I departed to Africa, our church members, brother Cho, Wanghwa, and others gave me orientation and equipped me with pre-trip knowledge. Since the situation in Africa in terms of money exchange and security are not stable, they recommended me to use traveler's check or visa card instead of cash. Since the airport security guard's arbitrary way of handling custom process, they recommended me to be ready with $5 and $10 bills so that the custom process would be smooth for me. Also since the local diseases are rampant, they told me to get a yellow fever shot for sure.

They don't issue visa to foreigners unless we show a proof of three shots. Our brothers also recommended me to contact the Los Angeles consulate office if I know of someone there so that they can call Africa directly before my departure. Upon my arrival, they advised me to contact the embassy immediately, which will be helpful in an emergency situation. Although the hotels are expensive, the more expensive hotels, the better the situation with regard to food, in dealing with mosquito, and for better protected against thieves. They also

간단히 요기할 수 있는 무겁지 않은 음식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또 아프리카는 더위 관계로 은행이나 여러 기관의 영업시간이 다르니 사전에 알고 가야 착오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꼭 모기장을 가지고 가며 잠자기 전에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약을 뿌리고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탔을 때 운전사에게 그냥 대사관 가자고 하면 북한 대사관으로 데리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꼭 남한 대사관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내린 후에도 대사관의 깃발을 분명히 보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말들을 듣고 나니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빙스턴이라는 젊은 영국 청년은 선교사가 되어 120년 전 교통이 불편한 그때에 아프리카 대륙을 걸어서 두 번이나 걸어 횡단하면서 탐험도 하고 선교하다가 죽었고, 슈바이처도 일생을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다가 거기 묻히지 않았는가? 지금도 유럽이나 미국의 많은 남녀 선교사들이 일하고 있지 않은가? 한국 선교사도 약간 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 가운데 내가 무엇이 두려워서 못 가겠는가' 하는 다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지난 8월 30일 오후 6시 30분 영국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한 10시간 동안 날아가 영국 수도 런던의 공항에 내려서 곧 아프리카로 가는 나이지리아 비행기 연결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수속을 하려고 했더니 그 비행기가 취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른 비행기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모른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는지 물었더니 오늘 밤 11시에 영국 비행기가 그리로 떠나니 가 보라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advised me to take along with us some convenient food that is not heavy to carry. Due to the heat during the day in Africa, I was told to check with the opening hours for bank or other offices. Some people told me to take the mosquito net necessarily and bug repellent spray so that I can use them before I go to sleep. Another piece of advice was that if I take a taxi, I wasn't recommended to say to the taxi driver to take me to an embassy, for the taxi driver often mistake it with the North Korean embassy. Therefore, I had to say clearly to the driver to take me to the South Korean embassy, and then even after you arrived there, you need to check with the flag first, and then walk in. After hearing these words of recommendation, my heart became heavy.

All of sudden, it came to my mind: Livingstone as a young man became a missionary in England. In spite of the extreme difficult transportation situation in Africa 120 years ago, he had to walk across the continent twice to explore and to spread the gospel, and then he died there. Didn't Schweitzer also serve Africa all his life and died there? Isn't it true that even now many European and American missionaries are working all over the world? What about the Korean missionaries in different countries? Thinking about them all, why should I be afraid of going to Africa? So I made up my mind not to be afraid. I was blessed by your prayers as I left at 6:30 P.M. last August 30th, and I flew to England's capital city, taking 10 hours of flight. I walked to a place where I could switch over to a plane that was destined to Nigeria in Africa.

As I was about to start processing, I was told that the flight was cancelled. I asked when would be the next flight. The answer was that they don't even know. I asked again if there is

어떻게 가느냐고 물었더니 헬리콥터를 타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약을 안 했기 때문에 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정사정했더니 담당 여직원이 높은 사람을 찾아가 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 그 비행기를 타는데, 시간이 되니 새카만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노란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는 것 같고, 이제 정말 아프리카를 가나 보다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탄 지 5시간 후에 나이지리아 라고스라는 비행장에 내려서 얼마 동안 있다가 첫 방문국인 가나에 갔습니다. 그런데 세관에서 돈을 얼마 가지고 왔느냐고 하면서 있는 돈을 다 내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기에 내어 놓았더니 관리가 돈을 다 센 후 20불짜리 하나를 자기 주머니에 넣고는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공항을 나오면서 "감사합니다. 더 많이 뜯기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흑인 청년의 안내를 받아서 호텔로 가는데 점점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컨티넨탈이라는 좋은 호텔인데 수돗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변을 보고 밸브를 눌러도 물이 안 나와서 통에 물을 떠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대사관에 가는데 휘발유 사정이 나빠 택시를 잡을 길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려야 자가용을 얻는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사관에 가니까 참 반가이 맞아 주었는데, 영사님 중에 공군 출신이 있어서 더 반갑게 맞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볼일 보고 저녁에 호텔로 들어오는 길에 뚱뚱하고 피부가 검은 한 동양인을 가리키며 한국 영사님이 "저 사람이 북한

any other way. And the answer was that I could try to take a British airplane tonight at 11 P.M. that is destined to Nigeria. So I asked how I could catch that airplane. The answer was I could catch the plane by taking a helicopter. But since I didn't reserve a seat, I was told that I could not take the helicopter. Out of desperation I begged her to find a seat for me. So she went away to talk to her superior and came back with an answer that they could find a seat for me finally. I took the plane about midnight. As I was getting on board, a crowd started getting on board as well. I could see that I was the only Asian surrounded by black people. It hit me that I was really going to Africa then.

After 5 hours of flight, we arrived at the Lagos airport in Nigeria. I stayed there for a few hours and then visited Ghana, the first destination of my trip. But at the custom, he asked me how much money I brought with me in total. He asked me to take out all my money. I looked around and found out that everyone else there were following the order too. So I did as well. After he counted all my money, he pocketed $20 for himself and then told me to take the rest. As I was leaving the airport, I prayed to God, "Thank you that I was not ripped off more." I met two black young men. They guided me to a hotel. I began to get nervous more and more.

It was the Continental Hotel, which was supposed to be a nice hotel, but there was no running water. After relieving myself, I pushed the valve, but there was no water. So I had to pour water into a basin. I had to go to an embassy. But I couldn't catch a taxi due to oil shortage situation in the city. I was told that I had to wait for a week to get hold of a car. After many twists and turns, I was able to arrive at the

대사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방에 들어가거든 저녁에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려 해도 전깃불이 어두워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그 불은 좀 밝았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서서 성경을 읽고 모기장을 치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영사님이 아침에 오더니 아무래도 호텔을 옮겨야겠다고 해서 호텔을 옮겼습니다. 한국 사람은 거기 한 20명밖에 없었는데, 공관 직원과 태권도 사범과 그저 약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엔 한인교회가 없어서 영국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 테마라는 바닷가에는 어부가 한 300여 명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몇 번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날 테마에 가서 한국 사람들과 잠깐 이야기하고 나이지리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가봉으로 갔다가 다시 나이지리아로, 그 다음에 케냐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영사관에 있는 분들이 모두 거기 갔다 왔다고 하면서 나이지리아행을 만류했습니다. 또 나이지리아에서 온 상사 대표들이 와서 저에게 "목사님, 나이지리아에 꼭 가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글쎄, 제가 선교 현장 답사 명목으로 이곳에 왔으니까 그거 보고 가려고 하죠."

"목사님, 웬만하면 그 나라는 안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100명이면 90명은 봉변을 당합니다. 가방을 뺏기거나 잘못하면 생명도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한사코 못 가게 했습니다. 사업하는 한 백인이 현금 100만 불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세관 관리가 금액이 크니까 조사해야 한다고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돈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그냥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embassy. They warmly welcomed me, and I felt even more so because there was a consul there who was formely in the Air Force just as I was. After I finished what I had to do for the day, I was coming back to the hotel with a consul. He pointed a dark and big Korean man on a street, and told me, "He is the North Korean ambassador." He told me that I should not come out of my room after I check in that night. I wanted to read the Bible, but the light was quite dim. So I had to go into the bathroom where I was able to read it, because the light was better in there. So I had to set up a mosquito net there and read my Bible and slept there.

The next day the consul came to the hotel and told me that I should switch to a different hotel. So I did. There were only 20 Korean people in the city: a few embassy staff members and Tae Kwon Do masters and others. There was no Korean church there, so Koreans went to a British church for worship. At the beach called Thema there were 300 fishermen. I was planning to go to Nigeria after I visited Thema to talk to some Korean people the next day as I was going to lead worship service a few times at a Korean person's home that day. My plan was to visit Nigeria, and then Gabon, and then back to Nigeria, and then Kenya. But the people at the consulate told me that they are all from those countries and tried to persuade me not to go to Nigeria. Those who were business leaders from Nigeria asked me, "Do you have to go to Nigeria necessarily?" I said, "Well, I came here to visit Nigeria as the destination for my mission trip. That's why." But they said, "Pastor, you better not go to Nigeria. Out of 100 people, 90 of them suffer an unexpected hardship. You could get your bag stolen or you may even lose you life." They insisted that I should not go. They told me another

타면 가다가 일부러 시동을 꺼뜨려 놓고 뒤에서 밀라고 해서 밀면 그냥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가 사람을 쳐 죽여도 경관이 그것을 돌보지 않고 그냥 시체가 가루가 되어 없어질 때까지 차가 그 시체 위를 왔다갔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목사님, 안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렸습니다. 그렇게까지 말리는데 갔다가 봉변을 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귀한 성경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상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마게도냐로 오라는 환상을 보고 그리로 갔던 것처럼 저도 아이보리 코스트를 통해서 가봉에 가서 거기서 케냐로 들어가라는 그들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7시에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11시가 되도록 비행기가 안 옵니다. 11시가 넘으니까 혁명이 일어난 나라인지라 새카만 사람들이 총을 메고 권총을 차고 다니는데 무척 긴장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11시에 비행기에 올라탔더니 사람들이 꽉 차서 덥고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영사님이 말하기를 이 아이보리 코스트는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공산국가가 아니고 친미 국가니까 비자가 없더라도 그저 하루나 이틀이면 통관비자를 얻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 관리가 절 딱 붙잡더니 공항지소로 끌고 가서 조사하더니 '당신은 못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사정을 하니까 경찰서장이 내일 나온다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합실에 가서 하루 자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거기서 성경이나 읽어야

story: A white businessman went there with $100. At the custom, the staff told him that since the amount is large, he had to wait for a while and took the money for investigation. The staff ran away with that money and never came back. If you take a taxi, the driver often turns off the ignition intentionally, and then asks the customer to push the car from behind. So the customer does, then the driver turns on the engine and run off with bags inside. And if a car runs over a person and kills him, policemen there ignore the accident and let the dead body be run over by cars over and over again until the body deteriorates to dust. They were telling me all these stories and told me all together, "Pastor, please do not go there." After hearing all these, I began to think, "What if I too get mugged?" It came to my mind, "What if I lose my precious Bible?" So I trusted what those business leaders were recommending me as the voice of the Holy Spirit, just as Paul went to Macedonia instead of Asia upon seeing the vision. So I decided to go through Ivory Coast to reach Gabon, and then to Kenya. I was waiting at the airport at 7 P.M. to catch the plan, but it didn't arrive there until 11 P.M. After 11 P.M., I began to be quite nervous, looking at those black soldiers possessing guns and machine guns on their shoulders.

Anyhow, I got on board at 11 P.M., but it was packed and hot and uncomfortable. The consul told me that Ivory Coast was a French colony, but it was not a communist country, but a pro-American country. So even if I don't have a visa to enter, I still could get a visa to enter if I waited for a day or two. But then the officer at the Exit and Enter Control Bureau got hold of me, and took me to a branch office and started an investigation and said, "You are not allowed to enter." I tried

겠다고 생각하고 사도행전을 펼쳐서 바울 사도가 전도하면서 고생하던 것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내일 새벽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잠을 자려고 봤더니 사람들이 몸에 이불 같은 것을 둘둘 감고 있었습니다. 모기에 물리지 말라고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아비장에 가기 전에 나이지리아에서 온 한 상사가 저에게, "목사님! 아비장은 백인의 무덤입니다. 거기 모기는 아주 셉니다. 일본대사 둘도 죽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동네가 그곳 모기 때문에 전멸했는데 그걸 기념해서 아직도 거기에 그 동네를 남겨 두었다고 합니다. 그저 가다가 머리가 지끈지끈하거든 병원에 가시는 것이 제일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니 자고 싶어도 모기 물리면 죽을 것만 같아서 잘 수도 없었습니다.

아침 8시에 경찰서장이 왔는데 마침 그곳에서 15년 동안 태권도를 가르쳐 온 김영태 사범에게 태권도를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잘 말해 주어 거기서 이틀을 쉬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22명 정도 있는데 교회는 없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 다시 가봉으로 가는데 이번엔 컨펌을 안 해서 비행기 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경찰서장에게 사정해서 비행기 출발 5분 전에 올라탔습니다. 가다가 공산국가 토고에서 쉬고 리비아 라고스에서도 쉬었다가 밤늦게 가봉에 가니까 가나에서 전화했기 때문에 영사관에서 믿는 식구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my best to explain the situation. He told me that the police chief would come here tomorrow morning and he needs permission from the chief. So he told me to go to a waiting hall to sleep over night. I had no options, so I went there and decided to read the Bible. I read again and again the portion in the Bible where it describes how much suffering Apostle Paul went through as he was on his missionary journey. I was about to sleep because I had to catch the plane the next morning, and when I looked around, I saw many people covered their bodies with blankets. I thought that it was to prevent from mosquito bites.

Before I went to Abidjan, I remembered what the business man from Nigeria told me, "Pastor! Abidjan is known as the cemetery of the white people. The mosquito is very potent there. Two of the Japanese ambassadors died there. A French village was destroyed due to the mosquito bites. The village is still there as a painful reminder. So if you stay there and feel a headache, then the best way is to go to a hospital." Knowing this information, I could not sleep at the airport even if I wanted to sleep there, because I might die if I sleep and get a mosquito bite.

At 8 A.M., the police chief came in, and he was a man who received a Tae Kwon Do instruction from the master, Kim Youngtae for 15 years. The chief arranged all so that I could stay there for two days. There were 22 Korean people living there. They had no church. So they had worship services at homes. After there, I went to Gabon. But they told me that since I didn't confirm there is no seat available for me. So I asked the chief once again, and he arranged it all. So I was able to get on board 5 minutes before the air plane departed. It had a stop over at Togo, a communist country, and then

거기에는 쌍용이니 대우니 하는 한국 기업이 있어서 그곳 직원과 가족 30여 명과 어부들 200여 명이 있었습니다. 대사님 내외 분이 침례교 집사님들인데, "목사님! 여태까지 이 나라에 오신 목사님은 목사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드릴 때는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프만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직접 오셨으니 부흥회를 하자고 했습니다. 케냐 가는 비행기는 돌아오는 토요일에나 있다고 해서 정말 계획 없이 새벽기도도 하고 낮공부, 저녁집회도 하고 정식으로 부흥회를 하고서는 대사관 신자들이 환송하는 가운데 비행기를 탔습니다. 중간에 카메룬이란 나라에서 쉬는데 얼마나 복잡한지……. 상당히 큰 도시이다보니 수속해서 비행기를 몇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하는데, 권총을 찬 새카만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옆에 있던 백인 여자 분이 가방 조심하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드디어 비행기를 타고 케냐에 가니까 주일날 아침에 우리 교회에 왔던 임 선교사님과 신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댁에 들어갔는데 야단들이었습니다. 한참 있다 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뱀 잡느라고 야단났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거기 아홉 달 있는 동안 뱀 일곱 마리가 들어와서 잡았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볼일 보고 에티오피아로 해서 로마로 빠질 줄 알았더니 에티오피아에서 로마로 가는 비행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천상 케냐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로마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another stop over at Lagos, Libya, and then finally arrived at Gabon in the late evening. Because I called from Ghana, there were Christian families from the Korean Consulate.

In that country they had Korean companies like Daewoo and Ssangyong. The staff and their family member were about 30 people and about 200 fishermen. The ambassador and his wife were the deacons in the Baptist church. He said to me, "Pastor! You are the first Korean pastor ever who visited this country." He said that they were listening to sermon tapes only during worship services. So he suggested me to lead special revival services. Because I had to wait for the flight to Kenya until next Saturday, I had sufficient time to lead the early daybreak services, Bible study during the day, evening worship services and official revival worship services. As the embassy families gave me a hearty send-off, I got on board. I had a stop over at a country called, Cameron. How complicated it was……! Since it was quite a large city, I had to wait for several hours for the transfer process. I saw some black soldiers having guns on their shoulders were walking around me. A white lady next to me gave me a warning that I should watch my bag.

Finally, I arrived in Kenya and I met the missionary, Lim and his church members welcomed me at the airport. I went to the missionary's home and they were making a big fuss about something. After a while, he came back and told me, "Pastor, it was quite something for us to catch a snake." He said that he caught seven snakes in his house since he moved in 9 months ago.

After I finished my work there, I thought I was going to Rome after I stopped at Ethiopia. But in Ethiopia they said that they told me that there was no flight heading to Rome.

거기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를 갔습니다. 그곳엔 한국 사람이 20여 명이 안 되는데 장로님 두 분이 있었습니다. 영사관과 장로님들이 저를 조그만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비행장에 내려서 보니까 마르크스, 엥겔스 사진이 붙어 있고 거리에 붉은 깃발이 흔들리는데 내가 모스크바에 왔는가 싶었습니다. 거리마다 엥겔스, 마르크스, 레닌 사진을 크게 붙여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혁명을 하면서 미국에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미국이 안 도와주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가 도와준다며 러시아 군인들 800명을 보내어 거기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2,500m 고지대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밤새 한숨도 못 자고 기침을 하는데 나중에는 너무 기침을 하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모기에 물려서 그런가 싶어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찾고 기도하였습니다. 생전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믿음이 작아서인지 성경 뒤에다가 유언을 네 마디 써 놓았습니다. 그리고 '맡깁니다' 하고 잤습니다.

이틀 있다가 떠날 그 나라는 바로 솔로몬에게 예물을 바치던 스바 여왕이 다스리던 나라입니다.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만 리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만 리가 넘는 길을 그 옛날 비행기도 없는데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왔다고 하니, 오늘 50마일, 70마일 밖에서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은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크레브라는 곳에 가니까 어떤 장로님은 2시간 반 걸려서 교회에 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이틀을 보내고 다시 저녁 때 비행기를 탔는데, 마침 만기 근무하고 떠나는 영사님과 같이 비행기에 타게

They told me that I had no option but to return to Kenya first and then head out to Rome from Kenya.

Thus I led worship services in Kenya that day and then went to Ethiopia. There were little less than 20 Korean people with two elders. The elders took me and the consular official to a small hotel. As I looked down the streets from the airport, I could see pictures of Marx and Engels. I also saw the streets filled with red flags. I felt that I was in Moscow. Every street had pictures of Engels, Marx and Lenin. It was because they did revolution and asked for an aid from the U.S. But the U.S. rejected the request. Instead Russia stepped in and helped by sending 800 troops to station there.

The city was sitting on a plateau at 2,500 meter higher than the sea level. I caught a cold and began coughing and I did it all night. After a while, I felt that my intestines were cutting off due to severe coughing all night. I had a terrible headache as well. I thought that I was bitten by mosquito, so I got up and started reading the Bible, seeking God and trusting him alone in my prayer. I was never sick like that before in my life. Maybe because of my little faith, I thought I might die that night. So I wrote on the back of my Bible my will in four words: "I trust you all." And then I slept.

The country that I was going to go to in two days was the country we know from the Bible from where the queen of Sheba came to offer treasures to King Solomon. They said that the distance between Ethiopia and Israel was over 4,000 km(or 2,500 miles). She had travelled over 4,000 km to come to Jerusalem to worship God, even though there was no private jet for her. So if you have to drive over 50 or 70 miles to come to our church, be comforted by this. I went to a place called Creve, and was told that there was an elder

되었습니다. 그분 말이,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지 오늘 날이 좋습니다. 여기는 고지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일기가 나쁘면 바람이 세고 비행기가 못 뜹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타고서는 케냐에 밤 9시쯤 도착했는데, 밤 12시에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로마로 빠져나왔습니다. 로마에 가니까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이 나와 계셨습니다. 선교사님 댁에 짐을 풀었는데 아무래도 몸이 이상했습니다. 거기 사는 지휘자 정명훈 씨 매부 되시는 구삼렬 집사가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의사를 모셔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약을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모님이 끓여 주시는 인삼차도 마시면서 차츰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로마는 우리가 도와주는 교회인데, 이번에 크레브라는 곳에 가니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한국과 전세계 가운데 음악을 제일 잘하는 교회가 어딘지 아느냐고 하면서 로마 교회가 음악을 제일 잘한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전부 음악을 전공하는 유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대중예배 때도 성가가 웅장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교회가 칭찬을 들으니 아주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존경 받는 아주 좋은 분이신데, 나폴리에 가서도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를 추천해 주면 돕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집회를 마치고 밀라노 교회에 갔는데 밀라노 교회는 좀 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박 목사님과 신학교를 나온 사모님도 열심이었습니다. 거기서 집회를 마치고 독일에 가서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독교회 초교파 교회에서 사흘

who drives 2 and a half hour to come to church on Sunday for worship services. How wonderful and thankful it is!

I spent two days in Ethiopia and got on board at night. I happened to be in the same plane with a consul whose term was over there. He said, "We have a wonderful day because we have a special pastor like you. Since the city is located on a high ground, if the weather is bad and windy, then air planes can't take off." So we travelled together and arrived in Kenya around 9 P.M. in the evening. The next flight that I had to switch over was departing at midnight. So we rested a couple of hours and came back out to travel to Rome. When I came to Rome, there was a missionary welcoming me, whom we support at our church. I went to the missionary's home and unpacked my luggage there, but I felt I was sick somewhere. There was a deacon, Gu Samyeol, who is the brother-in-law of the conductor Jung Myunghoon. I didn't tell him about me, but he sent for a doctor and brought him in to check on me and prescribed for me. So I took some medicine. I drank some of the honey tea that his wife fixed for me. I began to feel better gradually.

The church in Rome is the church we support. I went to a place called, Creve, and I met a pastor there who told me that the church in Rome is the best church in terms of music in Korea and in the whole world. It's because the church in Rome is full of music students studying abroad, and their choir and hymn singing is just awesome. I was very happy to hear that the church we support gets praise from others. The pastor at the church was respected by many people, and he goes to Napoli to evangelize. But he told me that he is willing to help a church if I recommend him a church in Africa.

동안 집회를 마치고 하이젤 슬라우슨이라는 우리 교회가 지원하던 교회에 가서 하루 저녁 집회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돕던 마하나임 교회가 이제 자립을 했습니다. 거기서 집회를 마친 다음에 프랑스에 가서 이틀 동안 집회에 참석하고 영국으로 건너갔다가 지난 14일날 여기 LA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지요, 둘째는 빈곤이요, 셋째는 독재요, 넷째는 좌경입니다.

아프리카는 일반적으로 90퍼센트가 문맹입니다. 물론 박사도 있고 쟁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고관집 자제들입니다. 그러나 90퍼센트는 문맹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한 스무 살쯤 되었다는데 쉰 살도 넘어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열세 살만 되면 결혼합니다. 스무 살만 되면 아이들을 4~5명 데리고 있는데,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다 각각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저 다니다 만나서 마음에 들면 자연스럽게 살고 헤어지고, 또 그 다음에 어떤 남자가 동네에 예쁜 여자가 있으면 그 집에 창을 꽂아놓는다고 합니다. 그 여자 남편이 밖에 나갔다 돌아왔을 때 집에 창이 꽂혀 있으면 그 집에 절대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창이 빠져야 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무지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빈곤입니다. 잘사는 사람은 거기서도 잘살지만 도

I finished leading a worship service there, and then went to Milan. The church in Milan was struggling a bit. But the pastor Park and his wife who also studied and graduated from a seminary were working very hard. I led a worship service there, and then went to Frankfurt in Germany and visited a Korean-German inter-denominational church for a three-day worship revival services. After that, I visited a church in Heizel Slausen that we used to support in the past, and led a worship service there in the evening.

The church we used to support, Mahaneim church now became independent. I led a service there too, and then went to France and stayed there and attended a conference for two days there, and then flew over to England again, and then finally I came back to LA last on the 14th.

There are four things I felt and learned through my mission trip to Africa.

First, illiteracy. Secondly, poverty. Thirdly, dictatorship. Lastly, an inclination to the Left.

In general, the level of illiteracy reaches 90%. Of course, there are those with doctoral degrees. There are those who are famous in world. Most of them, however, are the children of high class families. Yet, the illiteracy level is 90%. A certain man came to see a doctor. He looked around 50 years old, although he said he was 20. They get married when they become 13. When they become 20 years old, they would have 4~5 children already. But each child has a different father. But each child does not know who their father is. They just walk around and meet someone they like, then they start living together and then leave. If there is a pretty woman in the village, a man might come to her house and stick his spear at the window. When her husband returns

심에서 벗어나면 전부 변소 같은 곳에서 삽니다. 전화가 있습니까, 라디오가 있습니까, 수도가 있습니까, 전깃불이 있습니까? 에티오피아에 있을 때 일부러 촌에 나가 봤는데, 조그만 집에 들어가 보니, 거기 사람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닭도 자고 송아지도 자고 다 같이 잡니다. 중국에 두 번 갔다가 제가 두 번 다 울었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에 비하면 중국은 아주 부자입니다.

세 번째는 독재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당이 하나입니다. 가봉 같은 나라는 지금 한 사람이 18년 동안 독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는 불과 100만 명이 조금 넘고, 군인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장성이 수십 명이고 장관이 35~40명씩 됩니다. 나눠 먹기 식입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잘삽니다. 고급 서양 자동차를 열 대씩 가지고 있고, 월급을 몇 만 불씩 받고, 여자도 몇 명씩, 종들도 몇 명씩이나 두고, 너무너무 잘삽니다. 외국에 별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형편없습니다. 독재에 빈부격차가 크다 보니 온통 공산주의가 쑤시고 다녀서 전부 좌경입니다. 리비아, 토고, 탄자니아, 우간다, 에티오피아, 가나가 전부 공산주의입니다. 지금 남은 나라도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을 구제할 수 있습니까? 정치, 과학, 철학으로 구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물에 빠진 사람들에게 썩은 새끼줄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home from work to find a spear on the window, he should never enter his house. He may enter into his house the next day when the spear disappears. They don't even know that is sin. It's all because of ignorance.

Secondly, poverty issue. The rich people live well off. But once you get out of a city, everybody lives in huts. Phone? Radio? Running water? Electricity? When I went to Ethiopia, I intentionally visited a country side village. I went into a small house to find a man sleeping there.

But I also found chickens and cows and all were sleeping in the same room. I went to China twice and I cried on both occasions. But compared to Ethiopia, China is a rich country.

The third issue was dictatorship. Most of the countries in Africa have only one political party. A country like Gabon has been ruled by a single man for 18 years. Their population is little over 1 million people and they have small army. But they have several scores of generals and 35~40 Cabinet ministers. It's all about sharing the piece of power and wealth. They have extreme wealth. They have 10 Western luxurious cars with them. Their pay is over several ten thousand dollars. They have several wives, scores of servants and enjoy luxury life. They have their villas in different countries. But the rest of the population is mostly poor. Because those countries have been under dictatorship and suffer with poverty, communism is rampant and everyone is leaning toward the left. Libya, Togo, Tanzania, Uganda, Ethiopia, Ghana and all are communist countries. The other remaining countries are struggling as well.

If so, then how can we help these countries? Can we save them with politics, science or philosophy? If we do it that way, it's as if we throw a rotten rope to a drowning man.

무지는 복음으로만 깨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과거 무지했지만 복음이 들어가서 빛을 본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흑인이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한 백인이 "여보시오. 그건 옛날 책이오. 읽지 마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흑인이 대답하기를 "내가 이 책을 읽지 않았으면 당신은 지금 내 뱃속에 있을 것이오"라고 했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빈곤을 타파해야 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게으릅니다. 그저 자연의 혜택으로 땅에서 감자 같은 것을 캐 먹고, 바나나를 먹고, 강에 가면 생선을 잡아 먹고, 날이 더우니 옷도 필요 없고……그렇게 사는 겁니다. 일을 안 합니다. 봉급을 받은 다음 날에는 그 돈 쓰느라고 회사에 안 나온답니다. 예수 믿는 청년 하나를 봤는데 목수 노릇하면서 늦게나마 장가도 가고 헌금도 하고 남도 돕는 것을 보면서 복음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독재도 복음이 들어가야 해결됩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말한 것처럼 복음이 들어가야 민주주의가 바로 섭니다.

마지막으로, 좌경을 방지하는 길 역시 기독교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프리카를 구원하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게도냐 사

Those things cannot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 Only the gospel can solve the problem.

The gospel can enlighten the ignorant. Our nation, Korea, was once a country with ignorance. But the gospel brought light into our nation. A black man was reading a Bible. A white man was passing by and said, "Don't read the book, because it is outdated." But the black man answered, "If I hadn't read this book, you would have been in my stomach." It shows that the Bible turned him to be a civilized man.

The next thing that needs to be done is to deal with the poverty. They are lazy. Due to the richness of the land, they simply dig up potatoes, pick bananas, and catch fish in the river. They don't have to wear clothes because the weather is hot there……. That's how they live there. They don't have to work. If they get paid one day, then they don't show up at work the next day. It's because they were spending their money that day. I felt the great difference between a Christian and non-Christian, because I saw a Christian man. He worked as a carpenter. He got married although it was a little bit later than usual. But he attended a church and gave offering to the church and helped other people. The gospel made a difference in his life.

And the dictatorship can be solved by the gospel also. Abraham Lincoln left the famous phras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When the gospel enters a country, there follows democracy.

Lastly, Christianity is the only way to prevent communism. Therefore, the only way to save Africa is through the gospel.

Acts 16:9 says, "During the night Paul had a vision of a man of Macedonia standing and begging him, 'Come over to Macedonia and help us.'"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람의 부르짖음이라기보다 오늘날 어려움에 처한 전세계 모든 사람들의 부르짖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를 위해서 도와달라는 이 말에는 첫째로, '동양선교 교회는 많은 나라 사람들을 도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쌍한 영혼과 나라를 돕는 것이 당신들의 기쁨인 줄 알고 시대적인 요구라고 믿습니다. 우리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과 같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로만 돕지 마시고 와서 도와주십시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물을 양성해서 보내야 합니다. 이번에 아프리카에 가 보니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지에서 온 많은 선교사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벌써 10년, 30년째 일해 오고 있었습니다. 고개가 숙여집니다. 한국 사람은 케냐에 한 사람 있고, 나이지리아에 한 사람 등 불과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백인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곳 사람들을 착취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백인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그들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장사는 잘합니다. 돈은 잘 벌어들입니다. 그러나 이 검은 대륙에 몇 사람이나 들어가서 헌신적으로 일하느냐 했을 때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사를 양성해서 젊은 사람들을 보내야겠습니다. 혹시라도 선교사를 보내지 못한다면 현지의 목사들을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 문제는 영토 문제요, 영토 문제는 국제 문제요, 국제 문제는 인간 문제요, 인간 문제는 교육 문제요, 교육 문제는

that the voice from Macedonia is the voice of everyone who are suffering in the whole world, rather than simply the voice of Macedonia alone.

When it says, 'come and help us', it means that "we know that the Oriental Mission Church has been helping many people in many nations in the past. We believe that it is your joy and duty of this age to help the poor souls and poor countries. We as well as other people in different countries need your help. Don't simply pray for us. But come and help us."

Then how can we help them? First, we have to pray. And then, we have to send gift men and women that we have trained. When I visited many places in Africa, I saw many people came from America, Germany and France to work there as missionaries. They have been working there for over 10 or 30 years already. I was humbled. There was only one Korean in Kenya and one in Nigeria. We have only handful of people in Africa. People said that the white people exploited Africa in the past. But when I saw also those white people serving the countries with dedication, I had to reevaluate them. We Korean people are good at business. We make money very well. But when they talk about how many Korean people went to Africa and served them with dedication, I am humiliated. Therefore, we have to pray. We have to train our young people to be missionaries to be sent to Africa. If we can't send missionaries, then at least we have to support the local pastors there in Africa.

The economic problem is a territory problem, which is an international problem, which is a human problem, which is an education problem, which is religious problem, which is a gospel issue. The gospel can solve the fundamental issue.

종교 문제요, 종교 문제는 복음 문제입니다. 복음이 근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인간 개조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우리가 정말 도울 곳은 여기 아프리카구나, 인도보다 더 불쌍하고 중국과 비교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교 대열에 조금 더 보태시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선교에 마음이 있었지만 동참을 못하셨다면 한 달에 1불도 좋습니다. 3불도 좋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여러분들이 일을 시작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 규모라든지 교인 수 등 모든 면에서 떨어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일, 세계 선교하는 일에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선교의 대열에 앞장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Human transformation must occur.

As I retuned home from my mission trip to Africa, I felt that Africa is the target of our support, more than India and China, for they are poorer than anywhere else. Therefore, please participate and give more in our mission task. If you had inclination to help in the past, but couldn't really help until now, even $1 a month is fine. $3 is fine too.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is your heart. Where you start working, there is the joy of God. It's all right with me even if the size of our church building or the number of our members is less than other churches. But I hope and pray that we would be at the top in terms of spreading the gospel and of your participation in the work of world missions.

모이고 배우고 흩어지자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금년도 우리 교회 방침은 배가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42절, 이 한 구절 속에서 금년도 배가운동의 방법이 단편적이나마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해, 우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전과 가정에 '모였고', 둘째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즉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며, 셋째는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즉 모여서 배우고 난 다음에는 흩어져 전도했다는 내용이 이 한 구절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모이고 배우고 흩어지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Let's Gather, Learn, and Spread out

Acts 5:42

Day after day, in the temple courts and from house to house, they never stopped teaching and proclaiming the good news that Jesus is the Christ.

The goal of our church this year is to double our membership. I announce specific plans to achieve our goal. The text we read today contains ways to double our members in a nutshell. "Day after day, in the temple courts and from house to house, they never stopped teaching and proclaiming the good news that Jesus is the Christ." In other words, the Christians in the early church in Jerusalem 'met' in the temple and in the homes. Secondly, 'teaching······that Jesus is the Christ,' that is, they taught God's Word when they gathered. Thirdly, 'they never stopped······proclaiming,' that is, they gathered, learned, and then spread out to evangelize. These are all contained in the text. I would like to share God's grace with you today through my sermon titled, 'Let's gather, learn, and spread out.'

첫째, 모여야 합니다

물방울은 모여야 바다를 이룹니다. 돌은 모여야 성을 쌓습니다. 모이면 위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몇 해 전에 교회에서 여름에 야외 친목회를 갔을 때 긴 동아줄을 가지고 어른 열 사람으로 된 팀과 나머지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 한 50명이 두 패로 나누어 줄다리기를 해봤습니다. 조그만 어린아이들은 어른 열 사람이 힘을 주어서 잡아당기면 힘을 못 쓰고 질질 끌려올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린아이들 50명이 마음을 합하고 소리에 맞추어 줄을 당기자 어른들이 질질 끌려갔습니다. 두 번, 세 번 해봐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린아이들일지라도 뭉치면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종이 한 장은 지극히 약합니다. 누구나 찢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백 장을 한번에 찢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했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했으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첫 번째 비결이 모이기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전부가 모였습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모인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날이, 즉 말세가 가까워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기

First, we have to gather

The ocean consists of one drop of water after another. A fortress is made up of one stone after another. When we gather, we can exert great power.

A few years ago, we had a tug of war during the summer outdoor fellowship time, having ten adults on one side and fifty elementary school children on the other side. Everybody thought that the ten adults would easily win the tug of war, dragging the fifty school children. But the result was the opposite. When those 50 children shouted together and began pulling, the adults were all dragged to the children's side. We tried it twice and a third time, but the result was the same. All realized that when people pull energy together, even if that is children's case, they can exert great power. A thin paper is very easy to tear. Anyone can tear it. But no one can tear 100 papers at once. When we pull together, we can exert great power.

Acts 2:44 says, "All the believers were together……." Acts 2:46 says, "Every day they continued to meet together in the temple courts. Hebrews 10:25 says, "……and all the more as you see the Day approaching."

The early church in Jerusalem experienced a great revival. The first secret they had was that they were good at gathering. All the believers were gathered. All gathered. Not just some, but everybody gathered. This is important.

Also they worked hard to meet in the temple courts. The Bible teaches that as we see the Day approaching, we need to meet with one another.

The Christians in the first 300 years of church history received unspeakable persecutions. They were ostracized in

독교 초대 300년 동안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직장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무서운 고문을 했습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을 죽였습니다. 굶주린 짐승들에게 던져 짐승들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목을 베어 죽이고, 토막을 내서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화형을 시키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쇠기둥에 묶어 농락하고, 기름을 뿌려 죽었습니다. 이러한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집에서 모였습니다.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지하실에서, 성 밖에서, 골짜기에서, 산속에서 모였습니다. 로마 성 밖에는 지하에 몇 십 리나 되는 굴을 파 놓고 시체를 쌓아 둔 카타콤이라는 무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로마의 핍박을 받던 신자들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으니까 깊은 지하 속 무덤인 카타콤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장소가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면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고, 새로운 신앙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좋은 차가 있습니다. 아무리 멀다 하지만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영혼들을 건지려면 모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한 사람의 귀한 영혼을 건질 수 있습니다.

옛날 어느 겨울, 한국 농촌의 자그마한 교회에 어느 여신자 한 사람이 세 번이나 주일 예배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심방을 갔습니다. 목사님이 심방을 오니까 바느질하던

their society simply because they believed in Jesus. They could not continue to work at their jobs. They could not continue their business. Christians were caught and put into jail and were tortured. They were killed in brutal manners. They were thrown to wild animals as prey. They lost their neck. They were sliced with swords. They were sawed. They were burned. They died on the cross. They were tied to iron poles and were ridiculed and burned in oil. In spite of severe persecutions, they tried their best to meet together.

They met quietly in homes, in upper rooms, in the basement, outside the fortress, in the valleys, and in the mountains. There is a tomb area called Catacomb just outside the city limit of Rome now, in which miles of long tunnels were dug underground, and piles of corpse are found in the caves. In the early church period the Christians didn't have freedom to worship, so they went down deep in the Catacomb cemetery to worship in safety. If you go there, you can't help but to be moved to tears. I saw many Christians making new decisions of faith. Today we as Christians enjoy the freedom of religion. You enjoy nice cars. You don't have a problem to drive to church in spite of long distance. But in order for us to have our spirit touched, for our church to revive, for us to bring people to God, we have to gather. That's the only way we can bring them to salvation.

There is this story about a Christian woman living in countryside of Korea long ago. It was winter season. She missed Sunday services three times. So the pastor made a visit to her. She was doing her needlework when the pastor came to her home.

She stopped her work and greeted her pastor, "Pastor, how

그 여인이 바느질을 중단하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왜 주일을 세 번이나 빠졌느냐' 고 하지도 않고 여인의 근처에 있던 화로에서 숯을 꺼내 화로 위에 얹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 여인이 '목사님! 어린아이도 아닌데 불장난하시나. 오늘밤에 오줌 싸시면 어쩌려고……'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고는 뒤돌아서 인사도 안 하고 나갑니다. 가시는 목사님의 등 뒤에 대고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해도 대답도 없더랍니다. 그 여인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와 바느질을 하려고 보니까 화로의 불이 다 꺼지고 바느질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 여인은 '아, 숯불도 모여야 불이 쉽게 꺼지지 않는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부터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모여서 교회 부흥에 함께하였다고 합니다. 초대 교인들이 힘써 모이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전도가 되고 교회가 부흥된 줄 믿습니다.

둘째, 배워야 합니다

배운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할 일입니다. 배움의 바다는 끝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배움은 인문과학이나 자연과학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는,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

are you?" But the pastor didn't say anything. He didn't even say, "Why did you miss the church three times?" He simply took some charcoal and put them on a charcoal burner. She thought in her mind, 'Pastor! You are not a child anymore. If you play with fire, then you might wet your blanket tonight.' But the pastor suddenly left her without even saying goodbye. She said goodbye to him, but he didn't answer anything. She thought of the whole incident very strange, but she came back to her room to start her needlework again, but she couldn't because there was no more heat on the burner anymore. She then realized, 'Oh, fire may last lone only if the charcoals are put together.' So she started coming to church faithfully from the next Sunday and participated in the revival of her church. I believe that the Christians in the early church received God's grace, and saw their evangelism worked and their church grew by endeavoring to gather together.

Secondly, we have to learn

Learning is something we have to do until we die. There is no bottom in the Sea of learning. The learning I am talking about is not about study on humanity or natural science. I am saying that when Christians gather together they have to study God's Word, sweet and profound Word of God.

Acts 2:42 says,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Acts 11:26 says, "So for a whole year Barnabas and Saul met with the church and taught great numbers of people."

This verse describes that Barnabas and Paul, the biblical scholars, taught the Bible at the church in Antioch, and the Christians had learned the Scripture with concentration for

경학자인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신자들이 집중적으로 1년 동안 성경을 배웠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 가서 이레 동안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먹이고 가르쳐 주려고 밤중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밤중까지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2년 동안 있을 때 많은 신자들이 바울에게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은 신자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루 종일 배웠습니다. 밤중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능력을 얻어서 혹독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망하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

one year. The disciples were called Christians first in Antioch.

Acts 20:7 says,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we came together to break bread. Paul spoke to the people and, because he intended to leave the next day, kept on talking until midnight." Apostle Paul went to Troas and stayed there for seven days as he taught the Bible. Because he wanted to feed them with more Word of God, he kept on teaching God's Word until midnight. In other words, they learned it until midnight.

Acts 28:23 says, "They arranged to meet Paul on a certain day, and came in even larger numbers to the place where he was staying. From morning till evening he explained and declared to them the kingdom of God and tried to convince them about Jesus from the Law of Moses and from the Prophets." While apostle Paul was staying in Rome for two years, many Christians came and visited him. The reason the early church was revived was they sought God's Word, gathered together and learned God's Word. They learned all day long. They learned until midnight. They became passionate as a result. They were able to keep their faith and persevere severe persecutions by gaining the heart to love souls and power.

Luke 24:32 says, "They asked each other, 'Were not our hearts burning within us while he talked with us on the road and opened the Scriptures to us?'" Jesus appeared to two disciples who were going down with disappointment to Emmaus, and began to teach them God's Word. That's when their hearts started burning, and they turned around from going down to Emmaus to Jerusalem, and received the Holy Spirit there.

경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 그들은 엠마오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 다락방으로 돌아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했습니다. 로마 고넬료의 가정이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한국에 최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른 때는 1907년도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의 오순절입니다. 평양에서 여러 사람들이 사경회를 할 때였습니다. 부흥회가 아닙니다. 은사집회가 아닙니다. 사경회! 성경말씀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때 아침, 낮, 밤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 불이 전국에서 타올랐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배우다가 일어난 놀라운 역사적 사건입니다. 저는 1947년 9월 서울신학교 대강당에서 일주일 동안 김응조 목사님께서 강의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즘에도 많은 성경공부가 있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이단사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성령의 능력을 얻습니다.

웨슬리가 말하기를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죄와 마귀는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Acts 10:44 says, "While Peter was still speaking these words, the Holy Spirit came on all who heard the message." It shows us that the Roman centurion Cornelius received the Holy Spirit when he invited Peter to teach him about God's Word.

Jeremiah 23:29 says, "'Is not my word like fire', declares the LORD, 'and like a hammer that breaks a rock in pieces?'" That is right. God's Word is like fire.

The best year of church growth and revival in Korean church history was 1907. It was the Korean church's Pentecost. May people gathered in Pyeongyang for an assembly. It was not revival meeting. It was not special conference. It was an assembly to learn God's Word. They learned God's Word only. The fire of the Holy Spirit came upon them during the morning, midday, and evening. The fire burned the whole country. It was an amazing event while they were learning God's Word. My heart was burning when I was learning God's Word in 1947 when Rev. Kim, Eungjo was teaching the Bible for one week at the auditorium of Seoul seminary. I had repented of my sins. I was born again. I experienced the Holy Spirit coming into my heart. I received God's grace by learning God's Word. There are many Bible studies these days as well. You can see who you are when you learn God's Word. You can identify clearly what the cults are all about. You can receive the power of the Spirit when you learn God's Word.

Wesley said, "To be filled with God's Word is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We can win victory against sin and Satan only through God's Word. I believe that you can live a faithful Christian life by learning God's Word. Christianity is

올바른 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특별히 개신교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특심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의 잎사귀가 푸른 것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물을 빨아 올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신구약 성경이라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고 지탱해야 합니다.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셋째, 흩어져야 합니다

훈련소에 들어간 훈련병들이 소정의 훈련기간을 마치면 훈련소의 문을 나와 사방으로 흩어져 갑니다. 새로 보직받은 임지로 흩어져 갑니다. 보다 나은 사명완수를 위해 흩어집니다. 공부를 마치고 졸업장을 받고 나가 흩어져 활동하는 것처럼, 자녀가 커서 공부를 마치고 결혼을 하여 나가서 흩어져 사는 것처럼, 성도들이 모여서 배운 다음에는 흩어져 나가야 합니다. 흩어진다는 것은 파탄이나 자멸이 아니라 부흥과 발전과 확장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핍박을 피해 흩어진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거리에서 전하고,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전하고, 바울은 소아시아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가서 전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왔다가 집으로만 가지 말고 흩어져야 합니다. 인도에 들어가서 수많은

a religion of the Word. Especially, the Protestants pour their hearts on the proclamation and teaching of God's Word. The tree by the streams of water can produce green leaves. It's because the tree by the stream takes down roots and sucks up water from the stream. We have to keep our roots deep in the Word of God, that is, the Old and the New Testaments. Please gather together and endeavor to learn God's Word.

Thirdly, we have to spread out

The recruits having finished their training at an army training camp for recruits leave the camp and spread out to their own stations that they are newly assigned. They spread out to carry out their tasks. Just as they finish their studies, receive their diplomas, get married and go out to society, Christians, having gathered and learned, have to spread out. Spreading out does not mean failure or self-destruction, but revival, growth and expansion.

James 1:1 says, "To the twelve tribes scattered among the nations: Greetings." The Christians who had scattered out, escaping from persecutions, had built synagogues, taught the Scripture, worshiped and evangelized. The early Christians, having received God's grace, had scattered out. Philip went to Samaria to evangelize; Paul to Asia Minor, and Priscilla and Aquila to Rome. We also have to spread out after Sunday worship services, instead of going back home. William Carey who had saved so many people in India also the one who had been sent out from the church of England.

Hudson Taylor, who had saved so many people by going to the interior in China, was also the person who had spread out from the church in England. Livingstone, who had

사람을 전도한 윌리엄 캐리도 영국 교회에서 흩어져 나온 사람입니다. 중국 오지에 들어가서 수백 명의 영혼을 건진 허드슨 테일러 또한 영국 교회에서 흩어져 나온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들어가서 정글을 뚫고 횡단하며 복음을 전한 리빙스턴 또한 영국 교회에서 흩어져 나온 인물입니다. 한국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도 영국 교회에서 흩어져 나온 사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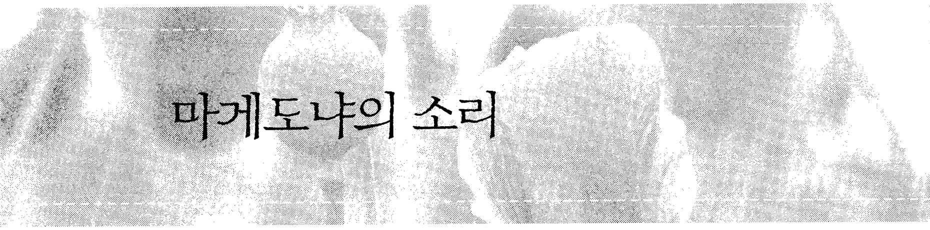
이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이고 배우고 흩어집시다. 들었으면 실천을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해야 합니다. 영혼과 내세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진지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passed the gospel message to the people in Africa by going through a jungle region, was also a man who had spread out from the church in England. The missionary, Thomas, who was martyred in Korea was also a man who had spread out from the church in England.

Now what should we do? It is to spread the gospel.

Let's gather, learn and spread out. If you have heard of something, you have to put it into practice. You have to start now. We as a people who believe in the existence of soul and heaven have to gather in Christ. We have to learn God's Word. We have to learn it with seriousness. And the finally we have to spread out to spread the gospel. I believe that's the way to expand God's Kingdom.



마게도냐의 소리

사도행전 16장 6~10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여행 때에 자기가 1차 여행을 갔던 소아시아에 다시 한 번 가서 좀 더 복음을 전하고 굳건히 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밤중에 유럽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는 환상을 본 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소아시아로 가던 길을 바꾸어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거기서 자주 장사와 그곳의 성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함으로 빌립보 교회가 설립됩니다. 그 교회가 유럽 최초의 교회이고, 이 복음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아덴으로, 고린도로 퍼져 갔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나온 복음이 돌고 돌아서 한국 땅까지 오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을 성경 본

The Voice from Macedonia

Acts 16:6~10

Paul and his companions traveled throughout the region of Phrygia and Galatia, having been kept by the Holy Spirit from preaching the word in the province of Asia. When they came to the border of Mysia, they tried to enter Bithynia, but the Spirit of Jesus would not allow them to. So they passed by Mysia and went down to Troas. During the night Paul had a vision of a man of Macedonia standing and begging him, "Come over to Macedonia and help us." After Paul had seen the vision, we got ready at once to leave for Macedonia, concluding that God had called us to preach the gospel to them.

For his second missionary journey Apostle Paul wanted to visit Asia where he visited during his first missionary journey in order to strengthen their faith and spread the gospel in a deeper level, but God prevented him from doing so. Paul saw a vision of a man of Macedonia in Europe begging him, "Come over to Macedonia and help us." So he turned his course from Asia to Macedonia. He established a church in Philippi by meeting Lydia, a dealer in purple cloth, and others whom he spread the gospel. The church became the first church in Europe. The gospel spread from the church in Philippi to Athens, and to Corinth. The gospel that came out of Philippi came all the way to Korea, and then

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마게도냐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지구촌에는 약 30억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라고 선교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30억 중에 10억은 우리 성도들과 섞여 있는 사람들이고, 20억은 문화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30억의 영혼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인구 증가율로 볼 때 예수님 탄생 당시 세계 인구는 2억 5천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는 5억으로 불어났습니다. 1793년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선교하러 갈 때 인구는 또 배로 늘어 약 10억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1910년 에딘버러 선교대회 때는 20억이 되었습니다. 그 후 세계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것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전도해야 할 나라가 크게 다섯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10억 명, 인도에 7억 명, 러시아 2억 7천만 명, 인도네시아 1억 5천 명, 일본이 1억 2천 명입니다.

그런데 선교학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는 원터 박사는 10억 가량의 그리스도인들이 30억 가량의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30억의 불신자 가운데 10억 가량은 우리 믿는 신자들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20억은 신자들과는 멀리 떨어져 사는

you and I received salvation. That's what we find out from the Bible.

We still have to be able to hear the voice from Macedonia. Scholars on missiology say that there are 3 billion people on earth who have not received salvation yet. They say that out of these 3 billion people, 1 billion people lived among the Christians. The other 2 billion people live far away from us both in culture and in distance. We have to be able to hear the voice of these 3 billion people who calls us, "Come and help us."

Considering the population growth, the world population in Jesus' day was about 250 million people. By 1517 when Martin Luther started the Reformation, the world population grew to be 500 million. By 1793 when William Carey went to India for mission work, the population doubled to be 1 billion people. By 1910 when they had the world mission conference in Edinburgh, it became 2 billion. After that period, the world population grew continually. Inviting these many people to the gospel of salvation is for us not to turn down the voice of the invitation from people in Macedonia who ask us to come and help them. Apart from the United Sates, there are five countries that need the gospel messages more urgently than anything else. There are 1 billion people living in China; 700 million people in India; 270 million in Russia; 150 million in Indonesia and 120 million in Japan.

Dr. Winter who has continued to study missiology says that the 1 billion Christians have duty to evangelize 3 billion non-Christians. As I mentioned earlier, out of 3 billion, 1 billion people live among the Christians. The remaining 2 billion people live far away from the Christians.

They suggest three ways in order to evangelize 3 billion

사람들입니다. 이 30억을 어떻게 하면 선교할 수 있는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10억 신자 가운데는 아주 잘 믿고 거듭난 신자가 있는가 하면 거듭나지 아니한 명목상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명목상 신자를 거듭난 신자로 만드는 것이 30억 불신자를 선교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믿는 10억의 신자들이 믿지 않는 10억의 사람들에게 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감동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20억의 불신자는 믿는 사람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 문화가 다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30억 불신자를 구원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타 문화 종교권에 사는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윈터 박사는 선교전략을 폈는데, 먼저 미복음화된 인구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유럽과 남미와 뉴질랜드와 호주에 1억 1천만이 살고, 미국과 캐나다에 1천2백만이 살고, 불교 문화권에 2억 5천 5백만이 살고, 중국 문화권에 9억 5천만이 살고, 힌두교 문화권에 5억 3천7백만이 살고, 회교 문화권에는 7억 3천3백만이 살고, 부족 문화권에는 1억 3천5백만이 살고, 아프리카에는 2천4백만이 살고, 아시아에는 1억 2천만이 살고 기타 지역을 합쳐 30억의 믿지 않는 자들이 분포되어 있다고 윈터 박사는 분석해서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30억 인구를 부족으로 나누어 보면 상당히 많은 부족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 특별한 단일민족입니다만 미국만 하더라도 200이 넘는 부족이 모여서 섞여 살고 있습니다. 중국은 51개 부족이 섞여 삽니다. 이 30억의 인구를 부족

people.

Out of 1 billion Christians there are two kinds: born again Christians and nominal Christians. The first task is to turn the nominal Christians to be born again Christians. Second task is for the 1 billion Christians to show true Christian love to 1 billion non-Christians so that they can believe in Jesus. For the remaining 2 billion people, Christians need to spread the gospel beyond borders and culture. This is the third way to evangelize 3 billion people.

Dr. Winter set a mission strategy in order to evangelize non-Christians living in different cultures. He first subdivided the non-Christian population: There are 110 million non-Christians living in Europe, South America and New Zeeland, 12 million in America and Canada, 255 million living in Buddhist culture, 950 million in Chinese culture, 537 million in Hindu culture, 733 million people in Muslim culture, 135 million in Tribal culture, 24 million in Africa, 120 million in Asia. The total is 3 billion non-Christians living in the world. That's how Dr. Winter analyzed.

If you divide this 3 billion people into different ethnic groups, then there would be many subdivisions. We Korean people are of one ethnic group, but in America there are more than 200 ethnic groups living together. There are 51 ethnic groups living in China.

There are 300 ethnic groups in Europe, 200 in the North America, 1,000 in Buddhist culture, 2,000 in China, 3000 in Hindu culture, 4,000 in the Muslim culture, 5,000 ethnic groups in the Tribal culture, 800 in Africa, and 550 in Asia. Therefore in sum there are 16,750 ethnic groups living in the world with 3 billion populations. We have to spread the

별로 나눈 것을 보면, 유럽에는 300부족이 살고, 미국에만 200부족, 불교 문화권에는 1천 부족, 중국에는 2천 부족, 힌두교 문화권에는 3천 부족, 회교 문화권에는 4천 부족, 부족 문화권에는 5천 부족, 아프리카에는 800부족, 아시아에는 550부족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30억 인구 가운데 16,750부족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30억의 불신자들이 참으로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그너 교수는 이 30억 불신자들을 여섯 형태로 나누어 말합니다. 대단히 반갑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룹이 있고, 복음을 그저 받아들이는 집단, 무관심한 집단, 저항적인 집단, 매우 저항적인 집단, 보고되지 않은 집단이 그것입니다.

이제 마게도냐에서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달려가는 것이 믿는 자들이 가질 자세입니다. 이것이 이민교회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신앙으로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서약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번영을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확장을 약속하셨습니다.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세 가지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어디 가든지 번성하리라, 땅이 확장되리라, 축복을 받으리라. 이러한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가서도 번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도 점점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다윗의 혈통 가운데 복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가 태어나 번성의 축복, 땅의 축복, 축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으

gospel to these people. These 3 billion non-Christians are waiting for the gospel.

However, Professor Wagner divides 3 billion non-Christians into 6 categories: the group that welcomes the gospel with joy, the group that accepts the gospel without excitement, the group that has no interest in the gospel, the group that is resistant to the gospel, the group that is very strongly against the gospel, and the group that has not been reported.

The right attitude that we Christians should have is to listen to the voice from Macedonia and run to them to spread the gospel. This should be the attitude of the Christians in our immigrants' churches.

For that purpose we should look toward God with faith. God promised his blessings upon us when we pledge ourselves in faith. God promised the expansion of the land. God promised blessings. These three are what God promised to Israel through Abraham. You will prosper wherever you go, I will increase your land, and you will be blessed. All of these promises were realized. The Israelites were blessed even in the land of Egypt. In the day of King David they received the blessings of increased territory of their nation. And also they received the blessings of prosperity, increased territory, true blessings as Jesus was born in the line of David. Now today because we are the spiritual descendants of Abraham, we have to fulfill our promises of faith that we made before God.

Matthew 28:19 says,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This verse sums up what I suggested of three ways. When we hear the voice from

로 서약한 것을 행동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는 이 세 가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인의 소리를 듣는 이때에 그들을 찾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서 가르치고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성경만 가져다주어서는 안 된다. 라디오로는 부족하다. 가서 가르치고 훈련해서 세례를 주고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것, 그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저는 가끔 질문합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배우고 훈련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책임 있는 신자로서 선교 · 교육 · 봉사에 동참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교인들이 주일날 낮예배에 잠시 왔다가 갑니다. 그저 헌금만 하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직분만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제자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일하고, 선교 단체가 일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와 방법입니다. 궁극적으로 선교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선교 현장은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선교 현장은 전 세계로 넓어졌습니다.

"전 세계 선교 현장을 구석구석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교회가 부흥되어야 한다"라고 와그너 교수는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 부흥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와그너는 교회 부흥에

Macedonia, we have to go to them. Go and teach them and baptize them. And we have to make disciples. A certain scholar said, "Bringing the Bibles to them is not enough. Radio is not enough. The ultimate purpose of missions is to go, teach, train, baptize and make them to be the disciples of Jesus."

So I often ask this question: "What is your purpose of believing in Jesus?" I tell them the answer: By believing in Jesus, you want to come to the church, receive training and instruction to become the disciple of Jesus, and as a faithful follower you want to participate in the missions, education, service all your life until you stand before the Lord in heaven. But many Christians come to the church on Sunday for the main service only. Many of them give offerings, but that's all. Many of them receive positions at church. But not many people carry out the task of a disciple with faithfulness.

But the task of missions is truly carried out by God. Of course, missionaries and mission organizations work too, but they are merely the instruments of God. I believe that the one who carrys out the task of missions ultimately is God our Father.

The field of mission work in the Old Testament was limited to the nation of Israel. But in the New Testament period, it reaches the whole world. Professor Peter Wagner says, "The churches should thrive" in order to reach out to every corner of the world to spread the gospel. How can we experience the revival of the church? Wagner points out seven requirements necessary for the revival of the church: The vision of the pastor, the training of laypeople, the formation of the environment, the organization of functioning movement, the organization of small groups, the

필요한 요소 일곱 가지를 말합니다. 목회자의 꿈, 평신도 훈련, 환경 조성, 활동기능 조직, 소그룹 형성, 효과적인 방법 개발, 개인 구원 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회 부흥의 요소라고 말합니다.

와그너의 스승이자 '선교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맥가브런 박사는 교회가 부흥되려면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개인 부흥, 교회 부흥, 지교회 확장, 제3세계 선교입니다. 개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고,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은사를 개발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서 협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교회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본교회에서 여러 곳에 지교회를 세우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제3세계 선교는 이방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부흥이고 바람직한 교회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사명을 몇몇 나라에 맡기셨습니다. 대략 여덟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온 민족, 교회가 비약적으로 성장한 민족, 부름 받은 젊은이가 헌신한 민족, 기도운동이 강하게 일어나는 민족, 복음주의적 신앙을 가진 민족,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인정한 민족, 경제적 성장을 이룬 민족, 교육수준이 향상된 민족 등입니다.

이 여덟 가지를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 한국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해외에 나와 있는 여러 이민교회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독일로, 독일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이제는 아시아로 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아시아의

development of effective methods, and personal salvation. These are the necessary elements for the revival of the church.

The teacher of Wagner, so called, 'the father of missiology, Dr. McGavren pointed out that there are four elements necessary for the revival of the church: Personal revival, church revival, branch church's revival, the Third World missions. Personal revival refers to the state of mind that becomes passionate when reading the Bible. Church revival means all members of the church become united and cooperative with Christ as their center of life by developing their talents. Branch church's revival simply tells that a local church expands by establishing many branch churches in different locations. The last one, the Third World missions means to spread the gospel to the people living in different cultures and different world. These are the desirable images of the church and the meaning of the church revival.

God entrusted the duty of missions with a few nations in the world. Let me tell you what kind of nations they are in general terms: nations that experienced the strong wind of the Holy Spirit, nations that saw rapid growth of churches, nations that produced young people who had dedicated their lives upon God's calling, nations in which a strong prayer movement occurred, nations that have evangelistic faith, nations that recognized Christianity as their official religion, nations that accomplished economic growth, and nations that increased the level of education.

When you consider these eight criteria, it seems that Korea belongs to the category. Also the immigrant churches in overseas belong to this category. The gospel has moved from Jerusalem to Rome, from Rome to Germany, from

어떤 나라가 온전히 받아서 아시아 선교의 주역이 될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일본은 안 되고 중국도 안 되고, 인도나 필리핀도 안 되고 한국이 그 선방에 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비단 저뿐 아니라 미국의 선교사들과 학계에서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사명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흉년을 미리 내다보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수산 궁의 장관으로 세우시고 에스더를 왕후로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자유롭고 복된 나라에서 살게 해주신 것은 우리만 잘살라는 뜻이 아니라 30억 불신자들의 소리, 마게도냐에서 부르는 소리에 응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나는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모세는 순종해서 결단을 내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냈습니다. 오늘도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30억 명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주신 지상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철저한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내 자아와 의식을 깨고, 내 돈주머니를 깨서 복음의 나팔을 땅 끝까지 불며 앞으로 전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ermany to England, from England to America, now it is the time to move from America to Asia. Thus when I think about a nation that would play the central role of missions in Asia, I think that our Korea, not Japan, not China, not India, not Philippines, but Korea should play that role. It is not just my wishful thinking. American missionaries and scholars in academics also agree with it. In this situation, we have to accept the duty for missions.

When God sent Joseph to Egypt, he foreknew the famine to occur among the Israelites. The reason God allowed Nehemiah to be the minister in the palace of Susa, Esther to be a queen was to save the nation of Israel from destruction. In the same way, I believe that the reason God allowed us to live in this free and rich country was not because we would live a comfortable life by ourselves, but to hear the voice from Macedonia, the voice of 3 billion non-Christians, and respond to their call.

Moses heard God's voice in the wilderness. He heard of the moaning of the Israelites in Egypt. Moses obeyed and made a decision and had led the people of Israel out of Egypt. You can still hear the voice of 3 billion people, asking us to save them. May the Lord bless you to be the saints of God as you march on blowing the horn of the gospel by opening your checkbook, by breaking yourself and your stereotype by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by being equipped with the strong sense of calling for our age, so that we can carry out the Great Commission that Jesus left for us as he ascended to heaven.

저자 **임동선** 목사

▶ 약력

서울 신학대학교 졸업, 숭실대학교 철학과 졸업
미국 북침례교신학교 신학석사, 미국 공군 군목학교 졸업
한국 공군 군목(대령, 초대 군종감),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
가주 신학대학교 철학박사, L.A. 동양선교교회 창립(1970. 7. 27)
아시아 선교센터 이사장(1979), 남가주 한인교회 협의회 이사장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 세계 선교대회 부회장
제2차 한인세계선교대회 대회장(1992. 7)
동양선교교회(초교파 교회) 담임목사 23년
현 동양선교교회 원로목사
현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미주 한인교회 창립 100주년 감사 대축제 대회장(2003. 11. 9)

▶ 저서

《땀은 흘러도 기쁨은 샘물처럼》(목회 간증집),
《심는 대로 거두리라》, 《절망의 극복》, 《스스로 개척하라》
《새 계명의 사랑》(세 번째 설교집),《환난날의 신앙》(네 번째 설교집)
《경주자의 인생》(다섯 번째 설교집), 《회고와 전망》(절기 설교 모음집)
《에덴동산에 왜 선악과가 있었을까》(교리설교)
《지구촌은 나의 목장이다》(삶과 신앙 이야기)

▶ 수상

공군참모총장상
국방장관상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교육 공로)
숭실인 추양 목회대상
로스앤젤레스 모범 시민상(탐 브래들리 시장)
역사를 빛낸 인물상(한인역사박물관 2007년)

역자 **유기철** 목사

▶ 약력

1967년 8월 7일 부산 출생
1986년 미국 이민
1992년 미시건 주 칼빈 대학교 졸업, 철학 전공
1997년 미시건 주 칼빈 신학대학원 졸업(M.Div–신학석사)
1999년 미시건 주 칼빈 신학대학원 졸업(Th. M–신약 전공)
1999~2003년 제일 알렌데일 교회(미국인교회, 미시건) 목회
1999~2005년 미국 기독교 개혁교단 총회 7년간 동시통역
2003~2006년 제 7 개혁교회(미국인교회, 미시건) 목회
2006~2007년 프랑스 파리 퐁네프 한인장로교회 협동목사
현재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성경상담학 박사 과정 중,
2007년 9월 이후 고신대학 기독교 교육학 교수 및 영어 채플 담당 목사